

#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창간호



2018

#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창간호

2018





#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창간호

## 기획논문 |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 007      분청사기의 변천과 지역성  
Development of Buncheong Decoration Techniques and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박경자 Park Kyungja
- 025      중부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the Central Region  
심지연 Shim Jiyeon
- 063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특징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Chungcheong-do Province  
박형순 Park Hyeongsoon
- 091      전라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Jeolla-do Province  
권소현 Kwon Sohyun
- 125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Gyeongsang-do Province  
성현주 Seong Hyeonju
- 189      북한지역 분청자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North Korea  
박정민 Park Jungmin
- 207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발간규정  
Publishing Regulations



## 창 간 사

이 학술지가 발간되는 날은 국립광주박물관이 개관 4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신안해저문화재의 보관·전시를 위해 건립된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 40년 간 소장품의 확충은 물론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며, 그에 걸맞는 다양한 연구·전시·교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개관 40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국립광주박물관만의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을 넘어, 국민과 세계인과 함께하고 세계 유수(有數)의 박물관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이를 위해 2018년 벽두부터 국립광주박물관은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뉴스레터 <아시아 도자문화> 발행, 베트남 도요지 지하물리탐사, 분청사기 요지 관련 학술대회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傾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간한 학술지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도 그것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술지는 국내외의 도자사는 물론 연관 분야 연구 성과들이 공유되는 광장이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샘솟는 원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의 원로에서부터 이제 막 도자사를 연구하고자 마음먹은 분들까지 관심을 나누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당찬 포부와 달리, 실제 창간 준비 과정은 미숙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생각을 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호, 3호 거듭될수록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비판일 것입니다.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창간호는 지난 10월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렸던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6편을 모아 특집호로 꾸민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학술지에 선뜻 옥고(玉稿)를 재투고해주신 여섯 분의 필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6.  
국립광주박물관장 김승희



# 분청사기의 변천과 지역성

박경자\*

I. 머리말

II. 분청사기의 변천

III. 분청사기의 지역성

IV. 맷음말

---

\*문화재청

# 분청사기의 변천과 지역성

박경자  
문화재청

## I. 머리말

분청사기는 청자와 동일한 계통의 태토로 형태를 만들고 표면에 백토(白土)를 분장(粉粧)한 자기로<sup>1</sup> ‘청자와 백자를 합친 것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sup>2</sup> 분장방식에는 바르기와 담그기가 있고 완성단계에서 분장이 시각화되는 양상에 따라 상감기법과 박지기법의 시문과정단계(施紋過程段階), 조화기법과 철화기법의 바탕형성단계[地形成段階], 귀얄기법과 덤벙기법의 표면백색화단계(表面白色化段階)의 분장으로 구분된다.<sup>3</sup> 분장의 시각화 양상은 분청사기의 양식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15세기 조선 분청사기의 변천과정과 일치한다. 문양장식의 중간과정, 문양의 배경이 되는 바탕형성, 표면백색화 등 분장의 단계별 시각화는 문양장식이 없이 기면 전체에 백토만을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분청사기의 표면백색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자에서 태동하여 백자의 영향으로 소멸하기까지 분청사기에 나타난 분장의 표면백색화과정

1 ‘분청사기’라는 용어는 又玄 高裕燮(1905~1944년) 선생이 흰색의 분장토를 입힌 회청색의 사기라는 의미로 1941년에 ‘분장회청사기(分粧灰青砂器)’라고 처음 명명한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1950~1960년대에 국립박물관과 한국도자사학자들이 ‘분청자기(分青磁器)’ 또는 ‘분청사기(分青砂器·粉青沙器)’로 줄여서 사용하였고 이후 ‘분청사기(粉青沙器)’, ‘분청자(粉青瓷)’가 사용되고 있다. 高裕燮, 「高麗陶瓈와 李朝陶瓷」, 『朝光』72號(朝鮮日報社, 1941. 10) ; 國立博物館, 『海外展示考古美術展覽會』(1957) ; 國立博物館, 『정부수립 10주년기념 고미술전시회목록』(1958) ; 崔淳雨, 「李朝 初期의 在銘磁器 二例」, 『美術資料』第1號(國立博物館, 1960) ; 崔淳雨, 「溫寧君墓出土의 粉青砂器」, 『美術資料』第6號(國立博物館, 1962) ; 姜敬淑, 「李朝粉青沙器의 研究」(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63) ; 姜敬淑, 「李朝粉青沙器의 研究」, 「梨大史苑」第5輯(梨大梨大會, 1964) ; 鄭良謨, 「貞昭公主墓出土 粉青砂器草花文四耳壺」, 「考古美術」第5卷 第六·七號(考古美術同人會, 1964) ; 鄭良謨, 「粉青沙器 印花文대접 試考」, 『歷史學報』27號(歷史學會, 1965) ; 尹龍二, 「韓國陶瓷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2 김재열, 「粉青沙器 小考」, 『粉青沙器名品展』(湖巖美術館, 1993), pp. 141~145.

3 朴敬子, 「朝鮮 粉粧粉青沙器의 變遷과 特徵」, 「東北亞 粉粧粉青沙器의 變遷과 高興 雲岱里 粉粧粉青沙器의 意味」(第3回 高興 雲岱里 粉青沙器 國際學術大會, 2017), pp. 1~20 ; 박경자, 「분장(粉粧), 백자에 스며들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2017), pp. 206~213.

과 시문방식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고찰은 ‘규격화된 단정한 맛’, ‘정결한 질서와 통일’, ‘대범하고 활달한 신선함’, ‘회화적인 구성과 자유분방함’, ‘강렬한 추상성’<sup>4</sup> 등 분청사기에 대한 상반된 의미의 미학적 평가를 구체화하는 의의가 있다.

## II. 분청사기의 변천

분청사기는 고려 말 상감청자(象嵌青磁)의 양식이 점진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고<sup>5</sup> 조선 초인 1410년대에 기면(器面) 전체를 빼곡하게 채운 인화상감화문(印花象嵌花紋)이<sup>6</sup> 주문 양으로 장식되어 양식적으로 상감청자에서 분화되었다.<sup>7</sup> 이후 규격화된 인화문은 세종연간(재위 1418~1450년)에 전국의 자기소(磁器所)에서 생산된 공납용(貢納用) 분청사기의 공통양식으로 정형화되었다. 그러나 1440년대에 내용(內用)과 국용(國用) 백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1460년대에 그 생산체제가 공납요(貢納窯)에서 관요(官窯) 체제로 전환되자 분청사기에는 인화문의 쇠퇴와 함께 지역별로 시문기법을 달리하는 지역성이 표출되었다.<sup>8</sup> 이후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자 분청사기는 문양장식이 없이 백토만을 분장하여 백색화(白色化)가 진행되었고 16세기 초에 소멸하였다.<sup>9</sup> 이러한 분청사기의 변천 과정은 모든 기종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변화이지만 생산양이 많은 대접(발)과 접시에 전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또 완성 단계에서 분장이 드러나는 분장의 시각화는 기면이 넓은 기종인 병, 편병, 장군, 호 등의 대형 기종에서 더욱 뚜렷하다.

- 
- 4 姜敬淑, 앞의 책(一志社, 1986) ; 鄭良謨, 「粉青沙器를 어떻게 볼 것인가」, 『粉青沙器名品展』(湖巖美術館, 1993) ; 김재열, 「粉青沙器 小考」, 『粉青沙器名品展』(湖巖美術館, 1993) ; 국립중앙박물관, 「계룡산분청사기」테마전 ‘계룡산 분청사기’ 도록(2007) ; 국립전주박물관,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2016).
- 5 姜敬淑, 앞의 글(1963) ; 姜敬淑, 앞의 글(1964) ; 姜敬淑, 「粉青沙器研究」(一志社, 1986) ; 姜敬淑,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 강경숙, 「분청사기의 특징과 변천」, 『粉青沙器名品展－自然으로의 歸鄉－하늘·땅·물』(호림박물관, 2004) ; 강경숙, 「한국도자사」(예경, 2012).
- 6 꽃모양을 도장[印]으로 만들어서 찍고 백토를 감입한 ‘인화문(印花紋)’은 분청사기의 문양장식에서는 인화상감기법 화문(印花象嵌技法花紋)이다. 분청사기에는 화문(花紋) 외에 여러 종류의 인문(印紋)이 있기 때문에 인화문은 도장으로 찍은 다양한 문양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인화기법은 시문기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인화문(印花紋)을 도장으로 찍고 백토를 감입한 국화꽃 형태의 꽃문양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인화상감기법에 대해서는 高裕燮, 앞의 글(조선일보사, 1941. 10) [‘고려도자와 조선도자」, 『朝鮮美術史 下 各論篇』又玄 高裕燮 全集2(悅話堂, 2007 재수록), pp. 375~376] ; 구유리, 「조선전기 인화상감자기(印花象嵌瓷器)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 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참고.
- 7 박경자, 「공납용 분청사기의 통일된 양식과 제작배경」, 『美術史論壇』27(韓國美術研究所, 2008) ; 박경자, 「조선 초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계통과 의의」, 『美術史學』27호(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3).
- 8 姜敬淑, 위의 책(一志社, 1986), pp. 14~15 ; 朴敬子, 「각(刻)과 화(畫), 분청사기의 진면목」, 『陶藝研究』제23호(이화 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2014), pp. 10~21.
- 9 姜敬淑, 「分院成立 時期에 관한 小考」, 『焦雨 黃壽永博士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통문관, 1988).

## 1. 상감청자에서 분청사기로 : 1410년대

간지명상감청자(干支銘象嵌青磁, 1329~1389년)를<sup>10</sup> 모본(模本)으로 삼아 제작된 14세기 상감청자는 두 가지 이상의 문양이 조합된 연화당초문(蓮花唐草紋), 유로수금문(柳蘆水禽紋), 운학문(雲鶴紋), 화훼조충문(花卉鳥蟲紋)을 선상감기법과 인화상감기법을<sup>11</sup> 혼용하여 흑백상감(黑白象嵌)으로 표현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고려 말 상감청자의 양식은 연화당초문의 당초넝쿨이 인화문으로 대체되고<sup>12</sup> 운학문의 구름이 우점(雨點), 삼원(三圓), 육원(六圓)으로 변형되거나 유로수금문의 갈대가 생략되고 버드나무와 물오리(水禽)가 단독문양으로 시문되는 등의 쇠퇴과정을 거쳐 1410년대에 전국에서 제작된 사선(司膳)명청자단계까지 지속되었다.<sup>13</sup> 전국의 가마터(窯址)에서 확인된 사선(司膳)명청자는<sup>14</sup> 안쪽 바닥면(內底面)의 태토가 드러나 여백이 많고 색상이 어두우며 주문양의 시문기법이 선상감에서 인화상감기법으로 변하였다. 이 점은 특히 가마터에서 사선(司膳)명청자와 함께 출토된 대접의 국화문, 구갑문, 삼원문, 육원문 등의 다양한 인화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5</sup>〈표1〉 그러나 사선(司膳)명청자와 연속하여 제작된 경승부(敬丞府)명분청사기단계에서는 백색의 인화상감화문으로 내외면 전체를 빼곡하게 채워 문양의 밀도(密度)에서 사선(司膳)명청자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의 가장 이른 단계 공납자기인 사선(司膳)명청자와 경승부(敬丞府)명분청사기가 함께 출토된 경남 합천 장대리 요지에서는 대접의 주문양 대 시문기법이 상감기법, 성긴 단독인화문, 집단연권인화문의 비율로 나타났고 이를 기법이 상감기법, 단독인화기법, 집단연권인화기법 순서로 전개되었음이 확인되었다.<sup>16</sup> 이는 사선(司膳)명청자와 경승부(敬丞府)명분청사기(1402~1418년)가<sup>17</sup> 제작된 1410년대에 고려 말부터 이어

10 1389년 추정 己巳명청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2013), p. 68, p. 91.

11 高裕燮은 「분장(粉粧)」을 바탕으로 한 분청사기의 양식이 고려 말 상감청자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분청사기의 인화기법이 고려 말 상감청자의 인화상감기법(印花象嵌技法)을 계승한 것임을 파악하였다. 高裕燮, 「高麗陶瓷와 李朝陶瓷」, 『朝光』72호(조선일보사, 1941. 10).

12 姜敬淑, 「蓮唐草文 變遷과 印花文 發生 試考—廣州陶水里 粉青沙器 窯址 대접파편을 中心으로」, 『梨大史苑』20輯(梨大史學會, 1983), pp. 1~30.

13 司膳명청자의 제작지 분포현황은 박경자, 「15세기 全羅道 羅州牧의 磁器貢納」, 「湖南 磁器所 · 陶器所 羅州牧」(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pp. 17~18 참고. 司膳명청자의 성격과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朴敬子, 「14세기 康津 磁器所의 해체와 요업체제의 二元化」, 『美術史學研究』238 · 239(한국미술사학회, 2003) ; 박경자, 「상주 상판리 자기마와 『世宗實錄』地理志 上品 磁器所」, 「상주 상판리유적의 도자사적 의의」(상주박물관, 2017) ; 김윤정, 「高麗末 干支銘青瓷의 제작 배경과 수취 체계 연구」, 『美術史學研究』275 · 276(한국미술사학회, 2012) ; 김윤정, 「고려 말 · 조선초 供上用 銘文青瓷의 이행 과정과 제작 배경」, 『石堂論叢』제55집(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3.3) 참고.

14 조선시대 초기의 〈분청사기상감연화당초문恭安명대접〉(1400~1420년, 호림박물관 소장)과 같은 자기를 고려시대 후기의 상감청자 양식을 계승한 상감청자의 범주에 포함시킨 견해가 있다. 崔健, 「干支銘青磁의 製作時期와 製作窯」, 『高麗青磁, 康津으로의 韓鄉—銘文 · 符號 特別展』(강진청자박물관, 2000), p. 87.

15 (財)嶺南文化財研究院, 「漆谷 鶴下里 分청사기요지 I · II · III」(2009) ; (財)東西文物研究院 · 陝川郡, 「陝川 將臺里 陶窯址」(2012) ;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김해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2018).

16 (財)東西文物研究院 · 陝川郡, 위의 책, pp. 406~408.

17 『太宗實錄』卷3, 太宗 2年 4月 28日 庚辰, “置元子府, 號敬承.”

『太宗實錄』卷8, 太宗 4年 8月 6日 乙亥, “置敬承府司尹少尹判官丞注簿各一. 世子府也.”

『太宗實錄』卷35, 太宗 18年 6月 6日 乙酉, “改敬承府爲順承府, 屬于世子殿.”

진 상감청자에서 인화분청사기로의 양식적인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2〉 이와 함께 제작방식에서는 상감청자의 문양부위에만 한정하여 흑토(자토)와 백토를 감입하는 방식에서 인화분청사기의 화문(花紋)을 빼곡하게 인각(印刻)한 후 백토를 기면 전체에 분장(粉粧)하여 감입하는 변화를 수반하였다. 인화상감기법의 분장은 시문의 중간과정으로 태토면 위의 분장층이 제거되기 때문에 완성단계에서는 분장이 시각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시문방식은 문양부위에 한정된 백토감입으로 태토의 어두운 색상이 드러난 고려 말 상감청자와 달리 기면 전체로 확장된 백토분장이 밀도가 높은 인화문을 통해 감입토의 백색을 시각화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표 1. 사선(司膳)명청자 대접의 시문기법과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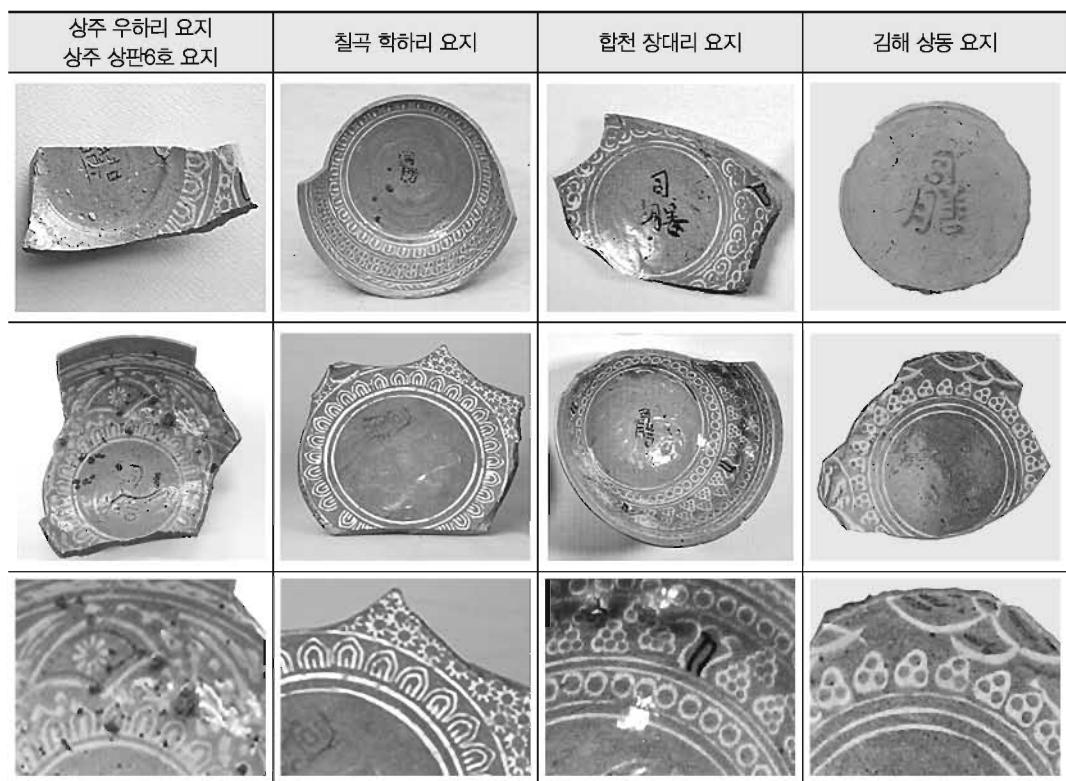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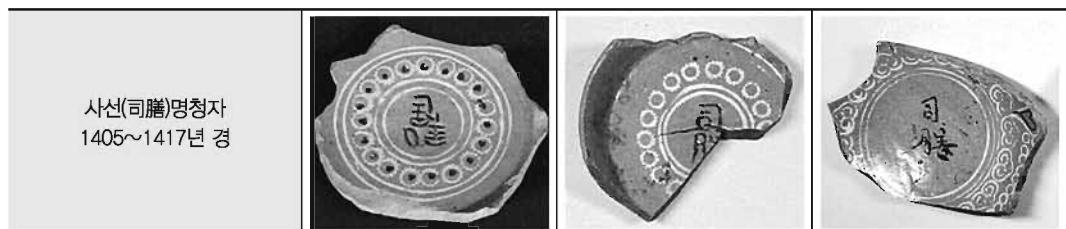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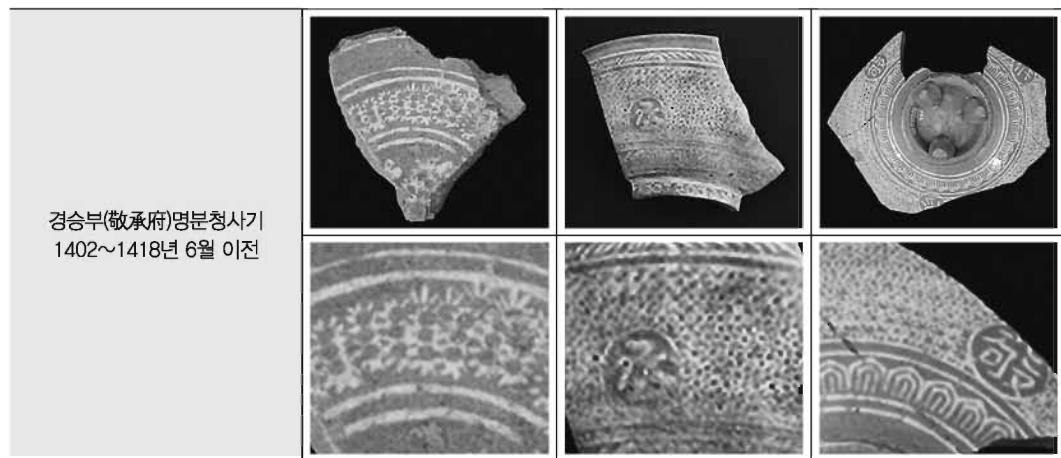


표 2. 경남 합천 장대리 요지 출토 사선(司膳)명청자 · 경승부(敬承府)명분청사기





## 2. 인화, 관양(官樣)으로 피어나다 : 1420~1450년대

태종-세종연간(1400~1450년)에 국용자기(國用磁器)로 경중각사(京中各司)가 사용한 분청사기, 청자, 백자는<sup>18</sup> 외방군현(外方郡縣)의 자기소(磁器所)에서 사기장인호(沙器匠人戶)가 공물(貢物)로 생산하여 중앙으로 상납하였다.<sup>19</sup> 이들 자기는 당대의 문헌에 자기(瓷器·磁器), 사기(沙器·砂器), 백자(白磁·白磁器)로 기록되었고<sup>20</sup> 분청사기는 백자와 청자에 비해 제작양이 많고 제작지역이 전국적이었다. 공납용 분청사기는 제작지역과 사용처에 상관없이 기종(器種), 기형(器形), 문양, 시문기법 등이 동일하게 제작되었으며 특히 규격화된 문양구도에 백상감인화문을 빼곡하게 채운 공통점이 있다.〈표3〉 이와 같이 정형화된 양식은 태종 14년(1414) 11월에 외방군현에서 공물(貢物)로 상납할 각종 수공업제품을 제작할 때에 견본인 견양(見樣)에 의거하도록 한 조치<sup>21</sup> 와<sup>22</sup> 태종 17년(1417) 4월에 공납자기에 사용처인 관사의 이름[司號] 세 글자[三字]를 표기하도록 한 조치의 결과이다.<sup>22</sup> 이는 사선(司膳)명청자단계에서 경승부(敬承府)명분청사기단계로의 양식분

18 15세기에 공납용 청자, 백자를 생산한 가마터는 (財)民族文化遺產研究院·靈巖郡, 「靈巖 上月里 發掘調查 報告書」(2016); (財)湖南文化財研究院, 「高敞 龍山里 窯址」(2004) 참고. 조선 초 공납용 백자제작에 관하여는 박정민, 「麗末鮮初 陽口 方山가마와 관사명 공납백자」, 「양구 방산백자 600년의 빛」(방산자기박물관, 2007); 박정민, 「명문백자로 본 15세기 양구지역 요업의 성격」, 「講座美術史」32(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9) 참고.

19 박경자, 「粉青沙器 銘文 연구」, 「講座美術史」25(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5); 박경자, 「15세기 貢物의 운송방법과 분청사기 銘文의 지역별 특징」, 「湖西史學」제47집(호서사학회, 2007); 박경자, 「15세기 김해도호부의 공납자기 생산과 운송」, 「김해」(국립김해박물관,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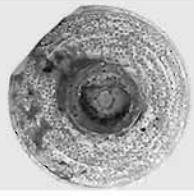
20 「太宗實錄」卷13, 太宗 7年 1月 19日 甲戌; 「世宗實錄」卷21, 世宗 5年 8月 28日 丙子; 「世宗實錄」卷27, 世宗 7年 1月 24日 甲子; 「世宗實錄」卷27, 世宗 7年 2月 15日 乙卯; 「世宗實錄」卷116, 世宗 29年 6月 3日 甲子.

21 박경자, 「공납용 분청사기의 통일된 양식과 제작배경」, 「美術史論壇」 제27호(韓國美術史研究所, 2008); 박경자, 「조선초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계통과 의의」, 「美術史學」27(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3).

22 「太宗實錄」卷28, 太宗 14年 11月 4日 癸卯, “上又曰, 今冬至各道所進鐵甲, 尚用皮編貫, 實爲不當, 自後方物亦從 見樣進.” 「太宗實錄」卷33, 太宗 17年 4月 丙子, “戶曹又啓, 長興庫貢案付砂木器, 今後刻長興庫三字, 其他各司所納, 亦依長興庫例, 各刻司號, 造作上納, (중략) 皆從之.”

화가 경승부의 하한 시기인 1418년 6월 이전에 이루어진 점과 지금까지 알려진 경승부(敬承府)명 분청사기의 문양이 모두 밀도가 높은 백상감인화문인 점,<sup>23</sup> 공납자기에 관사의 이름 석 자를 표기하도록 한 태종 17년의 조치에 부합하는 동일한 양식의 공납자기로 1417년 8월~1418년 6월 사이에 제작된 경승부(敬承府), 장흥고(長興庫), 인수부(仁壽府)명 분청사기가 합천 장대리 요지에서 출토되었고 이들 공납용 자기의 명문표기와 양식이 사선(司膳)명청자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4〉 이와 같이 1417년 4월에서 1418년 6월 사이에 정형화된 공납용 분청사기의 양식은 이후 1450년대까지 경승부(敬承府)명분청사기에서 처음 등장한 집단연권형인화상감화문(集團連卷形印花象嵌花紋)<sup>24</sup>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제작시기가 특정기간으로 한정된 능성(綾城)명(1418년 7월 이후)·인수부(仁壽府)명(1418년 8월~1455년 윤6월)·곤남군(昆南郡)명(1419년 3월~1437년 7월)·무진(茂珍)명(1430년 3월~1451년 6월)·덕녕부(德寧府)명(1455년 윤6~1457년 6월)·순흥(順興)명(1457년 8월 이전) 분청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25</sup>〈표5〉

표 3. 경승부(敬承府)명 분청사기 : 1402년 5월~1418년 6월

서울 청진1지구 유적 출토, 서울역사박물관 입지름 14.9cm	김천 교동유적 출토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호림박물관 입지름 14.5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입지름 11.0cm
			
			
			

23 「太宗實錄」卷35, 太宗 18年 6月 6日 乙酉, “改敬承府爲順承府, 屬于世子殿。”

24 한 종류의 문양 2~5개 내외를 하나의 도장(印)으로 만들어서 찍는 시문기법.

25 박경자, 「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研究」(충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8); 박경자, 「慶尙道 郡縣名 粉青沙器의 제작시기」, 「기장도자기 제조명 국제학술대회」(기장문화원·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2016).

표 4. 경남 합천 짐대리 요지 출토 자기의 명문(銘文)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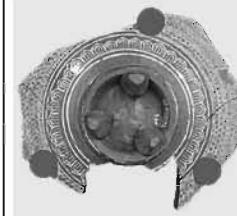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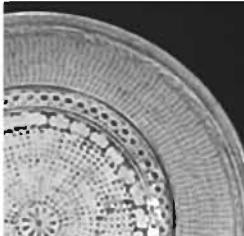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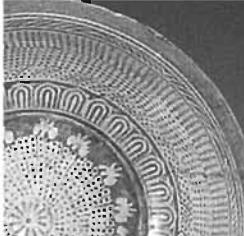
사선(司膳)명 대접 1417년 4월 이전	장흥고(長興庫)명 접시 1417년 4월 이후	경승부(敬承府)명 대접 1418년 6월 이전	인수부(仁壽府)명 접시 1418년 8월 이후
			

표 5. 공남옹 분청사기 : 1418~1457년

능성내자 (綾城內子(資))명 대접 입지름 17.6cm 1418년 7월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금산인수부납 (金山仁壽府納)명 대접 입지름 19.2cm 1418년 8월~ 1455년 윤6월 호림박물관			
곤남군장흥고집용 (昆南郡長興庫執用)명 대접 입지름 19.7cm 1419년 3월~ 1437년 7월 호림박물관			
순흥장흥고납 (順興長興庫納)명 대접 입지름 18.4cm 1457년 8월 이전 국립청주박물관			

무진내섬(茂珍內膽) 명접시 입지름 13.8cm 1430년 3월~ 1451년 6월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덕녕(德寧)명접시 입지름 17.7cm 1455년 윤6~ 1457년 6월 개인소장			

이상의 공납자기 제작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 중 1414년에 공물제작에 견양을 사용하게 한 조치가 왕명(王命)이었고, 1417년에 공납자기에 관사의 이름을 표기하게 한 조치가 공부수취(貢賦收取)를 주관하는 호조(戶曹)의 전의로 이루어졌으며, 1417년에서부터 1450년대까지 각 도(道) 군 현의 자기소(磁器所)에서는 두 가지 조치에 부합하는 공납자기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공물의 사용처이자 수납처인 관사명(官司名)과 제작지역이자 상납주체인 군현명(郡縣名)이 표기된 규격화된 인화문분청사기의 양식은 15세기 전반에 공납제(貢納制)를 기반으로 제작된 국용자기의 관양(官樣)이라 할 수 있다.

### 3. 조화와 철화, 개성을 드러낸다 : 1460~1470년대

국용자기의 관양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인화문분청사기는 1440년대에 그 위상이 커지고 생산양이 증가한 백자의 영향으로 시문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백자는 1430년대에 어기(御器)로 사용되었고 1446년에는 왕실의 혼전(魂殿)인 문소전과 휘덕전의 제기로, 1455년에는 중궁전의 주방(酒房)에서 사용되어 그 위상이 궁궐 내에서 소용되는 내용자기(內用磁器)로 확대되었다.<sup>26</sup> 이는 1440년대에 경상도 고령현(高靈縣)에서 공물(貢物)로 백자를 제작하여 상납한 점,<sup>27</sup> 광주광역시 충효동 요지(窯址) 퇴적층에서 1450년대에 백자제작이 시

26 『世宗實錄』卷116, 29年 6月 3日 甲子, “傳旨禮曹, 文昭 輝德殿所用銀器, 自今代以白磁器。”

『世祖實錄』卷1, 1年 閏 6月 19日 癸亥, “工曹請造中宮酒房金盞, 命以磁器代之, 東宮亦用磁器。”

세종이 어기로 사용한 백자에 대해서는 박경자, 앞의 논문(충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8), pp. 69~89 참고.

27 (財)大東文化財研究院, 『高靈 沙免里窯址』(2012), pp. 151~159.

작된 점,<sup>28</sup> 내용(內用)과 국용(國用) 백자제작을 전담한 관요(官窯)의 설치가 1469년에 완료된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인화문분청사기는 대접과 접시에서 문양대가 좁아지고 여백이 넓어졌으며 인화문 위에 얇게 분장한 백토를 긁어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부산 기장 상장과 광주(光州) 충효동 요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와 백자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sup>29</sup> 기장 상장안 요지에서 출토된 울산인수부(蔚山仁壽府, 1457년 6월~1464년 2월)명 분청사기는 인화문 위에 얇게 분장한 백토를 제대로 긁어내지 않아 문양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현상이 뚜렷하여 인화문분청사기의 양식변화를 보여준다.<sup>30</sup> 광주 충효동 요지에서는 무진(茂珍)명분청사기(1430년 3월~1451년 6월) 다음 단계인 W2지역 6층·7~9층에서 광(光)명분청사기(1451년 6월~1488년 7월), 정윤이(丁潤二)·광(光)명분청사기와 백자(1477년),<sup>31</sup> 조화기법분청사기, 문양장식이 없는 귀얄분장분청사기가 출토되어 인화문분청사기의 쇠퇴양상과 백자제작으로 이행한 과정이 확인되었다.<표6>

충효동 요지 W2지역 6층·7~9층 출토 조화기법분청사기는 분장의 시각화 양상에서 인화기법 분청사기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조화기법은 기면 전체에 백토를 분장한 후 분장 층에 음각기법으로 문양을 새기는 것으로 분장이 문양의 바탕을 형성한다. 조화기법분청사기의 분장은 완성단계에서 백토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표면백색화가 뚜렷하다. 이처럼 분장이 전면적으로 시각화되는 현상은 분장층 위에 철사안료로 문양을 그린 철화기법분청사기에서도 동일하다. 두 기법은 조화기법이 문양을 분장층에 선각(線刻)으로 새기고 철화기법이 분장층 위에 필획(筆劃)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접과 접시 외에 병, 편병, 장군, 호 등 표면이 넓은 대형기종에 적용된 공통점이 있다. 이들 대형기종은 바탕면적이 넓어 백토분장 효과가 뚜렷하고 문양을 자유롭게 표현하기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반면 인화분청사기는 동일한 형태의 국화형 꽃, 여의두, 나비, 승립(繩簾) 등이 반복적으로 시문되는데 이는 문양을 도장[印]으로 제작하여 찍는 인화기법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시문기법의 차이는 문양의 종류와 시문양상의 차이로 귀결되었고 정형화된 인화분청사기와는 달리 조화기법과 철화기법의 시문과정에서 다양한 변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표7><sup>32</sup>

28 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993), pp. 146~158.

29 박경자, 「부산지역 분청사기의 특징과 의의」, 「釜山 도자기 천년의 지혜를 담다」(부산박물관, 2014), pp. 240~255.

30 「世祖實錄」卷1, 世祖 1年 閏 6月 12日 丙辰, “改仁壽府爲德寧府, 掌魯山供上諸事。”

「世祖實錄」卷8, 世祖 3年 6月 25日 丁巳, “吏曹啓, 德寧府復稱仁壽府, 請革加設兼少尹一員, 從之。”

「世祖實錄」卷32, 世祖 10年 2月 30日 癸丑, “吏曹啓, 仁壽府旣革, 其官吏各以職品移於軍資監, 從之。”

31 金英媛, 「朝鮮朝 印花粉青의 編年的 考察—光州 金谷里窯出土品을 中心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0); 金英媛, 「I. 광주 무등산 충효동 요지」,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32 <표7>은 국립중앙박물관, 「光州 忠孝洞窯址-粉青沙器·白磁가마 퇴적층 조사」(1992); 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993);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분청사기」(2013); (財)湖南文化財研究院, 「高敞龍山里窯址」(2004); 국립중앙박물관, 「계룡산 도자기」(2007); 국립중앙박물관, 「계룡산 분청사기」(2007); 국립공주박물관, 「鷄龍山 粉青沙器」(2007); 국립전주박물관,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2016)에서 인용.

표 6. 인화문분청사기 · 귀얄분장분청사기 . 백자 : 1460~14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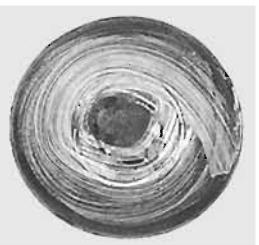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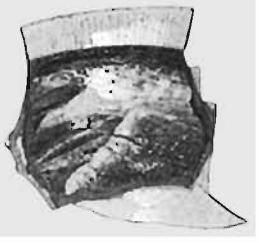
을산인수부(蔚山仁壽府)명 분청사기(1457~1464년) 귀얄분장분청사기+백자 부산 기장 상장안 요지	정윤이(丁潤二) · 광(光)명 분청사기/백자(1477년) 광주 충효동 요지
 	 
 	 

표 7. 조화기법 · 철화기법 분청사기

문양 기법	연꽃	물고기	모란잎	파초
조화 전라도				
철화 충청도				

#### 4. 분장, 백자에 스미다 : 1480~1500년경

분청사기의 가장 큰 특징인 분장은 태토 위에 백토를 입히는 것이다. 분장방식은 식물의 줄기나 동물의 털로 만든 봇,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백토를 바르는 귀얄기법과 백토를 물에 풀고 그릇을 담그는 덤벙기법이 있다. 귀얄과 덤벙분장은 기면 전체 또는 일부에 백토분장(白土粉粧)만을 하고

일체의 문양을 장식하지 않는 점에서 시문기법(施紋技法)인 상감(線·印), 조화, 철화기법의 중간 과정 분장과 구분된다. 특히 어두운 색상의 태토를 감추고 백자(白磁)처럼 보이게 하는 전면 덤벙 분장의 시각효과는 분장분청사기가 제작된 중심시기가 백자의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 한다. 그러나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한 시기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덤벙분장 분청사기의 제작지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분장분청사기의 제작시기는 경질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가장 늦은 단계의 시기로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 충효동 요지 층위 중 정윤이(丁潤二)명분청사기(1477년)가 출토된 W2지역 6층과 성화십(成化十)명분청사기(1483년 이전)가 출토된 W2지역 2층에서는 귀얄분장 분청사기에서 경질백자 제작으로 이행한 현상이 파악되었다. 충남 공주 학봉리 요지와 전남 보성 도촌리 요지에서는 귀얄분장과 덤벙분장을 바탕으로 제작한 철화분청사기가 예빈(禮貧)명분청사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공주 학봉리 요지에서 철화분청사기와 예빈(禮貧)명분청사기가 제작된 배경과 시기는 1466년 이후 세조(世祖)가 백자의 제작과 공적인 용도의 사용 일체를 규제하고, 각 지역에 왕래하는 사신(使臣) 접대에 소용되는 기물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도록 한 조치를 근거로 1470년을 전후한 시기로 제시된 바 있다.<sup>33</sup> 또 예빈(禮貧)명분청사기, 덤벙분장을 바탕으로 한 철화분청사기, 전면 덤벙 분청사기를 제작한 보성 도촌리 요지의 요업이 백자제작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 울산인수부(蔚山仁壽府)명분청사기(1457~1464년)와 귀얄분장 분청사기를 함께 제작하였고 경질백자 생산 직후단계에 요업활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 상장안 요지의 운영시기가 15세기 3/4분기로 제시된 점을<sup>34</sup> 고려할 때 귀얄분장과 덤벙분장 분청사기가 본격적으로 제작된 늦은 단계 시기는 1480년대에서 1500년경으로 판단된다.

문양이 없이 백토만을 입힌 덤벙분장 분청사기의 부드러운 표면질감과 색상은 분청사기를 백자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전면 분장이 이루어졌을 때 극대화된다. 분장을 바탕으로 한 분청사기의 변천이 백색을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그 지향점이 백자(白磁)였음을 고려할 때 분청사기의 소멸시점은 분장분청사기에서 경질백자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1500년경 전후로 판단된다.

### III. 분청사기의 지역성

15세기 전반에 분청사기가 담당한 국용자기(國用磁器)로서의 역할은 1440년대부터 백자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인화기법 위주의 단일양식으로 제작된 분청사기에는 1460년대에

33 「世祖實錄」卷39, 世祖 12年 6月 7日 丙午 ; 安世眞, 「公州 鶴峰里 鐵畫粉青沙器 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6), p. 112.

34 박경자, 「부산지역 분청사기의 특징과 의의」, 「釜山 도자기 천년의 지혜를 담다」(부산박물관, 2014).

문양을 귀얄과 덤벙분장을 바탕으로 한 조화기법과 철화기법으로 장식하는 제작기법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전라도에서는 조화분청사기가, 충청도에서는 철화분청사기의 제작이 두드러져서<sup>35</sup> 인화상감분청사기와 달리 제작지역의 특징이 제작기법의 차이로 표출되었다.<sup>36</sup> 이는 전라도 광주와 고창, 충청도 공주지역에서 동일한 문양소재를 다른 기법으로 시문한 분청사기가 제작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7〉

전라도 광주 충효동과 고창 용산리, 충청도 공주 지역에서는 연지어문(蓮池魚紋)에서 분화된 연꽃과 물고기, 좌우대칭형 모란잎, 파초 등을 각각 조화기법과 철화기법으로 거의 동일하게 표현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문양소재를 칼로 각(刻)하고 붓으로 그린(畫) 시문도구와 안료사용의 차이는 제작자 또는 제작집단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5세기에 전국의 자기소에서 공납 용 분청사기를 제작한 장인집단은 10명에서 30명 내외의 사기장인호(沙器匠人戶)를 이루어 해당 지역의 지방관부에 관할아래 공납자기를 제작하였다.<sup>37</sup>

조선 전기에 공납(貢納)과 요역(徭役)으로 구성된 공부(貢賦)는 국가가 호(戶)를 단위로 부과하였고 자기는 사기장인호(沙器匠人戶)에 부과된 공물이었다.<sup>38</sup> 「세종실록(世宗實錄)」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지리지에 기재된 자기소(磁器所)는 사기장인호가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는 장소로 가마와 작업장이 위치한 곳이다. 군현(郡縣)의 공부수취 전 과정을 관장한 지방관(地方官)은 장적(匠籍)을 기반으로 장인호(匠人戶)에 공물을 분정, 징수하여 중앙으로 상납하였다. 사기장인들은 공납제의 틀 안에서 공물을 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관부를 통해 제시한 견양(見樣)에 의해 경승부(敬承府) 명분청사기(1402~1418년) 단계에 정형화된 관양(官樣)에 맞추어 공납용 분청사기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공납자기의 제작체계는 인화문분청사기가 지역에 상관없이 단일양식으로 제작된 배경이며 지방관부의 관할 아래 호(戶)로 구성된 장인집단의 존재양태는 동시기에 동일한 양식의 분청사기를 다른 방식으로 제작하여 지역성이 표출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V. 맷음말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인 15세기 약 100년 동안 존재한 자기이다. 태토 위에 백토를 분장하는 제작방식은 비교적 짧은 존재기간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구분되는 다양한 양식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1410년대에는 정형화된 인화문이 공납자기의 관양(官樣)으로 정착되어 분청사기가 고려 말

35 박경자, 「조선 전기 공납용 백자제작에 따른 분청사기 양식변화」, 『美術史學』(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0).

36 철화분청사기는 전라도 고흥과 무안일대에서도 제작이 되었으나 본 글에서는 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박지·조화기법 분청사기와 동일한 문양소재를 철화기법으로 제작한 분청사기에 국한하였다.

37 박경자, 「朝鮮 15世紀 磁器所 研究」, 『美術史學研究』270(한국미술사학회, 2011).

38 『世宗實錄』卷32, 世宗 8年 4月 28日 辛卯, “申商陳言, 今有田則有租, 有身則有役, 有戶則有貢物, 已合古者租庸調之法, 又有戶米未便, 宜蠲減.”

상감청자에서 분화되었다. 분청사기의 분장은 시문과정단계, 바탕형성단계, 표면백색화단계의 변화를 거쳐 백토만을 입힌 전면분장으로 백자처럼 보이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경질백자의 생산이 본격화된 1500년경을 전후한 시기에 소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화문 분청사기는 1450년대까지 단일 양식으로 정밀하게 제작되어 분청사기의 양식적인 독자성을 형성하였다. 1460년대에 이루어진 공납요체제의 분청사기생산에서 관요체제의 백자생산으로의 국용자기 생산체제의 전환은 분청사기의 양식변화를 초래하였다. 인화문분청사기의 쇠퇴와 함께 1460~1470년대에는 시문방식, 도구, 제작지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양의 조화분청사기와 철화분청사기가 제작되었다. 이러한 제작기법의 지역별 차이는 지방군현의 관장 하에 공납자기를 생산한 장인집단이 호(戶)를 이루어 존재한데에 그 배경이 있다.

■ 투고일 2018. 11. 12. | 심사개시일 2018. 11. 16. | 게재 확정일 2018. 11. 20 ■

## 참고문헌

### 1차자료

『太宗實錄』

『世宗實錄』

### 단행본

姜敬淑 『粉青沙器研究』, 一志社, 1986.

\_\_\_\_\_, 『한국도자사』, 예경, 2012.

### 논문

姜敬淑 「分院成立 時期에 관한 小考」, 『焦雨 黃壽永博士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 통문관, 1988.

高裕燮, 「高麗陶瓷와 李朝陶瓷」, 『朝光』72號, 朝鮮日報社, 1941. 10.

김재열, 「粉青沙器 小考」, 「粉青沙器名品展」, 湖巖美術館, 1993.

羅相喆, 「15세기 剝地粉青沙器 研究」, 충북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朴敬子, 「공납용 분청사기의 통일된 양식과 제작배경」, 『美術史論壇』27, 韓國美術史研究所, 2008.

\_\_\_\_\_, 「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_\_\_\_\_, 「조선 초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계통과 의의」, 『美術史學』27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3.

\_\_\_\_\_, 「각(刻)과 화(畫), 분청사기의 진면목」, 『陶藝研究』제23호,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2014.

\_\_\_\_\_, 「부산지역 분청사기의 특징과 의의」, 『釜山 도자기 천년의 지혜를 담다』, 부산박물관, 2014.

\_\_\_\_\_, 「15세기 全羅道 羅州牧의 磁器貢納」, 『湖南 磁器所 · 陶器所 羅州牧』,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安世眞, 「公州 鶴峰里 鐵畫粉青沙器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6.

### 도록, 보고서

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金泉校洞遺蹟Ⅱ』, 2007.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2017.

國立公州博物館, 『鶴龍山 粉青沙器—백토에 핀 철화의 향연』, 2008.

國立光州博物館 · 광주직할시, 『무등산 총효동 가마터』, 1993.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분청사기』, 2013.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2018.

국립문화재연구소,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06.

국립전주박물관,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2016.

- 國立中央博物館, 「光州 忠孝洞窯址—粉青沙器·白磁가마 퇴적층 조사」, 1992.
- \_\_\_\_\_, 「계룡산 도자기」, 2007.
- 국립청주박물관, 「김연호 기증 문화재」, 2003.
- 호림박물관, 「粉青沙器名品展—自然으로의 彷彿—하늘·땅·물」, 2004.
- \_\_\_\_\_, 「호림박물관 명문도자 | 청자·분청사기」, 2016.
- 湖巖美術館, 「粉青沙器名品展」, 1993.
- \_\_\_\_\_, 「粉青沙器名品展 II」, 2001.
- (財)大東文化財研究院, 「高靈 星山 沙龜洞 陶窯址」, 2012.
- (財)東西文物研究院·陝川郡, 「陝川 將臺里陶窯址」, 2012.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漆谷 鶴下里 粉青沙器窯址 I·II·III」, 2009.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鐘路清進1地區遺蹟 II—유물」, 2011.

## 분청사기의 변천과 지역성

박경자

분청사기는 청자와 동일한 계통의胎土로 형태를 만들고 그 표면에 백토(白土)를 분장(粉粧)한 자기로 청자와 백자를 합친 것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분장을 바탕으로 한 제작방식은 약 100년의 짧은 존재기간에도 불구하고 분청사기의 다양한 양식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분장은 완성단계의 시각화 양상에 따라 시문과정단계(施紋過程段階), 바탕형성단계(地形成段階), 표면백색화단계(表面白色化段階)의 분장으로 구분된다. 분장의 단계별 변화는 문양이 없이 백토만을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15세기 조선 분청사기의 변천과정과 일치한다.

분청사기는 1410년대에 정형화된 인화문이 공납자기의 관양(官樣)으로 정착되어 고려 말 상감 청자와 양식적으로 분화되었고 이후 1450년대까지 정밀하게 제작되어 양식적인 독자성을 형성하였다. 1460년대에는 이루어진 분청사기생산의 공납요에서 백자생산의 관요로 국용자기생산체제의 전환은 분청사기의 급격한 양식변화를 초래하였다. 인화문분청사기의 쇠퇴와 함께 1460–1470년대에는 백토분장이 문양의 바탕을 형성한 조화와 절화분청사기가 시문방식, 도구, 안료의 사용, 제작지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양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제작기법의 지역별 차이는 지방군현의 관장 하에 공납자기를 생산한 장인집단이 호(戶)를 이루어 존재한데에 그 배경이 있으며 정형화된 제작규범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제작여건에서 제작자의 개성이 지역특징으로 표출되었다.

청자에서 태동하여 백자의 영향으로 소멸하기까지 분청사기에 나타난 분장의 시각화 양상과 시문기법의 차이로 표출된 지역성에 대한 고찰은 분청사기에 대한 상반된 의미의 미학적 평가를 구체화하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분장(粉粧), 인화문(印花文), 관양(官樣), 사기장인호(沙器匠人戶)

# Development of Buncheong Decoration Techniques and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Park Kyungja

Buncheong ceramics existed in the early part of Joseon Dynasty, in the 15th century, for about 100 years. The technique of decorating the clay body with white slip enabled the progression of various style finishes. In the 1410s, as certain stamped patterns settled down as an official standard for government use, buncheong ceramics replaced the inlaid celadon for taxation purpose. The white-slip decoration technique experienced transmutation from the early stamping method, which left the white slip in the negative engraved area only, into the decoration method without stamping on the white slip, and eventually to the white slip only method without any decoration that made it look like white porcelain. As the hard white-porcelain was produced at full-scale around the year 1500, manufacturing of buncheong ceramics mostly discontinued. In more detail, the stamped buncheong ceramics flourished into a unique artistic position in this progression until around the year 1450 as a unified style was developed in a sophisticated and elegant pattern. In the 1460s, as the production of buncheong-ceramics at taxation-purpose kilns was beginning to be challenged by white-porcelain production at government-run kilns, the transmutation of buncheong ceramics into the non-stamped, white-porcelain look-alike style was encouraged. Buncheong ware manufactured during 1460-1470 was covered with white clay without the pattern stamping, and the artistic patterns were either engraved with knife or iron-painted with brush even though the artistic patterns were common. Usage and development of the knife-engraving technique and the brush-painting technique were separated regionally because the artisans were registered and managed in regional groups by local governments.

Keywords : white slip(粉粧), stamped patterns(印花文), official standard for government(官樣), artisan groups(沙器匠人戶)

# 중부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심지연\*

I. 머리말

II. 경기도의 분청사기 가마터의 현황

III. 강원도의 분청사기 가마터의 현황

IV. 중부지역 분청사기의 성격

V. 맷음말

---

\*문화재청

# 중부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심지연  
문화재청

## I. 머리말

조선시대 가마터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이 글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를 중부지역으로 설정하고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된 중부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현황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부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 학자에 의해 조사된 것을 비롯하여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미술관, 매장문화재발굴기관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지표조사가 진행되었다.<sup>2</sup>

1 淺川伯教 編, 「李朝陶磁窯蹟一覽表」, 『世界陶磁全集』14 李朝(河出書房, 1956), pp. 248~255 ; 조선시대 가마터에 대한 조사 자료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인 아사카와 노리다카[淺川伯教]가 「세종실록」「지리지」를 근거로 1913년부터 약 30년간 전국의 가마터를 조사하여 1956년에 「李朝陶磁窯蹟一覽表」을 작성하였다. 아사카와가 당시 수집한 가마터 도편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지만 도요지별 도편 정리와 확인이 어려워 학문적으로는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여러 가마터 조사에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다. 姜敬淑, 「粉青沙器研究」(一志社, 1989), p. 9 재인용.

2 香本不苦治·鄭良謨·尹龍二, 「李朝陶磁窯跡表」, 『世界陶磁全集』(小學館, 1980), p. 332 ; 姜敬淑, 「粉青沙器研究」(一志社, 1989) ;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 윤용이, 「분청사기요지 분포와 특색」, 「분청사기」, 이화여자대학교 특별전도록13(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84), pp. 112~116 ; 홍순숙, 「강릉 보광리 출토 분청사기 고찰」, 「臨贏文化」20(江陵文化院, 1996), pp. 85~125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白磁窯址」(1986) ; 강원대학교 박물관, 「평창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87) ; 해강도자미술관, 「廣州의 白磁窯址(I)」(1992) ;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 廣州中央官窯」(1998·2000) ;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I·II·III」(1998~2000) ; 강원대학교 박물관,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9) ;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 도요지」(1999) ; 기천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 ; 경기도박물관, 「임진강·경기도 3대 하천유적 종합학술조사」, vol. 3 문화유적(2) (2001) ; 불교중앙교원대한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강화의 문화유적 강화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2002) ; 인천광역시·불교중앙교원대한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문화유적분포지도-인천광역시 강화군」(2003) ; 조선관묘박물관, 「廣州의 朝鮮陶磁窯址」(2004) ;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 산림청·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포천 화현리 분청사기 요지」(2006) ; 양주시·상명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

가마터에 대한 조사는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관요가 운영된 경기도 광주 일대의 가마터를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기전문화재연구원, 해강도자미술관, 조선관요박물관, 경기도자박물관 등에 의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분청사기 가마터가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중부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현황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비롯해 문화유적분포지도, 각종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분청사기 가마터의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부여한 가마터가 동일한 유적임에도 서로 번호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와 새로운 유적이 확인된 경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마터가 파괴되어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하는 경기도의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경기도자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출입이 통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자료는 문화재청의 군부대 문화재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하였다.

경기도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서울 수유동·우이동과 경기도 포천 화현리 등 모두 3곳이다.<sup>3</sup>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서울 18곳, 인천 1곳, 경기도 63곳이며 지역별 분포는 가평군 3곳, 과천시 3곳, 남양주 2곳, 양주시 9곳, 여주시 1곳, 연천군 8곳, 의정부시 5곳, 포천시 9곳, 광주시 17곳, 용인시 6곳, 서울 18곳, 인천 1곳 등 모두 82곳이다. 중부지역 가마터 조사현황은 표로 정리하였다.〈표2〉

## Ⅱ. 경기도의 분청사기 가마터의 현황

경기도에서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발굴조사된 3곳을 제외하고 모두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분청사기 가마터가 확인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평군 3곳, 과천시 3곳, 남양주 2곳, 양주시 9곳, 여주시 1곳, 연천군 8곳, 의정부시 5곳, 포천시 9곳, 광주시 17곳, 용인시 6곳, 서울 18

도-양주시』(2006)；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경기도박물관,『한강: 경기도 3대 하천유적 종합학술조사II』, vol.3 문화유적(2), 2006；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서울역사박물관,『서울의 도요지와 陶磁器』(2006)；명지대학교박물관·용인시,『용인 초부리 자연휴양림 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6；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문화유적분포지도 연천군』(2007)；문화재청,『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2008)；문화재청,『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2010)；서울역사박물관,『서울 1991년 정양모의 강북구 가마터』(2010)；서울역사박물관,『강북구 수유동 가마터』(2013)；서울역사박물관,『강북구 우이동 가마터』, 2014；경기도자박물관,『경기도의 도요지I』(2015)；경기도자박물관,『광주백자/발굴로 다시 쓰는 분월이야기』(2017).

3 广州市·朝鮮官窯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三林町·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포천 화현리 분청사기 요지』(2006)；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문화유적분포지도 연천군』(2007)；서울역사박물관,『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서울역사박물관,『강북구 수유동 가마터』(2013)；서울역사박물관,『강북구 우이동 가마터』(2014).

곳, 인천 1곳 등 모두 82곳이다. 이 중 발굴조사가 실시된 유적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수유동 가마터와 포천시 화현리 분청사기 가마터 등 3곳이다.〈표1〉

이번 자료조사에서 확인된 분청사기는 발굴조사로 총위가 확인된 유물이 아닌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된 유물이기 때문에 가마터의 운영시기 및 분청사기의 특징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의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조사는 최근까지 여러 기관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sup>4</sup>

표 1. 경기도 분청사기 가마터 현황

번호	지역구분	14세기말 ~15세기	15세기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계
1	가평군	1	2		3
2	과천시		1	2 (덤벙, 귀얄)	3
3	남양주			2 (덤벙)	2
4	양주시	3	1	5 (백토분장)	9
5	여주시		1		1
6	연천군	6	2		8
7	의정부		5		5
8	포천시	2	5	2 (분청에서 백자로 이행하는 단계)	9
9	광주시	1	16		17
10	용인시		6		6
11	서울·인천	17	2		19
총계		30	41	11	82

## 1. 가평군의 분청사기 가마터<sup>5</sup> (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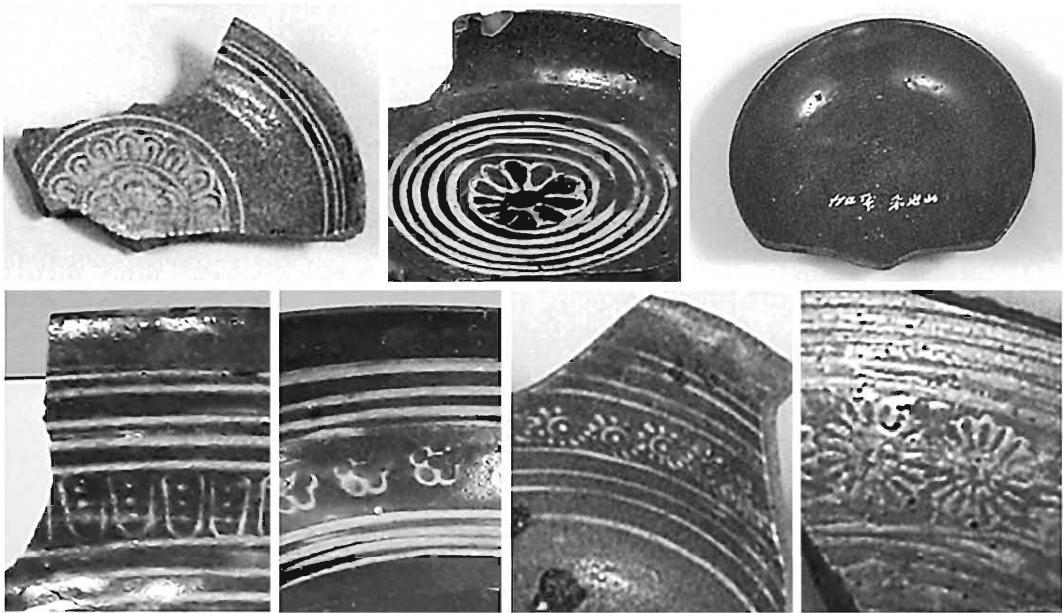
가평군의 도자기 생산은 운악산과 청계산 자락이 중심을 이룬다. 상면 봉수리에 15세기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가마터가 1곳, 청평면 삼회리에서 가마터 1곳이 조사되었다. 상면 봉수리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오래전 군(軍)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유적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삼회리 도요지는 가평군과 양평군의 군계(郡界) 지점에 있는 사기막골 안에 위치한다. 지표에서 분청사기 편과 도자기들이 발견되며 가마터가 위치한 곳에서 600~700m 떨어진 곳에 고령토 광산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인화분청이 대부분이나 무문의 것도 있다. 문양은 상감 와선문과 인화문(국화문·연판문·원문·우점문·파도문 등)이 장식되었고 태토는 회색·회청색·회갈색을 띠며 모래받침과 태토빛을 반침을 사용하였다.

상감과 인화문의 장식기법으로 보아 시기는 여말선초(14세기 말~15세기 초)로 추정된다.

4 姜敬淑, 「粉青沙器研究」(一志社, 1989); 경기문화재단, 「흙으로 빚는 미래 다시 쓰는 경기도자사」(2001), pp. 136~153; 강경숙, 「광주지역 가마솥토 분청사기와 백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경기도박물관, 2001), pp. 41~88;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I」(2015); 경기도자박물관, 「광주백자/발굴로 다시 쓰는 분원이야기」(2017).

5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I」(2015), p. 17, pp. 26~29.



도 1. 가평군 외서면 삼화리 가마터 수습 도편

## 2. 과천시 문원리 분청사기 가마터<sup>6</sup>

과천시의 정부종합청사 뒤편의 용운암 옆과 그 주변에 위치한다. 문원리 분청사기는 백토 분장 을 두껍게 하여 백자처럼 보이게 만든 점이 특징이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동 2호 분청사기와 그 특징이 거의 동일하다. 시기는 15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된다.

## 3. 광주시의 분청사기 가마터<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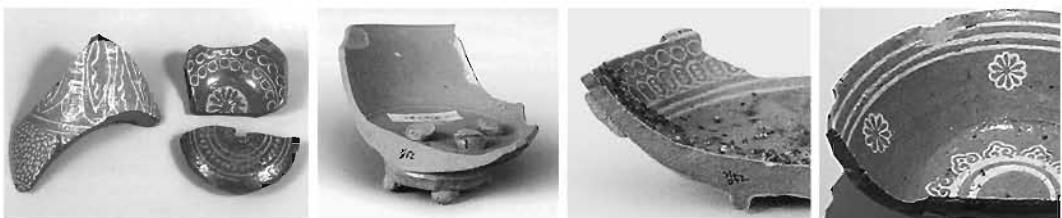
경기도 광주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사옹원 사기소인 관요가 설치되어 품질 좋은 백자를 만들던 곳이며 지표조사로 확인된 조선시대 백자가마터는 국가 사적 314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세종 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기도 광주(廣州)의 자기소(磁器所) 가운데 지명이 고증된 곳은 벌을 천(伐乙川, 現 번천리)과 고현(羔峴, 現 도수리), 소산(所山, 現 우산리)이 알려져 있다. 현재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퇴촌면의 도마리 1곳 · 도수리 4곳 · 관음리 8곳, 중부면의 번천리 1곳 · 상번천 리 3곳 · 목현동 1곳, 초월읍의 쌍동리 2곳 · 학동리 1곳, 실촌읍의 신대리 1곳으로 모두 17곳이다.

6 강경숙, 「粉青沙器研究」(一志社, 1986), p. 159 ; 단국대학교 사학과, 「과천시 현 관아지 및 관악산일원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1994), pp. 54~55 ; 경기문화재단, 「흙으로 빚는 미래 다시 쓰는 경기도자史」(2001), p. 152.

7 2006년 조선관요박물관에서 조사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廣州市 · 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 1) 퇴촌면 도수리 4호 도요지<sup>8</sup>, 사적314호,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9임 일원 (도2)

경희대학교 연습림 옆 가원카페 입구와 산림교육관 건물 뒤편, 연습림 우측부분의 3지역으로 중심이 구분된다. 가마터는 모두 파괴되었으며 카페 입구지역의 묘역과 밭에 파편이 산재하며 산림교육과 건물 뒤편에는 퇴적 구릉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연습림 우측은 임시 막사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가마퇴적과 유구 아래 부분이 완전 멸실되었다. 단애면에 도편과 가마가 노출되어 있으며 그 아래 밭에 파편이 넓게 산포되어 있는데 유물은 백자, 분청사기, 요도구,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다. 문양으로 상감과 인화문이 사용되었는데 상감은 단순화된 연당초문과 파도문, 상감선문이 백상감으로 시문되었고 듬성듬성 성글게 시문된 국화문과 귀갑문 등이 시문된 것으로 볼 때 운영시기는 15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도 2. 퇴촌면 도수리 4호 도요지 수습 도편

### 2) 퇴촌면 관음리 27호 도요지<sup>9</sup>, 사적314호,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331-1전 일원

관음리 27호는 관음교를 지나 관음동으로 들어가면 마을을 가로지르는 소로가 나오는데 유적은 소로를 중심으로 양편에 자리한 민가 뒤편에 해당한다. 가마의 범위는 관음리 331-1번지 민가 일대에 해당하며 민가 뒤편이 주 퇴적지로 추정된다. 백상감을 한 말기 상감청자 혹은 초기 분청사기와 태토빛음을 반쳐 포개구이한 백자편이 함께 출토되었다. 분청사기는 연화문, 횡선문 등을 백상감하였고 원통형과 원반형 도침, 갑발 및 갑발 뚜껑편, 가마벽편 등이 함께 수습되었다. 관음리 27호의 운영시기는 14세기말~15세기전반으로 판단된다.

### 3) 중부면 번천리 21호 도요지<sup>10</sup>, 사적314호,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산73임 일원 (도3)

번천리 21호는 번천(樊川)의 동쪽에 위치한 ‘안골’ 골짜기의 북쪽에 위치한다. 번천리는 「세종 실록지리지」에 기록된 경기도 광주목(廣州牧) 상품(上品) 자기소(磁器所) 가운데 별을천(伐乙川)으로 판단되는 곳으로 22개소의 가마터가 확인되었고 이 중 5호·8호·9호 등이 조사되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흑백상감과 백상감기법으로 모란문을 표현한 화분과 함께, 국화·연주문·나비·초

8 조선관요박물관, 「廣州의 朝鮮陶磁窯址」(2004), p. 37 ;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14, 394번.

9 조선관요박물관, 위의 책(2004), p. 56 ;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위의 책(2006), p. 213, 388번.

10 조선관요박물관, 위의 책(2004), p. 76 ;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위의 책(2006), p. 222, 432번 ; 경기도자박물관, 「광주백자/발굴로 다시 쓰는 분원이야기」(2017), pp. 10~14.

문 등을 인화기법으로 시문한 상감분청사기와 각배 등의 연질 백자가 출토되었다. 특히 연당초문을 백상감한 분청사기 장구(장고) 1점이 수습되었다. 번천리 21호의 운영시기는 문양과 상감·인화기법으로 볼 때 15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도 3. 중부면 번천리 21호 도요지 수습 도편

#### 4) 초월읍 학동리 4호 도요지<sup>11</sup>, 사적314호,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21-14전 일원(도4)

학동리 3호 요지에서 남서쪽으로 180m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두루봉들이라고 불린다. 현재 밭으로 경작중이며 4개로 분할된 밭과 그 주변에 자기편이 산재되어 있다. 분청사기와 백자, 요도구가 출토되었다.

분청사기는 횡선문, 국화문, 연판문 등을 백상감한 밭, 접시 등이 수습되었고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 굽거나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백자는 갑변과 상변 모두 발견되었고 담청색 혹은 연회색의 유태를 띤다. 요도구로 원통형 갑발, 삿갓형 갑발뚜껑, 원반형 도침이 함께 수습되었다. 운영시기는 14세기 말~15세기로 판단된다.



도 4. 초월읍 학동리 4호 도요지 수습 도편

11 조선관요박물관, 「廣州의 朝鮮陶磁窯址」(2004), p. 97 ;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65, 645번.

#### 4. 남양주시의 분청사기 가마터<sup>12</sup>(도5)

남양주시의 서부 수락산의 동북사면인 청학동을 중심으로 15~16세기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가마터는 현재 2곳이다.

청학동 1호 도요지의 발과 접시 대부분은 저부 일부를 제외하고 백토분장 후 유약을 시유하였고 문양은 음각선문, 상감와선문, 인화승련문과 국화문이 내면에 장식되었다. 유색은 백색도가 높아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요도구는 원반형과 원통형 도침이 있다. 운영시기는 조선 15세기 ~16세기 전반의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띤 가마로 추정된다.

청학동 2호 도요지는 2015년 조사당시 신규로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로 청학동 도요지 3호에서 약 15m 가량 산길을 따라 계곡을 건너 오르면 오른편 사면에 자기편이 훌려내려와 있고 발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잔편만이 확인되었다. 수습된 유물의 양상은 청학동 도요지 1호의 유물과 대체로 유사한 유물이 확인되었고 15~16세기 전반의 가마터로 판단된다.

청학동 1호와 2호 도요지의 특징은 문양은 있지만 얇게 상감이나 인화된 것으로 구분되나 걸보기에는 백색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도 5.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동 도요지 수습 도편

#### 5. 양주시의 분청사기 가마터<sup>13</sup>

양주시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장흥면 교현리에 9곳이 있다. 교현리 지역에서는 고려 후기 청자의 흔적이 남아 있는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제작양상이 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기종은 발과 접

12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 87, pp. 94~97.

13 경기도자박물관, 위의 책(2015), p. 115, pp. 122~145.

시, 병, 호이고 대부분 백토분장을 하지 않은 무문 청자와 굽 주변을 제외하고 백토분장을 한 후 투명유를 시유한 분청사기가 확인된다. 문양은 음각선문과 해체된 연당초문이 파도문 형태로 상감 장식된 발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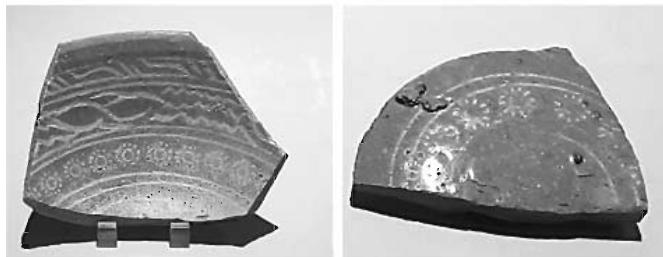
교현리 분청사기의 특징은 북한산 남쪽의 고려 말~조선 초의 청자양식이 확인되는 수유동, 우이동 도요지와 도봉산의 호원동 도요지의 유물들과 기형 및 문양양식이 서로 유사성이 확인되는 유적이다.

## 6. 여주시의 분청사기 가마터<sup>14</sup>

여주시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가남면 삼군리에 1곳 확인되며 이곳에서는 소량의 인화분청사기편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2000년 조사 당시 인화분청사기와 귀얄분청사기를 수습하였고 2006년 조사 당시 건물 신축으로 인해 유적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 7. 연천군의 분청사기 가마터<sup>15</sup>(도6)

연천군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신서면 도신리에 3곳, 연천읍 동막리 4곳, 부곡리 1곳 등 모두 8곳이다. 신서면과 동막리의 분청사기는 발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문양은 해체된 연당초문과 백상감 초문, 상감와선문, 인화국화문, 승령문이고 굽 안쪽에 태토비침 받침을 받쳐 포개어 구웠으며 요도구는 원반형과 원통형 도침이다. 이 곳의 분청사기는 14세기 말~15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도 6.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가마터 수습 도편

## 8. 의정부시의 분청사기 가마터<sup>16</sup>(도7)

의정부시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시 남쪽에 있는 도봉산의 서쪽 사면인 호원동에 5곳이 있다. 호

14 姜敬淑, 「粉青沙器研究」(一志社, 1989) ;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II」(2000), p. 224 ; 경기문화재단, 「흙으로 빚는 미래 다시 쓰는 경기도자사」(2001), p. 153 ; 경기도박물관, 「한강: 경기도 3대 하천유적 종합학술조사 II」, vol.3 문화유적(2)(2006), pp. 154~155.

15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 연천군」(2007) ;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I」(2015), pp. 200~261.

16 경기도자박물관, 위의 책(2015), p. 295, pp. 300~309.

원동의 분청사기는 기종이 발과 접시로 대부분 무문이며 상감선문과 인화국화문 등이 장식된 고려 말~조선 초의 분청사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접한 서울 북한산의 분청사기 요지들과 기형, 유색, 장식기법 등이 유사하여 서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7. 의정부시 호원동 가마터 수습 도편

## 9. 용인시의 분청사기 가마터<sup>17</sup>

용인시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이동면 서리에 1곳, 원삼면 학일리에 2곳, 백암면 석천리 1곳, 백암면 고안리에 1곳, 2006년 새로 확인된 모현면 초부리에 1곳 등 모두 6곳이다.

용인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해서는 일본인 아사카와 노리다카[淺川伯教]가 작성한 「李朝陶磁窯蹟一覽表」에 기록되어 있으며 1930년대 조사된 분청사기 가마터를 1999년 조사 당시 이 목록에 있는 분청사기 가마터를 모두 확인하였다고 한다. 용인시는 서울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국토개발과 특히 골프장의 건설 등으로 원래 지형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에 있는 유적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사카와 노리다카가 1930년 조사 당시 큰 규모의 유적을 대상으로 조사목록을 작성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지명으로 판단되는 곳은 용인의 자기소인 가마골(窯山洞里, 이동면 서리)과 양지(陽智)의 자기소인 함항(檻項, 원삼면 학일리)이다. 요산동이라는 지명은 산같이 큰 가마가 있는 곳을 뜻하는데 지금도 엄청난 규모의 가마퇴적이 존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곳 서리 일대는 세종년간에는 요산동이라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리지에 나오는 자가소 139곳, 도기소 185곳, 총 324곳의 지명 가운데 가마 ‘요(窯)’가 들어간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서리는 옛날에 쳐인현에 속하였고 이 일대에서 발견되는 분청사기 가마터는 이곳이 유일하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어서 서리 사기막골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지리지에 나오는 자가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 1) 이동면 서리4호 요지<sup>18</sup>, 용인시 이동면 서리293답, 294전, 산23-1임 일대

이동면 서리 분청사기 가마터는 사적 329호로 지정된 고려백자 요지에서 산 하나를 넘으면 나

17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 도요지」(1999), pp. 224~225 : 경기문화재 단, 「흙으로 빚는 미래 다시 쓰는 경기도자史」(2001), pp. 144~150.

18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 도요지」(1999), pp. 109~118.

오는 사기막골 안쪽 끝자락에 사슴농장이 있는데 이 건물 뒤편에 조성된 족구장과 접해 있는 임야에 위치한다. 유적의 아래 부분은 농장건물 뒤편의 정원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위쪽과 좌우변은 소나무 숲이 우거진 임야에 속해 있어서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지표에서 다량의 분청사기편과 가마벽편들이 확인되며 분청사기, 무문청자, 도기와 함께 요도구 등이 수습되었다.

분청사기는 상감·인화·귀얄분장으로 장식한 대접과 소형접시가 대부분이고 밭, 작은 병의 편이 소량 수습되었는데 문양은 상감의 경우 와선문(渦線文)이 많고 인화장식은 우점문과 연판문이다수이며 대접의 내면에 주로 귀얄분장이 장식된다. 무문청자의 형태와 특징은 분청사기와 동일하고 수량이 적다. 굽과 굽 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접지면에 태토비침을 받치거나 굽 바깥쪽에 태토비침을 받쳐 포개어 구웠고 요도구는 갑발편과 원반형, 원통형 도침이다.

## 2) 학일리 4호 요지<sup>19</sup>, 용인시 원삼면 학일리 산37-1임 일대

학일리 3호 요지에서 남측으로 약50m 떨어진 구릉에 위치하며 임야지역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분청사기, 청자, 요도구,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는데 포개구이한 예는 확인되지 않아 정성들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분청사기는 인화, 귀얄분장으로 장식한 대접과 소형접시가 주류이고 병 편과 무문의 청자대접과 청자접시가 소량 수습되었고 무문청자의 형태와 특징은 분청사기와 동일하며 수량이 적다. 문양은 횡선문, 승려문, 연판문, 연꽃, 국화, 집단연권문 등을 배토로 인화한 것과 음각의 횡선문, 와선문 위에 귀얄 분장한 것이 있다. 유색은 암녹색이나 갈녹색이 주류이고 대접은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이 많고 접시는 굽과 굽 주변에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고 원통형과 원반형 도침이 있다.

분청사기의 양상이 유사한 학일리 3호 요지와 함께 15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 10. 포천시의 분청사기 가마터<sup>20</sup>

포천시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신북면에 4곳, 영중면 거사리에 2곳, 창수면 주월리에 1곳, 화현면 화현리에 1곳 등 모두 8곳이다. 이중 화현면 화현리에서 14세기말~15세기초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굴조사 되었다.

### 1) 화현리 요지,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산190(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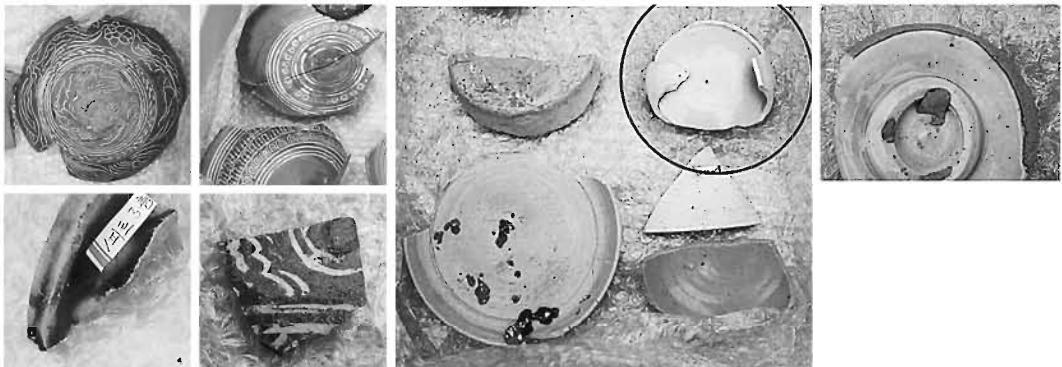
2005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유적이다. 유구가 확인된 2호 요지

19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 도요지」(1999), pp. 180~186.

20 산림청·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포천 화현리 분청사기 요지」(2006), 보고서에서는 포천 화현리의 운영시기를 1420~1430년으로 판단하였다;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I」(2015), pp. 353~403.

를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가마1기와 폐기장 퇴적층 1곳이 노출되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분청사기와 회청사기이다. 그리고 매우 적은 양의 백자, 흑유자기, 연질도기가 확인되었다. 백자는 소량 출토되었으나 분청사기와 함께 포개어 번조한 기물이 확인되어 분청사기와 백자가 함께 제작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기종은 발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종지, 잔, 병, 호, 마상배, 장군, 대발, 합, 삼족기(작:제기) 등이 있다. 문양은 회청사기는 음각기법(선문)이 가장 많고 상감은 선문·와선문·파도문·연당초문이 인화문은 구갑문·연판문·연주문·삼원문·육원문·국화문 등이 확인되며 소량의 집단연권문은 소국화문 2~4개를 한 구획 안에 표현하였다. 충위별 문양의 변화가 적고 전체적으로 문양 구성이 단순하며 요도구 원반형, 원통형 도침과 불창마개가 있다. 요도구 중 백자구슬을 제작하기 위해 재활용된 발의 안쪽에 모래를 깔고 사용한 도침이 함께 확인되었다. 가마 운영시기는 단순화된 연당초문, 성긴인화문, 집단연권문 등 문양상의 특징으로 1420년 이전으로 판단된다.



도 8.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분청사기 가마터 출토 도편

## 11. 서울의 분청사기 가마터

서울시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북한산 강북구의 수유동에 4곳, 우이동에 14곳 등 18곳이고 고려 말~조선 초 시기의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된다.

### 1) 수유동 도요지 3호<sup>21</sup>,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127-1(도9)

2011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유적이다. 서울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에서는 가마 1기, 가마폐기물 퇴적구 1기, 가마 운영시점 이후에 조성된 건물의 온돌시설 1기 확인되었다. 출토된 분청사기의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잔, 병, 호, 매병, 향완, 고족배, ‘ㄷ’형 용도미상 기종, 도침, 벽체 등이 확인되었다.

21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I」(2015), pp. 416~419.

문양은 상감, 인화, 음각, 압출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압출양각 기법은 화형잔과 8각 접시의 내면에서 확인되며 상감과 인화기법의 비중이 높다. 고려후기의 장식기법이 대부분 확인되지만 문양의 간략화가 진행되며 상감은 연당초문·포류수금문·운학문·용문·어문 등이 인화문은 3원문·7원문·운문·연주문·국화문·구갑문·승련문 등이 단독 혹은 기면에 성기게 시문되었고 음각선문은 소량 확인된다. 명문은 ‘덕천(德泉)’, ‘덕(德)’, ‘천(泉)’, ‘상(上)’이 확인되고 가마의 운영시기는 고려 말~조선 초(1380~141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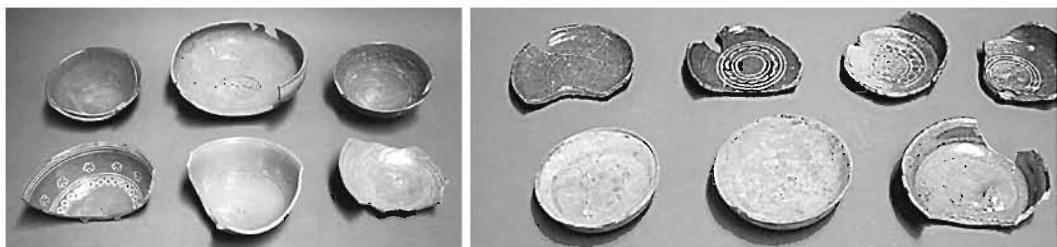


도 9. 서울 강북구 수유동 도요지3호 출토 도편(덕천(德泉)명 청자, 1403년 6월 이전)

## 2) 우이동 도요지 6<sup>22</sup>,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21-1 (도10)

2012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유적이다. 발굴조사에서 가마 1기, 폐기장 3곳(가마좌측, 우측, 하단)이 조사되었다. 가마의 구조는 요전부, 아궁이, 번조실, 연도부로 구성된 무계단식 단실요이며 전체길이 21.1m, 폭 1.4~2.0m, 경사도는 14°이다.

출토유물은 청자와 소량의 흑유자기가 확인되었고 요도구인 도침과 갑발, 가마벽체편이 있다. 기종은 청자는 발, 접시가 대부분이고 잔, 병, 호, 합, ‘ㄷ’형 용도미상 자기 등이다. 문양은 무문과 음각횡선문 자기가 대부분이고 상감 및 인화문청자는 소량 확인되었다. 상감문양은 연화당초문·초문·수금문이 중심이며 고려 말 상감청자의 문양이 해체된 모습을 보인다. 인화문은 3원문·7원문·구갑문·국화문 등을 성기게 시문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섞인 회색, 회백색이며 유색은 회청색, 녹갈색이 대부분이고 번조시 태토비침을 받치고 포개구이하였는데 요도구로 원통형 도침과 발형 갑발이 있다. 가마의 운영시기는 인화문 등으로 보아 1420년 이전으로 판단된다.



도 10. 서울 강북구 우이동 도요지6 출토 도편

## 12. 인천의 분청사기 가마터(도11)



도 11. 인천 강화도 화도면 사기리 가마터 수습 도편

22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보고서에는 가마터의 운영시기를 1420~1450년으로 판단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32~435.

인천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강화도 분청사기 요지로 알려진 유적으로 화도면 사기리에 위치한다. 1986년 4월 1일에 강화군 향토유적 18호로 지정된 곳으로 마니산 동쪽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지표에서 확인되는 분청사기 기종은 발과 접시, 병 등이고 문양은 상감 선문, 인화국화문, 승려문 등이 장식되어 가마의 운영시기는 15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 III. 강원도의 분청사기 가마터의 현황

강원도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3곳으로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1곳, 평창군 미탄면 1곳, 철원군 어운면 1곳이다. 강원도의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자료는 각 시군의 연혁과 문화유적을 조사한 자료와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군부대가 밀집해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출입이 통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조사자료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군부대 문화재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하였다.<sup>23</sup>

#### 1. 강릉시의 분청사기 가마터<sup>24</sup>

강릉시 보광리 도요지는 1988년 강릉민속동호회(현 임영민속연구회)에서 강릉 보광리 지역을 답사하면서 강원도내의 분청사기 가마터로 처음 알려졌다. 1993년 강릉시립박물관에서 이 지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시행하여 분청사기 도편과 함께 유구층을 일부 발견한 이후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분청사기 가마터라는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94년 강원도 기념물 69호로 지정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강릉대도호부 서쪽에 있는 보현촌(普賢村) 자기소로 추정되는 곳이다.

1994년 조사당시 경작지로 인해 원지형이 일부 훼손되었으나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무문청자, 분청사기 초별편과 도침이 붙어 있는 파편, 소토편 등 확인되었다.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문양은 흑상감된 연당초문과 인화국화문, 인화연판문 등으로 보아 운영시기는 15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23 香本不苦治·鄭良謨·尹龍二, 「李朝陶磁窯跡表」, 「世界陶磁全集」(小學館, 1980), p. 332 ; 강원대학교박물관, 「평창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87) ;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1993), pp. 491~496 ; 관동대학교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4), pp. 255~256 ; 강원대학교박물관, 「철원의 역사와 문화유적」(1995), p. 311 ; 홍순욱, 「강릉 보광리 출토 분청사기 고찰」, 「臨瀛文化」20(江陵文化院, 1996), pp. 85~125 ; 문화재청,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2008) ; 문화재청,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2010).

24 관동대학교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4), pp. 255~256 ; 홍순욱, 「강릉 보광리 출토 분청사기 고찰」, 「臨瀛文化」20(江陵文化院, 1996), pp. 85~125.

## 2. 평창군의 분청사기 가마터<sup>25</sup>

평창군 미탄면 도요지는 1985년 주민들이 무덤을 쓰기 위해 땅을 파던 중 분청사기가 다수 출토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1986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현장조사결과 분청사기편, 초벌편, 도침, 유약이 엉겨 붙은 태토덩어리 등이 확인되었고 분청사기의 대부분은 구연부와 동체편이다. 문양은 무문이 대부분으로 초화문 장식이 일부 확인되어 15세기 분청사기 가마터로 판단하였다.

## 3. 철원군의 분청사기 가마터<sup>26</sup>

철원군 어운면 이길리(鐵原郡 於雲面 賈吉里)의 도요지는 1956년에 편찬된 아사카와 노리다카의 「李朝陶磁窯蹟一覽表」의 목록에 있는 곳으로 15세기 상감분청사기요지 1기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1995년 조사당시에는 소재 확인을 못하였고 현재 그 현상을 알지 못한다.

# IV. 중부지역 분청사기의 성격

중부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운영시기는 집단연권인화기법의 상한시기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이를 기준으로 유적의 운영시기를 구분하였다.<sup>27</sup>

서울 수유동 가마터에서는 ‘덕천(德泉)’ 명청자를 비롯하여 상감, 인화, 음각, 암인 등의 시문기법 중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이 암도적으로 많고 대부분 단독인화문이 성기계 시문되었으며 집단연권형 인화문은 확인되지 않아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초기 단계 특징을 보인다.

서울 우이동 가마터에서는 음각, 상감, 인화 등의 시문기법이 확인되고 대부분이 무문과 음각의 횡선문이 장식된 것이다.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은 소량으로 확인되는데 상감으로 장식된 연당초문·초문·수금문은 고려 말 상감청자의 문양이 해체된 모습이고 구갑문·국화문·삼원문·칠원문 등은 단독으로 성기계 시문되었다. 우이동에서는 집단연권형 인화문은 확인되지 않아 분청사기 초기 단계의 특징을 보인다. 밤굴조사보고서에는 서울 우이동 가마터의 운영시기를 1420~1450년경으로 설정하였으나 집단연권형 인화문이 보이지 않고 단독인화문이 성기계 시문된 것으로 보아 1420년 이전으로 판단된다.

25 강원대학교박물관, 「평창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87), p. 51.

26 강원대학교박물관, 「철원의 역사와 문화유적」(1995), p. 311.

27 정소공주(貞昭公主) 묘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인화집단연권문 사이호’(국립중앙박물관)를 기준으로 1424년 이전으로 알려져 있다. 합천 장대리 가마터 1호 폐기장 Ⅲ층에서 상한연대가 1389년인 ‘사선(司膳)’ 명편과 1418년 하한인 경승부(敬承府)의 ‘승(承)’ 명 접시편을 분석하고 합천 장대리 출토 경승부명 접시편(1402~1418)에 장식된 꽃송이 세 개가 나란히 늘어선 시문방식을 집단연권인화기법으로 시문된 집단연권문의 시발점으로 보았다.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경승부 명접시’와 합천 장대리 출토 경승부명 접시편은 세 개의 국화송이를 한 번에 찍은 것으로 142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작된 문양 세 개에서 다섯 개를 한 번에 찍은 집단연권원문이나 승렵문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문방식은 13세기에서 14세기 말까지 지속된 인화국화문 청자의 시문방식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조선 초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특징으로 보았다. 박경자, 「조선 초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계통과 의의」, 『美術史學』 27(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3), pp. 83~91.

포천 화현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자기는 분청사기와 회청사기가 대부분이고 매우 적은 양의 백자, 흑유자기, 연질도기가 확인되었다. 분청사기의 문양은 음각, 상감, 인화 등의 시문기법 중 음각기법(선문)이 가장 많고 상감은 선문·파도문·연당초문, 인화문은 구갑문·연판문·연주문·삼원문·육원문·국화문 등이 확인되며 소량의 집단연권문은 소국화문 2~4개를 한 구획 안에 시문하였다. 가마터의 연대는 단순화된 연당초문, 성긴 인화문, 집단연권문 등의 문양상의 특징으로 보아 보고서에는 1420년~1430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화현리의 집단연권형 인화문의 특징이 합천 장대리에서 출토된 '경승부' 명접시편에 장식된 인화국화문보다 성기게 시문된 점으로 보아 경승부명접시의 하한시점인 1418년 이전으로 판단된다.

집단연권형 인화분청사기의 상한은 1418년 이전이며 집단연권형 인화분청사기가 확인된 유적은 전체 89곳 중 6곳으로 가평 봉수리, 광주 번천리 17호, 20호, 용인 고안리, 포천 만세교리 1호, 만세교리 3호, 화현리이다. 지표조사로 확인된 유적 중 고려 말~조선 초로 편년할 수 있는 선상감, 상감연당초문, 초문, 성기게 시문된 단독 인화문이 장식된 분청사기와 무문회청사기가 다수의 유적에서는 확인되는 점이 중부지역 분청사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과천시 문원리와 중앙동을 비롯해 남양주시의 청학동, 양주시의 교현리의 분청사기는 귀얄로 백토를 얇게 발라 백토분장한 것과 덤벙기법으로 굽 주변을 제외하고 백토분장을 두껍게 하여 백자처럼 만든 것이 특징이며 분청에서 백자로 이행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역 분청사기의 특징은 광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상감과 인화 등의 시문기법을 사용한 반면 집단연권인화기법으로 장식된 분청사기를 제작한 가마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덤벙·귀얄분청사기는 곁면에 백토를 발랐기 때문에 보기에는 백자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이러한 덤벙·귀얄분청사기의 존재는 분청사기제작이 백자제작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로 15세기 중엽경 경기도 지역에서는 분청사기의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이는 1469년 이전에 사옹원(司饔院) 사기소(沙器所: 官窯)가 광주에 설치되어 백자를 생산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지역보다 일찍 분청사기의 생산을 중단하고 요업이 백자 중심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 V. 맷음말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확인된 다수의 유적에서는 대부분의 고려 말~조선 초로 볼 수 있는 분청사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고려 말의 상감청자 문양이 해체된 모습과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초기 단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편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확인되는 분청사기 중 집단연권형 인화문이 확인되지 않는 유적의 경우 15세기 전반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조사된 분청사기 가마터 연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분청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편년자료가 보다 더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28 姜敬淑, 「粉青沙器研究」(一志社, 1989); 경기문화재단, 「흙으로 빚는 미래 다시 쓰는 경기도자史」(2001), p. 136.

표 2. 중부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현황

1. 가평군		
번호	유적명/소재지	내 용
1	봉수리 도요지1 (기평 봉수리 분청사기 요지)  가평군 가평읍 상면 봉수리 206-7	<p>1. 문화재청,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 제6군단」(2008), pp. 483~484.      2008년 신규 발견한 요지, 군부대 내 곡간부에 위치한 건물 사이로 흘러나오는 능선자락 하단에 위치 함. 인위적으로 쟁토된 오른쪽 능고면에서 가마의 벽체와 퇴적층, 도침을 비롯한 요도구가 노출되어 있고 능선 위쪽에는 작은 힘물부도 확인됨. 이미 오래전 군 건물이 들어서면서 가마의 상단 일부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파괴된 것으로 보임.      분청사기의 기종은 접시와 와이고 문양은 횡선문, 파상문, 국화문, 연판문 등이 인화문으로 장식, 굽은 죽절굽에 모래, 내화토, 태토비침 받침을 모두 사용하였고 도침은 원반형과 원통형이 수습. 봉수리 분청사기 요지는 인접한 운안산 일원에서 최근 연이어 보고되는 분청사기 가마와 그 운영시기, 제작기법 등이 동일한 제작양상을 보이고 있음.</p> <p>2.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26~27.      조선 15세기 전반, 확인된 기종은 밭과 접시가 대부분, 무문과 함께 상감 횡선문, 파상문, 와선문 등과 인화 국화문, 연판문, 7원문이 확인됨. 접단연권문도 확인, 죽절굽에 굽 안쪽을 늘렸고 굽 주변은 시유하지 않고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어 번조, 요도구는 원반형, 원통형 도침.</p>
2	봉수리 도요지2  가평군 가평읍 상면 봉수리 산82-18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28~29.      조선 15세기 전반: 가마유구 대부분 파괴, 자기면, 도침면, 벽체면 소량 확인.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밸과 접시가 확인, 상감선문, 국화문 등을 장식, 굽은 죽절굽, 굽 주변을 제외하고 사유한 후 굽 바깥쪽에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어 번조, 요도구는 원통형 도침</p>
3	삼회리 도요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산 77	<p>여말선초(14세기 말~15세기 초)</p> <p>1. 강원대학교 박물관,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9), pp. 251~252.      현재 지명 중 봉제리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도요지 주변에 분청사기편과 도자미 등이 확인.      수습되는 자기면은 완, 밸로 추정되는 것도 있으나 대접과 접시가 많음. 주로 인화분청사기가 대부분이고 무문도 다수 확인됨. 굽은 죽절굽이 대부분이고 모래받침과 태토빛음 받침이 확인되며 모래받침은 주로 무문자기편에 사용함. 문양은 국화문, 연판문, 원문, 우점문, 파도문 등이 있음.</p> <p>2. 경기문화재단, 「흙으로 빚는 미래 다시 쓰는 경기도자사」(2001), p. 152.      가평군과 양평군의 군 경계지점에 있는 사기마을 안에 위치.      지표에서 분청사기편과 도자미, 소량의 백자편이 보임. 분청사기는 인화분청이 주류이고 무문의 것도 있다.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 태토는 회색·회청색·회갈색을 띠며 모래받침과 태토빛음 받침을 사용해 번조함. 문양은 국화문, 연판문, 원문, 우점문, 파도문 등.</p> <p>3. 경기도박물관, 「한강·경기도 3대 하천유적 종합학술조사」, vol.3 문화유적(2)(2006), pp. 152~154.      분청사기와 도침이 다량 분포, 주로 인화분청이며 무문인 것과 소량의 백자편이 수습. 분청사기는 대접이 주종을 이루며 마상배도 수습됨. 대접의 문양은 인화문, 원권문, 무문분청사기로 구분함. 대접과 접시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회녹색을 띠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유약을 사유하고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함. 마상배 굽부분 일부가 수습되었고 굽 접지면에 내화토와 굽은 모래를 빙쳐 번조하였고 굽 접지면을 포함한 전면에 유약을 사유함.</p> <p>4.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4~35.      밸, 접시 수습, 무문, 상감 와선문, 인화 구갑문, 국화문, 7원문 등이 장식됨. 가마 벽체는 산포되어 있으며 요도구 확인 안됨. 굽에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있음.</p> <p>【참고문헌】      가평군·강원대학교 박물관,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9).      가평군사편찬위원회, 「가평군지」(2006).</p>

## 2. 과천시

번호	유적명/소재지	내용
1	문원리 분청사기 가마터 과천시 문원리	<p>1. 경기문화재단, 「흙으로 빚는 미래 다시 쓰는 경기도자史」(2001), p. 152.      조선 15세기 후반, 과천 정부종합청사 뒤편 용운암 옆에 위치.      백토분장을 두껍게 하여 백자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특징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동 2호분청사기와 그 특징이 거의 동일.</p> <p>【참고문헌】      강경숙, 「粉青沙器研究」(일지사, 1986), p.159.</p>
2	중앙동 분청사기 요지1 (중앙동 도요지, 관악산 도요지)  과천시 중앙동 37° 25' 24" 126° 58' 38"	<p>조선 15~16세기</p> <p>1. 단국대학교 사학과, 「과천시 현 관아지 및 관악산일원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1994), pp. 54~55.      중앙동에 위치한 용운암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분청사기는 대접과 접시가 주류. 문양은 인화 우점문, 음각 선문이 있으며 문양이 시문된 것은 모두 귀얄로 백토분장하거나 덤벙으로 백토분장한 것 위에 귀얄로 얇게 백토분장 장식을 함. 굽은 거칠게 깎은 낮은굽과 죽절굽이 있음. 굽과 굽 안바닥은 유약을 사용하지 않고 굽은 태토비침 받침을 받쳐 포개어 번조함.</p> <p>2.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1998), p. 160.      대접, 접시가 주류. 그 외에 항아리, 병 등이 수습.</p>
3	중앙동 분청사기 요지2 (중앙동 B도요지)  과천시 중앙동 37° 25' 27" 126° 58' 39"	<p>1.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1998), p. 160.      조선 15~16세기.</p> <p>중앙동 분청사기 요지 1의 100m 위쪽에 위치. 대접, 접시류가 주류.      *문원리 분청사기 가마터와 중앙동 분청사기 요지1, 2는 용운암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한 유적으로 판단되며 향후 확인 필요함.</p>

## 3. 남양주

번호	유적명	내용
1	청학동 도요지1 (청학동 분청사기 요지1)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 산103-2	<p>1.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94~95.      조선 15~16세기 전반, 분청사기편, 벽체면, 도침이 산포되어 있음.      기종은 밀과 접시로 대부분 저부의 일부를 제외하고 백토분장 후 시유함. 문양은 음각선문, 와선문과 인화기법으로 승려문, 국화문이 내면에 장식됨. 유색은 백색도가 높아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굽은 죽절굽으로 대부분 굽 바깥쪽에 태토빛음 받침을 받쳐 포개구이 함. 요도구는 원반형, 원통형 도침.</p> <p>【참고문헌】      姜敬淑, 「粉青沙器研究」(1986), pp. 156~158.      경기문화재단, 「흙으로 빚는 미래 다시 쓰는 경기도자史」(2001).</p>
2	청학동 도요지2 (청학동 분청사기 요지1)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 산103-2	<p>1.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96~97.      조선 15~16세기 전반, 청학동 도요지 3호에서 약 15m 가량 산길을 따라 계곡을 건너 오르면 오른편 사면에 자기편이 흘러내려와 있음. 기종은 밀과 접시가 대부분. 수습된 유물의 양상은 청학동 도요지 1호 유물과 대체로 유사한 유물이 확인됨.</p>

#### 4. 양주시

번호	유적명/소재지	내용
1	교현리 도요지1 (교현리 요지1)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3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122~123.      조선 15세기 중엽 분청사기, 벽체 도침편 확인,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요지로 백토분장을 하지 않은 무문정자, 굽 주변을 제외하고 백토분장을 한 후 투명유를 시유한 분청사기 확인. 기종은 발, 접시, 병, 호 등과 원통형 도침 확인. 굽은 죽절굽과 안굽. 발과 접사는 태토빛을 받침을 굽 바깥쪽에 받쳐 포개어 번조.</p> <p>【참고문헌】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8).      양주시, 상명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양주시」(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      문화재청,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우리군」(2010).</p>
2	교현리 도요지2 (교현리 요지2)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5-3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124~125.      14세기 말~15세기 초, 가마확인, 굳 침호로 인해 일부 훼손되었으나 양호한 편이고 분청사기, 가마벽체, 도침편이 확인됨. 분청사기 기종은 발, 접시, 호 등, 문양은 대부분 무문 혹은 음각선문이나 연당초문이 해체되어 파도문 형태로 상감 장식된 발도 확인.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에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 있음.</p> <p>【참고문헌】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8).      양주시, 상명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양주시」(2006).      문화재청,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우리군」(2010).</p>
3	교현리 도요지3 (교현리 요지3)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6-4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126~127.      조선 15~16세기로 추정 구릉의 모든 사면에서 분청사기, 흑유자기 확인.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 접시로 무문에 투명유가 시유된 자기와 굽 주변을 제외하고 백토분장을 한 후 투명유를 시유한 자기가 함께 확인됨. 굽은 죽절굽으로 굽 바깥쪽에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 구이 함. 흑유자기의 기종은 호, 편구발이고 굽은 죽절굽으로 굽 주변은 시유하지 않음.</p> <p>【참고문헌】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 pp. 19~23.      문화재청,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우리군」(2010).</p>
4	교현리 도요지4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6-4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128~129.      조선 15~16세기. 분청, 백자, 도침, 벽체편 등이 확인됨.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 접시로 무문에 투명유가 시유된 자기와 굽 주변을 제외하고 백토분장을 한 후 투명시유한 자기가 함께 확인. 굽은 죽절굽이고 굽 바깥쪽에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구이 함. 백자의 기형은 발, 접시, 잔으로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 혹은 바깥쪽에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소성, 요도구는 원반형 도침 확인!</p>
5	교현리 도요지5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6-4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130~131.      조선 15~16세기. 다량의 분청사기, 백자, 흑유자, 도침, 벽체편이 능선 사면 아래로 흘러 내려와 있음.      분청사기는 발, 접시로 굽 주변을 제외하고 백토분장후 시유함. 굽은 죽절굽으로 굽 바깥쪽에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구이 함. 백자와 흑유자기도 굽 주변을 시유하지 않고 태토빛음을 굽 안쪽에 받쳐 포개구이함. 요도구는 원통형, 원반형 도침 확인.</p>

6	교현리 도요지6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6-4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132~133. 조선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분청사기, 흑유자기, 도침편 확인. 분청사기의 기종은 대부분 빌이고 굽 주변을 제외하고 백토분장 후 투명유 시유, 굽은 죽절굽으로 굽 바깥쪽에 태토빛음 받침을 받쳐 포개구이 함. 흑유자기는 편구발이 확인, 요도구는 원통형, 원반형 도침이 확인.
7	교현리 도요지8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3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136~137. 조선 15~16세기 전반, 분청사기, 도침, 벽체면 확인, 가마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기종은 빌, 호, 병, 편구발 등이고 백토분장을 한 후 투명유를 시유한 분청사기로 태토 및 유약의 백색 도가 높음. 굽은 죽절굽으로 굽 바깥쪽에 태토빛음 받침을 받쳐 소상함. 모를 죽인 장방형의 요도구와 원통형, 원반형 도침 확인.
8	교현리 도요지9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8-1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138~139. 14세기 말~15세기 전반, 산사면에 분청사기, 도침, 벽체편이 소량 확인됨. 기종은 빌로 내면에 여의두문, 구갑문, 국화문이 인화기법으로 장식됨. 굽은 죽절굽으로 접지면에 모래를 묻혀 도침 위에 올리고 내면에 태토빛음 받침을 받쳐 포개구이 한 흔적이 있음. 요도구로 원통형 도침 확인.
9	교현리 도요지12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26-11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144~145. 14세기 말~15세기 전반, 도로공사로 원지형 훠손. 분청사기면, 태토빛음, 벽체편등이 확인. 지표에서 확인되는 분청사기는 무문, 음각 선문이 장식된 잔편만 확인됨, 인접한 교현리 도요지 11호와는 시기 차이가 확인됨.

## 5. 여주시

번호	유적명/소재지	내용
1	삼군리 분청요지 여주시 기남면 삼군리(맹골)	1. 경기도박물관, 「한강: 경기도 3대 하천유적 종합학술조사」, vol.3 문화유적(2)(2006), pp. 154~155. 조선 15세기. 인화 · 귀얄분청사기 1점이 수습되었다고 전하며 밭으로 변한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백자편이 확인되며 극히 소량의 인화분청사기편을 확인, 현재는 동부기계공장이 들어서 있어 그 현상이 모두 파괴된 상태임.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2000), p. 224. 경기문화재단, 「흙으로 빚는 미래 다시 쓰는 경기도자史」(2001), p. 153.

## 6. 연천군

번호	유적명/소재지	내용
1	도신리 도요지2 (연천군 도신리 201-1)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산9-1자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210~211. 14세기 말~15세기 전반. 도로와 묘지의 조성으로 인해 가마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가마 유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됨. 백자는 18세기후반~19세기전반에 운영된 가마로 판단. 분청사기의 기종은 빌, 접시, 병등으로 저부는 죽절굽이며 대체로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함. 문양은 무문, 음각선문, 상감과 선문, 초문연당초문, 인화국화문, 승려문 등이 확인됨. 요도구는 원반형과 원통형 도침이 확인되며 굽 안쪽에는 태토빛음 받침을 받쳐 포개구이 함.  【참고문헌】. 漣川文化院, 「鄉土史料集」(199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 연천군」(2007).

2	도신리 도요지3 (도신리 요지 3호)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산14-1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212~213.            조선 15세기 전반, 도신리 도요지 2호의 묘 위쪽에 난 길을 따라 남쪽으로 220m가량 들어가며 오른쪽에 위치한 군 사격장과 개천 사이에 위치한 밭에 위치. 우측편의 길과 밭을 평탄화 하는 과정에서 요지의 대부분이 깎여 나간 것으로 판단됨.            분청사기와 17세기 백자요지가 각각 1기씩 있을 것으로 보임.            분청사기는 밭 상단과 밭 위쪽 산사면에서 확인됨. 분청사기의 기종은 밭, 접시, 병 등. 저부는 죽절굽이고 굽 주변을 제외하고 전면에 시유함. 문양은 무문, 음각선문, 상감와선문, 초문, 연당초문과 인화국화문, 승령문 등이 확인됨. 굽 안쪽에 태토빛을 받침을 빙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있음. 요도구는 원반형과 원통형 도침이 확인</p> <p>【참고문헌】  <b>漣川文化院,『郷土史料集』(1995).</b>  <b>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b>  <b>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문화유적분포지도 연천군』(2007).</b></p>
3	도신리 도요지14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산186-10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234~235.            14세기 말~15세기 전반, 밭 전체에 분청사기, 백자, 측유자기, 도기, 벽채편 등 여러 종류의 유물이 확인되거나 현재 계단식 밭으로 개산되어 정확한 양상을 확인하기 어려움.            분청사기의 기종은 밭과 접시이며 죽절굽에 굽 안쪽을 누른 흔적이 있고 태토빛을 받침을 빙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상감와선문, 인화국화문, 승령문 등이고 백자는 죽절굽에 태토비침을 받쳐 번조하였고 측유자기는 잔편으로 소량 확인됨.</p>
4	동막리 도요지1 (연천 동막리 요지1)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산35 38° 06' 34.7" 127° 07' 41.1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246~247.            14세기 말~15세기 전반, 분청사기편과 벽체, 도침편이 확인됨. 가마는 계곡과 평행하게 서남에서 동북방향으로 올라 갔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계단식으로 식토되어 원지형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음. 지표에서 수습된 분청사기의 기종은 밭과 접시로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을 다지고 태토빛을 받침을 빙쳐 포개구이 함. 문양은 대부분 무문이고 일부 음각선문이 장식됨. 요도구는 원반형, 원주형 도침 확인</p> <p>【참고문헌】  <b>漣川文化院,『郷土史料集』(1995).</b>  <b>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b>  <b>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문화유적분포지도 연천군』(2007).</b>  <b>문화재청,『군부대 문화재조사 보고서』(2008).</b></p>
5	동막리 도요지2 (연천 동막리 요지2)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산35 38° 06' 32.2" 127° 07' 42"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248~249.            14세기 말~15세기 전반. 가마터가 있는 능선의 지표에 분청사기편이 훑어져 있어 누군가에 의해 유적이 파헤쳐진 것으로 판단. 지표에서 수습된 분청사기의 기종은 밭과 접시이고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을 다지고 태토빛을 받침을 빙쳐 포개구이 함. 문양장식은 대부분 무문이고 일부 해체된 상감 연당초문, 인화 국화문 등이 확인됨. 요도구는 원반형, 원주형 도침 확인</p> <p>【참고문헌】  <b>漣川文化院,『郷土史料集』(1995).</b>  <b>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b>  <b>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문화유적분포지도 연천군』(2007).</b></p>
6	동막리 도요지5 (동막리 도요지3)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산35요도구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254~255.            14세기 말~15세기 전반. 가마 위치 확인. 지표에서 수습된 분청사기의 기종은 밭과 접시, 대발로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을 누르고 태토빛을 받침을 빙쳐 포개어 구움. 문양장식은 대부분 무문, 음각선문이며 일부 접시에서는 인화 연주문이 확인됨. 요도구는 원통형 도침과 밭형 갑발이 확인</p>

7	동마리 도요지6 (연천 동마리 분청사기 요지1)  연천군 연천읍 동마리 72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256~257. 14세기 말~15세기 전반. 2008년 조사. 군 훈련장내 유적이 위치하고 있어 가마터의 위치 확인이 어려움. 훈련장 부근에서 분청사기, 초벌면 태토빛음면, 벽체편이 확인.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 접시, 병의 등체부편 등이고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을 다쳤고 밭은 전면 시유함. 접사는 굽쪽을 제외하고 유약을 시유하였고 문양은 무문, 상감선문, 인화국화문, 삼원문이 확인됨. 기를 번조사 태토빛음 반침을 굽에 받쳐 포개구이 함.
8	부곡리 도요지 1 (연천 부곡리요지, 연천 부곡리 분청사기요지)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50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260~261. 조선 15세기 중엽~17세기경. 부곡리 도요지 1이 군사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자박물관에서는 군부대의 허가를 받지 못해 도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이전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함. 신자락의 능선 경사면을 따라 가마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가마 하단부는 경작 등으로 파괴되었으나 유적의 대부분은 남아 있음. 요지 잔존부 길이 7m, 너비 2m로 추정되며 분청사기요지 이외에 백자요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능선 좌우에 퇴적층이 두텁게 형성됨.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 접시 등이고 굽은 죽절굽으로 굽주변을 시유하지 않음. 문양은 상감과 인화기법이 확인되며 여러 줄의 상감선문, 와선문과 인화우점문, 국화문, 승려문이 확인됨.  【참고문헌】 漣川文化院, 「郷土史料集」(199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 연천군」(2007). 문화재청, 「군부대 문화재조사 보고서」(2008).

## 7. 의정부시

번호	유적명/소재지	내용
1	호원동 도요지1  의정부시 호원동 산91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00~301. 조선 15세기 전반. 가마 벽체편, 분청사기편, 도침 등이 확인.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과 접시로 대부분 무문이고 상감선문, 인화국화문등이 장식됨.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을 다쳤고 태토빛음 반침을 받쳐 포개어 번조, 요도구는 원통형, 원반형 도침이 확인.
2	호원동 도요지2  의정부시 호원동 산91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02~303. 조선 15세기 전반. 산사면을 따라 가마 벽체편, 도침, 분청사기편 확인.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과 접시로 대부분 무문이고 일부 상감선문이 장식된 잔면이 확인됨.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을 다지고 태토빛음 반침을 받쳐 포개어 번조함. 요도구는 원통형, 원반형 도침이 확인.
3	호원동 도요지3  의정부시 호원동 산91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04~305. 조선 15세기 전반. 가마 벽체편, 분청사기, 도침편이 확인.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과 접시로 대부분 무문이고 일부 상감선문이 장식된 잔면이 확인.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을 다지고 태토빛음 반침을 받쳐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음. 요도구는 원통형, 원반형 도침이 확인됨.
4	호원동 도요지4  의정부시 호원동 산91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06~307. 조선 15세기 전반. 가마 벽체편, 소량의 분청사기면, 도침 확인.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과 접시로 대부분 무문임.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은 다짐흔이 있고 태토빛음 반침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 있음, 요도구는 원통형, 원반형 도침이 확인됨.
5	호원동 도요지5  의정부시 호원동 산91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08~309. 조선 15세기 전반. 가마 벽체편과 소량의 분청사기, 도침, 도기와 백자면 확인.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과 접시로 굽에 태토빛음 반침을 받쳐 포개어 번조함, 요도구는 원통형 도침이 수습됨.

## 8. 포천시

번호	유적명/소재지	내용
1	동교동 도요지1 (동교동 요지) 포천시 동교동 산39-2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56~357.          조선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분청사기편, 소량의 백자면, 벽체편, 태토빛음이 함께 확인됨. 지표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시기의 발, 접시로 파손이 심함. 굽은 죽절굽으로 유약은 굽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거나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한 후 전체에 한 번 더 시유함. 굽 바깥쪽에 태토 빛음 받침을 받쳐 포개어 번조함. 도침은 확인되지 않았고 태토빛음 받침과 가마 벽체가 확인됨.</p> <p>【참고문헌】          문화재청,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2008).</p>
2	동교동 도요지2 포천시 동교동 산37-1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58~359.          조선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시기의 발, 접시로 굽은 죽절굽. 유약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거나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한 후 전체에 한번 더 시유함. 도침은 확인되지 않았고 태토빛음 받침과 가마벽체편이 확인됨.</p>
3	만세교리 도요지1 (만세교리 요지)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286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62~363.          조선 15세기 전반.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 접시, 매병, 뚜껑 등이고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비단을 눌렀고 전면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함. 문양장식은 대부분 무문, 성긴 인화문으로 소량의 상감장식과 전면 인화문이 함께 확인됨. 상감기법의 초문, 원권문과 인화국화문, 연주문, 삼원문, 연판문, 집단연권문 등이 확인됨. 굽에 태토빛음 받침을 받쳐 도침위에 포개어 번조함. 요도구는 폐자기에 모래를 깔고 사용한 도침과 원반형, 원통형 도침이 확인됨.</p> <p>【참고문헌】          경기문화재연구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효자건설, 「포천 길명리 흑유자 요지 포천 일동-영중간 도로학 · 포장 공사구간내 유적발굴조사 보고서」(2006).</p>
4	만세교리 도요지2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30-1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64~365.          14세기 말~15세기 전반. 분청사기 기종은 발, 접시이다.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비단을 눌렀고, 전면에 시유함. 문양장식은 상감기법의 황선문, 우점문, 당초문과 인화 삼원문, 국화문 등이 확인됨. 굽에 태토 빛음 받침을 받쳐 포개어 번조, 요도구 확인되지 않음.</p>
5	만세교리 도요지3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32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66~367.          조선 15세기 전반. 가마터 주변은 분묘와 경작지, 배수로 조성으로 인해 원지형의 대부분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과 접시, 호 같은 대형 기종의 동체부편이 확인됨.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비단을 눌렀고 전면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함. 문양은 성긴 인화문, 전면 인화문 분청사기가 모두 확인됨. 음각선문, 상감기법의 초문, 인화기법의 국화문, 연판문, 나비문, 집단연권문 등이 확인됨. 굽은 태토빛음 받침을 받쳐 포개어 번조함.</p>
6	만세교리 도요지4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33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68~369.          조선 15세기 전반. 민묘 조성시 가마터 파손. 인화문과 귀얄문 분청사기와 도침, 가마벽체편, 백자편 등이 확인.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 접시와 매병과 같은 대형 기종의 동체부편이 확인.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비단을 둘렀고 전면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함. 문양은 인화기법의 국화문, 연판문, 귀얄문 등이고 굽에 태토빛음 받침을 바깥쪽에 받쳐 포개어 번조함. 요도구는 원반형, 원통형 도침 확인.</p>
7	거사리 도요지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1041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74~375.          14세기 말~15세기 전반. 도요지의 넓은 범위에는 계곡을 따라 흘러 내린 분청사기, 벽체, 도침 등이 확인됨.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 접시로 죽절굽에 굽 안쪽을 누른 흔적이 있으며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함. 문양은 대부분 무문, 음각선문이고 인화여의두문이 1점 확인. 굽 안쪽에 태토빛음 받침을 받쳐 포개어 번조함. 요도구는 원반형, 원통형 도침 확인.</p>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398~399.          조선 15세기 전반, 도로공사와 군침호사설로 인해 가마타는 상당부분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분청사기, 벽체, 요도구 등이 침호주변과 사면에서 확인됨.</p> <p>주원리 요지1 (주원리 요지)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681 N38° 01' 11.2" E127° 01' 11.2'</p> <p><b>【참고문헌】</b>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 Ⅲ」(2001).          경기도박물관, 「임진강·경기도 3대 하천유적 종합학술조사」, vol.3 문화유적(2)(2001).          경기문화재연구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주효자건설, 「포천 길명리 흑유자요지 포천·일동~영중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006).</p>
9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02~403.          2005년 발굴조사, 1420~1430년대.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분청사기 요지 1호와 유구가 확인된 분청사기 요지 2호가 조사됨. 유구가 확인된 2호 요지를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가마 1기와 폐기장 퇴적층 1곳이 노출.          &lt;2호 가마&gt;는 산사면에 남~북에 가까운 남동~북서방향으로 설치된 반지하식 단실동요, 생토층인 흥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가마의 바닥과 벽을 조성하고 천정부는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 가마의 규모는 전체길이 21m, 작업공간 120cm, 너비 75cm, 깊이 72cm.          분청사기, 백자, 흑유자, 연질도기, 요도구 등이 출토되었고 대부분 분청사기와 회청사기로 매우 적은 양의 백자, 흑유자기, 연질도기가 확인됨. 백자는 소량 출토되었으나 분청사기와 함께 포개어 번조한 기물이 확인되어 분청사기와 백자가 함께 제작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기종은 발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종지, 잔, 병, 호, 미상배, 장군, 대발, 합, 삼족기(작:제기) 등. 발은 내저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구연이 대체로 외반하고 접시는 구경 10cm 전후에 내저가 평평하고 측면이 직립한 기종이 주를 이룸. 접시중 일부는 구연이 화형 혹은 거치형을 이루는 기형도 확인됨. 굽은 대부분 죽절굽으로 굽 안쪽을 높렸음. 발은 전면시유하였고 접시는 굽 주면을 제외하고 유약을 입힌 뒤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어 번조함.          문양은 무문은 음각기법(선문)이 가장 많고 그밖에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이 혼용되었고 소량의 집단연권문 장식은 확인되나 덤벙, 귀얄기법은 확인되지 않음. 상감기법은 선문, 와선문, 파도문, 연당초문 등이 있으며 인화기법은 구갑문, 연판문, 연주문, 삼월문, 육월문, 국화문 등이 확인되며 집단연권문은 소국화문 2~4개를 한 구획 안에 표현함. 층위별 문양의 변화가 적고 전체적으로 문양구성이 단순하게 표현됨. 요도구는 도침과 불침마개가 확인. 도침은 대부분 원반형, 원통형 도침이며 백자구슬을 제작하기 위해 발 안에 모래를 깔고 사용한 도침이 함께 확인됨. 그 밖에 가운데가 뚫린 장고형 토제품이 확인됨. 가마 운영시기는 단순화된 연당초문, 성긴인화문, 집단연권문 등 문양상의 특징으로 1420~1430년대로 추정.</p> <p><b>【참고문헌】</b>          산림청·육군사관학교회랑대연구소, 「포천 화현리 분청사기 요지」(2006).</p>

## 9. 광주시

번호	유적명/소재지	내용
1	도마리 6호 도요지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492-3번지 일원	<p>1.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198, 312번          '고기' 마을 북쪽 야산에 위치. 계곡 산사면을 이용한 위아래 경사진 밭 일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태가 양호함. 유물을 분청사기와 백자, 원반형 도지미와 갑발편이 수습됨. 분청사기는 인화문이 시문된 발, 잔 등이 있음. 백자는 태토빛을 받침의 발, 접시, 전접시, 잔과 함께 향로가 발견되었고 역삼각형굽에 모래를 밭져구운 갑번백자도 소량 발견됨.</p>

2	번천리 17호 도요지 광주시 중부면 번천리 372-4전 일원	<p>1.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04, 344번</p> <p>번천리 11호 요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90m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 경작으로 유물이 넓게 산포되어 가마와 퇴적의 중심을 찾기는 어려우나 유적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 백자와 인화분청사기가 수습됨.</p> <p>분청사기는 집단연권문, 귀갑문, 국화문 등이 백토로 상감·인화로 장식. 요도구로 허리가 질록한 절구형 도자미와 원통형 깁발이 발견.</p> <p>백자는 발, 접시, 소병·화분 등으로 대부분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구운 상번백자이나 일부는 고운 모래를 받쳐 구운 것도 발견.</p>
3	번천리 20호 도요지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331임 일원	<p>사적 314호</p> <p>1.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06, 352번</p> <p>번천리 19호 요지가 자리한 구릉의 동쪽에 위치. 번천리 96-2번지 민가의 길 건너편 서쪽 산 구릉에 해당 자연지형의 변형이 거의 없고 유적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추정. 유물은 인화분청사기와 백자가 함께 채집됨.</p> <p>분청사기는 집단연권문, 귀갑문 등이 백토로 상감·인화로 장식되어 있고 유태는 회청색. 백자는 내저 원각이 있고 죽절굽에 포개구이한 발, 접시 등이 확인됨. 요도구는 원반형 도자미 수습.</p>
4	번천리 21호 도요지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산73임 일원	<p>사적 314호</p> <p>1.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22, 432번</p> <p>번천리 20호 요지 남동쪽 170m지점에 해당한다. 96-2번지 민가 남쪽 200m지점의 경사가 급한 사면에 자기편과 가마벽편이 산재해 있으며 분포범위 정상부에 3기의 분묘가 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구와 퇴적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유물은 백자와 분청사기가 채집됨. 분청사기는 초화문, 국화문 등이 백토로 상감·인화되어 있다. 폐기된 접시면에 모래를 깔아 도자미로 사용한 예가 확인되었다. 백자는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구운 발, 접시, 잔 등이 있고 대부분 유태가 회백색을 띤다.</p>
5	번천리 22호 도요지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산71임 일원	<p>1.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22, 433번</p> <p>조선 15세기, 번천리 21호로부터 동쪽 산등성이를 따라 약 150m 올라간 지점인 급경사면에 가마가 위치함. 현재 사적비가 있으나 기존 보고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음. 퇴적상태가 매우 양호함.</p> <p>유물을 상감·인화분청사기가 채집되고 귀갑문, 국화문, 초문 등이 시문된 발, 접시 등이 있다.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구운 것들이 대부분이나 다량의 깁발면도 수습되고 있어 깁번호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멍뚫린 발형 깁발과 반구형 깁발뚜껑, 치밀질의 원반형, 원통형 도침이 확인됨.</p>
6	도수리 4호 도요지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9임 일원	<p>사적 314호</p> <p>1.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14, 394번</p> <p>경희대학교 연습림 옆 가원카페 입구와 산림교육관 건물 뒤편, 연습림 우측부분의 3지역으로 중심이 구분됨. 카페 입구지역은 묘역과 밭에 파편이 산재되어 있으며 산림교육과 건물뒤에는 퇴적 구릉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연습림 우측은 임시 막사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가마퇴적과 유구 아래부분이 완전 멀실됨. 단애면에 도편과 가마가 노출되어 있으며 그 아래 밭에 파편이 넓게 산포되어 있음.</p> <p>유물은 백자, 분청사기, 요도구, 가마벽편이 수습됨.</p> <p>분청사기는 국화문, 황선문을 배상감한 상감·인화분청사기로 카페 입구에서만 발견됨. 요도구는 원반형 및 원통형 도침과 삿갓형 깁발뚜껑이 발견됨.</p> <p>백자는 죽절굽에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구운 발, 접시, 잔이 주종을 이루며 회백색과 담청색의 윤품을 띤다.</p>
7	도수리 6호 요지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1-1임 일원	<p>1.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09, 367번</p> <p>도수리 7호의 북쪽에 위치. 유물을 백자와 분청사기, 초벌편이 수습됨.</p> <p>분청사기는 탁한 회청색의 유태에 상감황선문, 인화연주문·귀갑문 등이 시문. 백자는 죽절굽에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구운 발, 접시 등이 주로 출토.</p>

8	도수리 8호 도요지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38-7임 일원	1. 廣州市 · 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10, 370번 도수리 5 · 6 · 7호 요지에서 남동쪽으로 170m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 밭에서는 소량의 분청사기와 다수의 백자편이 채집되며 잡목이 자리한 임야지역인 계곡에서는 요도구와 가마벽편 등이 보임. 분청사기는 귀길문, 황선문 등이 백상감된 밭, 접시 등이며, 백자는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구운 밭과 접 시로 주로 확인. 요도구로 원반형 도지미가 수습됨.
9	도수리 9호 도요지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581-1전 일원	1. 廣州市 · 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08, 361번 도수초등학교 뒤편의 광수초등학교가 있는 경작지에 분포. 학교에 의해 유적이 중심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나 학교뒷편과 좌우측 밭과 구릉에 파편이 넓게 산포 됨. 상강분청사기부터 죽절굽에 태토빛음 받침의 밭, 잔, 오목굽에 굽은 모래 받침의 접시, 조선후기의 청 화백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소량 수습됨. 가마 퇴적물로 분청사기와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구운 백자, 요도구 등이 있음.
10	관음리 26호 도요지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314-1답 일원	1. 廣州市 · 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13, 387번 조선 15세기. 요지는 관음3리에 위치하는데 주변에 27호 · 28호 요지가 분포함. '관음농장' 진입로를 중심으로 상하 경사면에 자기편과 요도구가 발견됨. 진입로 윗면 임야지대의 수로 단면에서 자기편들 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나 임야지대는 이미 계단식으로 지형이 변경되어 유적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 움. 도로조성으로 가마 유구는 상당부분 파손되었을 것으로 보임. 유물은 분청사기가 차집되었고 문양은 연판문, 성간국화문, 선문 등이 백상감되어 있고 굽은 수직굽 또 는 죽절굽에 태토빛음을 받치거나 모래를 깔고 번조함. 가마벽편과 함께 요도구로 원통형 도침이 수습됨
11	관음리 27호 도요지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331-1전 일원	사적 314호 1. 廣州市 · 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13, 388번 14세기 말~15세기 전반. 관음교를 지나 관음동으로 들어가면 미을을 가로지르는 소로가 나오는데 유 적은 소로를 중심으로 양편에 자리한 민가 뒤편에 해당한다. 민가 뒤편이 주퇴적지로 추정됨. 백상감을 한 말기 성감청자 혹은 초기 분청사기와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백자편이 함께 차집됨. 분청사기는 연화문, 황선문 등을 백상감하였다. 원통형과 원반형 도침과 갑발 및 갑발 뚜껑편, 가마벽 편 등이 함께 수습.
12	관음리 31호 도요지 (관 음리 31호 요지)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507-12전 일원	1. 廣州市 · 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12, 381번 관음리 14호 요지와 관음리 15호 요지 사이에 위치. 청정그린빌라 우측편 인근에 가마가 잔존할 것으 로 판단되며 유구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추정. 유물은 상감인화 분청사기편들과 가마벽편, 원통형 도지미 등이 수습됨. 문양은 초화문, 사선문, 집단 연관문, 우점문 등의 문양이 백토로 상감 · 인화분청편이 소량 수습됨. 치밀한 태토로 물레성형한 통형 갑발 와 치밀질의 원반형 도침이 수집됨.
13	목현동 4호 도요지 광주시 목현동 26임 일원	1. 廣州市 · 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17, 406번 목현동 1호 요지에서 북동쪽으로 50m지점에 위치함. 연장골 입구로 삼성하이츠빌라 B동 우측 주차장 뒤편 민가와 밭 일대에 해당. 민가가 들어서고 밭을 경작하면서 지형 및 유적의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보임. 분청사기는 국화문이 시문된 상감 · 인화분청편이 소량 수습됨. 치밀한 태토로 물레성형한 통형 갑발 과 치밀질의 원반형 도침이 수집.
14	쌍동리 1호 도요지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36-2전 일원	1. 廣州市 · 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73, 686번 조선 15세기. 곤지암천으로 유입되는 쌍동천 주변에 2개의 요지가 분포함. 쌍동천은 어두메골이라 불 리는 서에서 동으로 긴 계곡 지형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어두메골 초입에 1호 요지가 위치하고 있 음. 유물은 임녹색 및 화녹색의 분청사기가 수습되며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구운 밭, 접시 등의 기종이 주류를 이룸.

15	쌍동리 3호 도요지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산12임 일원	1.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59, 615번 조선 15세기. 이천방향의 3번국도로 진행하다가 쌍동리의 '수산시장'이라는 식당 앞에서 우회전하여 아파트단지를 끼고 난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신죽아파트공사현장이 오는데 쌍동리 3호 요지는 공사장 앞에서 오른쪽에 있는 축사길로 약 100m 올라가는 길 오른쪽 구릉에 해당함. 유적주변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유적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여겨지며 유물은 인화분청사기가 주를 이룸.
16	학동리 4호 도요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21~147전 일원	사적 314호 1.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65, 645번 조선. 학동리 3호 요지에서 남서쪽으로 180m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두루봉들이라고 불리운다. 현재 밭으로 경작중이며 4개로 분할된 밭과 그 주변에 자기편이 산재되어 있음. 분청사기는 횡선문, 국화문, 연판문 등을 백상감한 밭, 접시 등이 수습되었고 태토빛음을 반쳐 포개 굽거나 모래를 반쳐 번조함. 백자는 갑변과 상변 모두 발견되었고 담청색 혹은 연회색의 유태를 띤다. 요도구로 원통형 갑발, 삿갓형 갑발뚜껑, 원반형 도침이 함께 수습됨.
17	신대리 22호 도요지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 167전 일원	1. 廣州市·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2006), p. 275, 697번 조선 15세기. 신대리 21호 요지에서 도로를 따라 200m가량 올라가면 십이내마골이 나오는데, 계곡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한 민가 뒤편에 해당함. 납골묘와 임천 조씨 묘가 조성된 완만한 야산으로부터 평坦한 묘목밭으로 연결되는 지역에 남북방향으로 경사를 따라 가마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분청사기는 회청색 유태를 띠는 무문의 밭, 접시가 대부분이나 간략한 초문, 연판문 등을 백상감하거나 회문을 인화한 예도 있음. 요도구로 원반형 및 원통형 도침 확인.

## 10. 용인시

번호	유적명/소재지	내용
1	서리 4호 요지 용인시 이동면 서리 293 담, 294전, 산23~1임 일대	1.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 도요지」(1999), pp. 109~118. 조선 15세기. 서리 사기마골 안쪽 끝자락에 사슴농장이 있는데, 이 건물 뒤편에 조성된 족구장과 접해 있는 임야에 위치한다. 유적의 아래부분은 농장건물 뒤편의 정원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위쪽과 좌우변은 소나무 숲이 우거지 임야에 속해 있어서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함. 유적의 폭은 약 40m, 상하의 길이가 45m이고 지표에는 다량의 분청사기편과 가마벽편들이 확인되며 분청사기, 청자, 도기와 함께 요도구 등이 수습됨. 분청사기는 상감·인화·귀얄분장으로 장식한 대접과 소형접시가 대부분이고 밀, 작은 병의 편이 소량 수습. 상감의 경우 와선문(渦線文)이 많고 인화장식은 우점문과 연판문이 다수를 차지하며 귀얄분장은 주로 대접의 내면에 장식됨. 굽과 굽 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반쳐거나 굽 바깥쪽에 태토비짐을 반쳐 포개어 번조함. 무문청자의 형태와 특징은 분청사기와 동일하며 수량이 적음. 요도구는 갑발편과 원반형, 원통형 도침이 수습됨.
2	학일리 3호 요지 용인시 원삼면 학일리 산37~1임 일대	1.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 도요지」(1999), pp. 176~180. 조선 15세기. 임야 중간을 가로지르는 폭 2m의 길로 인해 유적이 많이 파괴된 상태. 소로와 임야의 단애면에 퇴적이 노출되어 있음. 분청사기는 인화·귀얄분장으로 장식한 대접과 소형접시가 주류이고 큰 병의 저부편이 수습. 인화장식은 승려문, 국화문이 대부분이고 대접과 접시의 내면에는 음각횡선문을 시문하고 귀얄분장으로 장식하고 외면은 장식이 없는 무문임. 굽 안바닥은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이나 혹은 모래를 반쳐 번조함. 무문의 청자는 소량 수습. 무문청자의 형태와 특징은 분청사기와 동일하며 수량이 적음. 요도구로 원반형 도침이 수습. 가마벽편 수습.

		1. 용인시 ·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 도요지」(1999), pp. 180~186. 조선 15세기. 학일리 3호 묘지에서 남쪽으로 약 50m 떨어진 구릉에 위치. 임야지역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임 분청사기, 청자, 요도구, 가마·벽면이 수습되었고 수습품 중 포개구이한 예가 확인되지 않음. 분청사기는 인화, 귀얄분장으로 장식한 대접과 소형접시가 주류이고 병 편과 무문의 청자대접과 청자접시가 소량 수습됨. 무문청자의 형태와 특징은 분청사기와 동일하며 수량이 적음. 문양은 횡선문, 승려문, 연판문, 연꽃, 국화, 집단연권문 등을 백토로 인화한 것과 음각의 횡선문, 외선문 위에 귀얄분장함. 유색은 임노색이나 갈녹색이 주류이고 대접은 바닥에 모래를 밟쳐 번조한 것이 많고 접시는 굽과 굽주변에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고 번조반침의 흔적이 분명하지 않음. 요도구로 원통형과 원반형 도침이 수습됨.
3	학일리 4호 묘지 용인시 원삼면 학일리 산37-1임 일대	1. 용인시 ·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 도요지」(1999), pp. 199~204. 조선 15세기. 백암 암자 뒤편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소 오른쪽 사면에 위치. 분청사기는 인화, 귀얄분장으로 장식한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병 편이 수습됨. 문양은 인화로 장식한 국화문, 승려문, 집단연권문, 음각의 횡선문 위에 백토로 귀얄분장함. 유색은 황갈색이 대부분이고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침 반침을 밟쳐 번조함. 무문의 청자편이 수습됨. 요도구는 가운데가 짙록한 원통형 도침과 돌을 장방형으로 가공해 만든 도침을 사용.
4	석천리 1호 묘지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산28-1임 일대	2. 경기문화재단, 「흙으로 빚는 미래 다시 쓰는 경기도지사」(2001), pp. 149~150.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소 바로 오른쪽 산 사면에 위치하며 주변에 4~5기의 묘가 조성되면서 퇴적의 일부가 손상됨.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가마 유적과 퇴적의 일부가 반계 선생의 묘소 우측편에 일부 노출됨. 분청사기가 대부분이고 일부 무문청자편과 다양한 요도구가 수습됨. 조선 15세기 전반. 기종은 대부분 대접과 접시로 병도 확인됨. 유약은 황갈색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릇바닥에 태토비침 반침을 밟쳐 번조함. 대접은 내면에 몇 줄의 음각선을 돌린 후 그 위에 귀얄로 백토를 벌렸고 일부 국화와 승려문이 인화로 장식된 것도 있음. 접시는 형태와 장식이 비교적 다양함. 접시 내면의 상단이나 내면 중앙에는 외선문을 상감한 것이 많고 일부 인화기법으로 국화문이나 승려문을 빼빼하게 시문한 것도 있다. 병은 외면 상단에 음각선을 돌리고 그 주변에 백토칠을 하였다. 무문청자는 분청사기 대접과 특징이 같지만 번조반침으로 모래반침을 사용하였다. 요도구는 원통형과 돌을 다듬어 만든 도침 2종류가 있음.
5	고안리(高安里) 1호 묘지 용인시 백암면 고안리 534답, 537답, 산522임 일대	경기도 문화재자료 65호 1. 용인시 ·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 도요지」(1999), pp. 204~211. 분청사기, 청자, 요도구, 지내부락 남쪽에 있는 고안리 계곡의 안쪽 끝자락에 묘지가 카다랗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 묘지와 묘지 사이에 있는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함. 분청사기는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고 병, 마상배 등도 소량 수습되었고 상감 · 인화 · 귀얄분장으로 장식한 것과 무문의 청자, 요도구가 수습됨. 대접은 인화로 장식한 승려문, 국화문을 빼빼하게 시문하고 음각으로 횡선문을 돌리고 귀얄로 백토를 칠해 장식하고 접시는 문양대를 구획한 뒤 인화로 당초문과 승려문, 집단연권문, 국화문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거나 접시 외면은 승려문을 인화하거나 귀얄분장으로 장식함. 굽은 직립하고 각음새가 단정함. 굽과 굽 언저리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침을 밟쳐 번조함. 무문청자의 형태와 특징은 분청사기와 동일하며 굽은 모래를 밟쳐 번조함. 요도구로 원통형 도침과 돌로 만든 도침 사용. 2. 경기문화재단, 「흙으로 빚는 미래 다시 쓰는 경기도지사」(2001), pp. 148~149. 조선 15세기 전반. 도예가인 한의환 선생에 의해 일찌 벌견되어 경기도 문화재자료 6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음. 백암면 고안리의 지내부락 남쪽에 있는 일명 사령골 안에 위치하는데 무덤이 조성되어 이 묘지와 묘지 사이에 있는 나지막한 구릉에 자리 잡고 있음. 가마터의 좌측편은 묘지 조성시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임. 짙은 암녹색의 무문청자류와 상감분청사기 · 인화분청사기가 확인.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제기 · 호 · 병의 편들이 소량 확인됨. 대접은 상감 · 인화기법으로 국판문, 원권문이 장식됨. 요도구는 원통형 도침과 장방형 돌을 도침으로 사용. 소규모 가마로 추정.

6	초부리 청자요지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산28 · 산28-1	<p>1. 명지대학교박물관 · 용인시, 「용인 초부리 자연휴양림 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2006), pp. 22~37.</p> <p>조선 15세기 전반 보고자는 초부리 요지를 청자요지로 구분하였으나 고려 말~조선 초의 분청사기로 보았다. 문양은 대부분이 인화문이고 소리한 선상감으로 장식한 문양이 주류를 이룸. 흑백상감의 연당조문의 퇴락 정도는 광주 도수리 지역 상황과 유사하며 인화로 장식된 문양은 삼원문, 육원문, 연판문, 연주문, 여의 두문, 구갑문, 국화문 등.</p> <p>청자 굽은 단면이 사각형으로 접지면이 넓게 마무리되고 깎음새가 정교하지 못하며 포개구이로 번조항: 번조반침으로 모래반침과 태토빛을 반침을 사용. 인화분청 외에 귀얄분청사기가 소량 확인됨.</p> <p>수습된 청자, 분청사기의 기형은 접사와 대접이 대부분이고 병과 호 등은 소량 수습. 초발편 도침, 태토반침, 가마벽편 등 요업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물이 수습.</p>
---	--	--

## 11. 서울 · 인천

번호	유적명/소재지	내용
1	수유동 도요지1 (강북구 수유동 청자요지 1호)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127-1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12~413.</p> <p>14세기 말~15세기 초, 지표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발과 접시로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 바닥면을 누른 흔적이 있음.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전면시유 후 굽과 굽 안쪽을 닦아내었고 태토빛을 반침을 받쳐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음. 2006년과 2010년 이전조사에서 7월문, 여의두문, 운문 등 다양한 인화문양이 확인되었고 2015년 조사에서는 보조문양으로 사용된 상감선문, 인화 연주문이 확인.</p> <p><b>【참고문헌】</b>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2	수유동 도요지2 (강북구 수유동 청자요지 2호)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127-1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14~415.</p> <p>14세기 말~15세기 초, 등산로 주변 산림 훼손으로 요지 파괴. 지표에서 확인된 유물은 발과 접시로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 바닥면을 누른 흔적이 있음. 문양은 상감 선문, 인화 연주문, 3월문, 7월문, 운문, 연판문, 연당조문 등이 확인.</p> <p><b>【참고문헌】</b>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3	수유동 도요지 3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127-11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16~419.</p> <p>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11년 발굴조사. 고려 말~조선 초(1380~1418), 가마는 능선사면에 위치하며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조사지역에서 가마1기, 가마폐기물 퇴적구 1기, 가마 운영시점 이후에 조성된 건물의 온돌시설 1기 확인. 출토유물은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으로 그 외에 진, 병, 호, 매병, 항완, 고죽배, 'ㄷ'형 용도미상 기종, 도침, 벽체 등. 장식기법은 상감, 인화, 음각, 입출기법이 확인되었고 상감과 인화기법의 비중이 높음. 고려후기 장식기법이 대부분 확인되거나 문양의 간략화가 진행되었고 상감기법은 연당조문, 포류수금문, 운학문, 용문, 어문 등이고 인화기법은 3월문, 7월문, 운문, 연주문, 국화문, 구갑문, 승려문 등이 단독 혹은 기면에 성기계 시문됨. 음각기법은 원문, 횡선문 등 단순한 문양만이 소량 확인. 입출양각 기법은 화형잔과 8각 접시의 내면에서 확인, 명문은 '德泉', '德', '泉', '上'이 확인.</p> <p><b>【참고문헌】</b>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4	<p>수유동 도요지 4 (강북구 수유동 청자요지 5호)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127-4</p>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20~421. 14세기 말~15세기 초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은 밀과 접시로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 바닥면을 누른 흔적이 있음.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전면시유 후 굽과 굽 안쪽을 닦아내고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 구이한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상감 선문이 확인되었고 2010년 조사보고서에는 7월문, 초문, 연주문, 승려문 등이 확인됨.</p> <p><b>【참고문헌】</b>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5	<p>우이동 도요지 1 (강북구 우이동 청자요지 1)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22</p>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22~423. 14세기 말~15세기 초 2006년, 2010년 보고서에서 확인된 유물은 밀, 접시, 병, 매병 등으로 굽은 죽 절굽, 평굽으로 제작. 죽절굽은 굽 안쪽 바닥면에 누른 흔적이 있고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함.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음각선문이 다수 확인되며 상감선문, 인화연주문, 3월문, 7월문, 운문, 연편문, 연당초문 등이 확인됨.</p> <p><b>【참고문헌】</b>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6	<p>우이동 도요지 2 (강북구 우이동 청자요지 2)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0-4</p>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24~425. 14세기 말~15세기 초, 민가를 짓는 과정에서 요지 대부분 훼손됨.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은 밀, 접시와 호, 병으로 추정되는 기종이 확인. 굽은 죽절굽이고 굽 안쪽 바닥면에 누른 흔적이 있음.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상감선문, 초문이 확인. 2006년, 2010년 보고서에는 간략하게 변한 연당초문이 확인됨.</p> <p><b>【참고문헌】</b>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7	<p>우이동 도요지 3 (강북구 우이동 청자요지 3호)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p>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26~427. 14세기 말~15세기 초, 가마는 능선을 따라 북동~남서 방향으로 있을 것으로 추정.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은 밀과 접시로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 바닥면에 누른 흔적이 있음.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음각선문이 다수를 차지하며 상감선문, 인화여의두문이 확인됨. 이전 조사에서 간략하게 변한 당초문, 삼월문 등이 확인됨.</p> <p><b>【참고문헌】</b>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8	<p>우이동 도요지 4 (강북구 우이동 청자요지 4)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68-1</p>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28~429. 14세기 말~15세기 초,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을 밀, 접시로 굽은 죽절굽이고 굽 안쪽 바닥에 누른 흔적이 있음. 유약은 전면에 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음각선문이 다수를 차지하며 상감 선문, 농문, 간략하게 변한 당초문과 함께 인화 여의두문, 국화문, 연편문 등이 확인됨. 이전 조사에서 구갑문을 확인함. 요도구는 원통형, 원반형 도침이 확인.</p> <p><b>【참고문헌】</b>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9	우이동 도요지 5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0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30~431.          14세기 말~15세기 초,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은 발과 접시로 굽은 죽절굽으로 제작하였고 굽 안쪽 바닥면에 누른 흔적이 있음.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태토빛을 받침을 밟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음각선문, 간략하게 변한 연당초문이 확인됨.</p>
10	우이동 도요지 6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21-11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32~435.          조선 1420~1450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12년 발굴조사.          가마 1기, 폐기장 3곳(가마좌측, 우측, 하단) 조사. 가마의 구조는 요전부, 아궁이, 번조실, 연도부로 구성된 무게단식 단실요로 전체길이 21.1m, 폭 1.4~2.0m, 경사도 14°.          가마폐기를 퇴적은 가마의 우측 폐기장의 규모가 가장 크며 좌측은 규모는 적으나 유물의 밀집도 높게 확인됨.          소성실 하단부에서는 유물이 소량 확인되는 퇴적구가 확인됨. 출토지기는 청자로 소량의 흑유자기가 확인되었고 요도구인 도침과 갑발, 가마벽체편이 조사됨.          기종은 청자는 발, 접시가 대부분이고 잔, 병, 호, 합, 'ㄷ'형 용도미상 자기 등. 태토는 잡물이 섞인 회색, 회백색이며 유색은 회청색. 녹갈색이 대부분. 죽절굽에 굽 안쪽을 다졌고 빌은 전면시유후 접지면을 뒤 아내었고 접시는 굽 주변은 시유하지 않음. 문양은 무문과 음각횡선문 자기가 대부분이고 상감 및 인화문자는 소량 확인됨. 상감문양은 연화당초문, 초문, 수금문이 중심이며 고려 말 상감청자의 문양이 해체된 모습을 보임. 인화문은 3원문, 7원문, 구갑문, 국화문 등을 성기게 시문함. 번조사 태토비침을 받치고 포개기 하였고 요도구로 원통형 도침을 사용하고 일부는 발형갑발을 사용함.</p> <p><b>【참고문헌】</b>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11	우이동 도요지 7 (강북구 우이동 청자요지 7호)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28~429.          14세기 말~15세기 초, 지표에서 확인된 유물은 발, 접시로 굽은 죽절굽으로 제작하였고 굽 안쪽 바닥에 누른 흔적이 있음.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함. 태토빛을 받침을 밟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무문, 음각선문이 대부분이고 간략하게 변한 상감연당초문이 확인됨.</p> <p><b>【참고문헌】</b>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12	우이동 도요지 8 (강북구 우이동 청자 요지 8호)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38~439.          14세기 말~15세기 초,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은 발과 접시,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 바닥면에 누른 흔적이 있음.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태토빛을 받침을 바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무문, 음각선문이 대부분이고 인화국화문이 확인됨. 이전 조사에서는 간략하게 변한 연당초문, 연주문이 확인됨.</p> <p><b>【참고문헌】</b>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13	우이동 도요지 9 (강북구 우이동 청자 요지 9호)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68-1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40~441.          14세기 말~15세기 초, 초발편의 출토량이 많은 것이 특징.          지표에서 수습한 유물은 발, 접시로 굽은 죽절굽으로 제작. 굽 안쪽 바닥면에 누른 흔적이 있음.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태토빛을 받침을 밟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상감선문, 초문, 연당초문, 인화 3원문, 인화 7원문 등이 확인됨.</p> <p><b>【참고문헌】</b>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14	우이동 도요지 10 (강북구 우이동 청자 요지 10호)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68-1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42~443.          14세기 말~15세기 초 지표 수습된 유물은 밀과 접시이고 굽은 죽절굽으로 제작하고 굽 안쪽 바닥면에 누른 흔적이 있다.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있음. 문양은 대부분 음각선문이고 상감 초문, 당초문이 변형된 우점문이 확인됨.</p> <p>【참고문헌】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15	우이동 도요지 11 (강북구 우이동 청자 요지 11호)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68-1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44~445.          14세기 말~15세기 초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은 밀과 접시, 매병 등이고 굽은 죽절굽이고 굽 안쪽 바닥면에 누른 흔적이 있음.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있다. 문양은 음각선문이 대부분이고 이전 조사에서 연판문, 7월문, 국화문 등이 확인됨.</p> <p>【참고문헌】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16	우이동 도요지 12 (강북구 우이동 청자 요지 12)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45-1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46~447.          14세기 말~15세기 초, 민가와 군침호 시설로 인해 원지형의 훼손이 심한 지역.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은 밀, 접시, 매병 등이고 굽은 죽절굽으로 제작, 굽 안쪽 바닥면에 누른 흔적이 있음.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음각선문이 대부분이고 이전 조사에서 구갑문, 초문 등이 확인됨.</p> <p>【참고문헌】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17	우이동 도요지 13 (강북구 우이동 청자요지 13)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68-1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48~449.          14세기 말~15세기 초 가마터는 군야영장 시설로 인해 일부 훼손.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은 밀, 접시가 대부분이고 굽은 죽절굽이며 굽 안쪽 바닥면에 누른 흔적이 있음.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음각선문이 대부분이고 상감초문이 확인되고 이전 조사에서는 연주문, 7월문, 승령문 등을 확인 요도구로 원통형도침이 확인</p> <p>【참고문헌】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18	우이동 도요지 14 (강북구 우이동 청자 요지 15)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74-1	<p>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450~451.          14세기 말~15세기 초          퇴적층이 일부 노출되어있고 가마는 군의 방공호 설치로 인해 유적의 상, 하단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양호한 편임.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은 밀, 접시, 매병 등이고 굽은 죽절굽으로 굽 안쪽 바닥면에 누른 흔적이 있다. 유약은 전면시유 혹은 굽 주변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태토빛을 받침을 받쳐 포개어 구운 흔적이 남아 있음. 문양은 음각선문이 대부분이고 연주문, 간략하게 변한 연당초문이 확인, 요도구는 원통형 도침 사용.</p> <p>【참고문헌】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200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강북구 가마터」(2010).</p>

19	사기리 도요지 (강화도 분청사기 요지)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191-8	<p>1. 경기도지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2015), pp. 502~503.          조선 15세기 전반, 1986년 4월 1일 강화군 향토유적 18호로 지정됨.          지표에서 확인되는 분청사기의 기종은 벌과 접시, 병 등이고 굽은 죽절굽에 굽 안쪽을 높렸고 굽 주변은 시유하지 않고 태토빛을 받침을 굽 인쪽 혹은 굽 바깥쪽에 밟쳐 포개어 번조함. 문양은 상감선문, 인화국화문, 승려문 등이 외면에 장식되었고 요도구로 원반형, 원통형 도침 확인!</p> <p><b>【참고문헌】</b>          불교중앙교원대한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강화의 문화유적 강화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2002).          인천광역시 · 불교중앙교원대한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문화유적분포지도—인천광역시 · 강화군」(2003).</p>
----	--	---

## 12. 강원도

번호	유적명/소재지	내용
1	보광리 도요지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715 베리안 마을	<p>1. 관동대학교박물관, 「영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4), pp. 255~256.          조선 15세기 전반, 1994년 조사당시 경작지로 인해 원지형이 일부 훼손되었으나 유구의 존재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분청사기 초벌편과 도침이 붙어 있는 파편, 소토편 등 수습. 수습된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문양은 흑상감된 연당초문과 인화 국화문, 인화 연판문 등이 시문.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보현촌(普賢村) 자기 소로 추정.</p>
2	미탄면 울치리 도요지  평창군 미탄면 울치리	<p>1. 강원대학교박물관, 「평창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87), p. 51.          조선 15세기, 1985년 주민들이 무덤을 쓰기 위해 땅을 파던 중 분청사기가 다수 출토됨. 이후 1986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현장조사결과 분청사기편, 초벌구이편, 도침, 유약이 엉겨 붙은 태토덩어리 등을 확인. 대부분 분청사기 구연부편과 동체편이 확인됨. 문양은 무문이 대부분이고 초화문 장식이 일부 편에서 확인.</p>
3	철원군 어운면 이길리 도요지  철원군 어운면 이길리	<p>1. 강원대학교박물관, 「철원의 역사와 문화유적」(1995), p. 311.          조선 15세기, 1956년에 편찬된 아사카와 노리다카(淺川伯教)의 「李朝陶磁窯蹟一覽表」에는 철원군 어운면 이길리(鐵原郡 於雲面 賴吉里)에서 15세기 상감분청사기요지가 1기 조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1995년 조사당시에는 소재 확인을 못함.</p> <p><b>【참고문헌】</b>          浅川伯教 編 「李朝陶磁窯蹟一覽表」, 「世界陶磁全集」14 李朝河出書房, 1956), pp. 248~255.</p>

| 투고일 2018. 11. 12. | 심사개시일 2018. 11. 16. | 게재 확정일 2018. 11. 20 |

## 참고문헌

### 단행본

- 姜敬淑『粉青沙器研究』, 一志社, 1989.  
鄭良謨『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尹龍二『韓國陶瓷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韓國白磁窯址』, 1986.

### 논저

- 淺川伯教 編『李朝陶磁窯蹟一覽表』, 『世界陶磁全集』14 李朝, 河出書房, 1956.  
香本不苦治·鄭良謨·尹龍二『李朝陶磁窯跡表』, 『世界陶磁全集』19, 小學館, 1980.  
강경숙, 「광주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2001.  
박경자, 「공납용 분청사기의 통일된 양식과 제작배경」, 『미술사논단』27, 한국미술연구소, 2008.  
\_\_\_\_\_, 「朝鮮 15世紀 磁器所의 성격」, 『미술사학연구』270, 한국미술사학회, 2011.  
\_\_\_\_\_, 「조선 초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계통과 의의」, 『美術史學』27,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3.  
\_\_\_\_\_, 「백화산 권역의 도자생산과 그 의미—尙州牧 磁器所를 중심으로」, 『백화산과 상주』, 백화산을 사랑하는 모임·백화산역사문화융성위원회, 2016.  
박정민, 「조선 전기 명문 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윤용이, 「분청사기요지 분포와 특색」, 『분청사기』, 이화여자대학교 특별전도록13, 1984.  
홍순욱, 「강릉 보광리 출토 분청사기 고찰」, 『臨瀛文化』20, 江陵文化院, 1996.

### 도록·보고서

- 가평군·강원대학교 박물관,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강원대학교박물관, 「평창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87.  
\_\_\_\_\_, 「철원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5.  
\_\_\_\_\_,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 1998.  
\_\_\_\_\_, 「경기문화유적지도」, 2000.  
\_\_\_\_\_, 「경기문화유적지도」, 2000.  
\_\_\_\_\_, 「임진강·경기도 3대 하천유적 종합학술조사」, vol.3 문화유적(2), 2001.  
\_\_\_\_\_, 「한강·경기도 3대 하천유적 종합학술조사」, vol.3 문화유적(2), 2006.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의 도요지」, 2015.  
\_\_\_\_\_, 「김영훈선생 기증도편 자료집」, 2016.  
\_\_\_\_\_, 「광주백자-발굴로 다시쓰는 분원 이야기」, 2017.

- 경기문화재연구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효자건설, 「포천 길명리 흑유자요지 포천—일동~영중간 도로 확 · 포장 공사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國立中央博物館 · 京畿道博物館, 「京畿道 廣州中央官窯」, 1998.
- \_\_\_\_\_, 「京畿道 廣州中央官窯 해설편」, 2000.
- 관동대학교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4.
- 廣州市 · 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 2006.
- 단국대학교 사학과, 「과천시 현 관아지 및 관악산일원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1994.
- 문화재청,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 2008.
- \_\_\_\_\_,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 2010.
- 명지대학교박물관 · 용인시, 「용인 초부리 자연휴양림 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6.
- 불교중앙교원대한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강화의 문화유적 강화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2.
- 산림청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포천 회현리 분청사기 요지」, 2006.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의 도요지와 陶磁器」, 2006.
- \_\_\_\_\_, 「서울 강북구 가마터」, 2010.
- \_\_\_\_\_, 「강북구 수유동 가마터」, 2013.
- \_\_\_\_\_, 「강북구 우이동 가마터」, 2014.
-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 2006.
- 양주시 · 상명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양주시」, 2006.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 연천군」, 2007.
- 용인시 · 용인문화원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 도요지」, 1999.
- 인천광역시 · 불교중앙교원대한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문화유적분포지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3.
- 조선관묘박물관, 「廣州의 朝鮮陶磁窯址」, 2004.
- 해강도자미술관, 「廣州의 白磁窯址」, 1992.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 \_\_\_\_\_,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 중부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 심지연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를 중부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의 조사현황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부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현황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비롯해 문화유적분포지도, 각종 지표조사 및 시 · 발굴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확인된 다수의 유적에서는 대부분의 고려 말-조선 초로 볼 수 있는 분청사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고려 말의 상감청자 문양이 해체된 모습과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초기 단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부지역 분청사기의 특징은 광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상감과 인화 등의 시문기법을 사용한 반면 집단연권인화기법으로 장식된 분청사기를 제작한 가마터는 많지 않다.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백자처럼 보이는 덤병 · 귀얄분청사기의 존재는 분청사기 제작에서 백자제작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로 15세기 중엽경 경기도 지역에서는 분청사기의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편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확인되는 분청사기 중 집단연권형 인화문이 확인되지 않는 유적의 경우 15세기 전반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사에서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 연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 중부지역, 상감기법, 인화기법, 집단연권인화기법, 덤병 · 귀얄기법

## Abstract

#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the Central Region

Shim Jiyeon

This study set Seoul Metropolitan City, Incheon Metropolitan City, Gyeonggi-do and Gangwon-do as the central areas and the purpose of this was to identify the investigation status and features of this area's Buncheong (grayish-blue-powdered celadon) Kiln Site. The central area Buncheong Kiln Site investigation status was arranged using past research as well as cultural artifact distribution maps and various index studies and prospecting and excavation reports.

The Buncheong ceramics found at the central area Buncheong Kiln Site were mostly from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nd early Joseon Dynasty. The patterns are characterized by broken up inlying celadon patterns and the early stages of stamping technique Buncheong. The features of Buncheong in the central area are that most used decorative techniques of inlying and stamping. However, there were few kilns that produced Buncheong decorated with the group lotus flower stamping technique.

The white slip-coated/brushing technique Buncheong that look like white porcelain found in some parts of Gyeonggi-do show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nto white porcelain production from Buncheong production. It appears that production of Buncheong stopped in the Gyeonggi-do region in the mid-15th century.

Based on the current chronological recording, remains in which group lotus flower stamping techniques were not found among the central area Buncheong Kiln Sites can be set in the early 15th century. Therefore, it is now necessary to review the chronology of existing Buncheong Kiln Sites.

**Keywords :** Style of Buncheong ceramics, Inlying technique, Stamping technique, White slip-coated·brushing technique

#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특징

박형순\*

I. 머리말

II.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

III.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특징

IV. 맷음말

---

\*문화재청

#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특징

박형순  
문화재청

## I. 머리말

그동안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 유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는 공주 학봉리유적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학봉리유적에 대한 재발굴 조사를 필두로 충청도 지역에서는 많은 분청사기 가마터가 조사되었고, 현재까지 모두 12개소 34기의 분청사기 가마터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이 활발해지고, 지역별 분청사기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볼 때 충청지역 분청사기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2010년대 이후 충청지역에서 이렇다 할 발굴조사 성과가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 바도 있겠지만, 공주 학봉리유적 이외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연구에서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주제가 부각되지 않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현황을 검토해 봄으로써, 학봉리유적을 비롯한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특징과 향후 충청지역 분청사기 관련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여러 다양한 주제와 연구 방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조선시대 충청지역에서 공납용 분청사기가 어떤 형태로 생산되고, 어떻게 운송·수납되었는지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 II.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관심은 공주 학봉리유적을 중심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대두되었다. 충청남도 공주시 학봉리 일원은 1927년 일제 조사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충청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굴이 이루어진 유적이다. 학봉리유적은 일본 도자 생산의 원류와 관련 있

는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고, 독특한 철화 장식의 분청사기가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및 국내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적이다. 따라서 1927년 발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많은 도예가 및 연구자들의 현지 답사가 계속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927년 조사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해 1992~1993년에 걸쳐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공주 학봉리유적은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를 대표하는 유적이 되었다.

1986년 강경숙에 의해 전국의 분청사기 가마터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공주시 의당면, 연기군 전의면 일원에 조선시대 가마 유적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양상이 학계에 소개되었다. 학봉리 유적과 함께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공주목조(公州牧條)에 언급된 ‘주동동학동(州東 東鶴洞)’, ‘주북군지촌(州北軍知村)’의 중품(中品) 도기소(磁器所)로 비정되어 충청 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sup>1</sup>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발굴조사는 1990년대 이후 학봉리유적 재발굴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공주 학봉리유적과 대전 구완동유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종 개발 사업에 앞서 구제 형식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조선 초 충청지역 분청사기 생산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조사 현황

유적명		조사년도	조사기관	보고서
충 청 남 도	公州 鶴峰里遺蹟	1927 1992~1993	조선총독부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 1927년, 계룡산록도요지조사보고 소화 이년도고적조사보고 제1책. 국립중앙박물관, 2007, 계룡산도자기
	大田 舊完洞遺蹟	1997	해강도자미술관	해강도자미술관, 2001, 대전 구원동 요지
	保寧 龍水里遺蹟	199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해강도자미술관	이화여대박물관/해강도자미술관, 1996, 보령댐수몰 지역 발굴조사보고 도요지발굴조사
	保寧 平羅里遺蹟	1995	연세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1996, 보령댐수몰지역 발굴조사보고 도요지발굴조사
	瑞山 舞將里遺蹟	1997~1998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충남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서산 무장리 요지
	燕岐 松亭里遺蹟	1990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991, 송정리도요지
	天安 陽谷里遺蹟	1996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1997, 천안 양곡리 분청사기 요지
충 청 북 도	槐山 松面里遺蹟	2008	충북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2010, 과산 송면리유적
	報恩 赤岩里遺蹟	2003	중앙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보은 적암리 분청사기요지
	永同 沙夫里遺蹟	2002~2003	중앙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영동 사부리 · 노근리도요지
	堤川 동막골 遺蹟	2005~2006	중원문화재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제천 동막골 유적
	忠州 大花里遺蹟	2009~2010	증원문화재연구원	증원문화재연구원, 2002, KM그린CC 조성사업부지 내 충주 대화리 유적

1 姜敬淑, 「粉青沙器研究」(一志社, 1986).

지금까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조선시대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는 모두 12개 유적 34기이다. 이 중 영동 사부리유적은 해당 가마가 운영되던 시기에는 경상도 상주목 금산군에 속했던 곳이므로, 조선시대 충청도 관할 분청사기 가마터는 지금까지 11개 유적 총 33기가 확인된 셈이다.

대부분 잔존 상태가 좋지 않아 대전 구완동 2호 가마, 천안 양곡리 1~3호 가마, 보령 용수리 1호 가마 등을 제외하면 가마 전체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발굴조사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0년대 이후 새로운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와 연구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의 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공주 학봉리유적(公州 鶴峯里遺蹟), 사적 제333호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일원에 위치한다. 충청남도 소재 계룡산(해발 845m)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용수천 주변 지역으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가마터 유적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학봉리 뿐 아니라 온천리, 상신리에도 다수의 조선시대 가마가 확인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 공주목조의 ‘주동동학동(州東東鶴洞) 중품(中品)’ 도기소(磁器所)가 위치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학봉리유적은 1927년 노모리 겐[野守健]에 의해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사업 일환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때 7개 도요지 균 13개소의 요지가 조사된 바 있다. 당시 조사된 가마는 동학사 쪽으로부터 제1도요지 2지역, 제1도요지 1지역, 제2~제6도요지 등 7개 도요지인데, 7개 도요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제1도요지 1지역에서 3기, 3호 도요지와 5호 도요지 사이에서 8기, 6호 도요지에서 2기 등 총 13기의 가마 및 가마 흔적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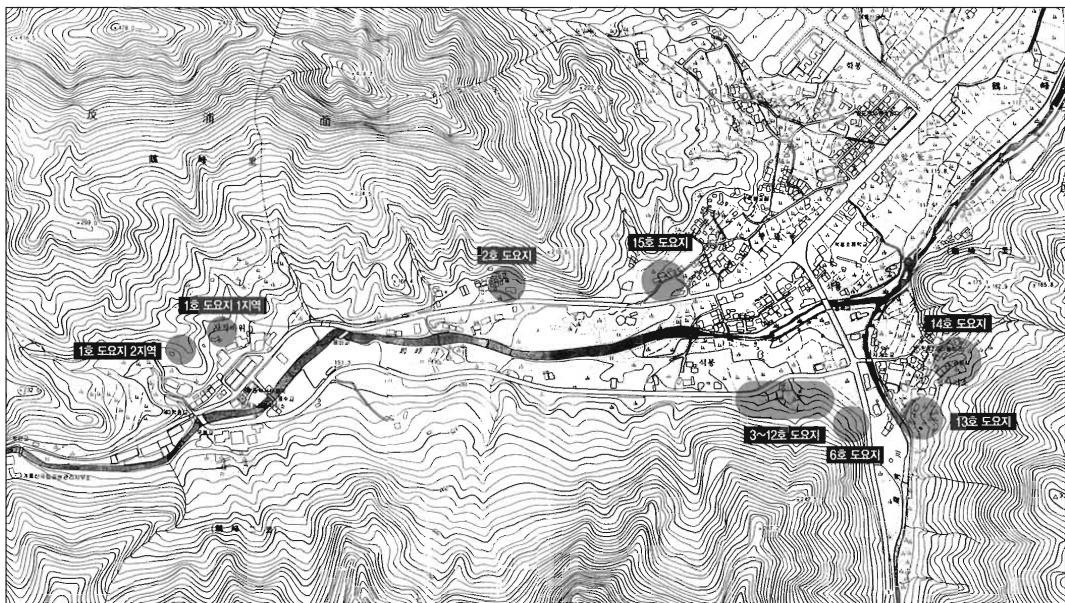
학봉리유적 가마의 일련 번호는 처음 명명된 제1호~제6호 도요지를 중심으로 제4호와 5호 도요지 사이에서 추가로 확인된 가마 6기를 제7호~제12호 요지로 명명하였으며,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추가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3개의 요지를 추가하고 제13호~제15호 요지로 명명하였다.<sup>2</sup> 학봉리유적에서 확인된 도요지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공주 학봉리유적 도요지 현황

		가마수	특징	조사
제1도요지	1지역	3기	흑유자, 인화문분청, 백자	발굴
	2지역	파괴	1지역과 동일	
제2도요지		퇴적층	조선 후기 백자	

2 국립중앙박물관, 『계룡산 도자기』(2007).

가마수	특징	조사
제3도요지	8기 (제7~12도요지)	귀얄분청, 인화문분청, 철화분청, 백자
제4도요지		백자, 인회분청, 귀얄분청, 철화분청
제5도요지		인화분청, 귀얄분청, 도기
제6도요지	2기흔적	인화분청, 귀얄분청, 도기
제13도요지		회청사기, 인화분청, 귀얄분청, 철화분청
제14도요지		인화분청, 철화분청, 귀얄분청
제15도요지		인화분청, 귀얄분청, 회청사기, 철화분청



도 1. 충청남도 공주 학봉리 일원 도요지 분포 현황

이 중 제1도요지 1지역의 가마 3기와 제5도요지의 가마는 1927년 조사보고서에 가마의 도면이 게재된 바 있다.<sup>3</sup> 1992년에는 1927년 조사당시 제3~제5도요지(7~12호 포함)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5호, 7호, 8호 요지 흔적을 확인하고 나머지 3호, 4호, 9호, 10호, 11호, 12호 요지는 대부분 훼손되어 유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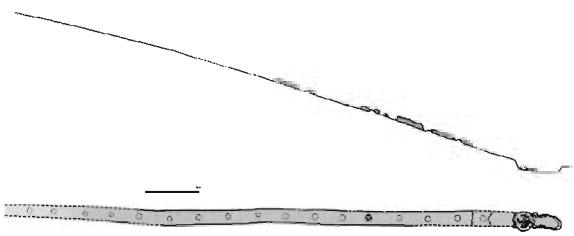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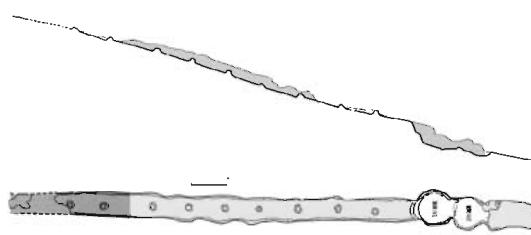
1927년과 1992~1993년 2차례에 걸쳐 조사된 5호 및 7호 도요지는 가마 뒷부분이 유실되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사를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연조실과 번조실 구조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확인되어 학봉리유적의 분청사기 가마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학봉리 5호와 7호 가마 모두 번조실 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불기동이 시설된 단실불기동요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가마 뒷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전체 길이가 49.5m, 34m에 달하는 대형

3 朝鮮總督府, 「鷄龍山麓陶窯址調査報告—昭和二年度 古蹟調査報告 第一冊」(1929).

가마이다.〈표3〉 5호와 7호 도요지 주변 퇴적층에서 수습된 유물은 분청사기가 전체의 92%에 달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으며, 기타 백자와 회청사기, 흑유자기, 도기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분청사기는 인화문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상감, 박지, 조화, 귀얄, 철화 등등 분청사기 장식 기법이 다양하게 활용된 것이었다.

표 3. 학봉리유적 5·7호가마 구조 일람표

가마	가마구조	잔존 길이	경사도	연소실
5호가마	도 1 충청남도 공주 학봉리 일원 도요지 분포 현황	49.5m	잔존 12°	165*185 타원형 수혈 점토+활석, 불덕 70cm
				
7호가마	단실불기동요 (9개소, 2.4m간격)	34m	잔존 15°	230*200 타원형 수혈 점토+집석, 불덕 150cm
				



도 2. 학봉리유적 출토 관사명 분청사기(內廳寺, 內資寺, 禮賓寺)

그러나 이미 1927년 조사를 비롯하여 후대의 경작과 도굴 등으로 인해 퇴적층이 대부분 교란된 상태로 조사되어 분청사기, 회청사기, 백자, 흑유자기 등의 충위별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학봉리유적이 15세기를 비롯하여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충청지역 분청사기 연구 및 분청에서

백자로의 이행 과정을 연구하는데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출토유물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도 광주 충효동유적이 조선시대 분청사기 제작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학봉리유적에서는 철화로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瞻寺)’, ‘예빈시(禮賓寺)’ 등의 관사명을 새긴 공납자기가 출토되었다.(도2) 대부분 촘촘하게 인화 장식한 기면(器面)에 귀얄로 거칠게 백토 분장한 분청사기에서 관사명이 확인되는데, 기타 다른 장식의 분청사기에서는 관사명이 확인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관사명 새김 방식은 충청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 공납용 분청사기에서 도장 및 음각으로 사호(司號)를 새겼던 방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학봉리 유적 출토 관사명 분청사기는 각 지역 자기소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중앙 각사에 공납하던 분청사기와는 다른 성격의 공납품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들 관사명이 새겨진 자기가 조선 초 내자시와 내섬시, 예빈시가 공동으로 판비(辦備)하던 국가적 행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납자기임은 분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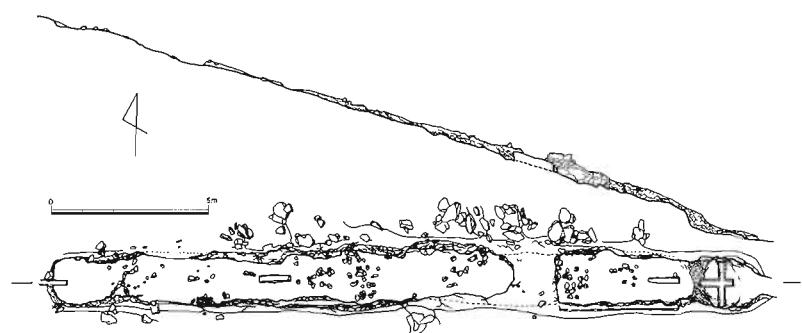
## 2) 대전 구완동유적(大田 舊完洞遺蹟), 시도기념물 제35호

대전광역시 소재 오도산(해발 336m)의 남서록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인접한 보문산(해발 457m)과의 사이에 위치한 대전 구완동 일대는 일찍부터 청자요지를 비롯하여 상감청자요지, 백자요지 등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이들 생산유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1995년 구완동 어청골 청자요지, 1996년 구완동 상감청자요지, 1997년에는 인근의 정생동 백자요지에 이르기까지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sup>4</sup>

조사 결과, 오도산의 남서록의 서향사면 하단에서 2기의 분청사기 가마가 확인되었다. 2기 중 2호 가마는 연소실과 번조실, 굽뚝부, 가마 천정 일부가 남아 있는 등 매우 양호한 잔존 상태로 조사되었다. 가마는 단실요의 구조로서 총 길이가 25m, 가마 내벽의 너비가 110~140cm, 전체 경사도는 20° 정도이다. 원형 수혈 형태의 연소실로 조성하였고, 불턱은 직각에 가까운 불턱을 조성하였다.(도3)

가마 주변의 퇴적층에서는 고려 후기 상감청자의 전통이 남아 있는 흑백 상감의 분청사기로부터 그릇 표면에 촘촘하게 인화문을 장식한 인화문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인화문 분청사기에는 ‘내자집용(內資執用)’의 명문이 새겨진 공납자기가 확인되었다.(도4)

4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대전 지방의 도요지」(1999) ; 해강도자미술관, 「대전시 구완동 상감청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1996) ; 해강도자미술관, 「대전 구완동 요지」(2001).



도 3. 대전 구원동유적 2호 분청사기 가마 평 · 단면도



도 4. 대전 구원동유적 출토 분청사기

### 3) 보령 용수리유적(保寧 龍水里遺蹟)

용수리유적은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의 보령댐 수몰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유적이다. 보령댐 공사 당시 수몰지역에 해당하는 도화담리, 풍계리, 용수리, 평라리, 늑전리, 주산면 동오리 일원에 대한 문화유적 조사가 실시되었고, 조사를 통해 사지, 지석묘, 기와·청자·분청사기·백자 등의 가마유적 등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었다.<sup>5</sup> 특히 이 일대에 다수의 생산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 공주목 남포현조에 ‘현동 취련모로리 중품 자기소(縣東 吹鍊毛老里 中品 磁器所)’ 기록이 살펴진다. 즉, 용수리 및 평라리유적 등 분청사기 생산 유적은 조선 초 남포현의 동쪽에 위치한 ‘취련모로리 중품 자기소’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 추정된다.<sup>6</sup>

용수리유적에서는 3기의 분청사기 가마와 백자가마 1기, 퇴적층 등이 확인되었다. 용수리 1호, 2호, 3호 가마가 각각 약 300m, 약 700m 간격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용수리 1호에서 분청사기 가마 1기, 용수리 2호에서 분청사기 가마 2기, 용수리 3호에서 백자가마 1기가 확인되었다. 용수리유적 분청사기 가마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4〉

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보령댐 수몰지역 발굴조사보고③ 도요지 발굴조사보고」(1996).

6 보령댐 수몰지구에 대한 조사 직후 이 일대의 생산유적이 「세종실록지리지」 보령현조(保寧縣條)의 ‘현서청연리 하품 자기소(縣西青淵里 下品 磁器所)’로 비정된 바 있다. 하지만 미산면 보령댐 일원은 남포면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보다 북쪽에 위치한 보령의 서쪽에 위치한 자기소와는 위치상 맞지 않는 점이 있어 남포현 자기소로 판단하였음을 밝힌다.

표 4. 용수리유적 분청사기 가마 현황

유적명	가마 평 · 단면도	가마재원	연소실	초벌칸
용수리 1호		단실요 길이 31.5m 너비 1.1~1.2m 경사도 20°	타원형 수혈 할석+점토 (3×1.6m) 불턱 1.3m	바닥 편평 별도 2칸
용수리 2호 (북요)		단실불기동요 길이 32m 너비 1.1~1.2m	타원형 수혈 할석+점토 (3.2×1.5m) 불턱 1.1m	지하식 1칸
용수리 2호 (남요)		잔존 5m 너비 1.2m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확인된 용수리 1호 가마는 전체 길이가 31.5m, 너비가 160cm, 가마 경사도가 15~20°인 세장한 형태의 단실요 구조로 확인되었다. 연소실은 타원형의 수혈 형태로 조성되었는데, 할석으로 구축한 후 점토를 덧발라 조성하였다. 불턱의 높이가 130cm에 달한다.

용수리 1호 가마는 특이하게 번조실 마지막에 2칸의 초벌칸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칸을 별도로 조성한 것인지 개보축 과정에서의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초벌칸의 바닥면은 편평하게 조성하여 앞쪽 번조실과 경사도를 달리하였다.

1호 가마의 북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서 조사된 2호 가마에서는 2기의 분청사기 가마가 확인되었다. 용수리 1호 가마에 비해 잔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대체로 용수리 1호와 가마 구조 및 출토유물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2호 가마 북요는 번조실에 직경 20cm 정도의 불기동을 시설한 단실 불기동요이고, 번조실 마지막 초벌칸을 번조실 바닥면보다 깊게 지하식으로 조성한 것에서 차이가 있었다.

용수리유적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는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되지 않은 소위 회청사기가 전체 출토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감, 인화, 귀얄, 덤벙 등으로 장식한 분청사기가 일부 확인되었다. 문양이 장식된 분청사기에는 주로 선상감을 장식했거나, 선상감으로 문양대를 구획한 후 내저면 혹은 동체부에 간단한 국화문, 여의두문, 연판문을 장식한 것이 많았고 일부 점열문, 승려문 등을 촘촘하게 장식한 인화문 분청사기도 소량 확인되었다. 또한 ‘장(長)’, ‘흥(興)’ 자명 공납용 분청사기도 확인되었다. 두 가마 모두 15세기 전반에 조업이 이루어진 유적으로 판단된다.

#### 4) 보령 평라리유적(保寧 平羅里遺蹟)

보령 용수리유적과 함께 보령댐 건설에 따른 문화유적 조사과정에서 처음 확인된 유적이다.(보

령 용수리유적 설명 참조) 용수리유적의 남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수리 분청사기 가마와 함께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충청도 공주목 남포현의 ‘취련모로리 중품 자기 소’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평라리 유적에서는 분청사기 가마 2기가 조사되었으며, 두 가마가 능선의 경사방향을 따라 23m 간격을 두고 나란히 조성되어 있었다. 두 기 모두 도로개설로 인해 가마 아래쪽이 유실된 상태였다. 오랜 경작활동으로 유구 상면의 교란이 심하고, 일정한 퇴적층도 확인되지 않았다. 평라리 가호 가마는 잔존 길이 18.7m, 너비가 1.1~1.3m 정도인 단실요 구조이다. 불기둥 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측면 출입구가 시설된 곳 주변의 바닥면이 모래와 함께 유리질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번조실 사이에 불기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인근의 평라리 나호 가마는 가호 가마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면서 번조실 내부에 2m 간격으로 5~6개의 불기둥이 시설되어 있었다.

가마의 끝부분은 할석과 점토를 이용하여 벽체를 구축하였으며, 가마 내부에서 다량의 초벌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칸을 초벌칸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초벌칸의 바닥면은 편평하게 조성하여 앞쪽 번조실과 경사도에 차이를 두었다. 가마 마지막 칸의 바깥쪽으로 가마 벽면과 일직선상의 석렬이 이어지는 굴뚝 하부 구조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가마 내부 및 주변에서 무문의 분청사기를 비롯하여 국화문 및 승룡문 등을 촘촘하게 장식한 인화문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는데, 그릇 안바닥에 장홍고로 공납하는 자기임을 말해주는 ‘장(長)’자 명문이 새겨진 분청사기도 확인되었다. 평라리 유적 나호 가마의 경우 가호 가마에 비해 무문의 분청사기 출토양이 적고 인화문 분청사기가 주로 출토된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가마의 가마 구조가 유사한 점, 인화문 분청사기의 장식 문양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두 가마는 같은 시기에 각각 운영되었거나 약간의 시기차를 두고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15세기 전반에 조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 5) 서산 무장리유적(瑞山 舞將里遺蹟)

무장리 유적은 1991년 서산·태안 지역 문화유적 일괄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으며, 1996년 서산지방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굴조사 되어 삼국시대의 숯가마 1기, 고려시대 토기가마 3기, 토기가마 관련 폐기장 2개소, 분청사기 가마 2기, 백자가마 1기, 백자가마 관련 폐기장 1개소 등 생산 유적이 집중 확인되었다.<sup>7</sup>

무장리 일대에 이처럼 생산유적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 흥주 목 서산군조의 ‘군북사기동 하품 자기소(郡北沙器洞 下品 磁器所)’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다만 서산 무장리 일원에 이미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어 향후 서산 ‘군북사기 동 자기소’ 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적을 비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7 (재)충남매장문화재연구원, 「서산 무장리 요지」(2000).

무장리유적에서는 분청사기 가마 2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번조실의 바닥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가마 구조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가마 주변에서는 귀얄문 분청사기와 약간의 인화문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는데, 인화문 분청사기는 내면 바닥을 중심으로 나선문, 점열문, 파상문 등을 시문한 후 귀얄로 백토 분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유물 정황으로 보아 무장리유적은 15세기 중후반에 조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6) 연기 송정리유적(燕岐 松亭里遺蹟)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소재 연수봉(해발 290m)의 서남쪽 말단에서 확인된 유적이다.<sup>8</sup> 유적 전면에 개설된 627 지방도는 공주와 조치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 중 하나이며, 이 도로 주변에 위치한 송정리, 쌍류리,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중흥리, 가산리 등지에 조선시대 분청사기, 백자 가마가 밀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중 송정리유적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청주목(淸州牧) 전의현(全義縣)의 ‘현남송현리(縣南松峴里)’ 자기소로 비정되고 있다.

송정리유적에서는 가마 번조실 일부가 확인되었고, 가마의 잔존 길이 12.5m, 너비 2.5m, 잔존 깊이 70cm 정도이며, 돌과 진흙으로 구축한 반지하식 단실요로 추정된다. 가마 주변에서는 상감문 분청사기가 확인되었는데, 동체 중간 부분에 국화문, 육원문(六圓文), 육각판문(六角瓣文), 곡사선문대(曲斜線文帶) 등을 장식한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룬다. 일부 퇴화한 형식의 연당초문(蓮唐草文)이나, 고려말 상감청자의 영향을 받은 퇴화한 형식의 운학문(雲鶴文)이 흑백상감으로 시문된 것도 있다. 그릇 내저면에 ‘사선(司膳)’의 관사명을 흑상감으로 새긴 분청사기도 확인되었다. 문양 장식에서 고려 말 상감청자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1420년대를 전후한 시기까지 조업이 이루어진 유적으로 판단된다.

#### 7) 천안 양곡리유적(天安 陽谷里遺蹟)

천안시 소재 성거산(해발 579m), 삼성산(해발 482m), 석성산(해발 497m), 은석산(해발 455m) 등 비교적 높은 산지로 둘러진 곳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양곡리 유적은 석성산의 서쪽 능선 말단에서 조사되었으며, 유적 서쪽으로 성거산을 마주하고 있다.

양곡리유적은 1992년 천안 지역의 문화유적을 일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1995년 구제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천안시 북면 일대의 가마유적 중 양곡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1992년 조사 당시 양곡리유적을 비롯하여 인근 대평리, 사담리, 용암리 일원에 도자기 가마터가 밀집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 일대가 「세종실록지리지」의 청주목(淸州牧) 목천현(木川縣) ‘현북오산 중품 자기소(縣北烏山 中品 磁器所)’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9</sup> 「여

8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송정리도요지」(1991).

9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의 문화유적 제7집 천안시·천안군편」(1993); 공주대학교 박물관, 「천안 양곡리 분청사기 요지」(1997).

지도서』 기록에서도 충청도 목천현 북면에 ‘사촌리(沙村里)’ 마을이 확인되는데 사촌리 또는 사점리 등의 지명이 도자기 생산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명임을 감안할 때 양곡리유적을 중심으로 천안시 북면 일대에 오랫동안 도자기 제작 전통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양곡리유적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모두 4기의 분청사기 가마가 확인되었다.〈표5〉 4기의 가마가 능선의 사면을 따라 대체로 나란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2호와 3호 가마는 전체적인 크기 및 장축의 방향, 가마 경사도가 매우 흡사해 거의 동시기에 조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양곡리유적 분청사기 가마 일람표

가마	가마도면	가마 특징
1호가마		길이 19.3m 너비 1.3~1.7m 연소실(타원형:200*130) 불턱 78cm
2호가마		길이 20.5m 너비 1.2~1.4m 연소실(타원형:220*180) 불턱 120cm
3호가마		길이 18.3m 너비 1.3m 연소실(타원형:190*130) 불턱 120cm
4호가마	잔존 길이2.5m, 불턱 40cm(잔존)	연소실(타원형:180*98)

양곡리유적 분청사기 가마는 전체 길이가 약 20m 내외로, 연소실은 타원형의 수혈 형태로 굴착한 후 할석과 점토를 이용하여 벽면을 구축하였다. 연소실 불턱 높이는 78~120cm에 달한다. 번조실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고 번조실 내 불기둥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성실 바닥면에 일정간격(약 150~180cm)으로 약간의 단이 형성된 양상으로 보아 단실불기둥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성실의 마지막 단에 해당하는 곳은 대부분 삭평된 상태로 확인되어 별다른 시설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체로 평坦한 면을 이루고 있고 초벌편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출토되었다.

양곡리유적에서는 귀얄문의 분청사기와 함께 그릇 내외면에 빼곡하게 승려문을 시문한 인화문 분청사기도 함께 출토되었다. 아울러 가마 주변에서 백자가 다량 수습되었는데, 이러한 출토유물의 특징으로 인해 천안 양곡리유적은 15세기 후반~16세기에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승려문의 인화문 분청사기 내저면에 ‘내섬(內瞻)’의 관사명이 새겨져 있고, ‘내섬(內瞻)’ 명 분청사기가 2호 가마 내부에서도 출토된 점, 분청사기와 백자간 번조 받침이 유사한 점(모래비짐, 백색 내화토비짐) 등을 고려할 때 양곡리유적은 관요 성립 이전 공납용 분청사기와 백자를 함께 생산한 유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8) 괴산 송면리유적(槐山 松面里遺蹟)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일원에서 조사된 유적이다.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문경, 남쪽으로는 충청북도 보은 및 경상북도 상주와 인접한 지역에 해당한다. 2005년 지방도 49호선(영암~원주)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지표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2008년 정밀 시굴조사가 이루어져 분청사기 가마 1기가 확인되었다.<sup>10</sup>

각종 지표조사 보고에 따르면 송면리유적의 북서쪽 약 2km 떨어진 곳에는 사기마리 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이 마을에 분청사기가마 7기, 백자가마 6기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up>11</sup> 송면리 및 인근 지역에 생산유적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세종실록지리지」 충주목 괴산군조에 기록된 ‘군남인현리 하품 자기소(郡南茵峴里 下品 磁器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송면리유적에서는 분청사기 가마 번조실 후면부 일부가 확인되었고, 가마 내부 및 주변에서 분청사기와 요도구 등이 수습되었다. 분청사기는 집단연관문, 승려문, 국화문, 초문 등이 촘촘하게 장식된 인화문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관사명(官司銘) 분청사기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조선 초 공납자기를 생산하던 시기의 문양 장식 특징으로 15세기 2/4분기에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 9) 보은 적암리유적(報恩 赤岩里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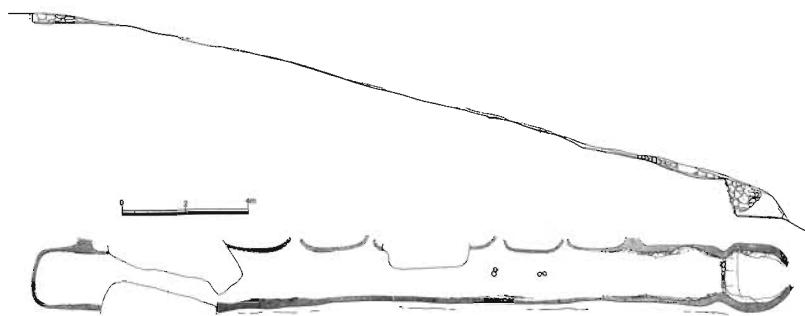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속리산(해발 1,033m)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병산(해발 876.5m) 남사면 말단부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1993년 충북대학교박물관이 실시한 충북지방 도요지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 확인되었으며, 조사 당시 분청사기 가마 1기와 백자 1기가 보고되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공사 과정에서 분청사기 가마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분청사기 가마터 1기 및 폐기장, 공방지 1기 등이 확인되었다.

10 중앙문화재연구원, 「청천~문광(송면~사기마)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2005) ; 충북대학교박물관, 「괴산 송면리 유적」(2010).

11 충북대학교박물관, 「충북지방 도요지지표조사 보고서」(1993) ; 중원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괴산군」(2004).

가마는 번조실은 대부분 멸실되고 연소실과 마지막 초별칸의 일부, 번조실 바닥면이 확인되었다.(도5) 잔존 상태를 통해 전체 길이는 24.3m이고, 너비는 130~160cm, 가마의 전체 경사도는 17° 정도로 파악되었다. 가마 오른쪽에 7개의 측면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조사보고서 및 이후 연구에서 적암리 분청사기 가마는 단실요로 파악되었지만, 조사 과정의 사진을 보면 연소실 윗쪽 노리칸으로 판단되는 곳에 최소 1개소의 불기둥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단실불기둥 구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소실은 풍화암반층을 깊게 굴광한 후 굴광면에 점토를 덧발라 벽을 구축하였다. 원형의 수혈 형태를 이루며, 불터은 120cm에 달한다. 초별편이 집중 출토되는 번조실 마지막 칸은 바닥면을 편평하게 조성하여 앞의 번조실과는 경사도에 차이를 두었다.



도 5. 보은 적암리 분청사기 가마 평 · 단면도

가마 주변 및 폐기장과 공방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무문의 회청사기와 횡선문대 사이에 국화문, 연판문, 칠원문 등 간단한 인화문을 장식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일부 흑백상감으로 장식하거나 집단연권문, 승려문, 소국문을 촘촘하게 장식한 것도 확인되었다. 유적 내에서 명문자료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백자편이 일부 출토된 점, 분청사기 태토나 유색의 정선도가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조업이 이루어진 유적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주된 생산품의 장식 특징과 일부 상감 장식의 전통이 남아 있는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적암리 유적은 15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백자가 함께 제작되기 시작하는 15세기 중반까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10) 제천 동막골유적(堤川 新洞遺蹟)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자원관리센터 조성과정에서 확인되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sup>12</sup> 제천시 소재 두모곡산(해발 500m)의 북쪽 말단에 해당한다. 『세종실록지리지』 충주목 제천현조에 따르면 ‘도기소일 재현서마곡동 일품(陶器所一 在縣西馬谷洞 一品’ 기록이 있는데, 동막골유적 조사 과정에서 분청사기 가마 1기를 비롯하여 도기가마 6기, 폐기장, 공방 등이 확

12 중원문화재연구원, 「제천 동막골 유적」(2008).

인되어 ‘마곡동도기소(馬谷洞陶器所)’로 비정되고 있다.

분청사기 가마는 유적 주변의 계곡부를 따라 대부분 삽평되고 번조실 마지막 칸 일부만이 확인되었다. 가마의 너비는 210cm 정도이고, 내부에서 분청사기 초벌편과 높이 10cm 내외의 원통형 도침이 출토되었다.

번조실 내부에서 출토된 초벌편은 모두 내저원각이 뚜렷하고 그릇 내면 동체에 획선문대를 음각 또는 백상감하여 장식한 것이었다. 폐기장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파편의 경우 그릇 외면에 매우 도식화된 당초문이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막골유적은 15세기 초반에 조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 11) 충주 대화리유적(忠州 大花里遺蹟)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가섭산(해발 710m)의 북서쪽 말단부에서 확인된 유적이다.<sup>13</sup> 골프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유적 내에서는 삼국시대 제철유적을 비롯하여 다수의 삼국시대 탄요, 각종 소성유구 등과 함께 분청사기 가마 1기가 확인되었다. 유적 주변에 탄현, 무수막 지명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숯, 철 등의 생산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곳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당시 이미 지표면의 교란이 심해 번조실과 굴뚝부 일부만이 확인되었다. 가마는 잔존 길이 7.82m, 잔존 너비 117cm이며, 번조실의 경사도가 22~24°로 매우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조사자는 대화리유적 분청사기 가마의 구조를 단실계단식 요로 판단하였으나, 번조실 바닥면 사이에 뚜렷한 단차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단식 구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마지막 초벌칸 바닥면은 편평하고, 초벌칸 뒷벽 부분은 벽면을 따라 판석형의 할석이 세워져 있는데 굴뚝 시설의 하단부로 추정된다.

가마 주변의 퇴적층에서는 분청사기와 함께 백자도 생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청사기는 동체 중간 부분에 귀얄로 거칠게 백토 분장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일부 그릇 내면에 연판문과 승령문의 인화문을 촘촘히 장식한 것도 있으며, 표면에 승령문을 촘촘하게 장식한 장군편도 여러 점 출토되었다. 발굴조사자는 대화리 유적에서 조사된 분청사기 가마의 조업시기를 15세기 말로 비정하였지만, 백자와 인화문 및 귀얄문 분청사기가 함께 제작한 양상으로 볼 때 15세기 중후반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III.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특징

앞서 살펴본 양상을 통해 지금까지 충청지역에서 조사된 분청사기 가마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6>과 같다. 대체로 15세기 초부터 16세기 전반에 이르는 것으로 편년되었다. 초기에 조

13 중원문화재연구원, 「KM그린(로얄포레)CC조성사업부지내 충주 대화리 유적」(2012).

사 보고된 유적의 경우 귀얄문 분청사기 또는 백자가 생산된 유적에 대해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으로 편년하는 경향이 우세하였으나, 최근 조사 성과를 통해 귀얄문 분청사기 및 백자 등이 공납자기 생산 시기에 함께 제작된 것이 파악되어 일부 유적은 최근의 성과를 반영하여 편년 시기를 일부 재조정하였다.

표 6.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유적의 양상

유적명	가마수	보고자편년 (수정편년)	가마의 특징	유물의 특징
충 청 남 도	公州 鶴峰里遺蹟	15기	15~16세기 사적 제333호 단실불기동요 전체 길이: 49.5, 34m 이상 타원형 수혈 연소실 2 불턱 55~150cm	흑유자, 분청사기, 백자 상감문, 무문, 귀얄문, 인화문, 조화문, 박지문, 철화문 内資寺, 内贍寺, 禮賓寺 (公州牧 東鶴洞 中品)
	大田 舊完洞遺蹟	청자가마 2기 분청사기 가마 2기	고려후기~조선초 (15세기 초반) 시도기념물 제35호 단실요 총길이 25m 원형 수혈 연소실	흑백상감문, 인화문 内資執用
	保寧 龍水里遺蹟	분청사기 가마 3기 백자가마 1기	14세기 후반 (15세기 전반) 단실불기동요 총길이: 31.5, 32m 타원형 수혈 연소실 불턱 40~130cm	상감문, 인화문, 귀얄문 長, 興 (公州牧 藍浦 吹鍊毛老里 中品)
	保寧 平羅里遺蹟	분청사기 가마 2기	15세기 전반 단실불기동요	상감문, 무문, 인화문 長 (公州牧 藍浦 吹鍊毛老里 中品)
	瑞山 舞將里遺蹟	분청사기 가마 2기	15세기 후반	귀얄문, 인화문
	燕岐 松亭里遺蹟	분청사기 가마 1기	(1420년대 이전) 단실요	상감문 司膳 (淸州牧 全義縣 松峴里)
충 청 북 도	天安 陽谷里遺蹟	분청사기 가마 4기	15세기 후반 ~16세기 전반 (15세기 중후반) 단실요 총길이: 19.3, 20.5, 18.3m 타원형 수혈 연소실 불턱 40~120cm	귀얄문, 인화문 '內贍' (淸州牧 木川縣 烏山)
	槐山 松面里遺蹟	분청사기 가마 1기	15세기 2/4분기	인화문 (忠州牧 槐山郡 茵峴里)
	報恩 赤岩里遺蹟	분청사기 가마 1기	15세기 후반 ~16세기 전반 (15세기 전중반) 단실불기동요? 총길이: 24.3m 원형 수혈 연소실 불턱 120cm	인화문
	堤川 등막골遺蹟	분청사기 가마 1기 도기 가마 6기	15세기 초반	상감문 (忠州牧 堤川縣 馬谷洞 一品陶器所)
	忠州 大花里遺蹟	분청사기 가마 1기	15세기 말 (15세기 중후반) 단실요	분청사기, 백자 귀얄문, 인화문

### 1) 가마구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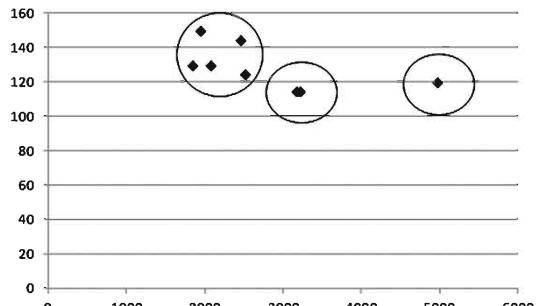
충청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모두 11개소인데, 일부 가마를 제외하면 대부분 잔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조사되었다. 아궁이, 소성실, 배연시설 등이 비교적 온전하게 확인된 사례는 대전 구완동 2호 가마, 천안 양곡리 1~3호 가마, 보령 용수리 1호 가마 등이다. 일부 전체 구조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소성실 상면이 대부분 멸실되어 명확한 가마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의 구조는 대개 단실요와 단실 불기등요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번조실 내부에 불기등이 시설된 가마는 학봉리유적과 용수리유적, 평라리유적 등이 있다. 대개 번조실 사이 중앙에 불기등 1개씩을 설치하고 있는데, 평라리 나호가마는 번조실 사이에 5~6개의 불기등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대화리유적의 가마는 단실계단식 가마구조로 보고되었지만 번조실 간 계단식 단차가 드러나지 않아 단실계단식 가마구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가마 전체가 확인된 유적을 통해 볼 때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는 대체로 총 길이가 1,830~4,950cm에 이르고, 너비가 115~150cm 정도이다. 가마의 길이에 따라 1,830~2,500cm에 해당하는 유형과, 3,150~3,200cm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분류되며, 학봉리유적의 경우 가마 뒷부분이 완전히 조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길이가 49.5m, 34m 이상 확인되고 있어 특별히 대형 가마 유형에 해당한다.〈표7〉

표 7.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 길이 양상(길이: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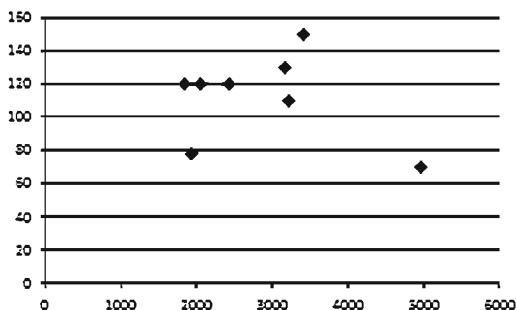
유적명	가마길이	가마 너비
학봉리 5호	4,950이상	120
학봉리 7호	3,400이상	120
구완동 2호	2,500	125
용수리 1호	3,150	115
용수리 2호	3,200	115
양곡리 1호	1,930	150
양곡리 2호	2,050	130
양곡리 3호	1,830	130
보은 적암리	2,430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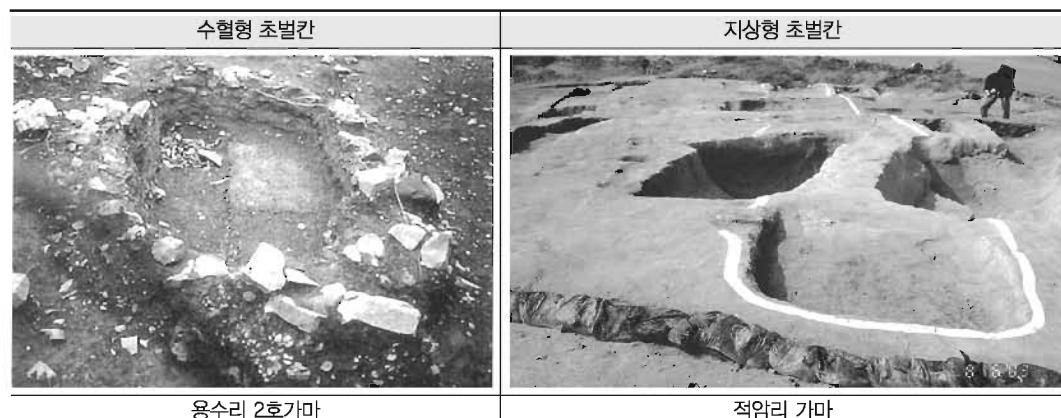
분청사기 가마의 연소실은 타원형 또는 원형의 수혈 형태로 축조되었으며, 연소실로부터 번조실로 이어지는 불턱의 높이가 수직에 가깝게 높이 조성된 특징을 보인다. 분청사기 가마 불턱의 높이가 110~130cm 정도인 것이 많은데, 불턱 높이가 낮은 것은 4~50cm 높이를 이루고, 학봉리 7호 가마의 경우 불턱의 높이가 150cm에 달하기도 한다. 가마 전체 길이에 따라 불턱의 높이를 달리한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으며, 조선 초 분청사기 가마 축조 방식 중 하나로 이해된다.〈표8〉

표 8.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의 블럭 양상(가마길이:블럭높이)

유적명	가마길이	블럭높이
학봉리 5호	4,950이상	70
학봉리 7호	3,400이상	150
용수리 1호	3,150	130
용수리 2호	3,200	110
양곡리 1호	1,930	78
양곡리 2호	2,050	120
양곡리 3호	1,830	120
보은 적암리	2,430	120



번조실의 마지막 칸은 대개 초별칸으로 활용하였는데, 초별칸의 바닥면은 편평하게 조성하여 앞쪽의 번조실과는 경사도에 차이를 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보령 용수리유적 2호 복요와 같이 초별칸을 번조실보다 낮게 수혈 형태로 조성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초별칸을 수혈 형태로 조성한 사례는 경기도 광주 건업리 2호, 우산리 9-3호, 광주광역시 총효동 가마 등 조선 초 분청사기 및 백자 가마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바닥을 편평하게 조성하는 것과 함께 분청사기 가마 초별칸의 조성 형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도6)



도 6.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 초별칸의 형태

## 2) 출토유물의 특징

분청사기의 장식 특징에 따라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를 구분해 보면 다음의 4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다.〈표9〉 ① 고려 후기 상감청자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 연당초문, 포류수금문 등의 상감문 분청사기가 제작되는 단계, ② 고려 후기 상감청자의 영향이 일부 남아 있지만 주류를 이루지는 않고, 무문의 회청사기와 함께 인화문 분청사기가 제작되는 단계, ③ 촘촘한 인화문 장식의 공납자기가 귀얄문, 조화/박지문 분청사기, 백자 등과 함께 제작되는 단계, ④ 경기도 광주에

관묘가 성립된 이후 더 이상 공납용 분청사기를 제작하지 않고, 퇴화한 형식의 인화문 분청사기와 귀얄문 분청사기가 주로 제작되는 단계 등이다.

첫 번째, 고려 후기 상감청자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단계에서 조업이 이루어진 분청사기가 마는 연기 송정리유적과 대전 구완동유적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내저면 또는 동체부에 횡선문의 선상감을 돌린 후 국화문, 육원문, 육각판문 등을 간단하게 인화 장식한 분청사기가 주로 생산되었다. 아울러 고려 후기 상감청자보다는 퇴화한 형식이지만 연당초문, 운학문, 포류수금문 등이 장식된 상감문 분청사기가 함께 제작되었다.

송정리유적에서는 ‘사선(司膳)’ 명의 관사명이 확인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사선(司膳)’의 관사명이 제작된 유적에서는 송정리 및 구완동유적과 같이 상감 장식과 간단한 인화문 장식의 분청사기가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상북도 칠곡 학하리유적 및 경상남도 합천 장대리유적과 같이 ‘사선(司膳)’의 관사명이 집중 제작된 유적 또는 폐기장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모든 공납자기에 관사명을 새기라는 조치가 내려진 1417년<sup>14</sup> 이후에 제작된 공납자기에는 촘촘한 인화문이 장식된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선(司膳)’의 관사명이 새겨진 분청사기는 1417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구완동유적의 ‘내자집용(內資執用)’ 명 분청사기는 그릇 전면에 집단연권문의 인화문을 촘촘하게 장식한 것으로서, 1417년 관사명 새김 조치 이후 제작된 공납자기와 같은 장식 패턴이다. 하지만 촘촘한 인화문이 장식된 분청사기의 양은 극히 적고, 주로 생산된 분청사기는 ‘사선(司膳)’의 관사명이 제작된 유적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구완동유적은 ‘내자집용(內資執用)’ 명 분청사기가 제작되던 시기를 하한으로 하여 1420년대 이전 시기에 조업한 것으로 보고 첫 번째 단계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고려 후기 상감청자의 영향이 남아 있으나 상감청자의 영향이 주류를 이루지는 못하면서 인화문 분청사기가 함께 제작되는 단계이다. 보령 용수리 1, 2호 가마터, 보령 평라리유적, 보은 적암리유적, 제천 동막골유적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용수리 1, 2호와 평라리유적의 경우 무문의 회청사기가 전체 생선품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무문의 회청사기 이외에 매우 퇴화한 형식의 당초문 및 포류문 등 상감문, 선상감(또는 와선문(渦線文)), 횡선문대+간단한 인화문, 귀얄문, 승렬문의 촘촘한 인화문 등이 함께 제작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횡선문대+간단한 인화문이 생산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동막골유적은 유구가 대부분 멸실되어 가마 및 출토유물이 일부만 확인되었지만 선상감의 대접 특징상 기형 및 선상감 장식 등이 용수리유적 등과 유사하여 두 번째 단계로 분류하였다.

한편, 용수리와 평라리유적에서는 장홍고(長興庫)의 ‘장(長)’, ‘홍(興)’, ‘고(庫)’ 등 관사명 분청사기가 확인되었는데, 내저면 또는 그릇 외측면에 한 글자씩의 명문을 새겨져 있다. 특히 그릇 외측면에 ‘長’ 자를 새긴 분청사기의 경우 그릇 외면에 장홍고(長興庫) 관사명을 한 글자씩 등간

14 「太宗實錄」卷33, 太宗 17年 4月 20日 기사 참조.

격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납자기에 장홍고 세 글자를 새기도록 조치하는 1417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굴조사자는 연당초문 등의 상감 장식분청사기를 기준으로 용수리 유적의 운용 시기를 14세기 후반으로 편년하였지만, 용수리유적 내에서 집단연권문 또는 종파상문, 단독 국화문이 촘촘하게 인화 시문된 분청사기가 함께 제작된 점, 장홍고명 공납자기가 함께 제작되었던 점, 무문의 회청사기가 생산품의 다수를 차지하는 점 등으로 보아 용수리유적의 편년은 15세기 전반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공납자기와 함께 다양한 장식의 분청사기 또는 백자가 함께 제작된 단계이다. 인화문의 분청사기가 제작되고 이와 함께 귀얄문 분청사기 또는 거친 인화+귀얄 분장 분청사기, 백자 등이 주력 생산품으로 함께 생산되는 가마터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보령 용수리 3호 가마는 백자가 주력 생산품이면서 소량의 분청사기가 제작된 사례이며, 천안 양곡리·괴산 송면리·충주 대화리 등의 가마는 귀얄문 또는 인화문 분청사기를 주로 제작하면서 관사명이 새겨진 인화문 분청사기나 백자를 함께 제작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 모두 경기도 광주에 관요가 설치되는 시기까지 지방에서 공납자기를 생산했던 유적들로 판단된다. 공주 학봉리유적 또한 전반적인 양상은 이 단계의 생산품이 주류를 이루지만 15세기 전반에 걸친 제작 양상을 모두 보여주고 있어 따로 단계를 구분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네 번째는 공납자기 및 백자를 생산하지 않고, 거친 귀얄로 분장한 퇴화된 양식의 인화문 분청사기 및 귀얄문 분청사기를 제작하는 단계이다. 서산 무장리유적과 같이 거친 승렵문 또는 조악한 종선문 위에 귀얄 분장한 인화문 분청사기가 주로 확인되며 백자 등은 제작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장식 특징에 따라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의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연기군 금사리와 달전리유적의 경우 정식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변 지역 연구자들에 의해 정밀 지표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어 대상 유적에 포함시켰음을 밝힌다.

표 9. 분청사기 장식 특징에 따른 단계 구분표

단계	유적사례	가마구조	출토유물의 특징	시기 구분
I 단계	연기 송정리유적 대전 구완동유적	단실요	상감 연당초문/포류수금문 횡선문대+간단한 인화문 '司膳', '內資執用'	1420년대 이전
II 단계	보령 용수리 1, 2호 보령 평라리유적 보은 적암리유적 제천 동막골유적	단실요, 단실불기등요	상감문, 간단 인화문, 무문, 인화문, 귀얄문 '長', '興', '庫'	1420~1460년대
III 단계	보령 용수리 3호 천안 양곡리유적 괴산 송면리유적 충주 대화리유적 (연기 금사리, 달전리)	단실요 단실불기등요	분청사기, 백자 인화문, 귀얄문 '內膳', '禮賓', '(仁)壽' 철화: 内資寺, 内膳寺, 禮賓寺	
IV 단계	서산 무장리유적		귀얄문, 인화문	1460년대 후반 이후

### 3) 공납용 분청사기의 공납 특징

1460년대 후반 경기도 광주에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궐내 소용 자기는 전국의 자기소를 통해 공납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은 1460년대 이전까지 궐내 소용 자기를 생산했던 전국의 자기소 현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조선 초 충청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던 자기소는 모두 23개소이다.(도기소는 38기) 23개의 자기소 중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그 위치가 비정된 곳은 10개소가 있다. 10개소의 자기소 중에서도 발굴조사를 통해 그 제작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은 충주 송면리유적, 천안 양곡리유적, 연기 송정리유적, 공주 학봉리유적, 보령 용수리 및 평라리유적 등 6개소이다. 다음의 <표10>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충청지역 자기소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른 조선 초 충청지역 자기소 현황표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품등	현 행정구역	발굴유적
1	忠州牧 州西 寶蓮洞	下品		
2	忠州牧 槐山郡 郡南茵峴里	下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송면리유적
3	淸州牧 天安郡 在郡南豐歲縣 介峴洞	下品		
4	淸州牧 木川縣 縣北烏山	中品	천안시 북면 양곡리	양곡리유적
5	淸州牧 全義縣 縣西芭峴里	中品	연기군 전의면 금사리/달전리	(금사리/달전리유적)
6	淸州牧 全義縣 縣南松峴里	中品	세종시 전동면 송정리	송정리유적
7	淸州牧 燕岐縣 縣北惠方	中品		
8	淸州牧 溫水縣 縣南上谷洞	中品		
9	淸州牧 永同縣 縣西加爾岵里	下品		
10	淸州牧 黃潤縣 縣東臥鼎洞	中品		
11	淸州牧 鎮川縣 縣西大三洞	下品		
12	公州牧 州北軍知村	中品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중흥리	
13	公州牧 州東東鶴洞	中品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학봉리유적
14	公州牧 藍浦縣 縣東吹鍊毛老里	中品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용수리/평라리유적
15	公州牧 定山縣 縣西獐項里	中品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일원	마치리/대박리유적
16	公州牧 鴻山縣 縣北七里所音漢洞	中品		
17	公州牧 連山縣 縣東伐谷里	下品		
18	公州牧 扶餘縣 縣西狃峴洞	下品		
19	洪州牧 瑞山郡 郡北沙器洞	下品	서산시 무장리 일원	무장리유적
20	洪州牧 禮山縣 縣東草伊方	下品		
21	洪州牧 青陽縣 縣東長谷洞	下品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광대리유적 인근
22	洪州牧 保寧縣 縣西青淵里	下品		
23	洪州牧 大興縣 縣東夫隱伊里	中品		

합계 : 23개소, 중품 12/하품 11

이들 자기소는 궐내에서 소용되는 자기를 공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소 유적 발굴조사 과정에서 ‘사선서(司膳署)’, ‘내심시(內膳寺)’, ‘장홍고(長興庫)’, ‘내자시(內資寺)’, ‘예빈시(禮賓寺)’ 등의 관사명이 새겨진 분청사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도7) 발굴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전의면 금사리, 달전리 유적에서 ‘인수부(仁壽府)’, ‘예빈시(禮賓寺)’의 관사명 분청사기도 수습된 바 있다. 이로 보면 조선 초 충청지역의 자기소에서는 사선서, 내자시, 내섬시, 예빈시, 장흥고, 인수부 등으로 공납되는 자기를 두루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도 7.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출토 관사명 분청사기

충청도 지역 공납자기를 비롯하여 각지 자기소로부터 공납되는 자기는 조창을 통해 서울로 운송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경상도 지역은 태종 3년 조창을 폐지하여 도내 모든 조세와 공물을 충주의 경원창까지 운송하여 서울로 운반하였고, 전라도는 영산창과 덕성창을 거쳐 서해를 통해 서울로 운송되었다. 경상도 및 전라도와 비교할 때 충청도는 모두 8개소의 조창을 통해 조세와 공물을 서울로 운송하였다. 충청도 조세와 공물의 운송 루트는 크게 두 종류로 대별되는데, ①충청도 동부 지역은 연천(淵遷), 앙암(仰巖), 우음안포(弓音安浦), 추호포(推乎浦), 이포(利浦) 등 5개소의 조창에서 남한강을 통해 서울로 운송하는 것이며, ②충청도 중서부 지역은 경양포(慶陽浦), 공세곶(貢稅串), 범근천(犯斤川) 등 3개소의 조창에서 서해를 통해 서울로 운송하는 것이다.<sup>15</sup>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충청도 지역의 조창은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 시기가 되면 아산의 공세곶(貢稅串)과 충주의 가홍창(可興倉) 두 곳으로 정돈되기 때문에<sup>16</sup>, 조선 초 공납자기의 운송 루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의 조세 운송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표11〉

15 「世宗實錄」卷151, 地理志, 忠清道。

16 「經國大典」卷2, 戶典 潛轉。

「成宗實錄」卷7, 成宗 9月 1日 1年 庚寅, “戶曹啓, 忠清道清安鎮川青山報恩沃川黃澗永同陰城等邑, 皆與可興倉不遠, 而乃於京畿設梨浦倉, 以收清安鎮川田稅, 又設宇萬倉, 以收青山以下六邑田稅。非徒設倉太多, 監收行臺敬差官往來, 驛路有弊 請革梨浦宇萬倉, 上項八邑田稅竝於可興倉收納, 從之。”

「成宗實錄」卷59, 成宗 9月 25日 6年 乙未, “傳于戶曹曰, 忠清道鎮川沃川田稅, 輪納可興倉, 清州文義鎮岑懷仁懷德田稅, 輪納貢稅串, 今考程途, 上項五邑距可興倉, 皆不遠, 今後五邑田稅, 竝輪納可興倉。”

표 11. 「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 초 충청도 지역 수조처

倉名		관할수조지	이동거리 및 경로
淵遷	忠州 西 10里	충주 단양 청풍 괴산 연풍 제천 영춘 음성	260리:楊津-仰巖-서울(배)
仰巖	忠州 西 60里	충주 단양 청풍 괴산 연풍 제천 영춘	220리:楊津-驪興-서울(배)
亏音安浦	경기 驪興 東 10里	옥천 영동 황간 청산 보은 청안	210리:驪江-서울(배)
推乎浦	경기 驪興 西 1里	청안 음죽	194리:驪江-利浦-서울(배)
利浦	경기 川寧 東 5里	죽산 진천	160리:서울(배)
慶陽浦	稷山 西 1里	직산 평택	540리:貢稅串-西海-西江(배)
貢稅串	牙山 西 8里	아산 청주 목천 전의 연기 온수 신창 은진 연산 회덕 공주 점산 회인 천안 진잠 이산 문의	500리:犯斤川-西海-西江(배)
犯斤川	沔川 東 30里	면천 임천 한산 서천 남포 비인 흥산 흥주 태안 서산 해미 당진 덕산 예산 청양 보령 결성 대흥 석성 부여	510리:大津-西海-西江(배)

충청도 지역은 경상도, 전라도 지역과는 달리 서해와 남한강 루트를 모두 통하여 조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납에 유리한 지리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조운하기 편리한 조창을 선택하여 옮겨보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청도 지역에서 이러한 편리한 조운 환경 속에서 충청도 지역 도자기 공납도 조창에 따라 분정되었는지 여부도 궁금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전세와 공부가 수납되는 조창지에 따라 충청도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을 분류해 보면 다음의 <표12>와 같다.

표 12. 「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해 본 충청지역 조창별 공납자기 운송처

조창	유적명	관사명
淵遷, 仰巖	제천시 동막골유적	
	충주시 대학리유적	
	괴산군 송면리유적	
貢稅串	공주시 하봉리유적	내자시, 내섬시, 예빈시
	대전시 구원동유적	내자집용
	보은군 적암리유적	
	연기군 송정리유적	사선
	연기군 금사리유적	예빈
	연기군 달전리유적	예빈, (인)수
	천안시 양곡리유적	내섬
犯斤川	보령시 용수리유적	장, 흥, 고
	보령시 평라리유적	장(장흥고)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 중 연천 및 앙암의 조창으로 전세와 공부가 수납되는 지역에서는 관사명 분청사기가 확인된 사례가 없다. 반면 공세곶으로 전세와 공부가 수납되는 지역의 분청사기 유적에서는 사선서를 비롯하여 내자시, 내섬시, 예빈시, 인수부 관련 관사명이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범근천 조창 수납지역은 장흥고 관련 관사명이 확인되었다.

충청도 일대의 자기소 유적이 모두 조사되지 않아 이러한 구분이 모든 자기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상도 지역에는 조창이 없고, 전라도 지역은 지역에 따라 전라도 북부 지역은 덕성창, 남부 지역은 영산창으로 구분되었는데다가 주로 내섬시명 공납자기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조창에 따라 공납 관사를 달리하였는지 여부는 오로지 충청도 지역에 국한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추후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연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조창 지역에 따라 수납 관사를 달리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조선 초 충청도 지역에서 지역에 따라 전세와 공납을 출포(出浦)하는 조창을 달리 분정(分定)한 기록은 「세종실록」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세종 7년 충청도 감사의 계문에 따르면, 충청도에서 광홍창에 납부하는 녹전(祿轉)과 선납(先納)하는 공물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창에 분정(分定)하여 수납토록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sup>17</sup> 공물로서 도자기도 조창을 달리하여 수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편, 조창에 따라 수납 관사가 달랐던 정황은 전라도 지역에서도 한때 확인된다. 세종 9년 호조의 계문에 따르면 전라 남부지역 사람들은 군자감에 바칠 미두는 나주 영산창에, 각 관사에 바칠 미두는 덕성창에 수납하여 조운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호(戸)에서 수납 관사에 따라 전세를 두 곳의 조창으로 나누어 운반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sup>18</sup>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세종 9년부터는 전라 남부의 전세는 수납관사에 상관없이 모두 영산창을 통해 조운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양상이 세종실록 지리지 조운 기록에서 확인된다. 바꿔 말하면, 전라도 지역의 자기 공납도 1427년까지는 수납관사에 따라 조창을 달리하며 수납, 운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 4. 맷음말

지금까지 충청도 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분청사기 가마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조 기사에 따르면 관요 성립 이전까지 공납자기를 생산했던 충청지역의 자기소는 모두 23개소인데, 이들 중 12개소 34기의 가마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에서는 사선서, 내자시, 내섬시, 예빈시, 인수부, 장흥고 등 의 관사로 공납되는 공납자기가 확인되었다. 이들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에서 생산된 공납자기는

17 「世宗實錄」卷28, 世宗 7年 6月 27日 乙丑, “忠淸道監司啓, 道內各官祿轉及先納上納之法, 在前分程途遠近, 道內沔川犯斤川, 牙山貢稅串, 棣山慶陽浦, 忠州金遷仰巖, 京畿驛驛興弓音安川寧梨浦等處, 各以來往附近分定出浦, 祿轉則二月始納, 解水後三月載船, 先納則七月始納, 八月入節後載船... (후략).”

18 「世宗實錄」卷35, 世宗 9年 2月 2日 廿申, “戶曹據全羅道監司關啓, 羅州光州以南各官居民, 軍資監納米豆輸于羅州榮山倉漕轉, 各司納稅米豆輸于龍安德城倉漕轉, 一戶田稅分處輸轉, 非唯牛馬困斃, 未得及期輸納, 其弊不小, 請上項羅光州以南居民各司納田稅, 竝於榮山倉輸納, 軍資一時漕轉, 從之.”

일반적인 조세 및 공물의 조운 절차를 고려할 때 공세곶과 범근천 조창을 거쳐 서해 루트로 조운 되거나, 연천 및 앙암 조창을 거쳐 남한 루트로 조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많은 유적 이 조사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선 초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관사명 공납자기의 조운은 대개 서해 루트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흥미롭다. 추후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충청지역 분청사기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선 초 공납자기의 생산과 운송, 관리와 관련된 연구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 투고일 2018. 11. 11. | 심사개시일 2018. 11. 16. | 게재 확정일 2018. 11. 20 |

## 참고문헌

### 1차자료

-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지리지』
- 『경국대전』

### 단행본

강경숙, 『분청사기연구』, 일지사, 1986.

### 발굴보고서

-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송정리도요지』, 1991.
- 공주대학교 박물관, 『천안 양곡리 분청사기 요지』, 1997.
- 국립중앙박물관, 『계룡산 도자기』, 2007.
-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대전 지방의 도요지』, 1999.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의 문화유적 제7집 천안시·천안군편』, 1993.
- 서정호, 「분청사기 도요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충남 연기군 달전리 요지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7호, 2007.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보령댐 수몰지역 발굴조사보고③ 도요지 발굴조사보고』, 1996.
- 朝鮮總督府, 『鷄龍山麓陶窯址調報告—韶和二年—古蹟調查報告 第1冊』, 1929.
- 중앙문화재연구원, 『영동 사부리·노근리 도요지』, 2003.
- \_\_\_\_\_,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보은 적암리 분청사기요지』, 2004.
- \_\_\_\_\_, 『청천~문광(승면~사기막)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2005.
- 중원문화재연구원, 『KM그린(로얄포레)CC조성사업부지내 충주 대화리 유적』, 2012.
- \_\_\_\_\_, 『문화유적분포지도-괴산군』, 2005.
- \_\_\_\_\_, 『제천 동막골 유적』, 2008.
- 충남매장문화재연구원, 『서산 무장리 요지』, 2000.
- 충남역사문화원, 『연기 금사도요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4.
- 충북대학교박물관, 『괴산 송면리 유적』, 2010.
- \_\_\_\_\_, 『충북지방 도요지지표조사 보고서』, 1993.
- 해강도자미술관, 『대전 구완동 요지』, 2001.
- \_\_\_\_\_, 『대전시 구완동 상감청자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1996.

## 충청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특징

박형순

지금까지 충청지역에서는 모두 12개소 34기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조사되었다. 충청지역 분청사기 연구는 공주 학봉리유적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조사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황과 함께 분청사기 연구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 초 충청지역 분청사기의 생산과 공납은 전라 및 경상지역과 큰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공납자기의 공납 특징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경상도 지역은 1403년 조창을 폐지하고, 전라도 지역은 1427년을 기점으로 전라 남부와 북부의 조운을 일괄 통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조선 초 충청지역은 남한강 수로와 서해 해로를 통한 조운이 모두 용이하여 공납에 유리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초 충청지역에는 총 8개의 조창이 설치되었고, 조창에 가까운 지역에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을 분정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도자기 공물 또한 조창에 따라 생산지역을 분리한 양상이 살펴지는데, 남한강 수로를 통해 조세와 공물이 운송되는 조창으로 세금을 납부했던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에서는 지금까지 관사명 분청사기가 제작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충청지역에서 확인된 관사명 공납자기는 서해 해로를 통해 조운이 이루어지는 조창(공세곶, 범근창)으로 세금을 납부했던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을 통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공납 특징을 감안하여 조선 초 충청지역 분청사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충청도, 분청사기, 공납(貢納), 조운(漕運), 조창(漕倉), 공세곶(貢稅串), 범근천(犯斤川)

## Abstract

#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Chungcheong-do Province

Park Hyeongsoon

Chungcheong region, as of 2018, sees the excavation of 34 Bucheong ware kilns in 12 sites. The excavation efforts and research had been activated centering in Hakbongri Site, GongJu since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However, since the 2010s, kiln site excavation has not been conducted with Bucheong ware research having made little progress.

Early-Joseon Chungcheong Bucheong ware production and tribute offering methods were not really different from those of Jeolla and Gyeongsang regions.

Chungcheong's porcelain tribute offering method, however,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regions in terms of one item. Gyeongsang abolished its tributary transportation harbor in 1403 while Jeolla, beginning in 1427, moved to combine its southern and northern tributary transportation. Meanwhile, Chungcheong, in early Joseon, used the Namhangang River and Yellow Sea routes to ensure a convenient tributary transportation. Chungcheong, in the early Joseon period, installed a total of 8 tributary transportation harbors, of which they offered taxes and tributes through closer harbors, depending on their location.

Thus, according to the tax-paying tributary transportation harbors, different types of tributary porcelain were produced by area. In the region which transported taxes and tributes through the Namhangang River route, Bucheong ware items with government organization name stamped on them were not confirmed. However, in the region which transported taxes and tributes through the Yellow Sea route, tributary porcelain items, stamped with government organization names such as Naejası, Naeseomsi, Yebinsi, Jangheunggo, and Insubu, were found to have been produced.

**Keywords :** Chungcheong-do, Buncheong ware, tribute, tributary transportation, and tributary transportation harbor

# 전라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권소현\*

## I. 머리말

## II. 전라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현황

### III.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특징과 성격

– 기형, 시문 장식기법, 명문을 중심으로

## IV. 맷음말

---

\*국립전주박물관

# 전라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권소현  
국립전주박물관

## I. 머리말

분청사기는 고려 후기에 강진과 부안의 중심 요장들이 해체되고, 여기에 소속된 장인들이 전국으로 흘어져 소규모의 새로운 요장을 개설하면서 말기상감청자의 전통을 계승하여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이 분청사기가 청자·백자와 크게 다른 점은 태토와 유약 사이에 흰 훠을 입힌 것인데, 이 흰 훠은 투박한 느낌을 주지만, 흰 훠 위에 여러 문양 장식을 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릇 표면에 어떤 방법으로 흰색 화장토를 입히고 무늬를 나타냈는가의 장식기법에 따라 상감(象嵌), 인화(印花), 조화(彫花), 박지(剝地), 철화(鐵畫), 귀얄, 분장(粉粧 또는 덤병)의 일곱 가지로 나누고 그 특징으로 꼽는다.

1466~1468년 사이 경기도 광주에 관요가 설치되면서, 분청사기는 질과 장식기법, 성격 등이 크게 변화되었다. 백자는 눈부시게 발전한 반면 분청사기는 지방의 관아용이나 그 지역의 민수품으로 장식이 변화되고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후 분청사기의 질과 장식이 거칠어지기도 하며, 한편으로 상감이나 인화장식의 틀에서 벗어나 장식의 표현이 다양해지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법이 개발되어 개성이 뚜렷해진다. 이 시기에 인화장식은 경상도 등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기도 하지만 도장에 새긴 문양의 크기가 커지고 장식의 짜임새나 찍힌 상태가 거칠며, 장식이 차지하는 공간도 줄고 백토의 감입도 지저분한 것이 많다. 그러나 전라도에서는 독특한 조형과 미감을 보이는 조화나 박지 기법으로 장식한 분청사기가 새롭게 등장해 유행하였다. 그러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전반 사이 분청사기는 그릇의 종류가 줄어들고 장식이 더욱 간략해진다. 지역적인 개성을 보이던 장식도 변화되어 그릇의 일부 혹은 전면에 귀얄로 그릇 표면에 백토를 살짝 칠하는 정도로 마무리 되었다. 귀얄 분청사기와 분장 분청사기를 끝으로 분청사기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분청사기는 전국 각지의 가마들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제작되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

에서는 인화 분청사기, 충청도에서는 철화 분청사기, 전라도에서는 박지조화 분청사기가 유행하는 지역적인 특색을 보인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분청사기의 특징으로 논해지는 지역적 특색에 대해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전라도 지역 가마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격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조사된 자료들을 통해 운영 시기, 가마의 구조, 지역에 따른 제작 양상 등 지역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Ⅱ. 전라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현황

전라도 지역의 분청사기 요지 조사에 대해서는 우선 20세기 전반 조사된 내용이 집약적으로 수록되어 1980년에 발간된 「세계도자전집』 19권(李朝)에 수록된 「李朝陶磁窯跡表」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라북도에 분포되어 있는 분청사기 요지는 9개 지역 19곳이 조사되었고, 전라남도는 25개 지역 58곳이 조사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후 1990년대 도자 관련 단행본의 부록으로 전국 도요지 일람표로 정리된 분청사기 요지 분포 현황은 <표1>과 같다.<sup>1</sup> 100여개 지역에서 분청사기 가마터가 운영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발굴조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 1. 조선시대 분청사기 가마터 분포 현황

구분	지역		출토유물 특징
전라남도	광주시	북구 쟁효동	4 청자, 인화, 귀얄, 상감, 조화, 분장, 백자, 흑유
	광주시	서구 주월동	1 청자상감, 분청사기 상감
	담양군	수복면 대방리	1 귀얄, 분장, 백자, 흑유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1 귀얄, 분장
	담양군	용면 용기리	1 인화, 귀얄
	장성군	횡룡면 금고리	1 귀얄, 분장, 백자
	장성군	북이면 덕원리	1 귀얄, 분장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2 인화, 귀얄, 분장, 백자
	장성군	서삼면 취암리	1 귀얄, 분장, 백자
	장성군	장성읍 유당리	1 귀얄, 분장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 귀얄, 분장, 백자
	광산군	하남면 장수리	2 분장
	광산군	송정읍 운수리	2 분청사기, 백자
	항평군	해보면 산내리	1 귀얄, 분장
	항평군	나산면 송양리	2 귀얄
	항평군	나산면 이문리	2 귀얄, 분장

1 「世界陶磁全集」 제19권 李朝(小學館, 1980), pp. 252~253 ; 윤용이, 「분청사기요지의 분포와 특색」, 「분청사기」(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pp. 114~116 ; 정양모, 「고려·조선시대자기요지분포현황」, 「한국의 도자기」(문예출판사, 1991), pp. 496~501 ; 윤용이, 「한국도자요지일람표」, 「한국도자사연구」(문예출판사, 1993), pp. 490~511.

구분	지역		출토유물 특징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1 귀얄, 분장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1 귀얄, 분장, 흑유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 귀얄, 분장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1 귀얄, 분장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1 귀얄, 분장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	2 상감, 인화, 귀얄, 백자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1 귀얄, 조화, 분장
	무안군	몽탄면 대기리	1 귀얄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1 인화 귀얄
	무안군	청계면 대봉리	1 인화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1 상감, 인화
	나주군	다시면 운봉리	1 상감, 인화
	나주군	다시면 신광리	1 인화
	나주군	봉황면내	1 귀얄, 분장
	나주군	다도면 마산리	1 귀얄, 조화, 분장
	장흥군	대덕리 연정리	1 인화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21 상감, 인화, 조화, 박지, 귀얄, 분장 흑유
	강진군	군동면 금사리	1 인화
	강진군	칠량면 삼흥리	3 인화, 귀얄, 분장
	강진군	도암리 만덕리	1 인화
	해남군	북평면 안평리	1 인화, 귀얄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1 분장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1 상감, 인화
	영암군	학산면 목동리	2 상감, 인화, 귀얄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5 상감, 인화, 조화, 귀얄
	영광군	군남면 응암리	1 상감, 인화
	영광군	백수읍 흥곡리	1 분장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1 인화, 귀얄
	영광군	백수읍 천정리	1 인화
	영광군	불갑면 금학리	2 상감, 인화
	소계	91개 지역	83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2 귀얄, 인화, 내섬명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3 인화, 백자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 인화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15 인화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1 인화, 귀얄, 백자
	부안군	상서면 김교리	2 인화, 귀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1 인화, 귀얄, 조화, 내섬명
	고창군	아산면 응계리	3 인화, 귀얄, 백자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2 귀얄, 박지, 분장
	소계	9개 지역	30
합계	100개 지역	113곳	

현재까지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견된 지역 중 전라남도는 광주 충효동, 곡성, 보성, 영암, 나주 등이며, 전라북도는 완주, 김제, 부안, 고창 등인데, 조사가 거듭될수록 발견되는 지역이 넓어지고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가마터는 1980년대를 시작으로 근래 더욱 활발하게 지표조사와 발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수집되고 지역적인 분포와 특징도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가마터를 대상으로 발굴 개요 및 출토유물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전남지역 조사 현황

### 1) 광주(光州) 충효동(忠孝洞)<sup>2</sup> (도1~3)

광주 충효동 요지는 사적 제141호로, 광주 동쪽의 진산인 무등산(無等山)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무등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위치한 충효동은 여러 군데 요지가 산재해 있고, 특히 발굴 유적이 위치한 금곡(金谷)은 세종실록지리지의 자기소 기록과 연관된 곳이기도 하다. 세종실록지리지(1424~1432년) 무진군조(茂珍郡條)의 “자기소일 재군동 이점(磁器所一 在郡東 梨岾)”이라는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광산현 토산조의 “자기 협동 석보리(磁器 縣東 石保里)”라는 기록이 있다. 이점(梨岾)은 가마터 옆으로 넘어오는 지금의 배재이고 석보리는 지금의 충효동(금곡마을) 일대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1481년 간행된 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한다면 1480년대 충효동 금곡 일대에서 자기를 생산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 하겠다.

광주 무등산의 충효동 일대의 분청사기가마터는 1963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되었다. 특히 1991년의 발굴에서 7기의 가마유구와 3m에 달하는 퇴적구의 충위가 조사되어 15세기 분청사기가마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분청사기가 변화 쇠퇴하여 백자로 이행하는 6단계 과정을 밝힐 수 있는 편년 기준을 알려 주었다.

퇴적층에서는 각종 명문 도편과 분청사기 제기류가 출토되었는데, 명문에서 사기장, 관청, 제작지, 품질 표시, 제작시기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명문의 위치는 그릇의 안바닥이나 혹은 굽 안바닥이며 상감이나 음각기법으로 새겨졌다. 사기장의 이름으로는 박덕지, 김화중, 득부, 한생 등 다수가 알려졌고 관청 이름으로는 무진내섬, 내섬 등이 보인다. 공물 표시로는 광상, 광별, 광공 등이 있고 품질 표시로는 갑, 상, 중, 하 등이 있으며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명문으로는 정윤이, 성화정유년 등이 있어 1477년에 조업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상배에 새겨져 있는 ‘어존’이라는 한글 명문은 세종 28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분청사기의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주류이고 그 외에 전접시, 합, 마상배, 장군, 벼루, 제기 등이 있다. 특히 제기는 당시의 보, 궤, 준과 같은 금속제기를 도자기로 번안하고 있다. 세종 12년 (1430)에 동이 부족하자 금속제기를 도자제기로 바꾸도록 했는데, 이러한 기록을 뒷받침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충효동에서 출토된 제기편들은 제기 연구에 한몫을 한다. 분청사기의 문양으로는

2 강경숙,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시공사, 2005), pp. 345~348 ;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분청사기」(2013).

인화문이 가장 많고 병과 항아리에는 상감, 조화, 박지문양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자 귀얄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면서 백자로 이행했다.

충효동 요지는 우리나라 분청사기 가마터 가운데 최초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학술조사라는 점과 이 유적을 통해 분청사기의 변화, 쇠퇴 과정뿐 아니라 분청사기에서 백자로의 이행 과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지닌다.



도 1. 광주 충효동 출토 상감, 인화 분청사기



도 2. 광주 충효동 출토 조화, 박지 분청사기



도 3. 광주 충호동 출토 분청사기 명문(光, 光上, 光公, 丁闕二, 어조)

## 2) 고흥(高興) 운대리(雲垈里)<sup>3</sup> (도4)

고흥 두원면 운대리 일대에는 청자와 분청사기 가마터가 밀집 분포되어 있는데, 1980년대부터 많은 조사가 실시되어 5개소의 청자 가마터와 25개소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특히 2000년과 2001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한 운대리 분청사기 1호와 2호 가마터 발굴조사에서는 인화분청을 비롯해 상감, 조화, 박지, 철화, 귀얄, 분장(덤병)분청 등이 발굴되었다. 이는 분청사기의 출현에서 쇠퇴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어 2011년 12월 23일 사적 제519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운대리 2호 가마 주변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어 주변에 가마뿐만 아니라 가마 관련시설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2014년 운대리 분청사기 7호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그동안 미흡했던 분장(덤병)분청사기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운대리 분청사기 7호 출토유물은 도지미 등의 요도구와 가마 내부 상층에서 출토된 백자 1점을 제외하고 모두 분청사기이다. 인화와 조화, 박지, 철화, 귀얄, 분장 등 분청사기에 사용되었던 모든 시문기법이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백토 물에 그릇을 덤병 담갔다 꺼내 표현을 하얗게 분장한 분장기법이었다. 기종은 발과 접시, 완 같이 차문화 또는 생활용기와 관련된 기종이 중심을 이루며 종지, 병, 호의 순서로 확인되고 있다. 명문은 인화와 철화기법에서 확인되는데,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조사한 2-1호 가마터에서 출토된 ‘원(元)’과 동일한 명문이 확인된다. 철화로는 ‘대(大)’ 등이 있다. 갑발과 같은 요도구는 확인되지 않고 도지미를 중심으로 불창마개 등이 일부 출토되었다.

3 강경숙, 앞의 책(시공사, 2005), pp. 348~357 ; 국립광주박물관·고흥군,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도요지」(2002) ; 민족문화유산연구원·고흥군, 「고흥 운대리 분장분청 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2016).

2016년에는 운대리 분청사기 14호 요지가 발굴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귀얄과 분장 기법의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며 일부 조화기법이 확인되고 있다. 기종은 발과 접시, 완 등 차문화 또는 생활용기와 관련된 기종이 중심을 이루며, 이외에 종지와 병, 호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14호 요지에서는 인화기법의 분청사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귀얄과 분장 기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운대리 일대의 분청사기 요장의 시기적인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분장 분청사기는 굽다리까지 분장을 하는 등 정성껏 제작되어 운대리 분청사기의 가장 푸렷한 특징으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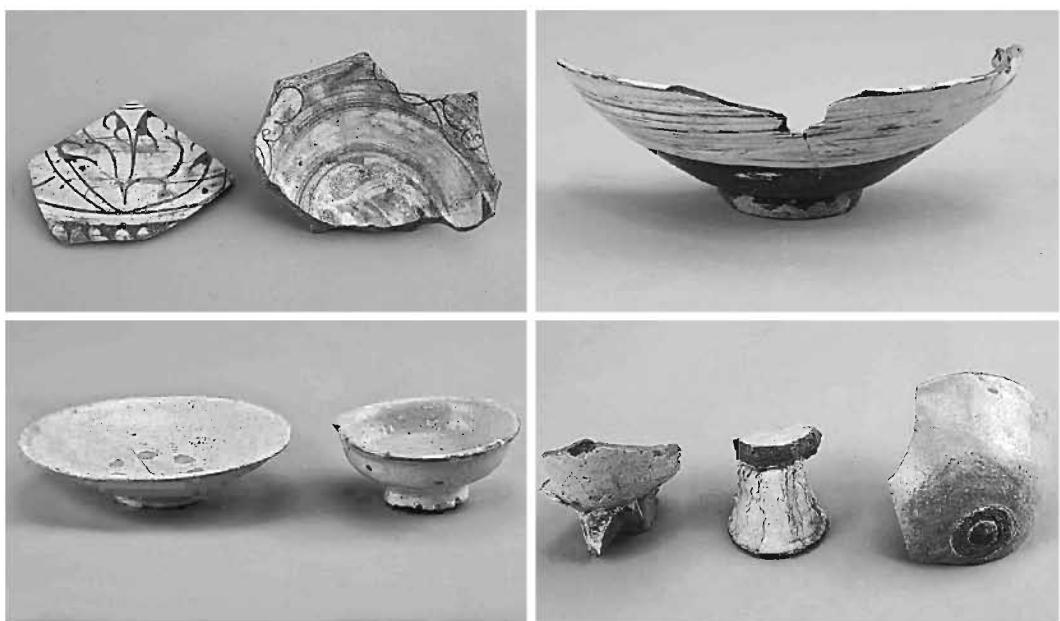
도 4. 고종 운대리 출토 분청사기

### 3) 보성(寶城) 도촌리(道村里)<sup>4</sup> (도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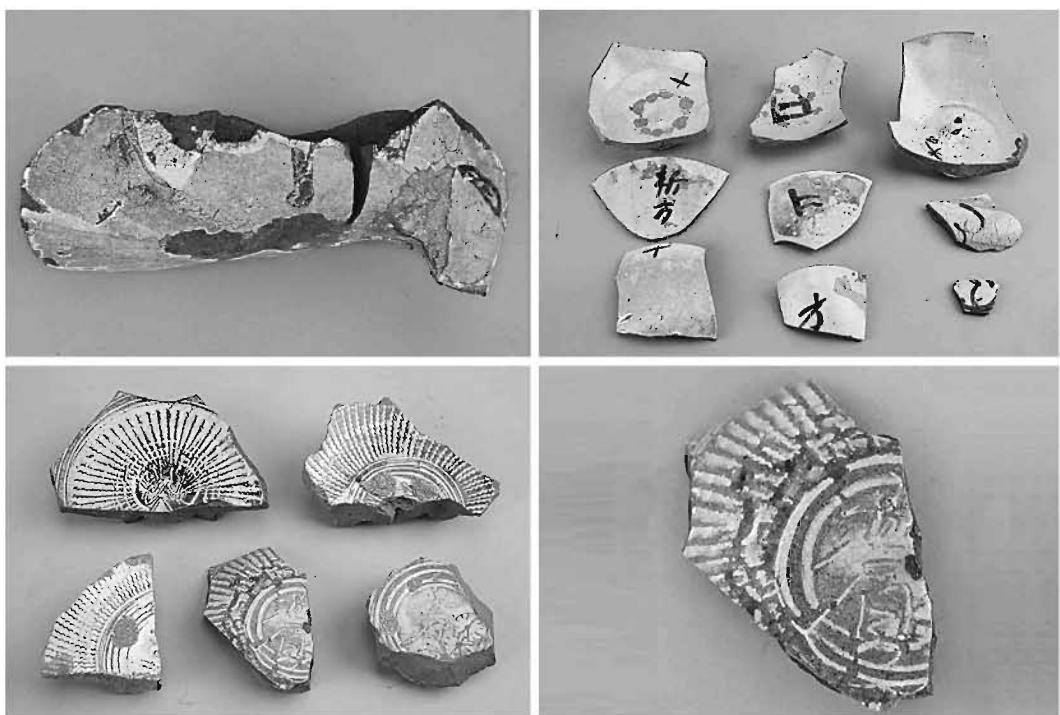
전남 보성군 득량면 도촌리 일원에 위치한 도촌리 분청사기 요지 발굴조사는 2014년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보성지역 도요지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경국대전에 처음 등장하는데, 경국대전에 기록된 외공장의 역할에 의해 도자 공방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광주박물관과 전남대학교박물관, 남도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많은 도요지가 확인되었다.

보성 도촌리 분청사기 요지는 일명 “아랫사그점골”이라 불리는 곳으로 2007년 보성군의 의뢰를 받아 마한문화연구원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도요지 2개소가 확인되었다. 그 중 2007년 마한문화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도촌리 가장 분청사기 요지로 명명한 곳이 발굴 조사되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분청사기는 상감과 조화, 박지, 철화, 귀얄, 분장 등 분청사기에 사용되었던 모든 시문기법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백토 물에 그릇을 덤벙 담갔다 꺼내 표면을 하얗게 분장한 분장 분청이며, 이외에 귀얄과 상감, 철화, 조화, 박지 순서로 확인된다. 기종은 발과 같이 차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종이 중심을 이루며, 접시와 종지, 호, 병의 순서로 확인되고 있다.

4 민족문화유산연구원·보성군, 「보성 도촌리 분청사기 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2014).



도 5. 보성 도촌리 출토 분청사기



도 6. 보성 도촌리 출토 철화 분청사기, 명문 분청사기

철화기법은 공주 계룡산 학봉리에서 주로 확인되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 철화로 쓰여진 ‘기방(祈(新)方)’의 글씨가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인화, 상감기법의 그릇은 소량 확인되는 데 그 중에 내저면에 ‘예빈(禮賓)’의 글씨가 상감으로 새겨져 있는 편이 출토되었다. 이는 도촌리 분청사기 요지가 국가에서 필요한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였음을 알려주어 도촌리 가마터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빈’ 명 분청사기는 도촌리의 경우 전라남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어 학술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촌리 분청사기 요지는 묘지가 조성되어 유적의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퇴적층의 잔존 상태가 양호하며, 출토유물도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분장 분청사기 가마의 면모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 4) 영암(靈巖) 상월리(上月里)<sup>5</sup> (도7~8)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영암군에는 군의 서쪽 곤미(昆湄, 현재 영암군 미암면과 학산면 일대로 추정)의 다점리(多占里)에 중품 자기소 2곳이 있으며, 군의 서쪽 곤미의 율점(栗岾)에 하품 도기소가 2곳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주의 남쪽 금마리(金磨里)에 있었던 하품 도기소 1곳도 현재 영암군 금정면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라남도에서 함평 6곳 다음으로 많은 5곳에 자기소와 도기소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소와 도기소가 위치한 곳으로 추정되는 금정면에서 현재까지 분청사기 가마터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학산면 상월리에서만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월리 분청사기 가마터에서는 갑발이 확인되고 고급의 인화분청, 제기, ‘인수(仁壽)’ 명 분청사기 등이 출토되고 있어 곤미의 다점리에 설치된 자기소와 도기소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산 33번지 일대에 위치한 영암 상월리 유천 4,5호 분청사기 가마터의 발굴조사가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2013~2014년에 진행되어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출토유물은 분청사기와 조선청자, 백자가 모두 확인되었고 기종에 있어서도 발, 대접, 접시 등 일상생활용기와 편병, 고족배, 양이잔, 병, 호, 합, 제기 등 다양한 구성의 조선 초 도자 기종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 기종으로는 염주 등이 있으며 이례적으로 염주 도지미가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요도구인 갑발과 도지미 등이 확인되었다. 문양은 무문도 있으나 인화와 조화박지, 귀얄 기법 등으로 시문한 다양한 분청사기편이 확인되었으며, 집단 인화문을 시문한 분청사기는 절정기 양식으로 상월리 분청사기의 위상을 대변하고 있다.

명문은 ‘인수(仁壽)’ 와 ‘사(司)’ 명, ‘내섬(內臘)’ 명, ‘공(公)’ 명, ‘아(我)’ 명, ‘용(用)’ 명, ‘불(不)’ 명 등이 출토되었다. ‘사(司)’ 명은 왕실의 식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사선서(司膳署)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선(司膳)’ 또는 ‘사(司)’ 명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제작기간은 1372~1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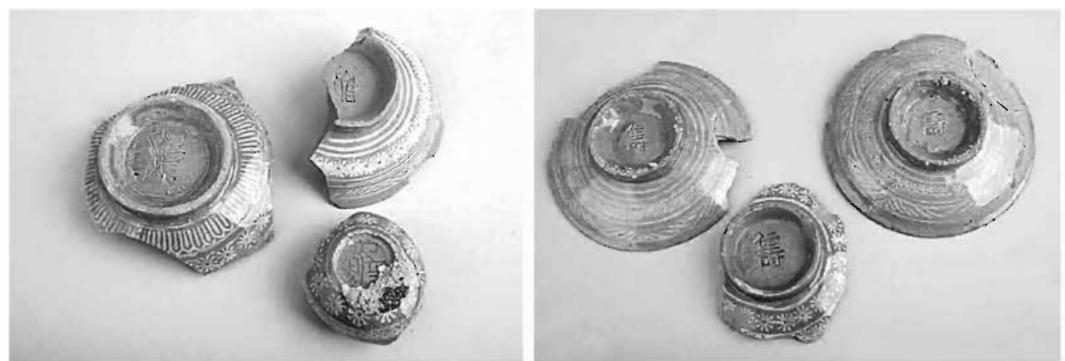
5 민족문화유산연구원·영암군, 「영암 상월리 도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2013); 민족문화유산연구원·영암군, 「영암 상월리 유천 도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2014); 민족문화유산연구원·영암군, 「영암 상월리 요장 발굴조사 보고서」(2016).

년경으로 오랫동안 만들어졌으며, 제작지도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 등 넓게 확인되고 있다. ‘인수부’ 명 분청사기는 세종대 이후 경상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 가마터와 지명이 함께 시문된 ‘인수’ 명 분청사기의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라도에서는 영암 상월리의 사례가 처음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상월리 가마터는 고급 분청사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갑발과 정치한 인화분청, 제기를 비롯하여 인수명, 내섬명, 용무늬 자기편 등이 출토되고 있으며 세자가 거처하는 동궁에서 사용하기 위해 공납하는 양질의 청자가 확인되고 있어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중품 자기소로 세종대 왕실과 관청에 공납되는 분청을 제작하였던 요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 7. 영암 상월리 출토 분청사기



도 8. 영암 상월리 출토 명문 분청사기(內膽, 仁壽)

### 5) 나주(羅州) 우산리(雨山里)<sup>6</sup>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안심마을에서는 가마터 4기가 확인되었다.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02년, 2003년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가마 안 함몰층에서 수습된 유물은 상감분청사기, 인화분청사기, 무문, 도지미, 경질의 시유도기류 등이고 무늬는 국화문, 연주문, 삼원문, 중권문, 흑백 상감문 등이 있으며 번조방법은 태토빛을 받침의 포개구이이다. 가마 구조나 도편 성격으로 보아 15세기 전반에 활동한 가마로 추정된다. 우산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는 무문이거나 상감 또는 인화 기법이 시문되어 있어 분청사기 발생기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문양이 시문된 것과 시문되지 않은 것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문양이 시문된 경우 대부분 선조문과 함께 국화, 연주문, 우점문, 나비문 등을 인화기법으로 시문하거나 혹은 초문 등의 문양을 상감기법으로 그릇의 내저면에 간략하게 시문하였다. 귀얄, 조화, 박지, 분장 등의 기법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 6) 곡성(谷城) 구성리(龜城里)<sup>7</sup> (도9)

전남 곡성군 오곡면 구성리 쌍구마을에 위치한 분청사기가마터는 2003년 발굴 조사되었으며,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가마 1기이며, 가마 좌우에서 폐기장(퇴적층)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청자와 분청사기, 요도구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양식적인 특징으로 보아 고려 말의 상감청자 계열과 조선 초의 분청사기 계열이 함께 출토되어 청자에서 분청사기로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출토 유물은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병, 호, 잔, 마상배, 합, 뚜껑, 대반, 향완이 있으며 그 외 흑유와 요도구로 갑발, 도지미 등이 있다. 문양은 청자의 경우 연당초문과 수금문, 모란당초문, 선문, 초화문 등으로 대부분 백상감하였으나 일부 흑상감이 확인된다. 분청사기는 국화문을 중심으로 연판문과 연주문, 집단 국화문, 당초문 등이 확인되며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으로 시문하였다.

또한 제작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내섬(內瞻)’, ‘섬(瞻)’, ‘장홍(長興)’ 등의 명문이 확인되었다. ‘내섬시’는 1403년에 고려의 ‘덕천고(德泉庫)’를 개칭하면서 생긴 중앙관아로 음식을 다루었다. ‘장홍고’는 물품 보관의 업무를 담당한 조선시대 관아로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납물을 취급했기 때문에 구성리 가마는 조선 전기에 공납용 도자기를 제작했던 가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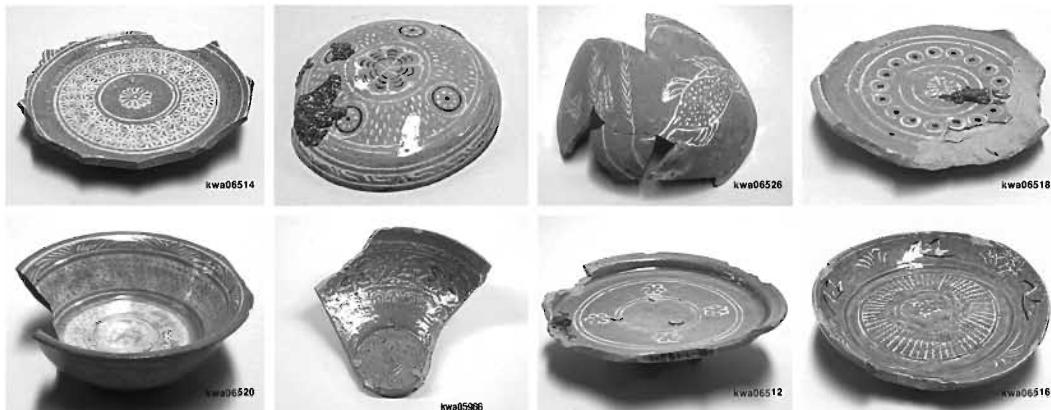
세종실록지리지 곡성현 조에는 “현 남쪽 우곡(牛谷)에 자기소가 하나 있고, 현 서쪽 묘현(猫峴)에 도기소가 하나 있다. 모두 하품이다.”라고 적혀 있어 위의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우곡은 지금의 오곡면으로 오곡이라는 이름은 1914년에 마을을 통폐합하면서 오곡면의 ‘오(梧)’ 자와 우곡면의 ‘곡(谷)’ 자를 합쳐서 지었다. 따라서 오곡면에 있는 구성리는 세종 당시 우곡이었고 자기소에서 분청사기를 생산했으며, 당시에는 이 자기를 하품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자료조사 기간이 1424~1432년이므로 적어도 1432년까지는 조업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곡성 구성리 도요지는 고려 상감청자에서 조선 분청사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가마터 조사가

6 호남문화재연구원, 「나주 우산리요지」(2002) ; 강경숙, 앞의 책(시공사, 2005), p. 366.

7 호남문화재연구원 · 곡성군, 「곡성 구성리 도요지」(2005) ; 강경숙, 앞의 책(시공사, 2005), pp. 358~371.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학술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5세기 초 도자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9. 곡성 구성리 출토 분청사기

### 7) 장성(長成) 추암리(鷲岩里)<sup>8)</sup>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해서는 1998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한 바 있으며,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2003년 시굴조사 후 2004년 분청사기와 백자 요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청사기 요지에서는 분청사기와 소량의 흑유가 나왔으며 백자는 1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밸, 대접, 접시의 반상기가 주류를 이루며 그 외에도 소호, 병, 대발, 제기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반상기가 분장(疊疋) 기법으로 백토분장된 것과 대조적으로 그 외 기종은 귀얄기법으로 백토 분장된 특징이 있다. 동반 출토된 흑유는 소호, 병, 대발, 뚜껑 등의 기종에서만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남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출토유물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전남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출토유물의 특징

	기종	장식기법	문양	명문	동반유물
광주 충효동	대접, 밸, 접시, 전접시, 합, 호, 병, 매병, 편병, 잔, 주자, 마상배, 장군, 벼루, 제기, 화분 등	상감(선상감, 면상감), 인화, 조화, 박지, 귀얄	연꽃, 벼드나무, 모란, 넝쿨, 물고기, 개, 인화문, 귀얄문 등	茂珍內膽, 內膽, 光, 光上, 光別, 光公, 光奉 公別 朴德只, 得夫, 金山, 德生, 丁閏二, 成化丁酉, 全, 馬, 甲, 上, 中, 어존 등	조선청자 백자 흑유 요도구 (갑발 등)

8 호남문화재연구원, 「장성 추암리요지」(2006).

	기종	장식기법	문양	명문	동반유물
고흥 운대리	발, 접시, 완, 잔, 종지, 병, 호, 벼루, 제기, 뚜껑, 마상배 등	상감, 인화, 조화, 박지, 철학, 귀얄, 분장	연화어문, 국화문, 나비문, 연판문, 파상문, 승려문, 우점문, 초화문, 귀얄문, 분장문 등	元, 大	백자 요도구 (도지미)
보성 도촌리	발, 접시, 잔, 종지, 호, 병, 마상배, 제기(궤, 상준) 등	상감, 인화, 조화, 박지, 철학, 귀얄, 분장	넝쿨문, 승려문, 귀얄문, 분장문 등	礼賓, 祈(新)方	요도구 (도지미)
영암 상월리	발, 대접, 접시, 완, 잔, 호, 병, 편병, 장군, 뚜껑, 고족배, 벼루, 제기(보), 염주 등	상감, 인화, 조화, 박지, 귀얄, 투각(청자)	어문, 모란문, 집단 인화문, 호접문, 연판문, 국화문, 연주문, 용문(청자) 등	仁壽, 內膽, 公用, 不 *司(조벌) **公, 我(청자)	조선청자 백자 요도구 (갑발, 도지미)
나주 우산리	발, 접시, 병, 고족배 등	무문, 상감, 인화	흑백의 초문 상감문, 국화문, 연주문, 우점문, 나비문, 삼원문, 중권문,		경질시유도기 요도구 (도지미)
곡성 구성리	발, 대접, 접시, 병, 호, 잔, 마상배, 합, 향완	상감, 인화	국화문, 연판문, 연주문, 당초문, 나비문, 삼원문, 어문, 연화문 등	內膽, 膽, 長興, 長	상감청자 흑유 요도구 (갑발, 도지미)
장성 추암리	발, 대접, 접시, 병, 소호, 대발, 향완, 제기 등	귀얄, 분장	귀얄문 분장문		흑유 요도구 (도지미)

## 2. 전북지역 조사 현황

### 1) 부안(扶安) 우동리(牛東里)<sup>9</sup> (도10)

전남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는 고려청자 요지로 유명한 유천리에서 약 2km 정도의 맞은편 마을이다. 현재 이 마을은 큰 개울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 마을은 감불(甘佛), 그리고 반계 유형원 사당이 있는 왼쪽 마을은 우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언제부터 감불과 우신이 우동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5세기 분청사기가 번조된 곳은 감불리이다.<sup>10</sup> 1983년 12월과 198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분청사기 요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부분적인 발굴조사를 하였다.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도편은 대호, 편병, 장군, 병, 장군, 마상배, 대접, 접시, 제기, 합, 벼루

9 강경숙, 「부안 우동리 분청사기요」, 「한국 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pp. 252~260 ;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粉青沙器』(1984)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부안 우동리요지 긴급 발굴조사 약식보고서」(2015).

10 『世宗實錄』卷151, 地理志, 全羅道 扶安縣 土產, “磁器所一 在縣南甘佛里 中品” ; 강경숙, 위의 책(시공사, 2000), pp. 252~260.

등 다양한 기형이며 상감(면상감, 선상감), 인화, 조화, 귀얄, 무문 등의 기법이 확인되고 문양으로는 물고기문, 모란문, 연화문, 우점문, 국화문, 삼원문, 연판문, 파도문 등이 수집되었다. 발굴 조사 출토 유물은 분청사기, 백자, 초벌편 등의 자기류와 갑발, 도지미 등 요도구가 출토되었다. 다량의 갑발과 잘 만들어진 도지미, 자기편이 소량 출토되는 점을 통해 이 가마에서는 양질의 제품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동리 분청사기의 특징은 문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물고기문, 모란문, 연화문 등 세 종류의 문양이 대표적이고 이들은 모든 기형에 베풀어졌다. 물고기문은 편병, 병, 대발에 흑백 선상감 기법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사실적이고 활달한 표현과 연화가지나 수초가 동반되는 것이 특색이다. 이와 같은 상감기법의 물고기문이 베풀어진 예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우동리 분청사기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란문은 편병, 대호, 병, 장구, 장군, 마상배, 합, 잔 등 모든 기형에 베풀어지는데 반드시 백토 면상감이며 화엽이 3~4쪽으로 갈라진 모란꽃과 셋으로 갈라진 잎이 특징이다. 대호나 장구 경우에는 모란덩굴이 리드미컬하게 돌아가 더욱 생동감을 준다. 이와 같은 모란문대호의 예는 그 유례가 거의 없다. 연화문은 반드시 흑백 선상감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접편 중 내저 중앙에 ‘공(公)’ 자로 보이는 글씨가 있어 지방 관요와의 연계성도 생각하게 하며, 가마운영시기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 1440년대 문양과의 공통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1420년~1450년으로 추정된다.<sup>11</sup>



도 10. 부안 우동리 출토 분청사기

1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도요지 발굴 성과 20년」(2001), p. 88 ; 강경숙, 위의 책(시공사, 2000), pp. 252~260.

## 2) 완주(完州) 화심리(花心里)<sup>12</sup> (도11)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분청사기 요지는 2005년 전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되어 발, 접시, 호, 잔, 마상배, 주구발, 병, 매병, 편병, 뚜껑, 합, 대발, 장군, 제기(작, 보)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릇의 표면에는 인화장식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상감장식도 사용되었 다. 그리고 ‘대(大)’, ‘봉(峯)’, ‘국봉(國鳳)’, ‘막생(莫生)’, ‘막삼(莫三)’, ‘위강(委鈺)’, ‘김건지(金巾之, 또는 全州之, 全巾之)’, ‘국’, ‘진(眞)’, ‘군(君)’, ‘묘(卯)’, ‘×’ 등 여러 명문 및 기호와 함께 ‘내심(內膽)’의 관사명이 있는 예도 확인되었다.

또한 화심리에서 출토된 가장 특징적인 유물은 조선 청자로서 기종은 발과 접시가 위주이며, 이 외에 마상배, 편병 등이 극소량 출토되었다. 기면에는 문양을 시문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내저면 또는 내측면에 여의주 형태의 운문과 당초문 등을 음각 시문한 것이 대부분이다. 분청사기와 청자 편이 함께 붙어 있는 편도 보이고 있어 포개구운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자는 갑발을 사용하여 구었으며 간혹 청자와 분청사기를 포개구운 파편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화심리 요지에서는 관사명과 다양한 명문분청사기가 출토되고 있지만 도기소나 자기소와 관련한 문헌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지리지를 작성하기 위해 전국의 가마를 조사할 당시 화심리 가마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가마가 존재했지만 기록에서 누락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국가의 조세를 거두기 위한 자기소 및 도기소 조사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화심리 가마가 빠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관사명이 찍힌 분청사기가 염연히 존재하고, 특수용도인 조선청자도 제작했던 곳이었음을 볼 때 1424~1432년 당시에는 가마가 존재치 않았으며, 이 시기 이후에 개요된 것으로 추측된다.



도 11. 완주 화심리 출토 분청사기

12 전북문화재연구원, 「완주 화심리 유적」(2008).

그릇 내외면에 인화문양을 빼꼼하게 시문한 예는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본격적인 귀얄이나 조화박지기법의 유물은 출토되지 않은 점도 이 가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심리 분청사기의 제작시기는 상감분청사기가 쇠퇴하는 단계부터 조화박지분청사기가 유행하기 바로 전인 1450년 무렵까지 운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3</sup>

### 3) 고창(高敞) 수동리(水洞里)<sup>14</sup>

고창 수동리 가마는 부안면에서 선운사로 가는 도로에서 약 200m 남향한 야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1977년 사적 250호로 지정되었지만,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의 가능성이 높아 2015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분청사기 가마 4기가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은 분청사기 대접, 접시, 초벌편 등의 자기류와 도자미 등 요도구가 출토되었다. 분청사기는 상감, 인화, 조화, 박지, 귀얄기법으로 만들어졌고 대접과 접시의 내저면과 굽에 3~6개의 태토비침 반침이 놓여진 것으로 보아 포개어 소성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접과 접시의 내저면에는 ‘내섬(內瞻)’ 명 인각도 확인되며, 도자미는 원통형이 주류를 이룬다. 이후 2016년에 다시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분청사기 가마 2기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출토유물은 분청사기와 도자미로서 대부분 가마 내부 퇴적토와 폐기물 퇴적구에서 출토되었다. 분청사기는 대접, 접시 등 생활용기가 중심을 이루며, 병, 마상배 등도 소량 확인된다. 그릇의 시문 기법으로는 인화, 조화, 귀얄 등이 확인된다. 문양은 선문, 초화문, 국화문 등이 확인되며, 대접과 접시 내저면에 ‘내섬(內瞻)’ 또는 ‘내섬(內瞻)’ 명문도 확인된다. 이외에 병, 마상배 등도 출토되었다.

1997년에 국립전주박물관이 실시한 도요지지표조사 보고서에서는 부안면 수동리 가마터를 조선시대 고부군(古阜郡)에 있었던 자기소로 추정하기도 하였다.<sup>15</sup> 중앙관청에 공납하기 위해 제작된 ‘내섬’ 명이 새겨진 그릇임에도 포개어 제작되고 문양에서도 흐트러진 인화문 말기의 양상을 띠고 있고 백토분장의 백자화의 경향, 귀얄기법, 회화풍의 활달한 조화기법 등의 특징을 통해 대체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걸쳐 요업이 진행되었던 가마터로 생각된다.<sup>16</sup>

### 4) 고창(高敞) 용계리(龍溪里)<sup>17</sup> (도1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분청사기 가마는 일찍부터 학계에 알려져 왔던 곳으로 2기의 분청사기 가마가 이미 소개된 바 있다.<sup>18</sup> 2002년 골프장 건설을 위한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있었고 2003년 시굴조사가, 2006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구는 잔존상태가 미약하지만 유물퇴적층에서

13 전북문화재연구원, 위의 책(2008), pp. 302~307.

14 『世界陶磁全集』 제19권 李朝(小學館, 1980), p. 235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사적 제250호 고창분청사기요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2016.01)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사적 제250호 고창분청사기요지 추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2016.08).

15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조선시대 도요지」(1997), p. 31.

16 강경숙, 「분청사기연구」(일지사, 1985), pp. 310~311.

17 호남문화재연구원, 「고창 용계리요지」(2008).

18 강경숙, 앞의 책(일지사, 1985), pp. 311~315.

는 분청사기와 백자, 흑유 등의 도자기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분청사기는 시문기법에 따라 무문, 인화, 조화, 귀얄, 분장 분청사기로 구분되며, 인화분청사기의 내면에는 ‘내섬(內膽)’, ‘예빈(禮賓)’, ‘공(公)’ 등의 관사명과 명문이 도장으로 찍혀 있거나 인각되어 있다. 인화분청사기는 기형 성형 후 반 진조된 상태에서 내면 또는 내외면을 인화기법으로 시문하고 귀얄로 문양면을 백토분장하거나 문양 이외의 부분까지 백토분장하였다. 분장 후 문양 이외의 분장면을 깎아 정연하게 문양이 도드라지게 제작한 예는 소량 확인되고 대부분 귀얄분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귀얄분청사기는 내면 또는 내외면을 귀얄로 백토분장하였는데 반상기 중 내면만 귀얄로 분장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내외면을 모두 분장한 것은 일부이다.

조화분청사기는 주로 소호, 병, 대호, 장군 등 문양이 시문될 수 있는 면이 넓은 특수 기종에서 보이는데, 모란문, 파초문, 당초문 등이 시문되었다. 이들 도자기는 반상기는 물론이거니와 소호, 병, 대호, 제기 등 기종도 다양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호, 유병에는 3~4엽의 파초문이 주로 시문되고, 병, 대호, 장군 등에는 모란문 등이 주문양으로 시문되고 사엽좌문, 연파문, 당초문 등이 보조문양으로 시문되었다. 분장분청사기는 내외면을 전부 백토 분장한 것은 2점에 불과하고 내면과 외면 중상단부까지만 분장하였다. 백자는 연질과 경질로 구분되며, ‘내섬’ 명이 찍힌 인화 백자도 출토되었다. 특수 기종에 있어 귀얄, 조화분청사기가 소호, 병, 대호 등 생활용기적인 성격을 보인다면, 덤벙분청사기와 백자는 병, 뚜껑, 연적 등 생활용기와 문방구도 있지만, 양이잔, 전접시, 준, 보, 궤 등 의례용기는 대부분 분장 분청사기와 백자로 제작되었다.

고창 용계리 요지는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하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호남지역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운영시기는 덤벙 분청사기와 백자의 생산 양상을 고창 용산리 가마 및 광주 충효동 가마의 운영시기와 비교하여 대략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경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19</sup>



도 12. 고창 용계리 출토 분청사기

19 호남문화재연구원, 앞의 책(2008), pp. 184~188.

### 5) 고창(高敞) 용산리(龍山里)<sup>20</sup> (도13~14)

고창 용산리 가마는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연기마을 안쪽에 위치하며, 2001년 5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분청사기 가마 4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인화, 조화, 귀얄, 분장 분청사기를 비롯하여 흑유(黑釉)와 백자(白磁) 등으로 갑발은 출토되지 않았고 다양한 기종을 번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형식의 도자기가 나왔다. 이 요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발, 접시 등과 함께 대발, 대호 등의 대형 기종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흑유, 백자 또한 동일한 가마 내에서 번조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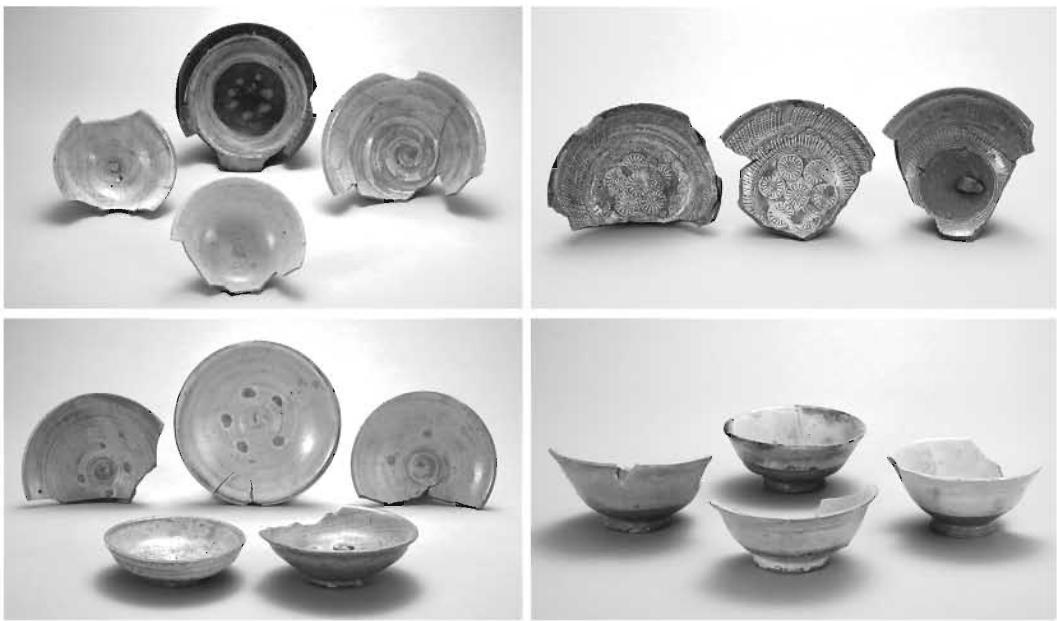
분청사기의 경우 시문기법에 따라 조화, 박지, 인화, 귀얄, 분장 분청사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조화기법과 박지기법으로 장식된 분청사기 중에는 물고기, 모란, 모란당초, 파초(芭蕉), 연판(蓮瓣) 등의 문양으로 장식된 것들이 많이 제작되어 용산리 분청사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용산리 가마터에서는 다양한 기종과 기형이 출토되었는데 반상기(飯床器)라 할 수 있는 발(鉢), 완(碗), 접시(楪匙) 등과 함께 병(瓶), 편병(扁瓶), 소호(小壺), 대호(大壺), 대발(大鉢), 대반(大盤) 등의 기종과 흑유가 양적인 면에서 많이 출토되어 용산리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을 이룬다.

한편, 인화기법의 분청사기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내면에 ‘내선(內贍)’, ‘예빈(禮賓)’, ‘예(礼)’ 등의 관청명이 도장으로 찍혀 있거나 인각되어 있으며 ‘대(大)’, ‘×’ 등의 명문과 표식이 남겨져 있다. 그리고 귀얄 혹은 덤벙 분청사기의 내면에는 음각으로 ‘만(凡)’, ‘천(天)’, ‘×’ 등의 명문과 표식이 확인된다. 백자발의 내저면에도 ‘예빈(禮賓)’, ‘내자(內資)’ 등의 관청명이 인각되어 있고 ‘제(祭)’ 글씨나 ‘이(二)’, ‘일(一)’ 등의 표식이 인각된 것도 출토되었다.



도 13. 고창 용산리 출토 조화, 박지 분청사기

20 호남문화재연구원, 「고창 용산리요지」(2004) ; 강경숙, 앞의 책(시공사, 2005), pp. 358~366 ; 국립전주박물관,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2016).



도 14. 고창 용산리 출토 인화, 귀얄, 분청사기

용산리 가마터에서 조사된 4기의 가마는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거의 동일한 시기에 운영되었는데, 가마터의 운영시기와 관련된 문헌자료나 절대편년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4호가마의 남동쪽으로 형성된 퇴적층에서는 분청사기와 더불어 다량의 백자가 출토되어 분청사기에서 백자로의 전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학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용산리 가마터는 2003년 8월 전라북도 기념물 제115호로 지정되었다.

#### 6) 김제(金堤) 청도리(淸道里)<sup>21</sup>

김제 청도리 요지는 2007년 전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지표조사가, 2009년~2010년에는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시굴조사 결과 분청사기 가마 4기, 백자가마 7기 등 조선시대 도요지 관련 퇴적층이 확인되었고 동서문물연구원에 의해 2013년 발굴조사가 착수되어 2014년 4월 조사가 완료되었다. 발굴조사 지역에서 분청사기가 출토된 가마는 Ⅱ 구역의 1호 가마와 Ⅲ 구역의 2호 가마이다.

1호 가마에서는 분청사기와 백자, 소량의 도기편이 확인되었다. 분청사기와 백자 모두 발과 접시류의 반상기가 주를 이루고 이외에 병, 호, 소호 등의 기종이 소량 확인되었다. 분청사기는 무문, 상감, 인화, 조화, 귀얄기법으로 시문되었으며, 시문된 문양으로는 국화문, 연주문, 연판문, 승령문, 초문, 격자문, 당초문 등이 확인된다. 백자는 기종은 발과 접시류가 대부분이고 굽까지 전

21 동서문물연구원, 「김제 청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2014).

면 시유한 경우가 많다. 폐기장에서 분청사기와 백자를 함께 포개구이한 도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분청사기와 백자의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호 가마에서는 분청사기와 백자 모두 발과 접시와 같은 반상용기가 주를 이룬다. 특히 분청사기에는 병, 호, 고족배, 뚜껑 등의 기종도 소량 확인되었다. 분청사기는 무문, 인화, 귀얄, 조화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였으며, 문양은 국화문, 연판문, 승렵문, 삼중원문, 격자문, 초문, 연화문, 꼭사선문 등이 확인되며, 주로 그릇의 내면에 시문하였으며, 외면에 함께 시문한 것도 확인된다. 한편 분청사기 중에는 그릇이 내저면에 ‘내섬(內膽)’ 명의 관사명과 ‘공(公)’, ‘과(果)’, ‘전(全)’, ‘천(天)’, ‘상(上)’, ‘십(十)’ 등의 명문이 시문된 것이 확인된다. 이 중 특히 내섬명 분청사기를 통해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가마터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백자는 소량만 확인되는데 확인되는 기종은 발과 접시, 잔 등이다. 이외에도 백자를 생산한 가마들이 조사되어 18세기까지도 가마가 운영되며 백자가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출토유물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 3. 전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출토유물의 특징

	기종	장식기법	문양	명문	동반유물
부안 우동리	대접, 접시, 대발, 합, 잔, 대호, 병, 편병, 장군, 장구, 마상배, 벼루, 제기 등	무문 상감 (선상감, 면상감) 인화, 조화, 귀얄	어문, 모란문, 연화문, 우점문, 국화문, 삼원문, 연판문, 파도문	公	백자, 요도구 (갑발, 도지미)
완주 화심리	발, 접시, 전접시, 잔, 호, 마상배, 주구발, 병, 매병, 편병, 뚜껑, 합, 대발, 주자, 장군, 장고, 향로, 벼루, 제기(작, 보) 등	상감 (선상감, 면상감) 인화	모란(당초)문, 삼원문, 국화문, 연판문, 연주문, 당초문, 여의두문, 승렵문, 파상문, 귀갑문, 어문, 파어문, 수지문, 파초문, 버드나무, 연판문,	大, 峯, 國鳳, 莫生, 莫三, 委缸, 金巾之( 또는 全州之, 全巾之), 國眞, 君, 卵, 內膽, 內	조선청자 요도구 (갑발, 갑발뚜껑, 도지미) 등
고창 수동리	대접, 접시, 대발, 대호, 소호, 병, 마상배	상감, 인화, 조화, 박지, 귀얄	모란(당초)문, 파초문, 국화문	內膽	요도구 (도지미) 등
고창 용계리	발, 접시, 병, 유병, 대호, 소호, 합, 대발, 장군, 베개, 제기(준, 궤, 보) 등	무문, 인화, 조화, 귀얄, 분장	모란(당초)문, 파초문, 당초문, 연판문, 초화문, 파상문, 승렵문 귀얄문, 분장문	內膽, 礼賓, 公	백자, 흑유, 요도구 (갑발, 도지미) 등
고창 용산리	발, 접시, 병, 유병, 편병, 표형병, 대발, 대호, 소호, 대반, 장군, 자라병, 합, 주구발, 주자, 마상배, 베개, 벼루, 향로, 향완, 기대, 제기(상준, 작, 보) 등	인화, 조화, 박지, 귀얄, 분장	모란(당초)문, 어문, 파초문, 연화문, 연판문, 당초문, 국화문, 우점문, 승렵문, 나비문, 연주문, 귀얄문, 분장문	內膽, 礼賓, 礼, 祭, 大, 天, 卍, 金山 *內資, 礼賓(백자)	백자, 흑유, 요도구 (도지미) 등
김제 청도리	발, 접시, 전접시, 병, 호, 소호, 고족배, 뚜껑 등	무문, 상감, 인화, 조화, 귀얄	국화문, 연주문, 연판문, 승렵문, 초문, 격자문, 당초문	內膽, 公, 果, 全, 天, 上, 十	백자, 요도구 (도지미) 등

### III.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특징과 성격 – 기형, 시문 장식기법, 명문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전남과 전북 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와 그 출토유물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정리하면서 그 성격 및 제작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청사기의 기종은 발, 대접, 접시, 잔과 같은 반상기가 주류를 이루고 병, 매병, 편병, 대호, 소호, 대발, 장군, 벼루 등의 기종도 제작되었다. 그 외에 특이한 점은 작, 보, 상준 등과 같은 제기의 제작이 눈에 띈다. 제기는 유교 국가인 조선이 예를 실천하고 왕실의 권위와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 의례에 필수적인 것으로<sup>22</sup>, 세종 12년(1430)에 동이 부족하자 금속제기를 도자제기로 바꾸도록 했는데, 이러한 기록을 뒷받침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전라지역에서 출토되는 분청사기 제기의 존재는 분청사기의 사용처와 수준 등 이를 요지의 성격을 추측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도15~16)

분청사기를 장식한 시문기법은 선이나 면으로 장식한 상감기법에서부터 인화, 조화박지, 철화, 귀얄기법과 백토 물에 그릇을 덤벙 담갔다 빼내서 장식하는 분장기법까지 분청사기 장식기법이 모두 존재하였다. 지역적 특색이 강한 분청사기의 특징 중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특징으로 꼽는 것이 조화박지기법으로 장식한 분청사기의 제작이다. 독특한 조형과 미감을 보이는 조화나 박지 기법으로 장식한 분청사기의 유행은 이처럼 반상기와 구분하여 살펴봐야 할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흥 운대리와 보성 도촌리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분장 분청사기의 제작 역시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특징으로 손꼽을 만하다.(도17~18)



도 15. 광주 풍호동 출토 분청사기 제기류

22 안성희, 「조선시대 도자제기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도 16. 전라지역 출토 분청사기 제기류



도 17. 전라지역 출토 조화박지분청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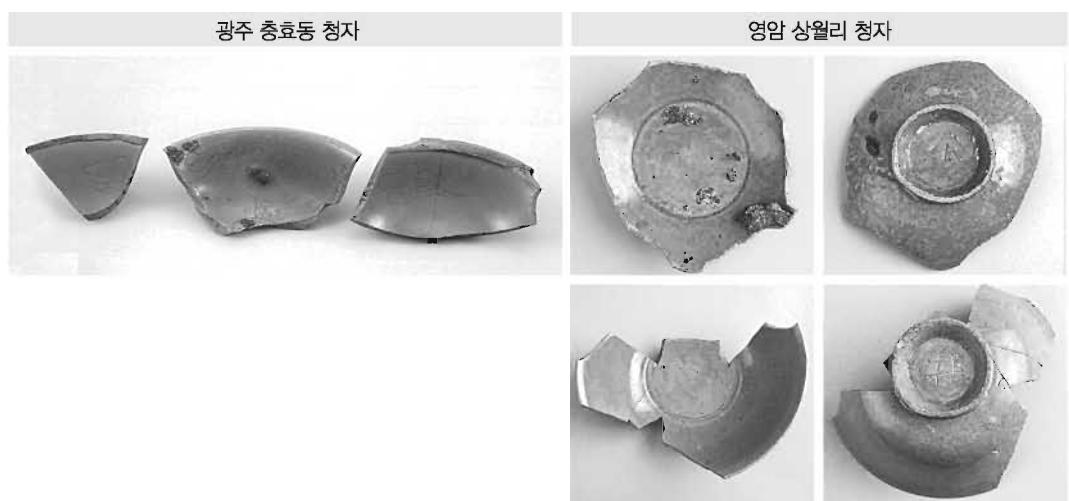
도 18. 전라지역 출토 분장 분청사기

분청사기 기형과 시문 장식기법의 연관성에서 특징을 파악해 보면, 대체로 반상기는 인화기법으로 시문 장식되었는데, 처음에는 촘촘하게 인화 장식을 하다가 성글고 거친 인화기법과 귀얄기법이 혼용되고, 점차 귀얄과 분장 기법으로 나아가고 결국 백자로 제작하게 된다. 반면 반상기와 구분되는 저장 운반용기라고 정의할 수 있는 기종들은 상감기법과 조화박지기법으로 장식하다가 조화기법만이 성글게 남고, 점차 귀얄과 분장기법으로만 장식하게 된다.(도19)

도 19. 반상기, 저장운반용기의 구분에 따른 시문기법의 차이



한편, 분청사기만 생산한 가마도 있었지만, 백자를 함께 생산한 곳은 물론이거니와 조선청자를 함께 생산한 곳도 전남과 전북의 가마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조선청자의 제작과 관련하여 경기도 광주와 가마에서 143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명의 백자와 청화백자 그리고 백태청유자와 같은 새로운 문화적 요소가 유입되어 경기도 광주 지역의 가마 생산체계는 백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명의 백태청유자의 영향으로 1430년대부터 조선청자가 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sup>23</sup> 따라서 전라지역 분청사기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의 존재도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따라서 1430년을 전후하여 가마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도20~21)



도 20. 전라지역 출토 조선청자



도 21. 전라지역 출토 백자와 흑유

23 김영미, 「조선시대 관요 청자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21~22.

마지막으로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관사명(官司名)을 비롯한 명문 분청사기이다. 도자기에 남겨진 글씨로 인해 가마의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소비처(수요층)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된 분청사기의 용도 및 성격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씨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관사, 관청명이 새겨진 분청사기는 많은 부분 경상도 인화 분청사기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고 명문 분청사기의 경우 ‘진해 인수부’, ‘경주 장홍고’처럼 다양한 관청명이 지명과 함께 남겨진 예가 많다. 그러나 전라지역에서 출토되는 명문 분청사기는 지명과 함께 나오는 경우는 광주 충효동의 ‘무진내섬’이 거의 유일하다. 등장하는 관사의 경우도 매우 제한적인데, ‘내섬’이 가장 많고, ‘예빈’, ‘인수’, ‘장홍’, ‘사’ 등이 일부 보인다.(도22~23)

그 중에서 ‘내섬’ 명 분청사기는 전라도 전체 지역에서 제작되었고<sup>24</sup> ‘예빈’ 명 분청사기는 지금 까지 충청도를 중심으로 8곳이 알려져 있을 뿐인데<sup>25</sup>, 전라남도 지역에서 보성 도촌리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전북지역에서는 고창 용산리와 용계리에서 확인된다. ‘예빈’은 예빈시를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외국 사신 등賓객들에게 연회를 베푸는 일과 종실을 비롯하여 재신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일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영암 상월리 가마터에서는 ‘사(司)’ 명의 초벌편과 굽 안 바닥에 음각으로 ‘인수(仁壽)’ 명을 새긴 분청사기편이 나왔는데, ‘사’ 명은 왕실의 식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사선서(司膳署)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선(司膳)’ 명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제작기간은 1372~1420년경으로 오랫동안 만들어졌으며, 제작지도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 등 넓게 확인되고 있다. ‘인수’는 인수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수부’ 명 분청사기는 세종대 이후 경상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경상도 이외에서는 연기군 금사리에서 확인된 예가 있으며 전라도에서는 영암 상월리의 사례가 처음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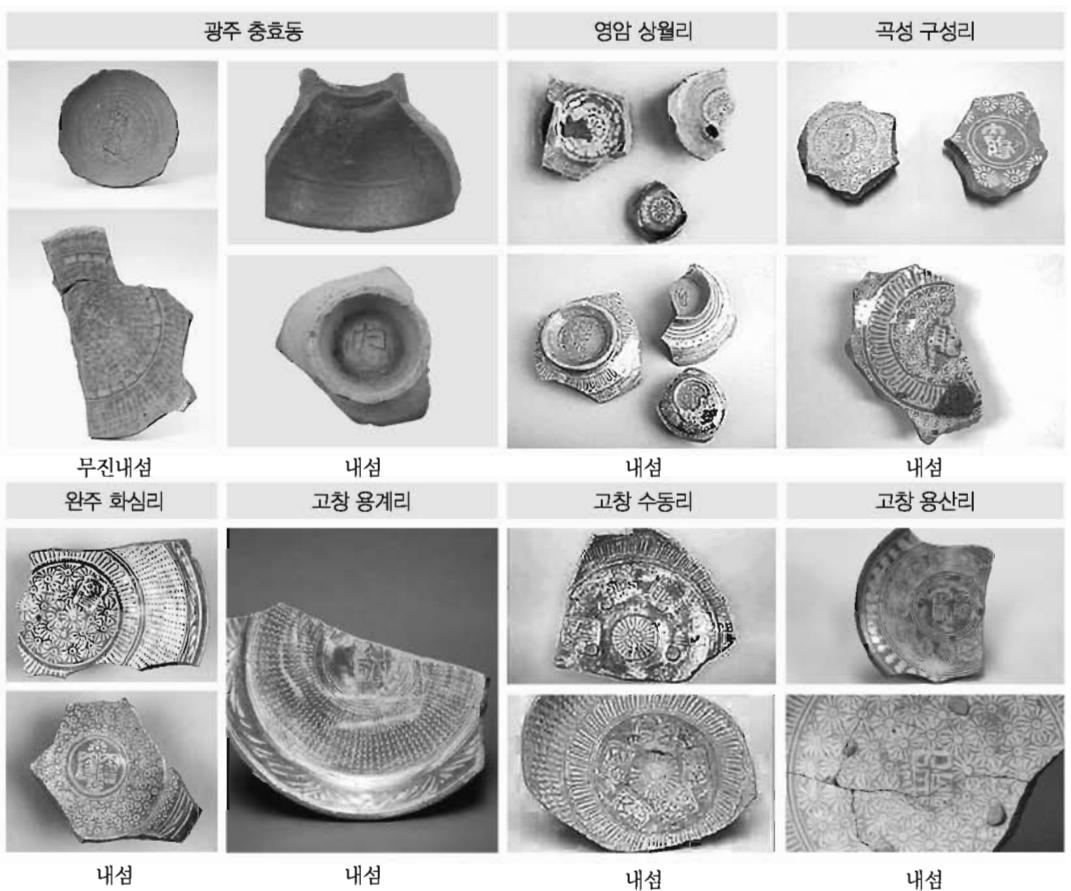
따라서 내섬, 예빈, 인수, 사(선)이 새겨진 그릇이 출토된 가마는 국가에 공납하였던 자기를 생산하였던 곳으로 기술이 우수하며 품질이 좋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적 자료이다.

조선 전기에는 아직 왕실 전용 그릇을 생산하는 분원체제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특산물)을 각 생산지로부터 공납의 형태로 세금을 받아 조달해 왔다. 도자기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각 지역에서 제작하여 세금으로 바친 품목 중 하나였다. 그러나 도자기 공납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 같다. 「태종실록」 1417년의 기록에서 그릇과 관련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관청명을 그릇에 새기게 하여 특정 그릇이 특정 관청에 사용되게 하고 동시에 도중에 유실되거나 사취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관사명 외에도 지명과 용도, 제작시기, 사기장 이름과 품질 표시, 그리고 중앙 관청뿐만 아니라, 지방 관아용으로도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4 박경자, 「공납용 분청사기의 통일된 양식과 제작배경」, 『미술사논단』 제27호(한국미술연구소, 2008), pp. 98~100.

25 강원 양구군 송현리, 충북 진천군 대문리, 충북 영동군 사부리, 충남 천안시 사담리, 충남 연기군 금사리, 충남 공주시 학봉리, 전북 고창군 용산리, 전북 고창군 용계리 이상 8곳이다. 민족문화유산연구원·보성군, 『보성 도촌리 분청사기 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2014), p. 23.

26 『太宗實錄』 卷33, 太宗 17年(1417) 4月 内子, “長興庫貢案付砂木器, 今後刻長興庫三字, 其他各司所納, 亦依長興庫例, 各刻司號, 造作上納. 上項有標器皿, 私藏現贋者, 以盜官物坐罪, 以絕巨弊.”



도 22. 전리지역 출토 내섬(內膽)명 분청사기



도 23. 전리지역 출토 명문(禮)賓, 仁壽, 長興, 司膳分청사기

분청사기가 제작되던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문헌 기록으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가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 320여 개소의 자기소와 도기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도기소와 자기소들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릇들을 공납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전국의 도자소의 숫자를 정리하면, 경기도 34개소(자기소 14, 도기소 20), 충청도 61개소(자기소 23, 도기소 38), 경상도 71개소(자기소 37, 도기소 34)이다. 이 내용은 <표4>와 같다.

표 4. 「세종실록지리지」 전라지역 자기소·도기소 기록

	자기소					도기소				
	상품	중품	하품	미상	소계	상품	중품	하품	미상	소계
경기도	1		13		14		6	12	2	20
충청도		12	11		23		6	30	2	38
경상도	3	8	26		37		6	28		34
전라도		15	12	4	31		8	23	8	39
강원도		2	2		4			10		10
황해도		6	6		12		6	11		17
평안도		2	11		13		1	10	1	12
함길도			5		5			6	9	15
합계	4	45	86	4	139		33	130	22	185

<표4>에서 확인해 보면, 세종실록지리지에 자기소, 도기소의 상, 중, 하품의 표시와 표시 없는 것까지 포함하여 전라지역에 자기소 31개소, 도기소 39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자기소와 도기소에서 생산된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할 수 없지만 출토가 확인된 유물을 통해 봤을 때, 자기소로 알려진 곳에서 분청사기가 발견되고 있어 분청사기는 당시 도기가 아니라 자기로 분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도 지역이 경상도, 충청도와 함께 분청사기를 많이 제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분청사기 요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분포 역시 전라도가 분청사기를 가장 많은 지역에서 제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7</sup>

세종실록지리는 세종의 명으로 1424~1432년 사이에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1454년 세종실록의 편찬과 함께 간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리지에 수록된 전국의 자기소(139개)와 도기소(185개)의 기록은 1424~1432년 사이에 생산 활동을 하고 있었던 요에 관한 기록이다. 이를 요는 8도의 부, 목, 군, 현의 관청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으로 표기하고 그 품질에 따라 상·중·하품으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당시 지방명칭이 대부분 현재 지명과 일치하지 않고 자기소와 도기소를 확인하기 위한 학술적인 요지 조사도 미흡하며, 당시 자기와 도기를 구별한 기준이 구명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 때문으로 현재 이

27 윤용이, 앞의 글(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p. 112.

자료가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앞의 관사명 분청사기 등을 통해 볼 때 국가에 공납 하였던 자기를 생산하였던 곳으로 기술이 우수하며 품질이 좋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적 자료이다. 앞에서 살펴본 발굴 조사 가마터 중 세종실록지리지에 자기소 및 도기소로 기록된 곳에 해당 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광주 충효동, 영암 상월리, 곡성 구성리, 부안 우동리, 고창 수동리와 용계리가 있다.

이상의 전라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와 출토 유물, 세종실록지리지의 자기소와 도기소에 해당하는 가마터 등을 살펴본 결과와 충위 발굴에 의해 가장 분명한 제작시기를 지니는 광주 충효동을 기준 으로 하였을 때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제작 시기는 고려 말 상감청자의 전통을 이은 상감 분청사 기의 제작에서부터 백자로 이행해 가는 과정과 분청사기의 마지막 단계인 분장 분청사기의 제작 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제작 시기는 14세기 말~16세기 전반까지로 볼 수 있다.

#### IV. 맷음말

본 글에서는 전라지역 분청사기 요지 조사현황을 통해 분청사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를 생산지에서 만들어진 분청사기가 실제 사용된 곳에서의 역할도 함께 아우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청사기 가마터와 소비지 출토 분청사기를 비교하지 않았지만,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화 박지 분청사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고창 용산리 출토 조화 박지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그 수요처를 조사하였을 때 대체로 인근 지역의 사찰, 생활 유적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라도 지역을 벗어나서 충청도와 제주도, 경기도, 서울까지도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sup>28</sup>

분청사기 가마터 출토품과 소비지와의 비교를 통해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이와 함께 경상도, 충청도 등 타 지역 분청사기 특징과의 비교까지 거쳐야 비로소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성격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 생각되며 이 또한 향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 투고일 2018. 11. 12. | 심사개시일 2018. 11. 16. | 게재 확정일 2018. 11. 20 ■

28 국립전주박물관, 앞의 책(2016), pp. 76~79.

## 참고문헌

### 1차자료

『太宗實錄』, 『世宗實錄』

### 단행본 · 논문

『世界陶磁全集』 제19권 李朝, 小學館, 1980.

강경숙, 『분청사기연구』, 일지사, 1985.

\_\_\_\_\_, 「부안 우동리 분청사기요」,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_\_\_\_\_,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 2005.

김영미, 『조선시대 관요 청자 연구』, 흥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박경자, 「공납용 분청사기의 통일된 양식과 제작배경」, 『미술사논단』 제27호, 한국미술연구소, 2008.

안성희, 『조선시대 도자제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윤용이, 『분청사기요지의 분포와 특색』, 『분청사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_\_\_\_\_, 「한국도자요지일람표」, 『한국도자사연구』, 문예출판사, 1993.

정양모, 「고려 · 조선시대자기요지분포현황」,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1991.

### 도록 · 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 고흥군,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도요지』, 2002.

\_\_\_\_\_, 「무등산 분청사기」, 2013.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조선시대 도요지』, 1997.

\_\_\_\_\_,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2016.

동서문화연구원, 『김제 청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4.

민족문화유산연구원 · 고흥군, 『고흥 운대리 분장분청 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6.

민족문화유산연구원 · 보성군, 『보성 도촌리 분청사기 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4.

민족문화유산연구원 · 영암군, 『영암 상월리 도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3.

\_\_\_\_\_, 「영암 상월리 유천 도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4.

\_\_\_\_\_, 「영암 상월리 요장 발굴조사 보고서」, 2016.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도요지 발굴 성과 20년』, 2001.

전북문화재연구원, 『완주 화심리 유적』, 2008.

전주문화유산연구원, 『부안 우동리요지 긴급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_\_\_\_\_, 「사적 제250호 고창분청사기요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6.01.

- 호남문화재연구원, 「나주 우산리요지」, 2002.
- \_\_\_\_\_. 「고창 용산리요지」, 2004.
- \_\_\_\_\_. 「곡성 구성리 도요지」, 2005.
- \_\_\_\_\_. 「장성 추암리요지」, 2006.
- \_\_\_\_\_. 「고창 용계리요지」, 2008.

## 전라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권소현

고려말기 상감청자의 전통을 계승하여 제작되기 시작한 분청사기는 전국 각지의 가마들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제작되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인화 분청사기, 충청도에서는 철화 분청사기, 전라도에서는 조화박지 분청사기가 유행하는 지역적인 특색을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청사기의 특징으로 얘기되는 지역적 특색에 대해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전라도 지역 가마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격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통해 운영시기, 지역에 따른 제작 양상 등 지역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청사기 가마터는 1980년대를 시작으로 지표조사와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전남지역 광주 충효동, 고흥 운대리, 보성 도촌리, 영암 상월리, 곡성 구성리, 장성 추암리 등과 전북지역 부안 우동리, 완주 화심리, 고창 수동리, 고창 용계리, 고창 용산리, 김제 청도리 등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가마터를 대상으로 발굴 개요 및 출토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형, 시문 장식기법, 명문을 중심으로 그 성격과 제작시기 등을 살펴보았다.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특징은 첫째 제기의 제작, 둘째 시문장식기법 중 조화박지 기법과 분장기법에서 그 특징을 크게 꼽을 수 있는데, 반상기와 저장운반용기의 구분에 따른 시문기법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청자, 백자, 흑유와 동반 생산되고 있다. 넷째, 출토되는 명문 중 관사명으로는 ‘내섬’, ‘예빈’, ‘인수’, ‘장홍’, ‘사(선)’이 있다. 이 외에도 지명, 용도, 사기장 이름, 품질표시, 지방관아명 등의 명문도 일부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고려말 상감청자의 전통을 이은 상감 분청사기의 제작에서부터 백자로 이행해가는 과정, 분청사기의 마지막 단계인 덤병분장 분청사기의 제작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제작시기는 14세기 말~16세기 전반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 향후 다른 지역 분청사기와 비교한다면 전라지역 분청사기의 특징과 성격이 보다 명확해지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조화박지, 분장(덤병), 관사명(내섬, 예빈, 인수, 장홍), 제기, 조선청자

## Abstract

#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Jeolla-do Province

Kwon Sohyun

Taking the baton from the sanggam (inlaid) celadon tradition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buncheong ware began to be produced in a variety of forms at kilns across the country. Gyeongsang-do Province mainly produced buncheong ware with stamped designs. In Chungcheong-do Province, buncheong with designs in iron underglaze prevailed. Jeolla-do Province specialized in buncheong with incised and sgraffito designs.

This paper examine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ware by scrutinizing buncheong kiln sites in Jeolla-do that have been discovered in excavation surveys. This survey data will also aid in the identific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operation periods of kilns and aspects of buncheong production.

Buncheong kiln sites have been investigated through excavations and ground surveys conducted since the 1980s. This paper analyzes excavations and excavated relics from surveyed kiln sites in Chungkyo-dong, Gwangju; Undae-ri, Goheung; Dochon-ri, Boseong; Sangwol-ri, Yeongam; Guseong-ri, Gokseong; and Chuam-ri, Jangseong in South Jeolla-do Province as well as Udong-ri, Buan; Hwasim-ri, Wanju; Sudong-ri, Gochang; Yonggye-ri, Gochang; Yongsan-ri, Gochang; and Cheongdo-ri, Gimje in North Jeolla-do Province. It further explores characteristics and production dates of buncheong wares by inspecting forms, decoration methods, and inscriptions.

The four distinctive features of the buncheong ware produced in Jeolla-do Province are as follows: (1) the prevalence of ritual vessels; (2) the wide use of incising, sgraffito, and slipping methods, which were employed differently in tableware and containers for storage and transportation; (3) the production of Joseon celadon, white porcelain, and black-glazed stoneware alongside buncheong ware; (4) inscriptions of office names, such as "Naeseom" (Procurement Office), "Yebin" (Dignitary Reception Agency), "Insu" (Office of Abdicated Kings), "Jangheung" Office, and "Sa (seon)" (Office of Royal Cuisine), as well as place names, intended uses, names of master ceramicists, quality marks, and names of regional offices. Buncheong wares from Jeolla-do include the sanggam buncheong that inherited the tradition of sanggam celadon in the late Goryeo period and evolved into white porcelain and the buncheong dipped in white slip, the type that emerged in the final stage of buncheong's development. Buncheong wares from Jeolla-do appear to have been produced in the late fourteenth to early sixteenth centuries. Further comparison between buncheong wares from Jeolla-do and those from other regions will help to more clearly characterize Jeolla-do buncheong wares.

**Keywords :** Incising Sgraffito, Dipping in White Slip, Names of Offices(Naeseom, Yebin, Insu, Jangheung) Ritual Vessel, Joseon Celadon.



#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성현주\*

I. 머리말

II.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지역별 조사 현황

III.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성격과 운영시기

IV. 맷음말

---

\*정관박물관

#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성현주  
정관박물관

## 1. 머리말

경상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전국 139개의 자기소(磁器所) 가운데 단 4군데뿐인 상품자기소(上品磁器所) 중 3개소가 있었고, 분청사기에 표기된 지명의 대부분이 경상도지역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주목되는 점이 많으므로 분청사기 연구에 있어 매우 높은 가치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도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는데, 대부분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의 개인적 조사 성격을 띠고 있으며,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공식적 조사 사례는 고령 사부동 기산동요지 조사(1934~1938년경 조사 추정, 조선총독부에서 고적 제105호 · 106호로 지정 관리)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방 직후의 혼란기와 6·25전쟁 발발로 가마터 조사연구는 한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1960년대 말 경남지역 도요지와 출토품을 대상으로 한 정정원의 조사연구를 필두로 1970, 80년대 정양모, 권병탁, 윤용이, 강경숙 등 한국인 연구자들의 가마터 조사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점차 더 많은 분청사기 가마터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박물관 등 문화재 관련 기관에 의한 가마터 조사는 국립경주박물관의 경남지역 도요지 지표조사(1985)와 경주 암곡동요지 긴급발굴조사(1987)를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 진행되다가 2000년대부터는 매우 활발해졌으며, 새로운 가마터의 존재가 다수 확인되었다.<sup>1</sup>

1 가마터만을 대상으로 한 지표조사가 문경지역(2002)과 서부경남 일원(2007),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2007), 상주시(2010), 고령군(2010)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각 지역별 문화유적 분포양상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한 지표조사에서 다양한 성격의 문화유적들과 함께 가마터가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용이 매우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고 채집유물의 사진도 게재되어 있지 않아 유적의 성격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 경상도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중 발굴조사가 실시된 것은 12개 시군의 19개소인데, 경주 암곡동요지(1987)와 칠곡 다부동요지(1990) 외에는 모두 2000년대 이후에 발굴 조사된 유적이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한 것에 비해 분청사기 연구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지명의 변천이나 극히 소략한 보고내용, 자료의 불명확성 등으로 성격 파악이 극히 어려운 유적이 많아, 지표조사유적을 포함한 전체 가마터 현황을 파악하기보다는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발굴조사유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상도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터 목록으로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것은 윤용이의 「한국도자요지일람표」(『한국도자사연구』, 문예출판사, 1993 ; 표 작성은 1989)와 정양모의 「고려·조선시대 자기요지 분포현황」(『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199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 자료에는 행정구역과 지명의 변화로 현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가마터가 다수 있고, 1990년대 이후 급증한 최신 조사 성과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발굴조사는 물론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들도 모두 망라한 경상도지역 전체의 분청사기 가마터 목록을 작성하고, 행정구역과 지명 또한 현행화하여 연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최신 현황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구역 변천과 지명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마터 운영 당시의 소속 군현과 마을 이름 등을 확인·추정하고, 조선 초의 각종 지지자료 및 채집품의 제작시기, 명문, 읍치를 중심으로 한 방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각 시기별 군현의 공납자기 생산지를 추정하는 등 각 가마터의 성격과 특징을 밝혀내고자 한다.

## Ⅱ.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지역별 조사 현황

본장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일본 및 한국 학자들의 개인적 지표조사를 비롯하여 박물관으로 대표되는 문화재 관련기관의 지표·발굴조사 결과까지 모두 종합한 경상도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 목록을 작성하였다.〈표 1〉

목록 작성 시 행정구역과 지명의 변천과정을 살펴 현재 상황에 맞게 현행화하였고, 확인 가능한 현재 지번과 가마 운영 추정시기, 출토품의 종류와 명문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검토하여 수록하였으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본장에서는 기초자료인 가마터 목록 외에도 발굴 조사된 가마터를 중심으로 한 주요 유적들의 조사현황을 각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이때 각 가마터 소재지의 행정구역 변천사 고찰을 통해 해당 가마유적의 운영 당시 소속 군현을 밝혀내고, 출토유물의 양식적 특징 및 명문도편 분석내용 등을 종합하여 가마터의 운영시기와 역사적 성격 파악의 기초로 삼았다.

다음의 〈표 1〉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경상도지역에서는 문경(2), 예천(2), 안동(1), 상주(20), 의성(3), 구미(4), 군위(1), 영천(1), 칠곡(5), 성주(1), 고령(9), 포항(3), 경산(2), 청도(2),

경주(8), 거창(1), 함양(1), 합천(8), 산청(4), 의령(1), 함안(2), 하동(1), 진주(4), 사천(13), 남해(3), 통영(1), 거제(1), 창녕(2), 밀양(3), 창원(1), 김해(3), 양산(7), 울산(10), 부산(6)과 충북 영동(1)<sup>2</sup> 등 35개 지역에서 총 137개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학술적 근거나 가마터의 구체적 위치 및 성격 등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한 11개 가마터를 포함하면 가마터 수량은 총 148개소에 달하는데, 현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검토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가마터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sup>3</sup>

발굴조사 유적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주요 유적의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경상도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목록

(■ 발굴조사 □ 지표조사)

소재지	유적명	유적위치	운영시기	출토유물	명문
경북	생달리요지	동로면 생달리 109, 산30 일원	15C	인화분청	
	인곡리요지	동로면 인곡리	15C	인화·귀얄분청	
예천	두천리요지 (舊두인동요지, 2기)	용문면 두천리 551 (행정구역 변동사항 조사 수정)	16C	귀얄분청	
	흔효리요지	풍양면 흔효리 산33	15C	인화분청, 백자	
안동	광음리요지	남후면 광음리 산57	15C	인화분청	
상주	상판리 1호요지 (2015년 발굴)	모동면 상판리 산58-1	15C 초중반	상감·인화분청	粧子色手 五十三
	상판리 6호요지 (2016년 발굴)	모동면 상판리 산69	14C 말~15C 초	상감·인화분청	司膳, 寧, 順 世, 定, 恭王 入京, 双林, 大, 上, 卍, 月, 十八, …松 衆…寶…
	상판리 2호요지	모동면 상판리 산39-1 (재짓골) ▷ 舊 산532 지번 오류 수정	15C 초	상감·인화분청	
	상판리 3호요지	모동면 상판리 산39-1 (상판마을 남쪽)	15C 초	상감분청	
	상판리 4호요지	모동면 상판리 445 (송계마을 동쪽 이산)	15C 초	상감·인화분청	
	상판리 5호요지	모동면 상판리 산57	15C 초	상감·인화분청	
	상판리 7호요지	모동면 상판리 산93 (송현마을 뒷산)	15C 초	인화분청	
	수봉리요지	모동면 수봉리 산39-1, 49 (보현사 앞 구릉하단)	15C	분청사기, 백자	

2 발굴 조사된 충청북도 영동 사부리요지는 조선 초 경상도 김산군에 속한 곳이므로, 경상도 분청사기 가마터로 보았다.

3 경상도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1956년 아사카와 노리타가『淺川伯教』의 목록에서는 10개 지역 16개소, 1980년 코우모토 후쿠지[香本不苦治]·정양모·윤용이의 목록에서는 19개 지역 32개소, 1989년 윤용이의 목록에서 19개 지역 38개소, 1991년 정양모의 목록에서는 21개 지역 51개소가 실려있다. 본고에서는 지표조사보고서나 유적분포지도 등에 단편적인 내용만 수록된 유적까지 모두 35개 지역 137개 가마터를 조사·정리하여 목록에 수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90년대 이후 새롭게 확인된 가마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浅川伯教, 「李朝陶磁窯跡一覽表」, 「世界陶磁全集」14(河出書房, 1956); 香本不苦治·鄭良謨·尹龍二, 「李朝陶磁窯跡表」, 「世界陶磁全集 19 -李朝-」(小學館, 1980); 정양모, 「고려·조선시대 자기요지 분포현황」, 「한국의 도자기」(문예출판사, 1991); 윤용이, 「한국도자요지 일람표」, 「한국도자사연구」(문예출판사, 1993), 표 작성은 1989년.

소재지	유적명	유적위치	운영시기	출토유물	명문
경북 상주	용호리요지	모동면 용호리	15C	상감분청	
	반계리 1호요지	모동면 반계리 632	15C	분청사기, 백자	
	반계리 2호요지	모동면 반계리 산47-16	15C	분청사기	
	대포리 1호요지	모서면 대포리 산169 (사기장골)	15C	분청사기, 백자	
	대포리 3호요지	모서면 대포리 674 (노산마을)	15C	분청사기	
	대포리 4호요지	모서면 대포리 499 (노산마을)	15C	상감·인화·귀얄분청, 회청사기, 무문·음각백자 (* 용문호)	
	화현리요지(3기)	모서면 화현리 518, 530, 산60	14~15C	분청사기	
	지산리요지(2기)	모서면 지산리	14~15C	상감분청	
	우하리요지 (2018년 발굴)	공성면 우하리 산1	15C 초중반	상감·인화분청	司膳
	신현리요지	공성면 신현리 산57	14~15C	상감분청	
의성	영오리요지	공성면 영오리 산63	15C	상감분청, 백자	
	어산리요지	화동면 어산리 산118	14C 말~15C 초	상감·인화분청	
	사부리요지 (2014년 발굴)	봉양면 사부리 680	15C 중후반	인화·상감귀얄·인화귀얄분청, 회청사기 (지표조사 : 상감·인화분청)	
구미	안평리요지	봉양면 안평리 (舊 비안면 행정구역 오류 수정)	15C	인화분청	
	신안리요지	안평면 신안리 산103-1	15C	분청사기	
	청림리요지	해평면 청림리 산44	15C 초	상감·인화분청	
	인동동요지	인동동 중고등학교 내 (현 인동중학교 위치 추정)	15C	인화분청, 백자	
	신곡리요지	도개면 신곡리 산49	15C	분청사기	
군위	상립리요지	장천면 상립리 산80-2	15C	인화·귀얄분청	
	보현리요지	소보면 보현리 655~659, 산43, 산46, 산50, 산58, 산59 (백현마을 서쪽 연못 북사면)	15C 초중반	인화분청	
영천	용소리요지 (2011~12년 발굴)	화북면 용소리 388 (윗샛들)	15C 말	상감귀얄·인화귀얄·귀얄분청, 백자	
칠곡	다부동요지 (1990년 발굴)	가산면 다부리 산1 (진목정마을 북동쪽)	15C 후반~16C 전반	귀얄분청, 회청사기, 백자, 흑유	
	학하리요지 (2007년 발굴)	가산면 학하리 산87-2	14C 말~15C 초	상감·인화분청	司膳, 寧順定大金公
성주	학상리요지	가산면 학상리 산853, 855, 857 등(추정)	15C 중반	인화분청	仁同仁壽府, 仁同長興庫
	연화리요지	지천면 연화리 산32-1 (도암마을 북쪽)	15~16C	귀얄분청	
	노석리요지(2기)	기산면 노석리 산60-1, 산76-1	15C	분청사기	
성주	덕평리요지	용암면 덕평리 산10, 81	15~16C	귀얄분청	
고령	기산리요지 (2009~10년 발굴)	성산면 기산리 860	15C 중후반	인화·상감인화귀얄·귀얄분청, 무문·상감백자	元旧并天高
	사부리요지 (2009~10년 발굴)	성산면 사부리 산68	15C 중후반	인화·상감인화귀얄·귀얄·음각분청, 무문·상감백자	殿世仁祖(祖?), 河大소
	성산 사부동요지 (2010년 발굴)	성산면 사부리 70, 71, 95	15C 초중반	상감·인화분청	司膳大大上夫申十

소재지	유적명	유적위치	운영시기	출토유물	명문	
경북 고령	기산동 · 사부동요지	성산면 기산리 853-2 · 3, 853, 산81-3 · 8 · 9, 산90 성산면 사부리 15, 70, 71, 95, 산10, 산6-1, 95-1(산16)	15C	상감 · 인화 · 상감인화 귀얄 · 귀얄 · 각분청, 백자	司 · 高靈	
	사전리요지	우곡면 사전리 산44	15C 초~16C	상감 · 인화 · 인화귀얄 분청, 회청사기, 백자		
	대평리 1호요지 (舊 대평리요지)	운수면 대평리 산252	15C 후반~16C	상감 · 인화 · 귀얄분 청, 회청사기, 백자	大	
	대평리 2호요지 (舊 대평2리요지)	운수면 대평리 산204	15C 초	상감 · 인화분청		
	봉평리요지 (舊 신간동 사붓골요지)	운수면 봉평리 산53 (신간리 접경지역)	15C 전반~16C	상감 · 인화 · 귀얄분청, 회청사기, 백자, 흑유	大. 長興庫	
	팔신리요지	운수면 팔신리 315	15~16C	인화 · 귀얄분청, 백자		
포항	덕성리요지(2기)	북구 흥해읍 덕성리 산50(1호), 산36(2호)	15C	1호: 무문청자; 상감분청 2호: 분청, 백자	司膳(1호)	
	월평리요지	북구 죽장면 월평리 산57	15C 후반	인화귀얄분청		
	달전리요지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82	15C 말~16C 초	귀얄분청, 백자		
경산	산전리요지	남천면 산전리 산189-1, 산198-1, 864 (모골마을 앞 능선 말단부)	15C	상감 · 인화 · 귀얄분 청, 회청사기, 백자	慶山長興庫, 慶山麥石, 夫	
	삼성리요지	남천면 삼성리	15C	청자, 인화 · 귀얄분청		
청도	남산리요지	각북면 남산리 산63 (낙성지 남서쪽 계곡)	15C	상감 · 인화분청		
	오진리요지	운문면 오진리 산9 (숲안마을 깨암골 인접 구릉)	15C	분청사기, 백자		
경주	암곡동요지 (1987년 발굴)	암곡동 산250	15C	상감 · 인화분청, 회청 사기, 백자		
	내태리요지	현곡면 내태리 880, 881, 886-1, 890, 산 170-3	15C	상감 · 인화 · 귀얄분 청, 백자	慶州, 慶州長 興公	
	남사리 1호요지	현곡면 남사리 산127, 산127-1, 산124, 208, 199, 200, 209 (남사저수지 남서쪽 가 마들 남쪽구릉)	15C	상감 · 인화·인화귀얄 분청, 회청사기, 백자	慶○○○庫, ~興庫, 公(?)	
	남사리 2호요지	현곡면 남사리 산42-1, 522~529	15C	청자, 분청사기, 백자		
	하구리요지	현곡면 하구리	15C	인화분청	慶州長興庫	
	용명리 1호요지	건천읍 용명리 446, 447, 산32, 산29, 398, 399, 400, 산30 (논지미들 동쪽, 동북쪽)	15~16C	인화 · 귀얄 · 덤벙분청	慶州府長興庫	
경남	용명리 2호요지	건천읍 용명리 산154 일원 (군수방못 남동 쪽 구릉)	15~16C	상감 · 인화분청, 회청 사기, 백자	司○	
	대현리요지	산내면 대현리 508 외	15C	분청사기, 백자		
	거창	서변리요지	거창읍 서변리 103 (사동마을 골짜기)	15C 후반	인화귀얄분청, 귀얄분 청	
	함양	금반리요지	휴천면 금반리 (월평저수지 옆)	15C	인화분청, 회청사기	
	합천	장대리요지 (2009~10년 발굴)	가회면 장대리 1096-1, 1095 외	14C 말~ 15C 중반	상감 · 인화분청	司膳, 敬承府, 三加○○府, 仁壽府, 長興 庫, 三加, 大, 菩, 仁仁仁仁, 三嘉長興庫
		장대리 다공요지	가회면 장대리 247	15C / 17C	상감 · 인화 · 귀얄분 청, 회청사기, 백자	

소재지	유적명	유적위치	운영시기	출토유물	명문
경남 합천	외사리 1호요지	기회면 외사리 37-1	15C 중후반	인화분청, 회청사기, 백자	三加, 庫, ~廟府(?), 司膳(?)
	외사리 2호요지 (舊외사리3호가마터)	기회면 외사리 (내사마을 입구 좌측 구릉)	15C 후반~16C	상감 · 인화 · 귀얄분청, 회청사기, 백자	
	월계리요지	기회면 월계리 산166	14C 말~15C 초	상감 · 인화분청	
	장전리 1호요지	용주면 장전리 (장전마을 입구 왼편 경작지)	15~16C	상감 · 인화분청, 회청사기, 백자, 상감백자	
	장전리 2호요지	용주면 장전리 (장전마을 뒷산 왼편 구릉)	15~16C	상감 · 인화분청, 회청사기, 백자, 상감백자	
	장전리 4호요지	용주면 장전리 (장전마을 뒷산 왼편 구릉)	15~16C	인화 · 귀얄 · 귀얄분청, 백자	
산청	장천리요지(2기)	신동면 장천리 1324-1, 산97 등	14C 말~15C 초	상감 · 인화분청, 회청사기	
	대포리요지	생초면 대포리 산16-1 (대포서원 뒤 0산 경사면)	15C	상감 · 인화분청, 백자	
	방목리요지	단성면 방목리 602-1	15~16C	상감청자, 상감 · 인화 · 귀얄분청, 백자	大
	제보리요지	생비랑면 제보리 산134, 583	16C	회청사기	
의령	봉곡리요지	지정면 봉곡리 산170	15C	분청사기	
함안	대사리요지(3기)	대산면 대사리 366-1, 391-1, 228	15C	분청사기, 백자	
	옥열리요지	대산면 옥열리 1399-1 등	15C	분청사기, 백자	
하동	백련리요지	진교면 백련리 (사기마을 입구 계곡부)	16C	회청자, 귀얄분청, 백자	
진주	용아리 월아요지 (舊 월아리요지)	금산면 용아리 (월아마을 안쪽, 저수지 옆)	15C	인화분청	長興
	효자리 3호요지	수곡면 효자리 (상중전 성덕암쪽 길 좌측)	15C	상감 · 인화분청, 회청사기	晉, 長, 寿, 晉 ○長興
	효자리 5호요지	수곡면 효자리 (상중전 대천리쪽 길 우측)	15C 말~16C 초	귀얄분청, 백자	
	효자리 8호요지	수곡면 효자리 (상중전 감나무밭 사면)	16C	회청사기, 백자	
사천	성방리 1호요지	곤명면 성방리 (큰정골)	15C 전반	상감 · 인화분청	
	성방리 2호요지	곤명면 성방리 (우교마을)	15C 전반	상감 · 인화분청, 흑유	
	성방리 3호요지	곤명면 성방리 (작은정골)	16C	귀얄분청, 회청사기, 백자, 상감(철화?)백자	
	송림리요지	곤명면 송림리 (앵골저수지 동쪽 민묘 하단)	16C	귀얄분청, 백자	
	용산리요지	곤명면 용산리 (옹구정골 남서쪽 끝)	16C	회청사기, 분청사기	
	송전리 1호요지	곤양면 송전리 710-1 (마을회관 뒤 구릉)	15C	소문 · 상감청자, 상감 · 인화 · 귀얄 · 백자 분청, 회청사기	興庫, 興, 昆~ 長~, 昆~, ~ 長興 ~長~庫, ~納 ~執用
	송전리 2호요지	곤양면 송전리 (마을회관 이전 우측 골짜기)	15C	상감 · 인화분청, 회청사기	
	구암리요지	사천면 구암리 4	14C 말~15C 초	상감 · 인화분청, 회청사기	
	소곡리요지	정동면 소곡리 390	15C	상감 · 인화분청	
	유천리요지	사남면 유천리	15~16C	상감 · 인화 · 귀얄분청	
	초전리요지	사남면 초전리	15~16C	인화 · 귀얄분청	
	우천리요지	사남면 우천리 1380	15C	상감 · 인화 · 귀얄분청, 회청사기	
	감곡리요지(2기)	정동면 감곡리	15C	상감 · 인화분청	

소자지	유적명	유적위치	운영시기	출토유물	명문
남해	대곡리요지(2기)	고현면 대곡리 (삼봉산 남쪽 · 동남쪽 밀단부)	16C	귀얄분청, 회청사기, 백자	南果 또는 南果
	중현리요지(2기)	서면 중현리 (현촌마을 계재곡, 삼봉산 남서쪽 밀단부)	15~16C	청자, 귀얄 · 분장분청, 백자	南公
	서대리요지	창선면 서대리 (서대마을 뒤 대방산 북쪽구릉)	15~16C	분청사기, 백자	
통영	원산리요지	도산면 원산리 (사계마을화관 옆 계곡 동남쪽)	14~15C	소문 · 상감청자, 인화 · 귀얄분청, 백자	
거제	법동리요지	거제읍 법동리 고당마을	16C	귀얄분청, 백자	
창녕	청양리요지	부곡면 청암리 69 (밤발골, 무점골)	15C	인화 · 귀얄분청	灵山, 灵山仁壽庫
	고곡리요지	남지읍 고곡리 (밤발골)	15C	인화분청	昌寧仁壽府 (주정)
밀양	용진리요지	심랑진읍 용전리 (사기점 뒤 산록)	15C 중후반	인화 · 귀얄분청, 청자, 백자	密陽長興庫, 長興庫, 富, 密 陽, 衙, 官
	마산리요지	상남면 마산리	15C	상감 · 인화 · 분장분청, 백자	
	사포리요지	부북면 전사포리 · 후사포리 일원(* 현 위치 미상)	15~16C	인화 · 귀얄분청	密陽長興庫, 庫
창원	두동 응천요지 (舊 진해 응천요지) (2002년 발굴)	진해구 두동 산142 · 146 · 147 (舊 진해시 응동면 두동리 147 외)	15C 중반~ 16C 중반	상감 · 인화귀얄 · 귀얄 분청, 회청사기, 백자, 흑유자, 옹기 ※ 소문 · 상감청자	興上天
김해	대감리요지 (2016년 발굴)	상동면 대감리 503	14C 말~15C 말	상감 · 인화 · 인화귀 얄 · 귀얄분청, 백자	司膳, 長興, 長, 金海長興 庫, 金海長興 庫執用, 金海 內資, 梁山長 興庫, 公 (* 지표 : 司膳, 金海禮賓, 金 海, 公須)
	목방리요지	상동면 목방리 (목방마을 뒤)	15C(추정)	청자, 인화 · 귀얄분청	
	내동요지	내동	15C(추정)	청자, 상감 · 인화 · 귀얄분청	
양산	가산리 호포1호요지	동면 가산리 64-1 (호포새마을 인근)	15C 전중반	상감 · 인화분청	梁山長興庫, 梁山○○庫, 長, 梁山
	가산리 호포2호요지	동면 가산리 산105 (호포 기산자수지 남쪽)	15C 후반	인화 · 귀얄분청, 백자	
	가산리 상리요지	동면 가산리 217~219 (상리마을 인근)	15C 중후반	인화 · 상감귀얄 · 귀얄 분청(분장분청?)	
	석산리요지 (舊 죽산 리, 금산리 죽산요지)	동면 석산리 (죽산마을 뒤)	15C(추정)	청자, 인화 · 귀얄분청 (* 덤벙분청)	
	화제리 지나요지	원동면 화제리 산279	14C 말~15C 초	상감 · 인화분청	長興
	화제리 사기들요지	원동면 화제리 540	15C 말~16C	귀얄분청, 백자	
	주남리요지	주남동 산45	15C 중후반~ 16C 초	인화 · 상감귀얄 · 귀얄 분청, 회청사기, 백자	

소재지	유적명	유적위치	운영시기	출토유물	명문
울산	천전리 고지평요지 (2001~02년 발굴)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49	15C	상감 · 인화분청, 회청사기	慶州府長興庫, 癸巳, 龍, 崔上方(左?)
	천전리 서당요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743	15C	분청사기, 회청사기, 백자	
	직동리요지 (2004년 발굴)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산72-1	14C 말~15C 초	상감 · 인화분청	司膳, 謹.. 日 또는 曰
	태기리요지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241	14C 말~15C 말	상감 · 인화 · 귀얄분청, 백자	司膳, 內膳(?), 彦陽長興, 彦陽長, 彦陽仁壽, 彦陽, 慶州○興, 慶, 寸(壽?), 壽, 長興, …五子登…
	반연리 토골요지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산96-6	15C	분청사기	
	하점리요지	울주군 상동면 하점리 81 (산5-1, 산9-1, 산9-2, 80)	15C 초~16C	상감 · 인화 · 귀얄 · 조화분청, 회청사기, 청자, 백자	彥陽仁壽, 彥陽彥陽, ○壽府, ○壽(?)府, 彥陽公(仁)壽, 彦仁, 彦○, 順, ○世(?), 礼, 長興, ○(彦?)陽○興, 水營, 五月, 天上, 大(?), +
	둔기리요지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15C	인화분청	
	이천리요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천황산 울주군쪽 산록)	15C	인화 · 귀얄분청	
	삼광리요지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종광마을 뒤 사기점)	15C 말~16C 초	회청자(회청사기!?), 귀얄분청, 백자	
	선암동요지	남구 선암동 산92-1	15C	분청사기, 백자	
부산	상장안요지 (2009년 발굴)	기장군 장안읍 산48-1, 48-5 일부	15C중후반	인화 · 인화귀얄 · 귀얄 · 덤벙분청, 회청사기, 백자	蔚山仁壽府, 蔚山長興庫, 慶州長興庫, 蔚~壽~, ~仁~府, 蔚山, 蔚~, 耕負祭, 官中大是, 大
	하장안요지 (2010~11년 발굴)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149-5	15C 후반~16C 전반	인화 · 귀얄분청, 백자	~山, ~壽府, 天, ~도도두~라랴리려로료루~, 蔚山仁~
	오리 대룡요지	기장군 장안읍 오리 대룡마을	14C 후반~15C 초반	무문 · 상감청자, 회청사기, 인화분청	
	오리 신리요지	기장군 장안읍 오리 668	14C 후반~15C 중반 17C 중반~18C 전반	무문 · 상감청자, 인화 · 귀얄분청, 무문백자	

소재지	유적명	유적위치	운영시기	출토유물	명문
부산	남산동요지	금정구 남산동 860	14C 말~15C	상감·인화·귀얄·덤 병분청, 회청사기, 백자	
	온천동요지	동래구 온천동 1 (금강공원 내)	14C 말~15C	무문·철화청자, 녹청 자, 흑유자, 인화·귀얄 분청	
충북 영동	사부리요지 (2002~03년 발굴)	추풍령면 사부리 615 외	15C 전중반	상감·인화·귀얄분 청, 회청사기, 백자	金山仁壽府, 金山長興庫 등

\* 그 외 청도 대곡리, 사천 은사리, 김해 주증리(송재선, 「우리나라 도자기와 가마터」, 2003)와 대구 상원동(리), 칠곡 상지동(가천리 상지마을?), 경산 교동(리), 경주 대곡리(권병탁, 「한국 산업사 연구」, 2004), 양산 법기리요지, 상주 중모동리요지, 밀양 오산리요지, 부산 동상동요지 등지도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학술적 근거나 가마터의 구체적 위치 및 성격 등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아 상기 유적목록에서는 제외하였다.

발굴조사는 상주(3-상판리(2), 우하리), 의성(1-사부리), 영천(1-용소리), 칠곡(2-다부동, 학하리), 고령(3-기산리, 사부리, 성산사부동), 경주(1-암곡동), 합천(1-장대리), 창원(1-두동옹천), 김해(1-대감리), 울산(2-천전리고지평, 직동리), 부산(2-상장안, 하장안), 충북 영동(1-사부리) 등 12개 지역의 19개 가마터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상수도, 땅, 도로, 철도, 골프장, 산업단지 건설 등을 위한 구제발굴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으나, 상주 상판리 1·6호요지 및 우하리요지, 고령 성산 사부동요지, 창원 두동 웅천요지, 부산 상장안요지, 합천 장대리요지, 김해 대감리요지와 같이 유적정비 및 보존관리대책 마련, 관광자원 활용, 도예촌 조성 등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단체(또는 소속 박물관)가 발굴조사를 추진한 경우도 상당하며, 최근에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 1. 상주<sup>4</sup>

상주시는 조선 초 상주목(중모현·공성현·화령현 등 속현 포함)과 함창현이 있던 지역이다. 조선 초 함창현에 해당하는 동북쪽의 함창읍·이안면·공검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주목에 속해 있었는데, 상주목은 조선 초 경상감영 소재지(1408-1519)이자, 경상도 조운(漕運)의

4 대동문화재연구원, 「상주지역 자기요지 정밀지표조사보고서」(2010);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백화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199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 상주시」(2002); 상주박물관, 「상주 백화산」(2015); 香本不苦治·鄭良謨·尹龍二, 「李朝陶磁窯跡表」, 『世界陶磁全集 19 -李朝-』(小學館, 1980); 정양모, 「고려·조선시대 자기요지 분포현황」, 「한국의 도자기」(문예출판사, 1991); 김세광, 「상주의 어산리 요지에 관한 일연구」, 『상주문화연구』 제4집(상주문화연구소, 1994); 김세광, 「상주의 도자생산과 요지」(1998); 김종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중품자기소에 관한 연구 우하리요지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제58호(한국디자인학회, 2004); 장동철, 「상주 대표리요지 도자편 연구」, 『미술사학연구』 257호(한국미술사학회, 2008); 상주박물관, 「상주 상판리 자기마 1유적」(2015); 상주박물관, 「상주 상판리 자기요지 VII 학술발굴조사 약보고서」(2016); 상주박물관, 「상주 상판리유적의 도자사적 의의」(2017) 등 참조.

육전화(陸轉化) 조치(1403) 이후 낙동강 하류 연강(沿江)지역 공납자기의 중간 기착지, 또 「세종 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자기소 139개 중 4개소뿐인 상품(上品)자기소 2개소의 소재지로서, 분청사기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상주지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모동면 상판리 7개소, 반계리 2개소, 수봉리, 용호리 각 1개소, 모서면 대포리 3개소, 화현리, 지산리 각 1개소, 공성면 우하리, 산현리, 영오리 각 1개소, 화동면 어산리 1개소로 모두 20개소이다.

그중 발굴조사가 실시된 모동면 상판리 1호 · 6호요지, 공성면 우하리요지를 비롯하여 대포리 4호요지, 어산리요지 등 주요 가마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상판리 1호요지<sup>5</sup> (도1)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상판리 산58-1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상주 상판리 1호요지는 주요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대책 마련 등을 목적으로 2015년 5월 20일부터 8월 10일(실조사기간 50일)까지 상주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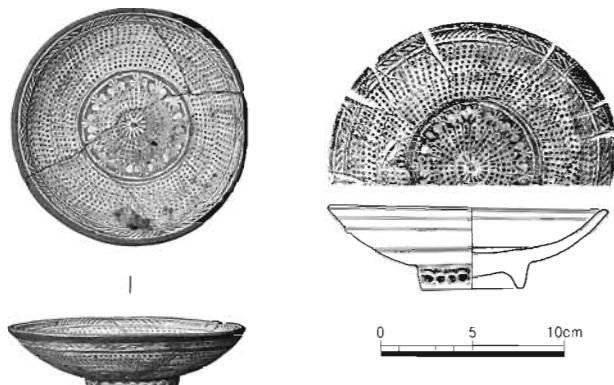
조사 결과 가마 1기와 가마 우측에 넓게 조성된 폐기장 1개소가 확인되었다. 가마는 길이 22m, 너비 1.6~1.8m, 불턱높이 1.1m의 지상식에 가까운 반지하식의 무시설 무단식 단실요로, 연소실-소성실-초별칸-연도부에 걸치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하부구조가 잔존한다.

상감 · 인화기법의 분청사기와 갑발 · 도침 등의 요도구, 어망추, 구슬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400점을 선정, 보고하였다.

집단연국문, 집단연권문, 초문, 연판문, 국화문, 호접문, 연주문 등을 내외면과 굽 외면까지 조밀하게 시문한 최전성기의 인화분청사기가 주류이며, 시문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다. 굽 내저면에 국화나 나비문을 찍은 예가 많았는데, 타 유적에서 확인된 바 없는 독특한 수법이다.

상감기법의 경우 당초문, 중권문, 파도문, 삼각집선문, 화문 등을 선상감한 것과 연화절지, 연당초 등을 면상감한 것이 병존하는데, 면상감은 흑백상감으로 문양의 장식성을 높인 화분, 호의 예가 2점 있다.

출토기종은 대접, 접시, 완, 잔, 잔탁, 개, 고족배, 푼주, 호, 병, 장군, 궤, 귀대



도 1. 집단연권문대접, 상주 상판리1호

5 상주박물관, 위의 책(2015) ; 위의 책(2017).

접, 연적, 베개, 화분, 장고, 구슬 등으로, 일반적인 반상기와 저장기 외에 문방구, 제기, 악기, 각종 생활용품 등 타 유적에 비해 매우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다.

명문자기는 ‘장자색수오십삼(莊子色手五十三)’으로 추정되는 목서명 초별구이편 1점이 확인되었다. 장자색은 조선시대 대궐 안에서 음식을 상에 차려내는 일을 맡아 보던 노비를 가리키며, 문현기록에 장자색(藏子色), 장자색(莊子色), 장자색(粧子色) 등으로 쓰인 용례가 있다. 이 장자색(粧子色)은 차비노(差備奴)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차비노는 각 지방관청에서 선발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는 선상노(選上奴)이며, 상판리가 위치한 15세기 상주목 중모현에서 선상입역(選上立役)의 의무를 질 선상노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장자색으로 일할 사람 53명”이라고 하는 뜻의 명문을 그릇에 표기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사명이나 지명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인화분청사기의 최전성기에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작기술을 보유한 장인집단에 의해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출토품의 양식적 특징과 가마터의 위치 등을 종합해볼 때 이곳은 「세종실록지리지」 단계의 상주목 중모현 이미외리(已未隈里) 상품자기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마 운영 시기는 15세기 초중반경으로 추정된다.

## 2) 상판리 6호요지<sup>6</sup>(도2)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상판리 산69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상판리 6호요지는 상주지역 도자문화 연구를 위한 학술적 목적으로 상주박물관에서 2016년 5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자기가마 1기와 폐기장 2개소가 확인되었다. 가마는 구릉의 능선을 따라 조성된 길이 22m, 너비 1.8~2.2m, 불턱높이 1m의 무시설 무단식 단실요로, 연소실–소성실–초별칸–연도부에 이르기까지 하부구조의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유물은 대부분 가마 양쪽 경사면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폐기장에서 출토되었으며, 상감·인화기법의 분청사기가 생산품의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흑백상감, 투각, 양각, 음각 등의 시문수법이나 문양의 종류, 유색, 기종 등 청자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유물들도 상당히 많다.

시문된 문양의 종류가 다양한데, 초문, 중권문, 유로수금문, 어문, 물결문, 연지문, 연화문, 연당초문, 변형연당초문(연소국문, 연삼원문, 연우점문, 연파상문), 우점문, 류문, 용문, 봉황문, 우점학문, 육원학문, 쌍학문, 연속을자문, 변형당초문, 육각판문, 삼원문, 육원문, 국화문, 화문, 파상문, 집단소국문 등을 주문양으로, 초문,



도 2. 통황만(通)자자문항완, 상주 상판리6호

6 상주박물관, 앞의 보고서(2016) ; 앞의 책(2017).

뇌문, 연주문, 사슬문, 국화문, 연판문, 여의두문, 복사문(袱紗文), 삼각집선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다.

기종은 대접, 접시, 개, 잔, 고족배, 병(표형병, 매병 등), 호, 장군, 향로, 향완, 화분, 화분대, 돈(墩), 장고, 베개, 궤, 귀대접, 묘지 등으로, 반상기 외 다양한 특수기종이 출토되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사선(司膳)’(14점), ‘녕(寧)’(5점), ‘순(順)’(6점), ‘세(世)’(17점), ‘정(定)’(7점), ‘공왕입경(恭王入京)’(4점), ‘쌍림(双林)’(9점), ‘대(大)’(3점), ‘상(上)’(1점), ‘만(凡)’(3점), ‘월(月)’(1점), ‘십팔(十八)’(1점), ‘…송중(松衆)…보(宝)…’(1점) 등의 명문이 새겨진 도편이 다양 출토되었는데, 백상감 6점(‘공왕입경(恭王入京)’ 2, ‘만(凡)’ 3, ‘…송중(松衆)…보(宝)…’ 1)과 음각 1점(‘공왕입경(恭王入京)’)을 제외한 나머지 명문은 모두 흑상감으로 필각되었다.

명문 가운데 ‘사선(司膳)’은 궐내 음식 담당관청인 사선서(司膳署), ‘녕(寧)’은 태조의 상왕부인 승녕부(承寧府), ‘순(順)’은 조선 초 왕실창고인 의순고(義順庫), ‘세(世)’는 이방석의 세자부, ‘정(定)’은 태조의 부친릉인 정릉(定陵), 쌍림(双林)은 황간현의 쌍림사(雙林寺)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왕입경(恭王入京)’, ‘대(大)’, ‘상(上)’ 등은 공납자기로서의 성격을 함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까지로 볼 수 있으며, 중앙관청이나 주요 왕족의 능, 또는 공상용 자기로서의 성격과 관련된 명문도편의 출토, 유물의 양식적 특징, 가마터의 위치 등으로 보아 「태종실록」 단계인 1411년부터 「경상도지리지」 단계인 142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주목 중모현의 공납자기 생산을 담당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 3) 우하리요지<sup>7</sup>(도3)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우하리 산1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우하리요지는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된 사선(司膳)명대접편과 유적의 위치 등을 근거로 「세종실록지리지」 상주목 공성현 서쪽의 원동(院洞) 중품자기소로 추정되면서 주목받아온 유적이다.

상주박물관은 관내 중요 가마터 조사를 통한 학술자료 확보와 유적 정비 등을 목적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구역 내에서 가마유구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폐기장에서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다.

출토유물에는 상감·인화기법의 분청사기와 상감청자, 흑유자, 백자, 도질토기, 갑발·도침 등의 요



도 3. 사선(司膳)명대접편, 상주 우하리

7 김종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중품자기소에 관한 연구 우하리요지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제58호(한국디자인학회, 2004) ; 대동문화재연구원, 「상주지역 자기요지 정밀지표조사보고서」(2010).

도구, 어망추, 가마벽체 등이 있으며, 기종은 대접과 접시, 호, 병, 제기, 화분받침, 베개, 돈(墩) 등이다.

대체로 중권문, (변형)연당초문, 어문, 용문, 파도문, 화문, 파상문, 우접국화문, 집단소국문 등을 주문양으로, 초문, 연판문, 호접문, 뇌문, 국화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화문에는 성근 인화문과 조밀한 인화문이 있는데, 간혹 굽 외면에도 인화문을 시문하였다.

명문은 대부분 내저면에 흑상감하였는데, 사선(司膳)명을 중심으로 상(尙), 경(京), 장(長), 대(大)명 등이 새겨진 도편들이 확인되었다.

출토품의 양식적 특징이나 사선명도편의 출토사실, 가마터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우하리요지 일대는 『경상도지리지』단계(1425) 상주목 공성현의 공납자기 생산지이자, 『세종실록지리지』단계(1454)의 상주목 공성현 서쪽 원동(院洞) 중품자기소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 지역 내에서 가마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장기간 자기공납을 담당했던 사례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가마 운영 시기는 대략 15세기 초중반경으로 추정된다.

#### 4) 대포리 4호요지<sup>8</sup>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대포리 499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대포리 4호요지는 학술목적의 개인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후 2008년 관련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알려지게 된 유적이다. 수습된 유물은 상감·인화·귀얄기법의 분청사기와 회청사기, 무문·음각기법의 백자 등 도자기편과 도범, 갑발·도침 등의 요도구류 등이고, 확인된 기종은 대접, 접시, 호 등이다.

분청사기의 상감기법으로는 변형연당초문(연화문+우접문), 초문, 중권문, 당초문, 파도문, 여의두문, 용문, 인화기법으로는 육원문, 화문, 국화문, 집단연국문 등을 시문하였는데, 주생산품은 인화분청사기이다.

상·하·측면에 다양한 크기의 국화문을 음각한 원형의 연적 모양 도범과, 모란문을 음각시민한 백자 대접편이 각 1점씩 확인되었다. 또 왕실자기에만 사용되는 용문(도4)이 흑백상감된 대형



도 4. 용문호, 상주 대포리4호

도 5. 용문호, 15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259호

8 장동철, 「상주 대포리요지 도자편 연구」, 『미술사학연구』 257호(한국미술사학회, 2008).

항아리의 구연·동체부편 4점이 출토되었는데, 국보 제259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용문호(도5)와 문양 구성이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수습유물의 양식적 특징상 대포리 4호요지는 15세기 초반부터 말까지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마 운영시기와 함께 왕실용 자기로 추정되는 용문항아리가 출토된 점, 대포리요지가 있는 노산(蘆山)마을이 「경상도속찬지리지」 상주목 중모현조에 중품자기소가 있었던 곳으로 기록된 노산리(奴山里)와 지명의 음가가 동일하고 15세기 중모현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대포리 4호요지는 「세종실록지리지」의 중모현 북쪽 추현리(楸縣里) 상품자기소가 있었던 곳이자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중모현 노산리(奴山里) 중품자기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 5) 어산리요지<sup>9</sup> (도6)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어산리 산118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어산리요지는 학술목적의 개인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후 1994년 관련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처음 알려지게 된 유적이다. 이때 100여 점 이상의 도편이 채집되었으며, 이후 2009년에 실시한 대동문화재연구원의 정밀지표조사에서도 소량의 유물이 추가 수습되었다.

논문과 지표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도면과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는 특징으로 보아 수습 유물은 대체로 상감·인화분청 사기와 회청사기 계통으로 판단된다. 상감기법에는 백상감과 흑백상감이 병용되었고 인화기법은 대부분 성글게 시문되어 초기 분청사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문양은 초문, 중권문, 연당초문, 국당초문, 파도문, 삼원문, 육원문, 국화문, 우점문 등을 주문양으로 시문하고, 초문, 국화문, 연주문, 연판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다. 기종은 접시와 대접, 완 등 반상기 종류가 대부분이나, 매병(또는 항아리)과 같은 종류도 일부 확인되는데, 매병, 또



도 6. 상주 어산리 채집 도편

9 김세광, 「상주 어산리 요지에 관한 일연구」, 『상주문화연구』 제4집(상주문화연구소, 1994) ; 대동문화재연구원, 「상주지역 자기요지 정밀지표조사보고서」(2010).

는 항아리로 추정되는 기종은 꽃을 꽂아 장식한 의례용 화기(花器)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수습유물의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가마의 운영시기는 대략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초까지로 추정된다. 또 출토품 중 화기로 추정되는 종류가 포함되어 있고, 가마의 위치 또한 태종 11년(1411) 기록에서 내시를 보내어 화기 제작을 감독하게 했다고 하는 중모·화령현 중 화령현에 속하는 지금의 화동면에 있으므로, 어산리요지가 바로 「태종실록」의 상주목 화령현 화기 생산 가마터였을 가능성이 높다.

## 2. 고령<sup>10</sup>

상주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139개 자기소 중 단 4군데뿐인 上品자기소 중 하나가 있었던 지역으로 일찍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던 고령지역은 조선 초 고령현과 성주목 일부지역이 있었던 지역이다. 북쪽의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 다산면 일원은 대체로 조선 초 성주목에 속했던 지역인데, 그중 성산면 사부리, 덕곡면 후암동, 운수면 운산리 등 남쪽 경계지역 일부는 고령현에 속하였다.

고령지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성산면 기산리 1개소, 사부리 2개소, 기산동·사부동 1개소, 운수면 대평리 2개소, 봉평리 1개소, 팔산리 1개소, 우곡면 사천리 1개소로 모두 9개소이다.<sup>11</sup> 그중 성산면과 우곡면 일대의 가마터는 조선 초 고령현에 속하였고, 운수면 일대의 가마터는 성주목에 속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조사가 실시된 유적은 사부리요지, 기산리요지, 성산 사부동요지의 3개소이지만, 개인 및 기관의 조사를 통해 비교적 풍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

### 1) 사부리요지<sup>12</sup> (도7~8)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산68번지에 위치한 고령 사부리요지는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구간(제14공구) 내 조사유적의 제Ⅱ구역에 해당하며,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09년 11월 11

10 권병탁, 「전통도자기의 생산과 수요」(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 香本不苦治·鄭良謨·尹龍二, 「李朝陶磁窯跡表」, 『世界陶磁全集 19 -李朝-』(小學館, 1980) ; 계명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고령군-」(1998) ; 권병탁, 「한국 산업사 연구」(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 문화재청고시제 2008-160호(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제16895호 / 관보(그2) / 발행일 2008.12.10.) ; 대가야박물관, 「고령의 토기·자기요지」(2010) ; 「고령토, 장인의 혼을 만나다 고령의 토기·자기가마-」(2011) ; 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사부리요지-고령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구간(제14공구)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제Ⅱ구역)」(2012) ; 「고령 기산리요지-고령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구간(제14공구)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제Ⅲ구역)」(2012) ; 「고령 성산 사부동 도요지 고령 '성산 사부동 도요지' 축대보수공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2012).

11 발굴 조사된 고령 기산리요지, 사부리요지, 성산 사부동요지는 사적 제510호 기산동·사부동요지군의 넓은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산리와 사부리요지의 경우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성산 사부동요지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모두 각각의 유적으로 추산하였다.

12 대동문화재연구원, 「高靈 箕山里窯址 - 고령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구간(제14공구)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제Ⅲ구역)」(2012).

일부터 2010년 11월 5일까지 발굴 조사되었다.

보호구역 내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세종실록지리지」의 고령현 동쪽 예현리(曳峴里) 상품자기소로 비정되어온 사부동·기산동요지군(사적 제510호)의 넓은 범위 내에 포함되는 유적으로 판단된다.<sup>13</sup>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자기가마 1기(폐기장 3개소), 기와가마 1기, 수혈 1기, 구 1기 등 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자기가마는 잔존길이(연소실~초벌실) 20.4m, 최대너비 1.7m의 반지하식 등 요로, 아궁이와 연도부는 유실되었으며, 연소실과 소성실 사이 1.25m의 높은 불턱이 존재한다. 1회 이상 개축하여 소성실은 6칸에서 5칸, 초벌실은 1칸에서 2칸으로 구조 조정된 점, 내부에 높이 약 0.8m의 천장지주식 불기둥(5개)이 등간격으로 잘 남아있는 점, 소성실 좌측에 마지막 조업 후 조성 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종반출구 3개소가 확인된 점 등이 특징적이다.

기와를 제외한 수습유물의 전체수량은 13,637점(보고유물은 1,028점)으로, 주로 폐기장과 상부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종류별 개체수는 분청사기 8,920점, 백자 578점, 시유도기 12점, 어망추 80점, 요도구 4,047점(갑발 2,975, 도침 1,060, 기타 요도구 12) 등인데, 분청사기와 백자의 비율은 93.9%와 6.1%로 분청사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분청사기는 거의 대부분 보조문양 없이 와선문·중권문 등의 횡선문이나 파상방사선문과 귀얄문이 결합된 쇠퇴기 인화·상감분청 유형에 해당하며, 사질내화토비집을 반쳐 포개구이하였다. 극히 드물게 집단연국문이나 집단연권문을 주문양으로, 연판문이나 국화문, 호접문, 농형문, 초문 등을 내저면 문양, 또는 상하단 보조문양으로 시문한 예가 보인다. 육원문대접편이 1점 있으나 해당가마 제작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모란엽문을 시문한 입호, 방형기하문·당초문·돌대문 등을 시문한 제기류 등 음각기법의 분청사기도 극소량 확인된다.

백자는 주로 연질계통이며, 일반적인 소문백자 외에 초접문·모란당초문·모란엽문 등을 시문한 상감백자류도 출토되었는데, 특히 백자상감초접문편병은 국보 제172호 진양군영인정씨묘 출토 백자상감초화문편병(1466년 제작 추정)과의 유사성으로 크게 주목되었다.

주로 백자를 생산한 것으로 생각되는 다량의 갑발이 출토되어 공납용 백자 생산이 활발했을 것으



도 7. 음각모란엽문호, 고령 사부리

13 사부동·기산동요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고적 제105·106호로 각각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해방 후 다시 사적 제71·72호로 변경 지정되었다.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가마가 밀집되어 대규모 요업지구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의 성격상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7월 28일자로 두 유적을 통합, 사적 제510호로 재지정하였다. 보호구역 범위는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 (국가지정문화재[사적]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제16895호 / 관보(그2) / 발행일 2008.12.10.>, 또는 본고 <표1> 유적위치의 지번 참조.

로 추정된다. 김종직의 『점필재집(佔畢齋集)』, 『이존록(彝尊錄)』下의 선공사업 편에는 아버지 김숙자의 고령현감 시절(1442~1447) 고령현에서 수준 높은 백자를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어, 집단인화문분청사기와 함께 해당유적의 상한을 15세기 중엽까지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종 확인이 가능한 유물은 분청사기 7,623점, 백자 567점인데, 대부분 대접과 접시이나 호, 고족배, 잔, 병, 보 또는 궤 등의 제기, 뚜껑, 장군, 묘지석 등도 출토되었다.

묘지석(도8)은 결실부위가 많아 명문의 전체적인 의미 파악은 어려우나, 지명('초계(草溪)')과 관직명('선전관(宣傳官)', '호군(護軍)'), 간지명('병신(丙申)', '무신(戊申)') 단편적 정보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간지명의 경우는 각각 1476년, 1488년으로 볼 수 있어 가마 운영시기 추정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부리요지에서는 '대(大)', '세(世)', '인(仁)', '하(河)', '전(殿)', '단(袒 혹은 祖)', '소', '부(夫)', '부일(副日(?))' 등의 명문이 상감, 또는 음각된 분청사기와 '중산(中山)', '대(大)' 명을 음각한 백자 등 명문자기가 약 60여 점 출토되었다.

가마의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중후반경으로 추정되며, 『경상도속찬지리지』단계(1469년)의 고령현 동쪽 구언리(仇彦里) 하품자기소였을 가능성성이 높은 유적이다.

## 2) 기산리요지<sup>14</sup>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860번지에 위치한 고령 기산리요지는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 구간(제14공구) 내 조사유적의 제Ⅲ구역에 해당하며, Ⅱ구역의 사부리요지와 마찬가지로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09년 11월 11일부터 2010년 11월 5일까지 발굴조사되었다.

현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이곳 역시 사부동·기산동요지군의 넓은 범위 내에 포함되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고속도로를 경계로 Ⅲ-A구역(북편 능선 말단부)과 Ⅲ-B구역(남편 충적지)으로 구분되는데, A구역에서는 조선시대 자기가마 1기(폐기장 7개소 포함)가, B구역에서는 채토장 7기, 점토저장공 8기, 수혈 23기, 구 8기, 주혈균 등 원료채취장 성격의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자기가마는 잔존길이 20.3m, 최대너비 2.2m의 반지하식 등요로, 연소실과 연도부는 유실되었다. 측면출입구에 의해 소성실이 6칸으로 구분되는 등 사부리요지와 구조가 유사하나, 높이 0.8m로 추정되는 5개의 불기둥이 등간격으로 배치되었던 사부리요지와는 달리 기산리요지에서는 5칸



도 8. 묘지석, 고령 사부리

14 대동문화재연구원, 『高靈 筵山里窯址 – 고령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구간(제14공구)내 유적 시 · 발굴조사보고서(제Ⅲ구역)』(2012).

째 소성실 바닥에서 잔존높이 0.3m의 불기둥 1개만 확인되었다.

총 7,846점(489점 보고)이 수습되었는데, 분청사기 6,884(297)점, 백자 16점, 어망추 57점, 갑발 428(18), 도침 441(43) 등으로, 분청사기가 주생산품이고 백자는 극소량 출토되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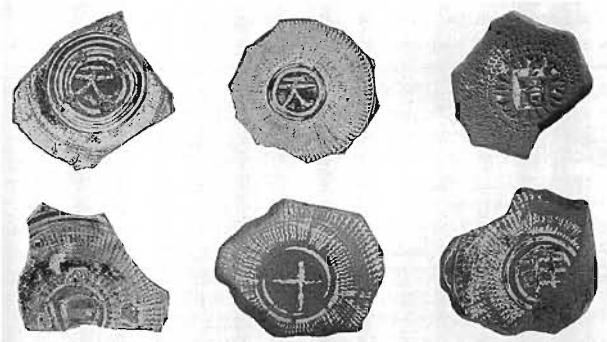
분청사기는 대부분 보조문양 없이 와선문·중권문, 또는 파상방사선문에 귀얄문이 결합된 쇠퇴기 유형에 해당하며, 시문내용과 수법이 사부리요지와 유사하나 문양구성이 훨씬 단조롭다.

백자는 주로 연질계 무문백자이지만 상감백자편도 1점 포함되어 있다. 대접, 접시, 병, 고족배, 잔, 호, 주자, 뚜껑 등의 기종이 확인되었다. 사부리요지에 비해 갑발의 출토량이 매우 적고, 대부분 사질내화토비짐, 또는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청동기시대 ~ 삼국시대의 토기·석기류나, 일제강점기의 곰방대와 ‘고적 제106호 성산기산동 도요지(古蹟 第百六號 星山箕山洞陶窯址)’(전면)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후면)’ 명 표식석이 출토되는 등 해당유적과 시기를 달리하는 유물들이 소량 출토되었다. 표식석은 가마상부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는데, 명문 내용을 통해 이곳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고적 제106호로 지정 관리한 성산기산동도요지 위치였음을 알 수 있다.

‘원(元)’, ‘구(旧)’, ‘정(井)’, ‘천(天)’, ‘고(高)’ 등의 명문이 내저중앙에 상감된 명문분청사기(도9)가 모두 14점 출토되었는데, 구체적인 명문의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제작 장인의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소량이지만 태토비짐이 보이고 있어 사질내화토비짐만 확인되는 사부리요지보다 개요시기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큰 시기 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사부리요지와 함께 「경상도속찬지리지」단계(1469년)의 고령현 동쪽 구언리 하품자기소 영역에 포함된 가마터였을 가능성이 높은 유적이다.



도 9. 각종 명문도편, 고령 기산리

### 3) 성산 사부동요지<sup>15</sup> (도10~11)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70, 71, 95전 일원에 위치하는 고령 사부동요지는 사적 제71호 성산 사부동도요지(현 사적 제510호 고령 사부동·기산동요지) 외곽 경계부분의 노후된 축대부지에 해당된다.

15 대동문화재연구원, 「高靈 星山 沙堦洞 陶窯址 고령 '성산 사부동 도요지' 축대보수공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2012).

『고령군지(高靈郡誌)』(1996, 고령군)에 의하면 1982년 이곳에서 일제강점기의 ‘고적 제105호 성산 사부동도요지(古蹟 第百五號 星山 沙堯洞陶窯址)’ 명 표식석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고령군이 유적보호 목적의 축대보수정비사업에 앞서 대동문화재연구원에 유구확인 성격의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2010년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기존 축대 제거 및 평·단면조사 결과 가마 1기와 주변 폐기장, 자연구 1기가 확인되었는데, 가마는 일제강점기 전후 경작이나 동사 건축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소성실 바닥 피열흔이나 벽체 등 일부 구조물, 회구부로 추정되는 흑색목탄층 등 흔적만 확인되었다. 가마의 길이는 약 30m 내외로 추정되며, 가마 우측에는 폐기장이 길게 형성되어 있다.

출토품의 종류에는 상감·인화기법의 분청사기와 갑발, 도침 등의 요도구, 어망추 등이 있으며, 주로 폐기장과 상부퇴적층의 교란층에서 출토되었는데, 그중 총 219점이 선별, 보고되었다.

출토기종은 대접과 접시 등 반상기가 2/3 가량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 호, 개, 병, 찬, 고족배 등도 소량 출토되었다.

문양구성을 살펴보면 연당초문, 연화문, 변형당초문, 초문, 변형운학문(삼원문+학문), 파상문, 육원문, 삼원문, 국화문, 학문, 집단소국문, 집단연국문, 집단연권문 등을 주문양으로 시문하고, 초문, 연주문, 놀문, 연판문, 국화문, 여의두문, 호접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다. 육원문을



도 10. 흑백상감도편, 고령 성산 사부동



도 11. 각종 명문도편, 고령 성산 사부동



도 12. 대(大)명접시, 고령 사전리

성글게 시문한 대접 위에 집단소국문접시편이 수착된 유물이 출토되어 두 가지 양식이 동시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司)’, ‘선(膳)’, ‘대대(大大)’, ‘상(上)’, ‘신(申)’, ‘십(十)’, ‘부(夫(?))’ 등의 명문이 주로 내저중앙에 백상감된 명문분청사기(도11)가 19점(불명 1점 포함) 가량 출토되었는데, 그 중 관사명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선서(司膳署)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司)’ 명, 또는 ‘선(膳)’ 명이 있다.<sup>16</sup>

가마의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초중반으로 추정되며, 명문분청의 출토사실과 유물의 양식적 특징, 가마터의 위치 등으로 보아 「경상도지리지』단계(1425)의 고령현 공납자기 생산지이자 「세종실록지리지』단계(1454)의 고령현 예현리(曳峴里) 상품자기소로 추정된다.

#### 4) 사전리요지<sup>17</sup>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사전리 산44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고령 사전리요지는 권병탁이 조사하여 ‘사전동 사붓골점터’로 보고한 가마터로, 대가야박물관의 지표조사에 의해 다양한 유물이 추가 수습되었다.

채집유물에는 상감·인화·귀얄분청사기와 회청사기, 백자, 갑발, 도침 등이 있다. 상감분청은 소량이지만 선상감과 면상감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연당초문, 연판문, 당초문, 그물문, 와선문, 모란엽문 등을 시문하였다. 인화분청은 육원문, 집단소국문, 집단연국문, 집단연권문, 승려문 등을 주문양으로 시문하고, 국화문, 연판문, 호접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는데, 초기 형식도 있으나 대부분 인화문과 귀얄문이 결합된 쇠퇴기의 인화분청 계통이다.

내저중앙에 대(大)명을 백상감한 집단연국문접시(도12)가 1점 수습되었다.

채집된 유물은 15세기 초반부터 16세기까지로 편년되는데, 한 가마의 운영시기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여러 기의 가마가 모여 있는 가마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명문분청의 출토사실과 유물의 양식적 특징, 가마터의 위치 등으로 보아 「경상도속찬지리지』단계(1469)의 고령현 하며리(下旣里) 하품자기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단계(1530)의 고령현 공납자기 생산을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 5) 봉평리요지<sup>18</sup>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산5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봉평리요지는 권병탁이 ‘신간

16 司膳署 관련 관사명분청사기는 대체로 司膳이라는 명문을 후상감한 예들이 많으며, 1372~1420년, 1389~1420년, 1392~1425년 등으로 편년되어 대략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까지로 볼 수 있는데, 사부동요지 출토 司, 膳명은 모두 백상감되어 일반적인 司膳명 도편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 권병탁, 「전통도자기의 생산과 수요」(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 「한국 산업사 연구」(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 대가야박물관, 「고령의 토기·자기요지」(2010) ; 「고령토, 장인의 혼을 만나다 고령의 토기·자기가마-」(2011).

18 주 15와 동일.

동 접터군’으로 명명한 대규모 가마군의 중심지인 ‘신간동 사붓골요지’에 해당되는 가마터인데, 신간리와 봉평리의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지명 확인에 혼란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인화·귀얄기법의 분청사기와 회청사기, 백자, 어망추, 도침, 가마벽체 등이 채집되었는데, 귀얄분청사기와 회청사기가 주생산품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양이 있는 인화분청의 경우 국화문, 집단연권문, 집단소국문 등을 주문양, 초문, 국화문, 연판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다. 백자는 귀얄분청사기대접에 수착된 채 수습된 고족배 등이 수습되었다. 기종은 대접, 접시, 병, 항아리, 주자, 잔, 고족배 등이다.

내저 중앙에 ‘대(大)’(흑상감), ‘장홍고(長興庫)’(백상감) 등의 명문이 새겨진 분청사기접시(도 13) 2점이 수습되었으며,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전반에서 16세기까지로 추정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 성주목조에 중품, 하품자기소 소재지로 기록되어 있는 흑수리(黑水里)는 지금의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흑수마을로 생각되는데,<sup>19</sup> 봉평리요지는 흑수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도 1914년 군면 통폐합 시 흑수면과 운라면과 병합되어 운수면으로 재편되기 전까지 흑수면에 속해 있던 곳이다.

이러한 지명에 대한 고찰과 함께 ‘대(大)’, ‘장홍고(長興庫)’ 명 도편의 출토사실, 채집유물의 특징으로 추정되는 가마 운영시기 등을 종합해볼 때 봉평리요지는 『세종실록지리지』단계(1454)의 성주목 흑수리 중품자기소, 그리고 『경상도속찬지리지』단계(1469)의 성주목 흑수리 하품자기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6) 대평리요지<sup>20</sup>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에는 2개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는데, 하나는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279호로 지정된 대평리 산252번지 일원의 1호요지(구 대평리요지)이고, 다른 하나는 대가야박물관의 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대평리 산204번지 일원의 2호요지(구 대평2리요지)이다.

대평리 1호요지에서는 상감·인화·귀얄분청사기와 회청사기, 백자, 갑발, 도침, 어망추 등이 채집되었으며, 기종은 대접, 접시, 호, 병 등이 확인된다. 상감기법으로는 중권문 또는 와선문을 시문하였고, 인화기법으로는 승려문, 집단연권문 등과 보조문양인 국화문을 시문하였는데, 귀얄시문 후 그대로 두는 쇠퇴기 형식에 해당한다.



도 13. 장홍고(長興庫)명접시, 고령 봉평리

19 흑수마을은 조선 초 성주목의 읍치인 현 성주읍의 남쪽에 해당하므로, 『慶尙道續撰地理志』의 흑수리 방위와 일치한다. 흑수리가 성주목 동쪽이라고 한 『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은 동일 지명의 후대 기록이나 현재 흑수마을의 위치 등으로 보아 오기로 판단된다.

20 주 15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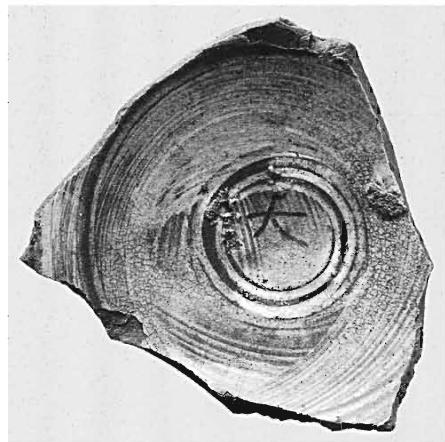
채집도편 중 명문이 있는 예는 大명 대접(도14) 3점이 있는데, 인화분청(1점)에는 백상감, 귀얄분청(2점)에는 음각기법으로 명문을 표기하였다.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까지로 추정된다.

대평리 2호요지에서는 상감·인화분청사기와 도침, 태토비짐 등이 채집되었다. 상감기법으로는 중권문, 연당초문, 초문, 우점문, 물결문, 인화기법으로는 삼원문, 육원문, 화문, 국화문 등을 주문양으로 시문하고, 초문, 뇌문, 사슬문, 연판문, 여의두문, 연주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는데, 연당초문의 일부와 사슬문 등은 흑상감을 병행하였다. 확인된 기종은 대접과 접시, 병 등이며,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초로 추정된다.

대평리는 봉평리와 마찬가지로 1914년 이전까지 흑수면에 속해 있던 곳이고, 대평리에 속해 있는 흑수마을은 『세종실록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 성주목조에 중품, 하품자기소 소재지로 기록되어 있는 흑수리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대평리에 있는 분청사기 가마터가 기록상의 성주목 흑수리 자기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大)명도편이 출토된 대평리 1호요지는 더욱 그 가능성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마 운영시기를 감안하면 『경상도속찬지리지』단계(1469)의 성주목 흑수리 하품자기소로 판단된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단계(1530)의 성주목 공납자기 생산을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대평리 2호요지의 경우, 한 지역 내에서 가마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장기간 자기공납을 담당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과 가마 운영시기 등을 고려하면 『경상도지리지』단계(1425)의 성주목 공납자기 생산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도 14. 대(大)명도편, 고령 대평리1호

### 3. 칠곡

지금의 칠곡군은 조선 초 인동현(약목현 포함)과 팔거현이 있던 지역이다. 『경상도지리지』(1425) 인동현조에는 자기가 토산공물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1454)의 인동현조에도 ‘자기소일 재현동막곡리 하품(磁器所一 在縣東莫谷里 下品)’이라 하여 현 동쪽 막곡리에 하품자기소 1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15세기 초중반경 인동현을 중심으로 공납자기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21 조선 초 인동현은 지금의 구미시 동남쪽 인동동과 칠곡군 북쪽 가산면, 북삼면, 석적면 일대이며, 인동현의 속현인 약목현은 칠곡군 서남쪽 약목면과 기산면 일부에 해당한다.

칠곡군 관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가산면 다부리, 학하리, 학상리 각 1개소, 지천면 연화리 1개소, 기산면 노석리 1개소로 모두 5개소이다.

그중 발굴조사가 실시된 곳은 다부동요지와 학하리요지로 총 2개소이다. 학상리요지는 주민 신고에 의한 현장조사가 실시되었고, 정보량의 차이는 있지만 발굴보고서와 조사 의견서 등을 통해 대략적인 가마터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화리요지와 노석리요지는 지표조사에 의해 가마터의 위치와 생산품의 종류 등이 확인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발굴 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칠곡지역의 주요 분청사기 가마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다부동요지<sup>22</sup>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현 다부리) 산1번지 진목정마을 북쪽 산록하단에 위치한 다부동요지는 대구~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되어 1990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된 유적이다.

조사 결과 잔존길이 19m, 최대너비 1.3m, 잔존높이 0.2m, 불덕높이 1.6m의 반지하식 등요 1기와 가마 서벽에 접한 폐기장이 확인되었는데, 가마에서는 토제어망추 1점만이 출토되었을 뿐 나머지 모든 유물은 폐기장에서 수습되었다.

출토품에는 귀얄·덤벙기법의 분청사기와 회청사기, 백자, 흑유자, 도침 등이 있는데, 주생산품은 귀얄분청사기이다. 기종에는 대접, 접시, 종지, 소호, 병, 뚜껑, 작(爵, 추정) 등이 있으며,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 사이로 추정된다.

### 2) 학하리요지<sup>23</sup> (도15~16)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산87-2번지 일원에 위치한 칠곡 학하리요지는 가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으로 인해 2007년 3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발굴지는 소로를 중심으로 I · II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두 1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I 구역에서는 조선시대 토광묘 5기, 수혈 3기, 구 3기, II 구역에서는 분청사기 가마(배수구, 회구부 등 부속유구 포함) 1기, 수혈 4기, 집석유구 1기가 각각 조사되었다.

가마 외에 가마 조업과 관련 있는 유구는 아궁이 · 온돌시설로 인해 그릇 건조시설로 추정된 I 구역의 수혈 1호와, 구덩이 · 태토빛음이 확인되어 토취장 · 작업장으로 추정된 II 구역의 수혈 1 · 2 · 3호이다. 백자와 금속유물, 유리옥만 출토된 토광묘는 분청사기를 주로 생산한 해당 가마 보다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마는 수혈4호와 중복되어 전체규모와 구조는 알 수 없으나, 평면 장타원형의 지상식에 가까

22 경북대학교박물관, 「漆谷 多富洞 磁器 窯址」, 「대구~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역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대구~군위간)」(1991).

23 영남문화재연구원, 「漆谷 鶴下里 粉青沙器窯址 I · II · III」(2009).

운 반지하식 등요로 판단된다. 요전부와 연소실, 소성실 일부가 남아 있고 연도부는 대부분 훼손되었는데, 연소실~소성실의 가마 잔존길이는 21.8m, 최대너비는 2.8m, 불턱높이는 약 0.8m이다.

보고된 출토유물의 총 수량은 5,758 점이며, 그중 백자 6점, 금속유물 41 점, 유리옥 7점, 토제품 9점, 갑발과 도침, 갓모, 태토빛음 등의 요도구 140 점을 제외한 5,555점이 극소량의 회청사기를 포함한 분청사기 계통의 유물인데, 대부분 회구부에서 출토되었다.

문양은 모두 상감·인화기법으로 시문하였는데, 상감기법으로는 중권문, 초화문, 연당초문, 류문, 어문, 봉황문, 용문, 파도문, 평행곡선문, 연속울자문, 인화기법으로는 삼원문, 사원문, 육원문, 국화문, 화문, 파상문, 우점문, 승령문, 육각판문 등을 주문양으로 시문하였고, 초문, 연판문, 국화문, 뇌문, 연주문, 여의두문, 사슬문, 삼각집선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다. 연당초문대접의 경우 대부분 당초문이 변형되어 우점문, 파상문, 국화문, 사원문 등으로 나타난다. 인화기법의 경우 1점을 제외하고 모두 성글게 시문한 초기 인화분청에 해당한다. 기종은 대접·접시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종지, 병, 호, 응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사선(司膳)’(43점), ‘녕(寧)’(11점), ‘순(順)’(7점), ‘정(定)’(9점), ‘대(大)’(1점), ‘금(金)’(4점), ‘공(公)’(22점) 등의 명문이 흑상감된 도편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가마 운영시기는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까지로 추정된다.<sup>24</sup> 해당유적 출토품의 양식적 특징과 명문분청사기의 성격, 가마터의 위치 및 운영시기 등으로 보아 학하리요지는 「경상도지리지」단계(1425)의 인동현(仁同縣) 공납자기 생산지로 판단된다.



도 15. 매병·대접·접시류, 칠곡 학하리



도 16. 화분대·뚜껑·고족배, 칠곡 학하리

24 학하리요지의 명문도편 종류는 상주 상판리 6호요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상판리 6호요지는 명문 분석을 통해 1382~1425년으로 편년된 바 있다. 성현주, 「상판리 가마 출토 명문자기와 15세기 상주목의 자기공납」, 「상주 상판리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제7회 상주박물관 학술대회 자료집(2017).

### 3) 학상리요지<sup>25</sup>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용담사 서쪽 사면(853 · 855 · 857번지 일원 추정)에 위치하고 있는 칠곡 학상리요지는 지역민의 제보로 알려지게 된 가마터로, 도굴로 인해 가마 측면 퇴적층이 파헤쳐진 상태로 확인되어 2차에 걸쳐 현장 조사되었다.

조사 시 2점의 청자, 다량의 분청사기 및 초벌구이 도편과 도침 등이 수습되었는데, 주로 조밀한 전면인화기법으로 시문하였으나, 중권문을 상감시문한 예도 확인된다.

출토기종은 대접, 접시, 대호, 고족배, 합개 등이고, 대량생산을 위해 여러 점 포개구이한 상번이 주 번조수법이다. 수습유물 중 갑발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갑번 여부를 알 수 없다.

가마 운영 시기는 대략 15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며, 인동인수부(仁同仁壽府), 인동장흥고(仁同長興庫)라는 명문이 새겨진 분청인화집단연국문대접(도17)이 각각 2점, 1점씩 수습됨으로써 「세종 실록지리지」인동현조에 기록된 현 동쪽 막곡리(莫谷里) 하품자기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17. 인동인수부(仁同仁壽府) · 인동장흥고(仁同長興庫)명대접, 칠곡 학상리

## 4. 경주

지금의 경주시는 조선 초 경주부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남쪽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쪽 두서면 · 두동면과 서쪽으로는 영천시 동남쪽 북안면, 북쪽으로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 신공면 · 죽장면까지 조선 초에는 모두 경주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경상도지리지」(1425) 경주부조에는 자기가 토산공물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1454)의 경주부조에는 ‘자기소이 일재부서대곡촌 일재부북물이촌 개하품(磁器所二 一在府西 大谷村 一在府北勿伊村 皆下品)’이라 하여 부 서쪽 대곡촌과 부 북쪽 물이촌에 각 1개소씩 모두 2개의 하품자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경주부조에는 ‘자기 소재현곡리 물이리 대곡리 비이리 개품중(磁器所在見谷里 勿伊里 大谷里 非伊里 皆品中)’이라 하여 현곡리, 물이리, 대곡리, 비이리에 각 1개소씩 모두 4개의 중품자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됨

25 강경숙,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분청사기 가마터 현지조사 의견서」(2003).

으로써, 이전에 비해 자기소의 수량도 증가하고 생산품의 품질도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경주시 관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암곡동 1개소, 현곡면 내태리 1개소, 남사리 2개소, 하구리 1개소, 건천읍 용명리 3개소, 산내면 대현리 1개소로 모두 9개소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초 경주부에 속했던 지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에서 2개소,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서 1개소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므로 지금까지 파악되는 조선 초 경주부의 자기요지는 총 12개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발굴 조사된 가마터는 암곡동요지가 유일하다.

그 외 조선 초 경주부에 소속되었던 울산 천전리 고지평요지도 발굴 조사되었으나, 이곳은 울산 지역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암곡동요지<sup>26</sup> (도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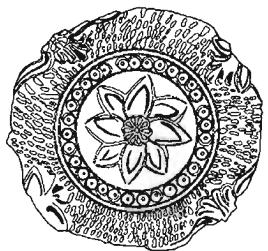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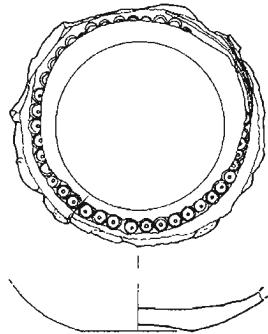
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250번지에 소재한 암곡동요지는 왕산마을 간이상수도 설치를 위한 집수저장고 공사 중 발견된 유적이다. 굴삭기에 의한 유적 훼손이 심하여 1987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만에 국립경주박물관에 의해 긴급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1년 국립경주박물관의 연보에 약보고서 형식으로 보고되었다.

발굴당시 다량의 도편이 확인되었으나 그중 도편 13점과 도침 6점 등 소량만 선별하여 수습 보고하였다. 수습도편의 종류에는 흑백상감, 또는 백상감기법의 상감분청과 초기 인화분청, 회청사기, 백자 등이 있는데, 그중 분청사기에는 주문양으로 연당초문, 초화문, 국화문, 우점문을, 보조문양으로 파도문, 뇌문, 연주문, 여의두문 등을 시문하였다. 수습품의 기종은 대부분 발과 완, 접시이며, 호와 뚜껑 등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다.

가마의 주 운영시기는 15세기 초반이나, 백자가 함께 수습된 것으로 보아 15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의 경주부조에 하품, 중품자기소 소재지로 기록된 물이촌(勿伊村, 혹은 리(里))은 지금의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로 비정되고 있다.

물천리 인접 지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조선 초 가마터가 암곡동요지라는 점과 읍치를 중심으로 한 방위가 일치하는 점, 수습 도편의 품질이 상당히 양호한 점, 가마 운영시기가 문현기록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비록 명문이 있는 도편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곳이 바로 물이촌(리) 자기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운영시기나 출토품의 양상으로 보아 『경상도지리지』단계(1425)



도 18. 화문뚜껑, 경주 암곡동

26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暗谷洞 分청사기요지 발굴조사보고」, 『年報 2001년도』(2002).

의 경주부 공납자기 생산지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 2) 내태리 · 남사리 · 하구리요지<sup>27</sup>

경주시 현곡면의 내태리 · 남사리 · 하구리 일원에서는 명문이 있는 도편들이 수습된 15세기 분청사기 가마터가 여러 기 확인되었다.

내태마을 뒤편에 위치한 내태리요지에서는 인화 · 귀얄기법의 분청사기와 백자, 도기, 갑발, 도침, 가마벽체편 등이 채집되었다. 문양은 삼월문, 육월문, 국화문, 집단소국문, 집단연권문, 승려문 등에 초문, 연주문, 연판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다. 기종은 대접, 접시, 종지, 보(簠, 뚜껑) 등이고, ‘경주(慶州),’ 경주장홍(慶州長興) ‘,’ 공(公) ‘등의 명문이 있는 도편(도19)이 확인되었다. 15세기 전반부터 가마 운영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 운영시기는 15세기 중후반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사저수지 남서쪽에 위치한 남사리요지 채집품에는 회청사기와 상감 · 인화기법의 분청사기, 백자, 갑발 등이 있다. 인화분청사기가 주 생산품인데, 초기형식과 쇠퇴기형식이 병존한다. 문양은 연주문, 국화문, 집단연권문, 승려문, 곡선문 등에 뇌문, 초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다. ‘경○○○고(慶○○○庫)’, ‘~홍고(興庫)’, ‘공(公)’ 등의 명문이 있는 도편(도20)이 확인되었으며, 기종에는 대접, 접시, 종지, 호, 합(뚜껑), 대발, 돈(墩) 등이 있다. 가마운영 시기는 대략 15세기 초반에서 후반까지로 추정된다.

하구리요지는 「세계도자전집 19 –이조–」의 「李朝陶磁窯跡表」에서 경주장홍고(慶州長興庫)명 도편이 채집된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마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태리 · 남사리 · 하구리 등 경주 현곡면 일대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지명(慶州)과 관사명(長興庫)이 결합된 형식의 명문이 새겨진 도편과 갑발 등이 다수 확인된 점과, 현곡(見谷)이라는 지명, 운영시기 등으로 보아 「경상도 속찬지리지」의 현곡리(見谷里) 중품자기소가 있었던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 19. 경주장홍(慶州長興)명 도편, 경주 내태리



도 20. 경~고(慶~庫)명 도편, 경주 남사리

27 香本不苦治 · 鄭良謨 · 尹龍二, 「李朝陶磁窯跡表」, 「世界陶磁全集 19 –李朝–」(小學館, 1980); 강경숙, 「분청사기연구」(일지사, 198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북부지역지표조사보고서」(1997); 심지연, 「경주 서부동 출토 관사명 분청사기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경주시-」(2008).

### 3) 용명리요지<sup>28</sup>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일원에서는 분청사기 요지군 2개소가 확인되었는데, 1호요지군은 논지미 들 동쪽과 동북쪽 일대, 2호요지군은 군수방못 남동쪽 구릉 일대에 각각 위치한다.<sup>29</sup>

1호요지군에서는 초별도편과 인화·귀얄·덤병분청, 도침편, 가마벽체 등이 수습되었는데, 기종은 대접, 접시, 호 등이다. 문양에는 국화문, 집단연권문과 초문, 호접문 등이 있으며, 성진인화기법과 전면인화기법이 함께 확인된다.

채집도편의 특징으로 보아 가마 운영시기는 15~16세기로 조업기간이 매우 길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기의 가마가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1996년 국립경주박물관의 「경주유적지도」 제작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경주부장홍고(慶州府長興庫)’ 명 분청사기편이 채집되어 특히 주목되는 곳이다.

2호요지군에서는 청자(또는 회청사기)와 상감·인화분청, 백자, 도침, 소토, 가마 벽체편 등이 수습되었다. 문양으로는 흑백상감의 연당초문이나 성진인화기법의 소국화문 등과 함께 여의두문, 연판문 등을 시문하였으며, 기종에는 대접, 완, 종지, 전접시, 팔각접시 등이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골프장 조성예정부지 지표조사에서는 ‘사(司)’ 명이 백토상감된 분청사기편이 확인된 바 있다.

채집품의 종류로 보아 가마 운영시기는 15~16세기로 조업기간이 매우 길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체로 15세기 초반의 상감·인화분청이 주 생산품이고, 15세기 말~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백자는 극소량에 불과하여 인근 백자가마 생산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정황상 용명리 일대의 분청사기요지는 조선 초 문헌기록의 경주부 공납자기 생산지로 추정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의 경주부조에 하품, 중품자기소 소재지로 기록된 대곡촌(大谷村, 또는 리里)은 지금의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일원으로 볼 수 있는데, 용명리 일대는 인접한 대곡리와 함께 한실, 대곡으로 지칭되는 큰 골짜기에 속한 지역이고, 명문도편이 채집된 사실 등으로 보아 용명리요지가 바로 기록상의 경주부 대곡촌(리) 하품, 중품자기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사선(司膳)’ 명으로 추정되는 ‘사(司)’ 명도편, 흑백상감 연당초문 도편 등이 채집된 것으로 보아 「경상도지리지」 단계의 경주부 공납자기 생산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경주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건천읍·내남면·외동읍 지역)」(1995) ;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유적지도」(1997)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경주 용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2002) ; 심지연, 앞의 학위논문(2003)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일원 생활체육시설 예정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2004) ; 국립경주박물관, 앞의 책(2008).

29 1호요지군은 기존 연구에서 2개의 가마터로 구분되었으나, 타 지표조사 보고내용(「문화유적분포지도 경주시-」)에 의하면 2개 가마의 중간지점에서도 가마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일대는 동 시기, 또는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기의 가마가 있었던 하나의 요지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합천

지금의 합천군은 조선 초 합천군과 초계군, 삼가현이 있던 지역이다. 조선 초의 초계군은 현재 합천군 동쪽지역인 덕곡면·쌍책면·적중면·청덕면·초계면 일원, 삼가현은 현재 합천군 남쪽 지역인 가회면·대병면·삼가면·쌍백면 일원에 해당한다.

조선 초 지지자료를 살펴보면 『경상도지리지』단계(1425)에는 합천군만 자기공납을 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단계(1454)에는 합천군 수개곡리(樹介谷里)과 삼가현 감한리(甘閑里)에 각각 하품, 중품자기소가 1개소씩 있었으며, 『경상도속찬지리지』단계(1469)에는 합천군 장곡리(獐谷里)과 초계군 동쪽(郡東, 지명기록 없음), 삼가현(甘閑里)에 각각 하품자기소가 1개소씩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지금까지 합천군 관내에서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가회면 장대리, 외사리 각 2개소, 월계리 1개소, 용주면 장전리 3개소로 모두 8개소인데, 발굴 조사된 가마터는 장대리요지가 유일하다.

### 1) 장대리요지<sup>31</sup>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109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합천 장대리요지는 지표조사로 유적의 중요성이 알려진 후 합천군의 유적정비사업에 의해 동서문물연구원에서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7월 29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유구 11기, 조선시대 분청사기 가마 1기(폐기장 2기 포함), 수혈유구 21기, 구상유구 9기가 확인되었다.

가마는 길이 24m, 너비 2.38m 내외의 반지하식 단실요로, 요전부와 연소실, 소성실, 연도부가 확인되었다. 요전부는 곡성 구조리, 칠곡 학하리와 같은 수혈 형태이나, 출입구를 두고 이외 벽면을 할석으로 축조한 독특한 구조이다. 연소실과 소성실 사이 불턱은 1.36m 정도이고, 소성실 측면출입구는 양쪽 각 8개소씩인데, 소성실과 초벌구이간의 경계에는 점토와 할석으로 만든 턱이 있으며, 연도부는 할석을 이용하여 지상 구조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혈유구는 토취장, 성형 및 건조시설 등 가마조업과 관련된 공방지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마와 폐기장, 수혈유구, 구상유구 등에서 분청사기 2,272점, 요도구 78점, 기타유물(어망추 등) 22점 등 총 2,37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분청사기 739점과 요도구 30점, 기타유물 10점 등 총 779점을 분석 보고하였다.

출토품은 대부분 상감·인화기법의 분청사기이나, 도침과 갑발, 불창마개, 갓모, 태토비짐 등의 요도구와 어망추 등도 확인된다. 흑백상감과 백상감, 성긴인화기법과 전면인화기법이 병존하는데, 상감이나 전면인화기법에 비해 성긴인화기법이 다수이다.

주문양으로 초문, 류문, 연화문, 변형당초문, 평행곡선문, 삼각집선문, 중권문, 파상문, 우접

30 『世宗實錄地理志』의 합천군조에는 “磁器所一 在郡西樹介谷里 陶器所一 在郡西于谷里 皆下品”, 삼가현조에는 “磁器所一 在嘉樹縣西甘閑里 中品”으로 기록되었으며, 『慶尚道續撰地理志』의 합천군조에는 “磁器所在郡西獐谷里品下”, 초계군조에는 “陶器所在郡東磁器所品下”, 삼가현조에는 “磁器所在郡西甘閑里品下”로 기록되어 있다.

31 동서문물연구원, 『陝川 將臺里陶窯址』(2012).

(학)문, 변형연당초문(국화문+화문), 육각판문, 국화문, 육원문, 삼원문, 집단소국문, 집단연국문, 집단연권문 등을, 보조문양으로는 초문, 뇌문, 연주문, 사슬문, 여의두문, 연판문, 종단선문, 복사문 등을 함께 시문하였다. 출토기종은 80% 이상이 대접과 접시이나, 병과 호, 종지, 뚜껑, 잔, 발, 합, 벼루, 잔탁, 마상배, 제기, 명기 등도 소량 출토되었다.

또한 ‘사선(司膳)’, ‘경승부(敬承府)’, ‘인수부(仁壽府)’, ‘장홍고(長興庫)’, ‘삼가(三加)’, ‘삼가+인수부(三加+仁壽府)’, ‘장홍고(長興庫)’, ‘대(大)’, ‘보(菩)’, ‘인인인인(仁仁仁仁)’ 등 관사명, 지명을 중심으로 한 다량의 명문분청사기(도21)가 확인되었다.



도 21. 사선(司膳) · 경승부(敬承府) · 삼가(三加)명 도편, 한천 장대리

장대리는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중품자기소,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하품자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 삼가현(1414년 설치) 감한리에 속한 곳이다.

장대리요지 출토품의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해당 가마의 운영시기는 대략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되며, 이곳은 「세종실록지리지」 삼가현조에 기록된 가수현 서쪽 감한리(甘閑里) 중품자기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명문도편에 보이는 각 관청의 존속시기<sup>32</sup>나 출토품의 양상으로 보아 장대리요지가 조선초부터 공납자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지리지」에 삼가현의 자기공납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경상도지리지」(1425) 기록에 삼가현의 항목 자체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태종 14년(1414) 삼가현과 가수현을 병합하여 새로 만들어진 삼가현에 대한 내용이 조사 및 취합과정에서 오류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2) 외사리요지

장대리와 마찬가지로 조선 초 삼가현 감한리에 속해 있던 가회면 외사리에서도 분청사기요지 2개소가 확인되었다.

32 사선서는 1392~1425년, 경승부는 1402~1418년, 인수부는 1400년 2~11월, 1418~1455년, 1457~1464년, 장홍고는 1308~1894년으로 존속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외사리 37-1번지에 위치한 1호요지에서는 분청사기와 회청사기, 백자, 갑발, 도침 등이 채집되었다. 시문기법으로는 선상감과 면상감기법, 음각기법도 쓰였지만, 주로 조밀한 전면인화기법이 사용되었다. 문양에는 집단연관문, 승려문, 모란엽문, 초문, 사슬문, 국화문, 당초문 등이 있으며, 기종은 대접, 접시, 호, 뚜껑, 장군, 매병, 동이, 이배, 고족배, 갓모, 보(籃), 작(爵) 등이다.

‘삼가(三加)’, ‘인(仁)’, ‘고(庫)’, ‘사선(司膳)’ 등 명문이 있는 분청사기도편이 여러 점 확인되어 특히 주목되며, 채집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중후반경으로 추정된다.<sup>33</sup>

내사마을 입구 좌측 구릉에 위치하는 2호요지에서는 분청사기와 회청사기, 백자, 갑발뚜껑, 도침 등이 채집되었다. 면상감기법과 쇠퇴기의 인화기법, 귀얄기법 등으로 모란문, 승려문 등을 시문하였으며, 기종은 대접, 접시, 호, 병 등이다.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로 추정되며, 「경상도속찬지리지」<sup>34</sup>(1469)의 삼가현 서쪽 감한리 하품자기소로 추정된다.

## 6. 창원

지금의 창원시는 조선 초 창원도호부(창원부)와 응천현(문종2년(1452) 응신현, 완포현, 천읍부곡을 통합하여 김해도호부에서 분리, 독립현으로 설치), 진해현이 있던 곳이다. 조선 초의 응천현은 현재 창원시 남동쪽인 진해구 일원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동, 조선 초의 진해현은 현재 창원시 남서쪽인 마산합포구 진동면·진북면·진전면(남쪽) 일원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창원시 관내에서 확인, 발굴조사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두동 응천요지가 유일하다.

### 1) 두동 응천요지 (진해 응천도요지)<sup>34</sup>. 경상남도 기념물 제160호 (도22~24)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142 · 146 · 147번지(구 진해시 웅동면 두동리 147 외) 일원에 위치한 창원 두동 응천요지는 일본에서 명품 찻사발로 일컬어져 온 이도다완[井戸茶碗]의 생산지로 추정되어 일제강점기부터 심각한 도굴피해를 입어온 유적으로, ‘진해 응천도요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진해시가 해당유적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 학술조사를 의뢰함으로써 2001년에는 시굴조사, 2002년 6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반지하식 등요 6기와 폐기물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가마는 각각 2기씩 중첩되어 있는

33. 흑상감 사선(司膳)명 도편이 확인된 점에서 상한을 15세기 초까지 옮겨볼 수도 있으나, 이것은 합천지역 개인수습품으로 타 요지 생활용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4. 국립경주박물관·경상남도 하동군, 「경남지역 도요지 조사보고 하동군을 중심으로-」(1985);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鎮海 熊川 磁器窯址 I -진해시 웅동면 두동리 응천 자기요지 시굴조사 약보고서-」(200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鎮海 熊川 陶窯址 II」(2004); 이태훈, 「熊川陶窯址와 水崎遺跡에서 본 朝日 交流」, 「한일관계사연구」 48(2014).



도 22. 인화귀얄문합, 창원 두동 응천



도 23. 귀얄문진, 창원 두동 응천

보고된 유물이 전체의 85.5%에 달한다. 선별 보고된 유물은 회청사기(약 33%)와 귀얄분청사기(약 25%), 문양 위에 귀얄 시분한 쇠퇴기의 상감·인화분청사기류(약 14%) 등 분청계통이 대부분인데, 백자의 출토량(약 25%)도 상당하다.

소량의 흑유자와 옹기, 단독국화문을 시문한 ‘홍(興)’ 명인화분청 1점도 확인되었으나, 모두 교란층에 포함되어 채집유물로 분류된 것으로 해당가마 생산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홍(興)’ 명 외에도 ‘상(上)’ 명상감귀얄분청 1점, ‘천(天)’ 명음각회청사기 2점 등의 명문자기가 출토된 바 있다.

한편, 태토성분을 기준으로 분장백자라는 명칭으로 분류된 종류가 소량 있으나, 제작수법은 인화, 귀얄분청과 동일한 예가 많아 새로운 명칭부여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의 기종은 대접, 접시, 종지, 잔 등의 대중적 반상용기뿐 아니라 보·궤·준·삼족기 등의 계기와 마상배, 이배, 뚜껑, 주구발, 대반, 동이, 병, 호, 벼루, 연적, 합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요도구는 대부분 원통형 도침이고, 갑발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마의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중반까지로 추정된다.

창원도호부는 「경상도지리지」 단계(1425)에 자기공납을 했고, 「세종실록지리지」 단계(1454), 「경상도속찬지리지」 단계(1469)에는 부 북쪽 산북촌리(山北村里)와 구질포리(仇叱浦里)에 각각 하품자기소 1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데 모두 도굴 등으로 크게 훼손된 상태이며, 연도 부까지 남아있는 가마는 2호가마가 유일하다.

가마의 잔존길이는 6.55~24.5m, 너비는 1.05~1.55m, 불턱높이는 0.66~0.95m이며, 대체로 2~3차례 걸쳐 개보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1·4호가마의 2차가마 소성부 중앙에서는 지름 48, 24cm의 원형 소토흔이 1개소씩 확인됨으로써 불기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4호가마에 접한 2개의 트렌치에서 확인된 폐기물 퇴적층도 교란이 심하여 충위에 따른 유물의 변화양상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유물의 수량은 모두 591점인데, 그중 도굴로 인한 교란층에 포함되어 지표채집으로 분류



도 24. 귀얄문호, 창원 두동 응천

그러나 두동 응천요지의 경우 가마 운영 당시 응천현에 속해 있어 이러한 창원도호부의 공납자기 생산과는 무관하며, 삼포 개항 시기 최대 규모였던 제포에 거주, 또는 왕래하는 일본인들에게 생산품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7. 김해

지금의 김해시는 조선 초 김해도호부가 있던 곳이다. 1906년 창원군에 편입된 대산면이나 1978·1989년 부산시에 편입된 대저읍, 명지면, 가라면, 녹산면과 같이 본래 김해 소속이다가 일부 인접 시군에 병합된 지역들이 있으므로, 조선 초 김해도호부에 비해 영역이 다소 축소되었다.

지금까지 김해시 관내에서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상동면 대감리, 묵방리 각 1개소, 내동 1개소로 모두 3개소인데, 발굴 조사된 가마터는 대감리요지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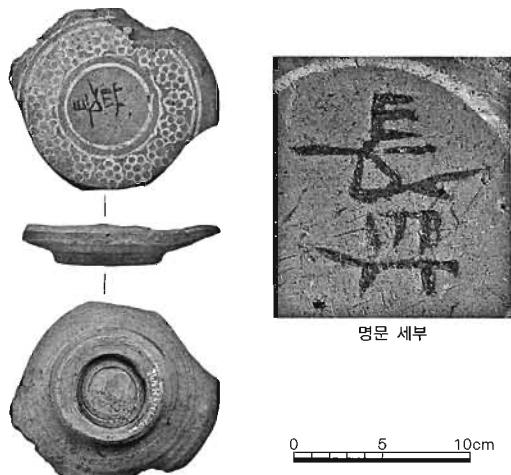
### 1) 대감리요지<sup>35</sup>, 경상남도 기념물 제288호 (도25~27)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503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김해 대감리요지는 분청사기 본 고장임을 표방해온 김해시가 학술적 근거 마련 및 유적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2016년 6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분청사기 가마 1기와 폐기장 3개소가 확인되었는데, 하부에 삼국 시대 분묘 2기가 함께 조사되어 시기를 달리하는 2개의 문화층이 중첩된 유적임을 알 수 있다.

가마는 반지하식 등요로, 조사구역 내에서는 초별칸과 소성실 일부만 조사되었으며, 남서쪽으로 나머지 소성실과 연소실, 회구부 등이 잔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초별칸과 소성실 경계에 불턱이 있고, 여러 차례 점토를 덧발라 보수하였으며, 가마의 잔존길이는 7.94m, 최대너비는 2.52m이다.

출토유물은 1점을 제외한 전량이 폐기장에서 출토되었는데, 분청사기 3,122점, 백자 174점, 요도구 297점, 기와 1점으로, 총 3,594점에 달한다.



도 25. 장흥(長興)명도편, 김해 대감리

35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2016); 김해시, 「김해 장군차서식지 및 분청사기 가마터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2017).

주 생산품인 분청사기는 상감·인화·인화귀얄·귀얄기법 등 경상도지역 분청사기의 태동기부터 쇠퇴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시문수법들이 모두 확인되는데, 특히 1호 폐기장의 퇴적층 층위조사를 통해 이러한 시기별 변화양상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출토품의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거의 대부분이나, 잔·종지, 호, 병, 대반, 개, 제기, 고족배, 벼루, 장군 등도 소량 출토되었는데, 병의 출토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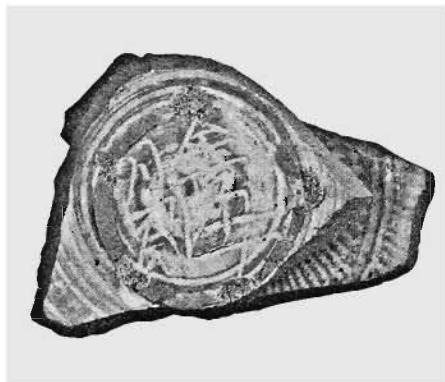
‘사선(司膳)’, ‘장(長)’, ‘장홍(長興)’, ‘장(長)·용(用)’, ‘김해(金海)’, ‘김(金)’, ‘해(海)’, ‘김해(金海)·장(長)·홍(興)·용(用)’, ‘김해(金海)·장(長)·홍(興)’, ‘김(金)·용(用)’, ‘김해(金海)·장(長)·장(長)’, ‘김해내자(金海內資)’, ‘예빈(礼賓)’, ‘양산장홍고(梁山長興庫)’, ‘공(公)’ 등의 명문이 있는 분청사기 24점이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는데, 그 외에 사전 지표조사에서도 ‘사선(司膳)’, ‘공수(公須)’, ‘김해(金海)’, ‘김해예빈(金海礼賓)’ 등의 명문 분청사기가 확인된 바 있다. 명문의 성격은 사선, 장홍 등 관사명이 단독으로 새겨진 것, 김해라는 지명과 장홍, 내자, 예빈 등의 관사명이 결합된 것, 양산이라는 지명과 장홍고라는 관사명이 결합된 것, ‘공(公)’ 등 공공기물임을 나타내는 것, ‘공수(公須)’와 같은 지방관청명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경상도지리지』(1425) 김해도호부조에는 자기가 토산공물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1454)와 『경상도속찬지리지』(1469)의 김해도호부조에도 각각 ‘자기소일 재무동감물야 촌 품하(磁器所一 在部(府)東甘勿也村 品下)’, ‘자기소 재부동감물야 품하(磁器所 在府東甘勿也品下)’라 하여 부 동쪽 감물야(촌)에 하품자기소 1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출토된 다량의 명문분청사기, 가마터의 위치, 출토품의 양식적 특징과 문헌기록 등을 종합하여 해볼 때 대감리요지는 경상도지리지 단계의 김해도호부 공납자기 생산지이자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단계의 김해도호부 감물야(촌) 하품자기소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마 운영시기는 14세기 말부터 15세기 말까지로 추정된다.



도 26. 김해(金海)명도편, 김해 대감리



도 27. 김해내자(金海內資)명도편, 김해 대감리

## 8. 울산<sup>36</sup>

울산광역시는 조선 초 울산군과 언양현, 경주부 일부가 있던 지역이다. 울산광역시 서북쪽의 두서면·두동면은 조선 초 경주부에 속하였고, 서쪽의 상북면·언양읍·삼남면·삼동면은 조선 초 언양현에 해당한다.

한편, 본래 기장현의 북3면, 즉 상북면·하북면·중북면에 해당하던 기장군 장안읍·정관읍 일대와 일광면 동북쪽 일부는 고려 현종9년(1018), 또는 조선 세종7년(1425)부터 중종25년(1530) 경까지 울산군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후 기장현과 울산군으로 그 소속의 변동이 잦았으며, 현재는 기장군의 일부로 부산시에 편입된 상태이다.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고지평 1개소, 천전리 서당 1개소, 언양읍 직동리 1개소, 태기리 1개소, 반연리 토골 1개소, 상북면 이천리 1개소, 삼동면 하Jam리 1개소, 둔기리 1개소, 온양읍 삼광리 1개소, 남구 선암동 1개소로, 총 10개소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초 울산군에 속했던 지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서 4개소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므로 지금까지 파악되는 조선 초 울산군의 자기요지는 총 14개소라고 할 수 있다. 그중 발굴 조사된 가마터는 천전리 고지평요지와 직동리요지, 부산 상장안요지, 부산 하장안요지의 4개소인데, 상장안요지와 하장안요지는 부산지역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발굴조사 유적과 지표조사 유적 중 많은 명문분청이 채집되어 주목된 하Jam리요지, 태기리요지 등 울산지역의 주요 분청사기 가마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고지평요지 (도28)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49번지에 있는 울산 고지평요지는 울산권 광역상수원 확보를 위해 건설된 대곡댐 수몰지구 2차 발굴조사 구역에 포함되어 2001년 8월 6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천전리유적, 방리유적과 함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잔존길이 21.6m, 최대너비 1.72m, 잔존높이 0.34m, 불턱높이 약 1m의 지하식 등요 1기와 폐기장, 수혈유구, 석축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인화분청과 회청사기가 거의 대부분이며, 중권문 등을 시문한 상감분청이나 덤벙분청 등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화분청은 대체로 집단소국문, 집단연국문(간혹 집단연권문, 파상문)을 주문양으로 조밀하게 시문한 것이 가장 많으나, 육각판문 등을 성글게 시문하거나 1줄의 문양대를 내측면에 간략하게 시문한 초기 인화문 형식도 있다.

3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울산권 광역상수도(대곡댐)사업 편입부지 내 2차 발굴조사 -蔚山 高旨坪遺蹟(Ⅲ)」(2004) ;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蔚州 盤谷里 遺蹟 - 경부고속철도 울산구간(제1차)내 유적」(2006) ; 위덕대박물관·울산대박물관, 「울산 「언양자기소」 지표조사 보고 - 울주군 삼동면 하Jam리 도요지」(2000) ;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특히 ‘경주(부)장흥고(慶州(府)長興庫)’(66점), ‘계사(癸巳)’(1점), ‘용(龍)’(1점), ‘최상방(崔上方)’(좌(左)?, 1점) 등 명문이 새겨진 인화분청이 다량 출토되어 주목받았는데, ‘경주부장흥고(慶州府長興庫)’ 계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종은 대접, 접시를 중심으로 잔, 잔탁, 소발, 개합, 마상배, 소호, 병, 파수부완 등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15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가마로 추정된다. 여러 가지 정황상 「경상도속찬지리지」 단계(1469)의 경주부 비이리(非伊里) 중품자기소였을 가능성성이 매우 높은 유적이다.



도 28. 경주부장흥고(慶州府長興庫)명접시, 울산 천전리 고지평

## 2) 직동리요지(도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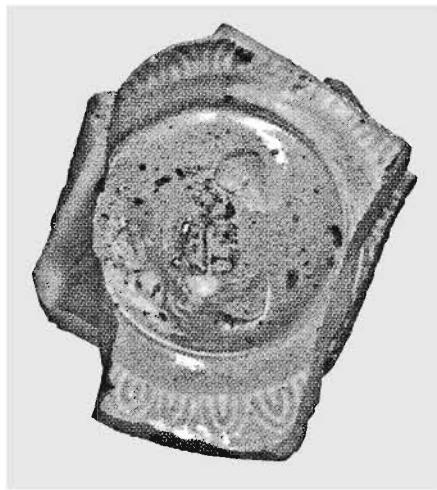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산72-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 직동리요지는 경부고속철도 울산구간 내에 포함되어 2004년 1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에 의해 발굴조사된 반곡리 유적 Ⅲ지구에서 확인되었다.

Ⅲ지구에서는 가마 1기와 폐기장, 조선시대 민묘 5기가 조사되었는데, 가마는 잔존길이 16.25m, 너비 1.8m, 불터높이 1.04m의 지상식 등요로, 소성실 일부와 연도부가 훼손, 유실되었다. 연소실은 원형, 소성실은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고, 초벌구이칸(7소성실)은 있으나 불기등이나 격벽, 단 등 소성실 내부 칸 구분 시설은 나타나지 않는다.

출토품은 모두 111점으로, 도침 12점, 어망추 3점을 제외한 96점의 도편은 상감·인화기법의

분청사기이다. 상감기법으로는 연당초문과 초화문, 유문, 명행곡선문, 인화기법으로는 삼원문, 육원문, 국화문, 파상문 등을 주문양으로 시문하였고, 초문, 여의두문, 연판문, 국화문, 연주문, 사슬문, 뇌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다. 기종은 대접(60점), 접시(27점)가 대부분이며, 병(6점)과 호(1점), 뚜껑(1점), 종지(1점) 등이 극소량 출토되었다.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로 추정되며, ‘사선(司膳)’, ‘선(膳)’, ‘일(日)’ 또는 ‘왈(曰)’ 등 명문이 새겨진 도편이 출토되어 「경상도지리지」 단계(1425)의 언양현 공납자기 생산지 중 하나로 생각된다.



도 29. 사선(司膳)명도편, 울산 직동리

### 3) 하점리요지 (도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점리 8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 하점리요지는 2000년 위덕대학교박물관·울산대학교박물관의 공동 지표조사로 구체적 성격이 알려지게 된 유적이다.

채집품에는 분청사기와 회청사기, 청자, 백자, 갑발, 도침, 갓모, 봇극, 어망추 등이 있으며, 기종은 대접, 접시, 종지, 고족배, 합, 뚜껑, 병, 호, 동이, 벼루 등이다. 상감(흑백상감, 면상감 포함)·인화·귀얄·음각 등의 수법으로, 물결문, 변형연당초문(연화문+연주문), 당초문, 모란엽문, 육원문, 집단소국문, 파상문, 집단연권문, 승려문, 초문, 국화문, 연판문, 연주문, 호접문, 여의두문 등의 문양을 시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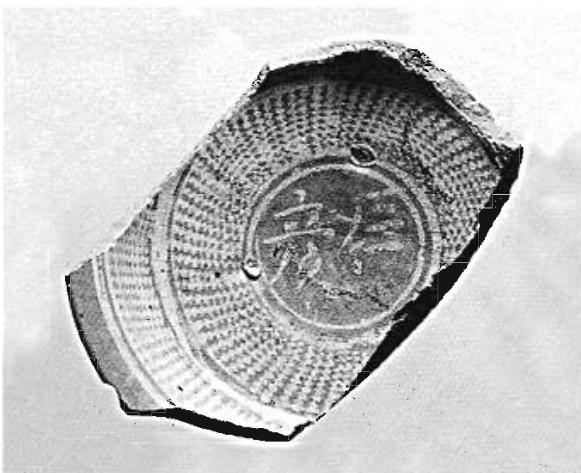
채집된 유물은 대략 15세기 초반부터 16세기까지로 편년되며,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기의 가마가 모여 있는 가마군으로 추정된다. ‘언양인수(彦陽仁壽)’, ‘언양언양(彦陽彦陽)’, ‘○수부(○壽府)’, ‘○수(?)부(○壽(?)府)’, ‘언양공(인)수(彦陽公(仁)壽)’, ‘언인(彦仁)’, ‘언○(彦○)’, ‘순(順)’, ‘○세(?)○(世(?))’, ‘예(禮)’, ‘장홍(長興)’, ‘○(언?)양○홍(○(彦?)陽○興)’, ‘수영(水營)’, ‘오월(五月)’, ‘천(天)’, ‘상(上)’, ‘대(?)○(大(?))’, ‘십(+)’ 등 명문도편이 다수 확인되어 주목되었다.

조선 초 언양현에 속한 곳으로, 「경상도지리지」단계(1425)의 언양현 공납자기 생산지 중 하나 이자 「세종실록지리지」단계(1454)와 「경상도속찬지리지」단계(1469)의 언양현 남쪽 대토리(大吐里) 하품, 중품자기소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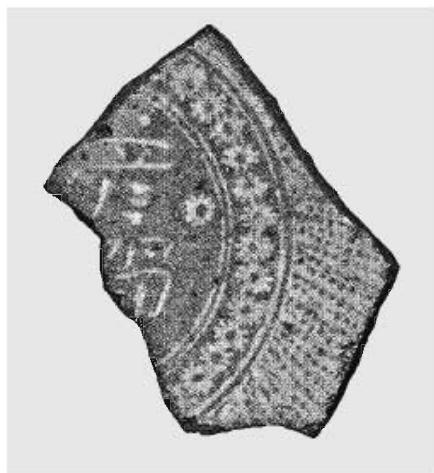
### 4) 태기리요지 (도31)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241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울산 태기리요지는 하점리요지와 마찬가지로 2000년 위덕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로 알려진 가마터이다.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 갑발 등이 채집되었는데, 음각(청자), 상감(흑백상감, 면상감 포함), 인



도 30. 언인(彦仁)명종지, 울산 하점리



도 31. 언암(彦隱)명도편, 울산 태기리

화기법 등의 시문수법으로 연판문, 모란문, 연당초문, 삼원문, 국화문, 집단연권문, 파상문, 우점문, 연주문, 여의두문 등의 문양을 시문하였다. 인화분청의 경우 초기의 성긴인화기법부터 전성기의 전면인화기법, 쇠퇴기의 귀얄인화기법 등이 모두 확인된다.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4세기 말부터 15세기 말까지로 추정되며,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기의 가마가 모여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선(司膳)’, ‘내섬(?) (內膳(?))’, ‘언양장홍(彦陽長興)’, ‘언양장(彦陽長)’, ‘언양인수(彦陽仁壽)’, ‘언양(彦陽)’, ‘경주○홍(慶州○興)’, ‘경(慶)’, ‘촌(寸)(수(壽)?)’, ‘수(壽)’, ‘장홍(長興)’, ‘…오자등(五子登)…’과 같은 명문이 있는 도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조선 초 언양현에 속한 곳으로 「경상도지리지』단계(1425)의 언양현 공납자기 생산지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경상도속찬지리지』단계(1469)에는 언양현 내 용곡리(龜谷里) 중품자기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9. 양산<sup>37</sup>

지금의 양산시는 조선 초 양산군이 있던 지역인데, 1906년 본래 울산군에 속해 있던 웅상면이 편입되어 조선 초 보다는 그 영역이 조금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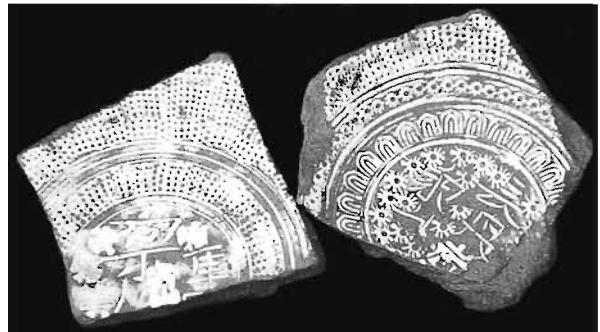
지금까지 양산지역에서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동면 가산리 3개소, 석산리 1개소, 원동면 화제리 2개소, 주남동 1개소로 총 7개소이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가마터는 없으나, 가산산업단지 조성부지에 포함된 가산리 상리요지의 발굴 조사가 2019년경 실시될 예정이다.

### 1) 가산리요지 (도32)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는 호포 새마을 인근(64~1번지)의 호포 1호요지와 기산저수지 남쪽(산105번지)의 호포 2호요지, 상리마을 인근(217~219번지)의 상리요지 등 총 3개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다.

호포 1호요지는 일제강점기 아시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에 의해 처음 조사되어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 제196호로 지정되어 있는 유적으로, 1996년 양산문화원 주도로 시굴적 성격의 조사가 실



도 32. 양산장홍고(梁山長興庫)명도편, 양산 가산리 호포1호

37 淺川伯教, 「李朝陶磁窯跡一覽表」, 『世界陶磁全集』14(河出書房, 1956); 정징원, 「경남지방 도자기의 연구—도요지 및 그 출토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8); 香本不苦治·鄭良謨, 尹龍二, 「李朝陶磁窯跡表」, 『世界陶磁全集 19 -李朝-』(小學館, 1980); 양산문화원, 「양산 문화유적 조사보고서」(1996); 신용철, 「양산지역의 도자문화와 성격」, 「양산의 역사와 문화」(통도사성보박물관, 2002); 양산시립박물관, 「양산 도자기의 궤적」(2016).

시되어 상감 · 인화기법의 분청사기와 회청사기, 갑발, 도침 등이 수습되었다.

수습도편의 문양에는 초화문, 중권문, 파상문, 삼각집선문, 방형기하문, 물결문, 집단소국문, 집단연국문, 집단연권문, 초문, 국화문, 사슬문, 연판문, 호접문 등이 있는데, 상감기법에는 백상감과 흑백상감이 병용되었고, 인화기법은 조밀한 전면인화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양산장흥고(梁山長興庫)’, ‘양산○○고(梁○○庫)’, ‘장장○고고고(長長○庫庫庫)’, ‘장(長)’, ‘양산(梁山)’(아사카와 노리타카, 신한균 수습) 등의 명문이 있는 도편들이 채집되었으며, 확인된 기종은 대접, 접시, 종지, 병, 호, 준(尊), 보(簠) 등이다.

대략 15세기 전중반을 중심으로 가마 운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세종실록지리지』단계(1454)의 양산군 금음산리(今音山里) 중품자기소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유적이다.

호포 2호요지는 「문화유적분포지도-양산시-」(2004년) 간행을 위한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가마터이다. 가마벽체나 요도구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초벌구이편과 인화 · 귀얄기법의 분청사기, 백자 등이 수습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출토품의 종류로 보아 대체로 15세기 후반경 운영되었던 가마로 생각된다.

상리요지는 코우모토 후쿠지[香本不苦治] · 정양모 · 윤용이의 「李朝陶磁窯跡表」(1980, 「世界陶磁全集 19 朝鮮-」)를 통해 알려지게 된 가마터이다. 채집품에는 인화 · 귀얄기법의 분청사기와 갑발, 도침 등이 있다. 문양은 와선문, 중권문, 집단연권문, 파상문, 승려문, 국화문 등이며, 귀얄분청이나 문양 위에 귀얄문을 더한 쇠퇴기의 분청사기가 다수이나, 전성기의 인화분청도 확인된다. 대체로 15세기 중후반경 운영되었던 가마로 생각된다.

## 2) 화제리요지 (도33)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에는 지나마을(산279번지)과 사기들(540번지)이라는 2개 지역에서 분청사기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지나마을요지에서는 상감 · 인화기법의 분청사기와 회청사기, 도침 등이 채집되었다. 흑백상감으로 시문한 예가 많으며, 인화분청의 경우는 성글게 시문하는 초기형식에 해당된다.

문양은 류문, 연당초문, 변형당초문, 봉황문, 변형운학문(구원문+학문), 파도문, 우접문, 육원문, 화판문, 연주문, 여의두문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나, 기종은 대접, 접시와 같은 반상기류만 확인되었다. 판독이 어려운 흑상감 명문도편이 2점 수습되었는데, 그 중 1점은 장흥(長興)으로 추정된 바 있다.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까지로 추정되며, 「경상도지리지』단계(1425)의 양산군 공납자기 생산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33. 장흥(?) (長興(?)) 명접시, 양산 화제리 지나마을

사기들요지에서는 귀얄분청사기와 극소량의 백자가 채집되었다. 확인되는 기종은 대접, 접시, 종지 등 반상기류이며, 태토비침을 받쳐 포개구이하였는데, 백자의 경우는 비침 크기가 작고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는 등 이 가마터의 주 생산품인 귀얄분청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말에서 16세기까지로 추정된다.

## 10. 부산

부산광역시는 조선 초 동래현과 속현인 동평현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당시 기장현·울산군·양산군·김해도호부·옹천현 등 인접한 고을에 속해있던 일부 지역들이 편입되어 그 영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부산시 동북쪽의 기장군은 조선 초 기장현에 해당하나, 북쪽 장안읍·정관읍 일대와 일광면 동북쪽 일부는 울산군에 속해 있었다. 만덕동을 제외한 북구 대부분과 강서구의 대저동은 양산군, 가덕도동과 대저동을 제외한 강서구 대부분(강동·명지·가락·녹산·미음 등)은 김해도호부, 가덕도동은 옹천현에 각각 속한 지역이었다.

지금까지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명례리·오리 대통·오리 신리 각 1개소, 금정구 남산동 1개소, 동래구 온천동 1개소로, 총 6개소인데, 그중 발굴조사된 곳은 기장 상장안요지와 하장안요지 2개소이다.

### 1) 상장안요지<sup>38</sup> (도3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산48-1번지 일원의 부산 상장안요지는 도예촌 조성을 위한 기장군 청의 학술조사 의뢰에 따라 부산박물관에 의해 2009년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발굴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 가마 1기와 굴립주건물지 1동, 수혈 2기 등이 확인되었다.

가마는 연소부~연도부의 잔존길이 25.5m, 최대너비 2.2m의 반지하식 등요로, 연소실과 소성실 사이 1.25m의 높은 불터이 존재한다. 내부에 벽을 축조하여 가마 폭을 좁히는 방향으로 총 3차례의 개축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며, 9칸의 소성실 중 2칸은 초벌칸으로 추정된다. 초벌칸 서쪽에 인접한 2열 8주의 굴립주건물지는 제품의 건조·저장 등 가마운영 관련 부속 시설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성부 동쪽 사면의 폐기장 퇴적층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소량의 귀얄분청사기와 백자, 회청사기, 극소량의 덤벙분청사기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쇠퇴기의 인화분청사기이다. 대략적인 출토비율은 인화분청 65.5%, 귀얄분청 14.7%, 덤벙분청사기 1%, 회청사기 5.5%, 백자 13.3%이다.

38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기장군, 「機張 上長安遺蹟」(2011); 성현주, 「기장지역 가마터 출토 자기의 현황과 특징」, 「기장도자기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16).

기종은 주로 대접·접시·발·합·종지·항아리·병·뚜껑·주자 등 생활용 기류이며, 대접·접시류의 개체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보·회준·고족배·향완·양이잔·적접(炙楪)·귀대접[匱], 염주, 공이, 그물추, 벼루, 장구와 같은 의례·신앙·조리·어로도구, 문방구, 악기 등도 확인되어 상당히 다양한 기종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갓모·봇극, 굽칼, 굽대 등의 성형도구나 도지미, 갑발, 불구멍마개 등 요도구도 공반되었다.

인화분청 대접·접시 중심으로 문양구성을 살펴보면, 파상문·집단연권문·승령문 등을 주문양으로, 초문·연판문·국화문·연권문·호접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쇠퇴기의 인화분청에 해당한다.

다수의 명문분청사기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울산인수부(蔚山仁壽府)’ (13점),

‘울산장홍고(蔚山長興庫)’ (4점)명 계통이며, ‘경주장홍고(慶州長興庫)’, ‘울산(蔚山)’, ‘경부제(耕負祭)’, ‘관중대시(官中大是(匙?))’, ‘대(大)’ 명은 각각 1점씩 확인된다. 대부분 인화분청에 해당되는데, ‘경부제(耕負祭)’ 명귀얄문접시와 같은 예외적인 형식도 있으며, ‘경주장홍고(慶州長興庫)’ 명 대접과 같이 상장안요지 출토품과 명문내용, 문양 등이 부합하지 않는 타 가마 생산품도 있다.

출토 명문분청사기의 내용과 문헌기록, 기장현의 타군 이속상황, 출토품의 종류와 양식 등을 모두 종합하여 해당유적은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울산군조에 기록된 ‘장안리(長安里)’ 하품자기소로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산군 자기소로 북쪽 제여답리(齊餘沓里) 하품자기소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상장안요지가 울산군 자기소로 기능하게 된 것은 1454~1469년 사이로 추정되며,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중후반경으로 판단된다.

## 2) 하장안요지<sup>39</sup> (도35)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149-5번지에 위치한 부산 하장안요지는 명례일반산업단



도 34. 명문분청사기류, 부산 상장안

39 부산박물관·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주), 「機張 下長安遺蹟 – 본문·도판」(2013); 성현주, 앞의 논문(2016).

지 조성 부지에 포함되어 2010년 11월 2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부산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다.

1~4지구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중심 영역인 1·2지구에서는 5기의 가마유구가 지면식건물지 22동, 수혈주거지 31동, 훈증시설 1기, 사토장, 목관묘 등과 함께 조사되었으며, 해당유적은 가마와 공방시설, 생산 종사자들의 주거공간이 대규모로 밀집된 복합적 성격의 유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마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성과와 각 유구의 중복관계를 통해서 볼 때 대체로 5

호가마→4호가마→2·3호가마→1호가마 순으로 조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sup>40</sup> 훈증시설은 내부에 고래를 설치하고 구들을 얹은 형태로 구조상 온돌과 동일한 자기건조시설로 생각된다.

출토품은 크게 분청사기와 백자, 옹기로 나뉘는데, 분청사기의 출토량이 가장 많으나 백자도 상장안요지에 비해 출토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분청사기의 경우 극소량의 쇠퇴기 인화분청도 출토되었으나 대부분 조질 귀얄분청이고, 백자의 경우 연질 : 경질 비율이 약 3:1.1로 확인된다.

기종은 주로 대접·접시 중심이나 대발·종지·잔·뚜껑·대부완·병·항아리·주자·보·염주·향완·벼루·어망추 등도 소량 출토된 바 있으며, 갓모·봇극·굽대·갑발·도침 등 요도구도 공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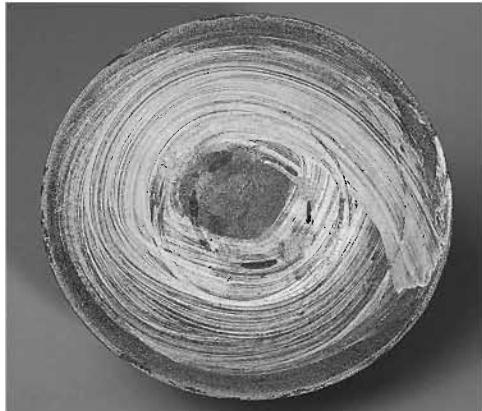
‘~산(山)’, ‘~수부(壽府)’, ‘천(天)’, ‘~도도두~라랴려려로료루~’ 명과, 분명치는 않으나 ‘울산인(蔚山仁)~’ 추정 명문이 새겨진 도편 등 소량의 명문 분청사기도 출토되었다. ‘~도도두~라랴려려로료루~’ 명도편은 광주 충효동요지 출토 ‘어존’ 명도편, 고령 사부리요지 출토 ‘소’ 명도편에 이어 발견된 보기 드문 한글명문 분청사기이다.

한편, 울산, 인수부 등 지명, 관사명이 새겨진 명문분청사기의 출토사실, 해당유적도 상장안요지와 마찬가지로 15세기 후반 장안리 고개에 있었던 가마터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하장안요지도 「경상도속찬지리지」 기록상의 울산자기소 범위 내에 포함되었던 가마터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하장안요지에서는 백자를 공납자기로 더 많이 생산하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가마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 11. 충북 영동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군은 조선 초 충청도 영동현과 황간현이 있던 지역이다.



도 35. 분청사기귀얄문대접, 부산 하장인

40 홍보식·최견미, 「기장 하장안유적의 분청사기 생산시스템 검토」, 『기장 장안인의 옛 흔적』(2013), pp. 305~310, p. 313 참조.

그런데 영동군 동쪽 끝에 위치한 추풍령면(구 황금면)의 경우는 충청도 황간현, 경상도 김산군, 경상도 상주목의 일부지역이 병합되어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므로, 같은 추풍령면 내에서도 마을에 따라 조선 초에 속해있던 행정구역이 달라 분청사기 가마터의 성격 규명 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충청북도 영동군의 분청사기 요지 중 조선 초 경상도지역에 속했던 곳은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2002~2003년 발굴조사한 영동 사부리요지로 볼 수 있다.

### 1) 사부리요지<sup>41</sup> (도36)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615번지 일원의 영동 사부리요지는 가마 운영당시 경상도 상주목 김산군에 속해 있었던 곳이므로 경상도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에 포함하였다.

고속국도 제1호선(경부고속도로) 김천-영동간 확장공사구간에 포함되어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3년 5월 15일까지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는데, 조사결과 가마 1기(1호가마)와 도편폐기장(1호, 2호가마), 소성유구 4기 등이 확인되었다. 아궁이부분만 지하에 있는 지상식 등요로 판단되는 가마는 번조실 대부분과 연도부가 파괴 유실되었으며, 2개가 연접한 모양의 아궁이 형태와 아궁이 바닥에 암거시설이 확인된 점 등이 특징적이다. 가마의 잔존길이는 15m, 최대너비 1.6m, 잔존 불턱높이는 약 0.5m이다. 아궁이만 잔존하는 소성유구는 가마와 관련된 작업시설의 일부로 추측된다.

출토유물의 종류는 상감·인화·귀얄분청사기와 회청사기, 백자, 도기 등인데, 귀얄분청사기와 백자는 2호 가마터(폐기장)에서만 소량 확인되었다. 경상도지역에서는 드문 면상감기법이 보이고 있는 점과 백토분장 없이 문양을 익각한 음각회청사기류의 출토 등이 주목된다.

문양의 종류를 살펴보면 상감기법으로는 중권문, (연)초화문, 기하문, 연속울자문, 연화문, 모란당초문(면상감), 인화기법으로는 육원문, 국화문, 우점문, 승려문, 집단연국문, 집단소국문 집단연권문 등을 주문양으로 시문하였고, 초문, 뇌문, 연판문, 국화문, 연주문, 여의두문, 호접문, 모란문, 삼각집선문 등을 보조문양으로 시문하였다. 대체로 상감분청에는 중권문, 인화분청에는 조밀한 집단연국문의 시문이 가장 두드러지나, 1호 가마터를 중심으로 국화문 또는 육원문을 성글게 인화하거나 변형연당초문을 상감시문한 초기 분청의 예들이 소량 보이고 있다.

출토기종은 대접과 접시를 중심으로 완, 마상배, 호, 병, 장군, 뚜껑, 주구완, 제기 등이고, 갑발, 도침 등의 요도구도 공반된다.

‘금산인수부(납)(金山仁壽府(納))’, ‘금산장홍고(납)(金山長興庫(納))’ 계통의 명문분청사기가 30여 점 출토됨으로써 해당유적은 「세종실록지리지」 단계(1454)의 김산군 황금소보현리(黃金所普賢里) 중품자기소였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41 중앙문화재연구원, 「永同 沙夫里·老斤里 陶窯址」(2003); 성현주, 「경상도지역 명문분청사기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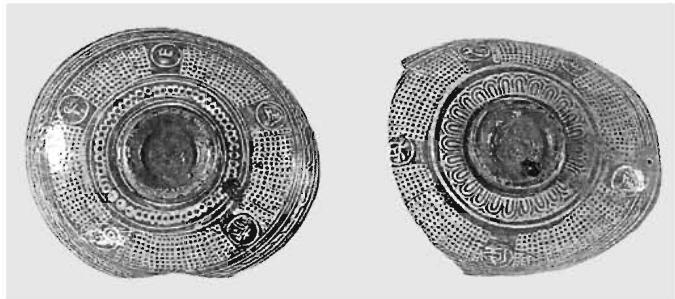
가마의 운영 시기는 대략 15세기 전반부터 중반 전후까지로 볼 수 있으며, 1호가마가 2호가마보다 약간 앞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 12. 의성

지금의 경상북도 의성군은 조선 초 의성현과 비안현, 다인현, 단밀현이 있던 지역이다.

의성군 서북쪽의 다인면은 조선 초 예천군의 속현인 다인현, 서남쪽 끝단의 단밀면 · 단북면은 상주목의 속현이었던 단밀현, 서남쪽의 구천면 · 비안면 · 안계면은 비안현에 각각 해당한다.

지금까지 의성지역에서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봉양면 사부리, 안평리 각 1개소, 안평면 신안리 1개소로, 총 3개소인데, 그중 발굴 조사된 곳은 봉양면 사부리요지뿐이다.



도 36. 금산인수부(金山仁壽府) · 금신장총고(金山長興庫)명대접, 충북 영동 사부리



도 37. 출토유물 각종, 의성 사부리

### 1) 사부리요지<sup>42</sup> (도37)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680번지 일원의 의성 사부리요지는 의성 낙동강수계 반변2지구 하천개수공사부지에 포함되어 2014년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세종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다.

조사 범위 내에서 가마유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분청사기 가마의 폐기장 1기와 수혈 2기가 조사되었다. 주로 폐기장 내에서 다량의 분청사기와 회청사기, 도침 등이 출토되었으나 총 126점만 현장에서 선별 수습하였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회청사기나 상감 · 인화기법과 귀얄기법이 복합적으로 쓰인 쇠퇴기 인화분청사기의 양식을 띠고 있으며, 귀얄기법만 단독으로 쓰인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문양에는 중권문, 와선문, 집단연권문, 파상문, 승려문, 국화문, 연판문, 호접문 등이 있으며, 확인된 기종은 대

42 세종문화재연구원, 「의성 사부리 680번지 유적」(2016).

접, 접시, 병, 호, 고족배, 궤 등이다. 대부분 사질내화토비집을 받쳐 포개구이하였으며, 태토나 제작수법이 거친 편이나, 드물게 전성기의 것으로 보이는 집단연권문 계열의 유물이 확인된다. 가마의 운영시기는 대략 15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가마 운영당시 의성현에 속해 있었던 곳으로, 「세종실록지리지」단계에 의성현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 금석리(金石里) 하품자기소였을 가능성이 있다.

### 13. 영천

지금의 경상북도 영천시는 조선 초 영천군(영주군)과 신녕현이 있던 지역인데, 일부 경주부에 속했던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영천시 서북쪽의 신녕면·화산면·화남면·화북면은 조선 초 신녕현에 해당하고, 동남쪽의 북안면은 경주부에 속한 지역이었다.

지금까지 영천지역에서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발굴 조사된 화북면 용소리요지가 유일한데, 용소리는 조선 초 신녕현 신촌면에 속한 곳이다. 신녕현에는 자기공납이나 자기소 관련 기록이 없어 영천 용소리요지는 공납자기 생산과의 관련성은 없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 1) 용소리요지<sup>43</sup> (도38)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388번지에 위치한 영천 용소리요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부지에 포함, 2011년 12월 9일부터 2012년 10월 12일까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된 용소리유적의 조사 결과 확인된 가마터이다.

용소리유적의 C-1지구 북동쪽에 분청사기 가마 1기, 폐기장 1기, 구상유구 3기 등 가마 관련 유구가 밀집 분포하는데, 가마 좌우에 구상유구 1·2호가 나란히 위치하며, 폐기장은 가마 좌측의 구상유구 1호와 중복되어 있다. 가마는 계단식으로 삭평되어 현재 연소부와 소성부, 연도부 일부가 남아 있는데, 잔존 길이 9.9m, 너비 0.66~1.64m의 반지하식 단실요로 추정된다.

가마유적의 특성상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을



도 38. 인화문접시, 영천 용소리

4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영천 용소리유적」(2014).

용소리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 삼국시대 수혈유구,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주거지, 자기가마, 토광묘 등 204기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조성된 복합유적이다.

것으로 추정되나, 선별 보고된 유물은 55점이다.

보고된 출토품은 상감, 또는 인화시문 후 귀얄시문한 종류나 귀얄분청 등 쇠퇴기의 분청종류와 회청사기, 백자, 도침, 갓모, 가마벽체 등인데, 백자는 극소량 확인되었다.

대부분 내화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이하였는데, 태토와 제작수법이 매우 거칠고 문양은 중권문이나 와선문, 파상문, 승려문, 국화문 등으로 단조롭다. 확인된 기종은 대접, 접시, 종지, 병, 장군등이다.

대략 15세기 말에서 16세기까지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수용 가마이다.

### III.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성격과 운영시기

#### 1.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성격

지금까지 경상도지역에서 확인된 137개의 분청사기 가마터 목록과 지역별 주요 유적의 조사현황을 살펴보았다.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마터의 위치와 채집품의 종류 등 극히 소략한 정보만 알려져 있는 경우는 유적의 구체적인 성격 파악이 어려우나, 발굴 조사된 유적이나 지표조사 결과가 상세하게 알려진 경우는 출토품의 양상과 문헌적 고찰을 통해 어느 정도 유적의 성격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재 상황에서 파악되는 경상도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성격은 대략 공납자기 생산 가마터, 대일교역자기 생산 가마터, 민수용자기 생산 가마터라는 세 가지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공납자기나 대일교역자기를 생산했던 가마터에서도 민수용자기 생산을 병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공납자기 생산 가마터가 대일교역자기 생산 가마터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으나, 대략적인 가마터의 성격 구분을 위해 이렇게 명명하고자 한다.

##### 1) 공납자기 생산 가마터

일반적으로 조선 초의 공납자기 생산 가마터 연구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문헌은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이다.

그러나 경상도지역의 경우는 1425년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와 1469년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 등 타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시기의 지지자료를 통해 15세기 경상도지역 자기공납의 흐름을 잘 살펴볼 수 있다. 그 외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일부지역(동래, 군위, 의홍, 성주, 고령)의 토산공물 품목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어 이 시기에도 경상도지역에서 공납자기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 각종 지리지 자료에 나타난 경상도지역 공납자기 생산지(자기소)와, 그중 현재 위치를 추정해볼 수 있는 가마터를 함께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 2〉에서 파악되는 바와 같이 「경상도지리지」단계(1425)에는 총 27개의 공납자기 생산지역 중 15개 지역, 「세종실록지리지」단계(1454)에는 총 37개의 자기소 중 21개, 「경상도속찬지리지」단계(1469)에는 총 29개의 자기소 중 17개, 「신증동국여지승람」단계(1530)에는 총 5개의 공납자기 생산지역 중 3개 지역의 현재 위치 추정을 시도해 보았다.

분청사기에 표기된 지명이 대부분 경상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이한 현상은 조선 전기 연육수로(連陸水路, 낙동강 수로와 상주~문경~충주의 육로,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는 내륙의 조운로)를 이용했던 경상도지역 조운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sup>44</sup>

경상도지역의 공납자기 생산지(자기소)는 대부분 낙동강, 또는 그 지류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또한 이처럼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상주까지 운반해야 했던 조선 초 경상도지역의 자기공납 경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대일교역자기 생산 가마터

일본에서는 15세기 후반부터 ‘와비차[侘茶]’라고 하는 새로운 다풍(茶風)의 유행으로 질박하고 자연친화적인 조선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특히 16세기 말에는 고려다완의 사용이 급증하여 다완의 주류가 되었으며, 쇼군[將軍]이나 다이묘[大名]와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 수집, 향유됨으로써 많은 조선의 다완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경상도지역은 조선 건국 직후부터 부산포, 제포, 엠포 등 도내 각처의 항구를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공식적으로 개방한 개항장으로 삼고 왜관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경상도지역은 타 도에 비해 왜인들과의 접촉이 매우 잦았으며, 다완을 비롯한 물자교류 또한 매우 활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 공납자기 가마 추정지)
문헌 (시기)	경상도지리지 (1425)	세종실록지리지 (1454)			경상도속찬지리지 (1469)		신증동국여지 승람(1530)
내용 지역	자기공납	자기소			자기소		자기공납
		방위	지명	품등	방위	지명	
경주부	○ (경주 용명리 · 암곡동)	서	大谷村 (경주 용명리)	하	-	大谷里 (경주 용명리)	중
		북	勿伊村 (경주 암곡동)	하	-	勿伊里 (경주 암곡동)	중
					-	見谷里 (경주 내태리 · 남사리 · 하구리)	중
					-	非伊里 (울산 천전리 고지평)	중
밀양도호부	○	동	烏山里	하	동	烏山里	하
	○	동	栗洞里 (밀양 용진리)	하			

44 성현주, 앞의 논문(2006), pp. 15~21.

연육수로(連陸水路)란 낙동강 수로와 상주~문경~충주의 육로,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는 내륙의 조운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경상도 조운에 있어 서남해안의 바닷길을 의미하는 해로(海路)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문현 (시기)	경상도지리지 (1425)	세종실록지리지 (1454)			경상도속천지리지 (1469)			신증동국여지 승람(1530)
내용 지역	자기공납	자기소			자기소			자기공납
		방위	지명	품등	방위	지명	품등	
양산군	O (양산 화제리 지나)	남	今音山里 (양산 가산리 호포1호)	중				
울산군	O(부산 오리산리?)	북	齊餘菴里	하	남	長安里 (부산 상장안 · 하장안)	하	
청도군					동	北谷里	하	
홍해군	O (포항 덕성리)	북	長生里 (포항 덕성리)	하				
경산현	O	남	豆也里 豆也里 (경산 산전리)	하	남	豆也里 (경산 산전리)	하	
동래현					북	救也里 (부산 남산동?)	중	O (부산 남산동?)
창녕현	O	남	南谷里 (창녕 고곡리)	하				
언양현	O(울산 직동리 · 하점리 · 태기리)	남	大마里 (울산 하점리)	하	남	大마里 (울산 하점리)	중	
					현내	龜谷里 (울산 태기리)	중	
영산현	O	동	新峴里 (창녕 청암리)	하				
영일현					동	沙峴	하	
순흥도호부	O	북	沙洞里	하				
영천군	O	동	原山谷里	하				
의성현	O(사기)	서	金石里 (의성 사부리?)	하				
인동현	O(칠곡 학하리)	동	莫谷里 (칠곡 학상리)	하				
의흥현	O	남	-	하	남	皮吐里	중	O
상주목	O (상주 상판리 6호)	북	柳縣里 (상주 대포리 4호)	상	-	奴山里 (상주 대포리 4호)	중	
		동	已未隈里 (상주 삼판리 1호)	상				
공성현	O (상주 우하리)	서	院洞 (상주 우하리)	중				
성주목	O (고령 봉평리 2호)	동(오기?)	黑水里 (고령 봉평리)	중	남	黑水里 (고령 봉평리 · 대평리 1호)	하	O(고령 봉평리 · 대평리 1호)
선산도호부	O	본부 동	弓勿谷里	하				
	O	해평현 동	鳩等堤里	하				
합천군	O	서	樹介谷里	하	서	獐谷里	하	
초계군					동(추정)	누락	하	
김산군	O (충북 영동 사부리)	-	黃金所 普賈里 (충북 영동 사부리)	중				
고령현	O (고령 성산 시부동)	동	曳峴里 (고령 성산 사부동)	상	동	仇彦里 (고령 사부리 · 가산리)	하	O(상품) (고령 사전동)
					남	下旂里 (고령 사전동)	하	
군위현	O	서	白峴里	중	서	白峴里	하	O(사기)
진주목	O (진주 용아리 월아 · 효자리 증전)	북	目堤里	하	서	於衣谷里	하	
		서	中全里 (진주 효자리 증전)	하	-	中全 (진주 효자리 증전)	하	
		동	月牙里 (진주 용아리 월아)	하	-	月背谷 (진주 용아리 월아)	중	
김해도호부	O (김해 대김리)	동	甘勿也村 (김해 대김리)	하	동	甘勿也 (김해 대김리)	하	
창원도호부	O	북	山北村里	하	북	仇叱浦里	하	
함안군	O	동	代山里	하				
함양군					남	休知里	하	
곤남군	O (사천 송전리 1호)	남	蒲谷里 (사천 송전리 1호)	중				
		동	蘆洞	중				
진성현		단계현 동	豆谷里	하				
삼가현	누락? (합천 장대리)	기수현 서	甘闕里 (합천 장대리)	중	서	甘闕里 (합천 외사리)	하	
의령현		동	元堂里	하	동	火金洞	하	
안음현					동	草站里	하	

또한 조선 전기의 일본 사절들은 조선 국왕을 알현하기 위해 각 왜관에서 정해진 상경로를 따라 서울 동평관까지 왕복하였는데,<sup>45</sup> 그 과정에서도 다완 구매와 같은 물적교류가 용이하게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392년부터 1592년까지 일본국왕사(70회)를 포함한 왜인의 통교 횟수는 총 4,842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sup>46</sup>, 이는 한 달에 약 2회 정도로 매우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관에서 거주하는 항거왜(恒居倭)와 왜사(倭使) · 흥리왜인(興利倭人) 등의 일본인 왕래자들에게 생산품이 공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마터는 제포왜관 인근의 창원 두동 응천요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두동 응천요지는 일본의 명품다완으로 일컬어지는 이도다완[井戸茶碗] 생산지로 알려져 왔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완이 제포왜관을 거쳐 일본으로 전래된 후 다케노 죠오 [武野絽鷗] · 선노 리큐[千利休]와 같은 저명한 다인(茶人)들의 다도(茶陶)로 즐겨 사용되면서 명성이 높아졌다고 한다.<sup>47</sup>

그러나 응천요지는 대략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중반까지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포왜관이 처음 설치된 1407년부터 15세기 중반까지 제포왜관 소용 자기의 공급을 담당한 가마터는 별도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김해 대감리요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제포왜관은 처음 설치된 1407년 이후부터 1452년까지는 김해지역의 속현이었던 응신현에 속해 있었는데, 몇몇 실록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sup>48</sup> 이 시기 제포(내이포)에 머무르는 일본 사신의 접대를 김해부가 맡고 있었던 것은, 당시 제포왜관이 속해있던 응신현이 김해부(도호부)의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 5년(1423)의 기록에 의하면 포진할 기명, 즉 제포왜관에 머물렀던 일본사신에게 베푸는 연회에 사용할 그릇의 준비도 김해부가 공식적으로 맡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 제포왜관에 공급된 그릇은 14세기 말부터 15세기 말까지 김해지역의 공납자기 생산을 맡고 있었던 김해 대감리요지 생산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일본 후쿠오카[福岡] 칫코센[築港線] 17 · 20 · 21 · 22차 조사와 하카타[博多] 28차 조사에서 대감리요지 생산품으로 보이는 ‘김해(金

45 일본 사신의 상경경로를 정하기를, 염포(鹽浦)에서는 울산 · 경주 · 안동 · 영천 · 단양 · 충주 · 여홍 · 양근 · 평구, 부산포(富山浦)에서는 동래 · 양산 · 밀양 · 청도 · 대구 · 인동 · 상주 · 문경 · 연풍 · 괴산 · 음성 · 음죽 · 이천 · 광주 · 광진, 내이포(乃而浦 ; 肥浦)에서는 창원 · 성주 · 옥천 · 청주 · 진천 · 죽산 · 용인 · 한강을 경유하여 入京하게 하였다고 한다.『世宗實錄』卷55, 世宗 14年(1432) 1月 戊辰.

1554년에 편찬된 細叔權의 「故事撮要」 「倭人朝京道路」에 의하면 왜인들의 상경로에 다소 변동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단일왜관으로 부산포만이 존재할 때였으므로 부산포에서 서울에 이르는 왜인 상경도로가 육로 세 길(중로 · 좌로 · 우로)과 수로 한 길로 기록되어 있다. 한문종, 「조선전기倭使의宴享接待와女樂」, 『한일관계사연구』 36(한일관계사학회, 2010), pp. 47~48.

46 한문종, 「조선전기 대일외교정책 연구 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전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p. 27, pp. 189~190.

47 片山まび, 「高麗・朝鮮時代の白いやきもの」, 『出光美術館館報』161(出光美術館, 2012), p. 17.

48 『世宗實錄』卷22, 世宗 5年(1423) 10月 壬申 ; 『世宗實錄』卷105, 世宗 26年(1444) 閏7月 壬午.

海’ 명 인화분청편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15세기 전반의 제포왜관 공급자기가 김해 대감리요지 생산품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sup>49</sup>

해당 기록에서는 제포와 부산포를 함께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포왜관의 예를 통해 부산 포왜관의 상황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부산포왜관에 유숙했던 일본사신에게 베푸는 연회용 그릇의 준비는 동래현이 맡고 있었으므로, 부산포왜관에 공급되었던 그릇을 생산한 가마터도 동래 현에 속한 가마터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당시 동래현에 속했던 가마터에는 부산 남산동요지와 온천동요지(현 위치 미상) 등이 있는데, 그중 동래현의 구야리(救也里) 중품자기소로 추정되는 남산동요지가 가장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은 객관적 기초자료가 턱없이 부족하여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며, 향후 부산포왜관과 남산동요지의 정밀조사가 이루어져 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일본 유적 출토품과 더불어 상호 비교분석한다면 좀 더 분명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포왜관이나 부산포왜관처럼 기록에 분명하게 남아있지는 않으나, 염포왜관의 경우 또한 유사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염포왜관이 속해있던 울산군의 공납자기 생산 가마터는 「세종실록지리지」 단계(1545)의 군 북쪽 제여답리(齊餘畠里) 하품자기소와 「경상도속찬지리지」 단계(1469)의 군 남쪽 장안리(長安里) 하품자기소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장안리 하품자기소는 지금의 부산 상장안요지로 볼 수 있다.

부산포왜관과 마찬가지로 염포왜관과 관련된 도편은 아직 확인된 예가 없으므로 상장안요지 생산품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장안요지 출토 인화분청사기의 대표적인 문양이라 할 수 있는 파상문이 시문된 인화분청사기는 하카타[博多]유적, 사카모토 사토보우[坂本里坊] 유적, 이치조다니[一乘谷朝倉氏] 유적 등 일본 내 여러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고<sup>50</sup>, 전세품 다완에서도 매우 유사한 예가 여러 점 확인되고 있으므로, 울산군 자기소인 상장안요지 출토품이 염포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경상도지역에는 삼포왜관에 거주, 또는 왕래하는 일본인을 통해 생산품의 교역이 이루어졌던 가마터들도 있지만, 쇼군[將軍]이나 다이묘[大名]들이 보낸 일본 사절들이 조선 국왕을 알현하고 숙배하기 위해 서울까지 오기는 길목에 위치하여 자연스럽게 생산품의 교역이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중세시기 최대의 국제 무역항이었던 하카타[博多]유적의 72차 조사에서는 경주지역의 자기소 생산품으로 볼 수 있는 ‘경주장홍고(慶州長興庫)’ 명인화분청접시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염포왜관으로 들어온 일본 사신의 상경로에 경주가 포함되어 있어 사신들이 서울을 오가는 과정에서 습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유물은 앞에서 「경상도속찬지리지」 단계(1469)의 경주부 비이리(非伊里) 중품자기소로 추정된 바 있는 울산 천전리 고지평요지 출토품과 유사성을

49 片山まひ, 「조선시대 김해 도자기로 본 한일관계」, 「한국예다학」 제6호(한국예다학연구소, 2018), p. 5.

50 茶道資料館, 「遺跡出土の朝鮮王朝陶磁 - 名碗と考古學」(1990) 참조.

보이고 있어, 왜사(倭使)들이 상경과정에서 습득한 고지평요지 생산품이 염포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볼 수 있다.<sup>51</sup> 경주는 특히 상경로에서의 연회가 베풀어졌던 지역 중 하나이므로,<sup>52</sup> 경주부윤이 주관하는 공식연회에 사용된 경주부 소속 자기소(울산 고지평요지)의 생산물을 일본 사신들이 접하여 습득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 외에 15세기 중후반경 성주목의 속현이었던 화원현(花園縣)의 왜물고(倭物庫)와 관련하여 생산품의 대일교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마터들이 있다. 세조대(1455~1468)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왜물고는 성종 17년(1486) 폐지되기까지 왜물을 보관하는 창고이자, 관 주도의 민간상인에 대한 중개무역이 이루어진 장소였는데,<sup>53</sup> 이 왜물고가 있던 화원현은 성주목의 속현이었으므로 당시 성주목에 속해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가마터 생산품들이 일본으로 훌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물고의 존속 시기에 운영되고 있던 성주목 소속 가마터에는 고령군 운수면의 대평리 1호요지와 봉평리요지(구 신간동 사붓끌요지), 팔산리요지 등이 있다. 봉평리요지의 경우 당시 낙동강을 따라 빈번하게 왕래하던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교역되어 일본 다완이 되기도 했다고 하며,<sup>54</sup> 팔산리요지의 경우는 임진왜란 때의 피랍사기장으로서 일본 후쿠오카 다카도리야키[高取燒]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핫산[八山]과 관련된 가마터로 보기도 한다.<sup>55</sup>

향후 해당 가마터에서 채집된 도편들을 일본 출토품들과 면밀히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따라야 하겠지만, 왜물고가 설치되어 있던 화원현이 당시 성주목 소속이었다는 역사적 상황을 전제하면, 이처럼 성주목 관내의 가마터 생산품이 대일교역 물품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 하겠다.

성주는 왜물고와의 관련성이 아니더라도 왜인들의 상경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sup>56</sup> 특히 관찰사가 주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큰 연향의식을 베풀었던 지역으로, 국왕 알현 등을 위해 서울

51 1512년 임신약조 체결로 염포왜관이 폐쇄된 이후에는 모두 부산포를 통해 일본과의 통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지만(이때 경주지역 경유 상경로는 육로 3길 중 좌로에 해당함), 하카타[博多]유적 출토 ‘慶州長興庫’ 명첩시의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염포왜관의 존속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생각된다.

52 한문종, 「朝鮮前期 倭使의 宴享接待와 女樂」, 『한일관계사연구』36(한일관계사학회, 2010), pp. 46~49.

53 『新增東國輿地勝覽』卷28 星州牧 倉庫 ; 장순순, 「朝鮮前期 倭館의 성립과 조·일 외교의 특질」, 『한일관계사연구』15(한일관계사학회, 2001), pp. 82~87.

54 『新增東國輿地勝覽』卷28 星州牧 倉庫, 『京山誌』, 『高靈誌』; 권병탁, 2004, 『한국 산업사 연구』(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p. 342.

55 1976년 고령지역을 방문한 핫산[八山]의 후손이 팔산리요지 채집 도편을 관찰하고 이곳이 본인들의 선조, 즉 핫산[八山]의 고향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핫산에 관해서는 1931년 남해 위동인으로 본 최남선, 1977년 합천 이씨로 본 이경희, 2008년 기장 출신으로 본 변광석 등 국내 연구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 측 연구자들은 현재 지명을 알 수 없는 葦上 출신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가 葦上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마을에 八山이라는 도공이 있었으며, 이후 퇴진할 때 이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가 축성, 주둔하였던 곳은 기장왜성이었으므로 八山은 기장 인근지역 출신일 가능성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56 성주는 세종 14년(1432)의 기록에는 삼포 중 내이포(제포) 출발 상경로에 포함되었고, 명종 9년(1554)의 기록에는 세 가지 육로(중로·좌로·우로) 중 우로에 포함된 지역이다.

을 오가던 일본인들이 이 지역 가마터 생산품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삼포의 왜관에서는 조선 상인과 일본 통교자 사이의 사무역이나 밀무역이 매우 성행 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교역에는 거래품목이나 수량에 거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의 수요가 매우 커진 조선의 다완도 매우 활발하게 거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인의 왕래가 허용되었던 왜관은 모두 경상도지역에 있었으므로 거래되었던 조선 다완 역시 대부분 경상도지역 가마터 생산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로로 다량의 경상도 분청사기가 백자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민수용자기 생산 가마터

〈표 1〉에서 확인된 수많은 가마터는 대부분 민수용자기를 생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납자기나 대일교역자기 등 특수한 성격의 도자기를 생산했던 가마터들도 민수용자기 생산은 기본적으로 병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굴 조사된 가마터 가운데 민수용자기만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칠곡 다부동요지와 영천 용소리요지 등이 있다.

## 2.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운영시기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확인된 경상도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약 137개소인데, 발굴조사가 실시된 곳은 19개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가마터는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지표조사 가마터의 경우 소량의 채집도편을 통해 유적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므로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지금 단계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근거로 경상도지역 주요 분청사기 가마터의 운영시기를 추정해보면 다음의 〈표3〉과 같다. 15세기에 운영된 가마터가 가장 많으나, 가마 운영이 14세기 말부터 시작되거나 16세기까지 지속된 곳도 드물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상지역 발굴조사 분청사기요지 분포도〉

- |                |                  |
|----------------|------------------|
| 1. 상주 상판리 1호요지 | 11. 경주 암곡동요지     |
| 2. 상주 상판리 6호요지 | 12. 합천 장대리요지     |
| 3. 상주 우하리요지    | 13. 창원 두동 응천요지   |
| 4. 의성 사부리요지    | 14. 김해 대감리요지     |
| 5. 영천 용소리요지    | 15. 울산 천전리 고지평요지 |
| 6. 칠곡 다부동요지    | 16. 울산 직동리요지     |
| 7. 칠곡 학하리요지    | 17. 부산 상장안요지     |
| 8. 고령 기산리요지    | 18. 부산 하장안요지     |
| 9. 고령 사부리요지    | 19. 충북 영동 사부리요지  |
| 10. 고령 성산사부동요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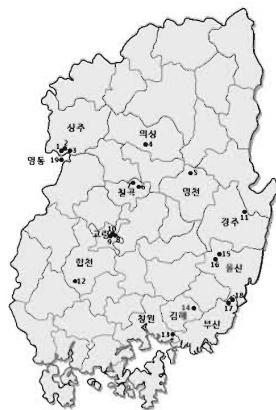


표 3. 경상도지역 주요 분청사기 가마터 운영시기 추정

소재지	유적명	가마 운영 시기 (추정)			
		14세기 후반	15세기 전반	15세기 후반	16세기
경북	상판리 1호요지				
	상판리 6호요지				
	대포리 4호요지				
	우하리요지				
	어신리요지				
	의성 사부리요지				
	영천 용소리요지				
칠곡	다부동요지				
	학하리요지				
	학상리요지				
고령	기산리요지				
	사부리요지				
	성산 사부동요지				
	사전리요지				
	대평리 1호요지				
	대평리 2호요지				
	봉평리요지				
	필산리요지				
포항	덕성리요지				
경산	산전리요지				
경주	암곡동요지				
	내태리요지				
	남사리 1호요지				
	하구리요지				
	용명리요지				
	합천				
경남	장대리요지				
	외사리 1호요지				
	진주 용아리 월아요지				
	효자리 3호요지				
	사천 송전리 1호요지				
	청녕 청암리요지				
	고곡리요지				
	밀양 용전리요지				
	창원 두동 응천요지				
	김해 대감리요지				
울산	양산 가산리 호포1호요지				
	화제리 지나요지				
	천전리 고지평요				
	직동리요지				
부산	태기리요지				
	하점리요지				
	상장안요지				
	하장안요지				
충북	남산동요지				
	영동 사부리요지				

## IV. 맷음말

지금까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상도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의 조사 현황과 성격, 운영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경상도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 현황은 아사카와 노리타가[淺川伯教]와 코우모토 후쿠지[香本不苦治], 윤용이, 정양모 등에 의해 1956년, 1980년, 1989년, 1991년에 정리된 우리나라 가마터 목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각 시기별로 10개 지역 16개소, 19개지역 32개소, 19개 지역 38개소, 21개 지역 51개소가 수록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가마터 수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개인 연구자의 가마터 조사가 아닌 기관 단위의 지역별 문화재지표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의 수량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기관별, 지역별로 진행된 조사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본고의 Ⅱ장에서는 기존에 확인된 가마터는 물론 1990년대 이후 새롭게 조사된 가마터까지 모두 종합하여, 경상도 내 35개 지역 137개 분청사기 가마터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분청사기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37개소의 가마터 가운데 발굴 조사가 실시된 유적은 상주 상판리 1호 · 6호요지와 우하리요지, 의성 사부리요지, 영천 용소리요지, 철곡 다부동요지와 학하리요지, 고령 기산리요지와 사부리요지 및 성산 사부동요지, 경주 암곡동요지, 합천 장대리요지, 창원 두동 응천요지, 김해 대감리요지, 울산 천전리 고지평요지와 직동리요지, 부산 상장안요지와 하장안요지, 충북 영동 사부리요지 등 12개 지역의 19개 가마터인데, 이러한 발굴조사유적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요 가마터에 대한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때 유적의 조사내용과 출토품의 종류 및 성격,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조사를 통한 가마 운영당시의 소속 군현 확인, 가마 운영시기 추정 등으로 각 가마터의 역사적 성격 규명의 토대로 삼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의 내용을 통해 경상도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의 성격을 공납자기 생산 가마터, 대일교역자기 생산 가마터, 민수용자기 생산 가마터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고, 주요 가마터의 운영시기를 도표로 만들어 비교해보았다.

공납자기 생산 가마터는 명문도편 등 채집품의 종류와 특징, 가마터의 위치와 지명, 가마 운영시기 등을 종합하여 조선 초 각 지리지 단계별 공납자기 생산 가마터에 해당되는 현재의 분청사기 가마터를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경상도지리지」단계(1425)에는 총 27개의 공납자기 생산지역 중 13개 지역, 「세종실록지리지」단계(1454)에는 총 37개의 자기소 중 21개, 「경상도속찬지리지」단계(1469)에는 총 29개의 자기소 중 17개, 「신증동국여지승람」단계(1530)에는 총 5개의 공납자기 생산지역 중 3개 지역의 현재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대일교역자기 생산 가마터는 크게 삼포왜관 관련, 화원현의 왜물고 관련, 왜사(倭使)의 상경로 관련 등으로 그 성격을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삼포왜관 관련 가마터는 세종5년(1423) 10월 25일, 세종26년(1444) 윤7월 5일 등의 실록 기사

와 ‘김해(金海)’ 명도편 등 일본 출토 분청사기의 종류와 특징 등을 근거로 하여 제포, 부산포, 염포의 소속 행정관부, 즉 김해(도호)부(옹신현의 속현 시기), 용천현, 동래현, 울산군 등에 속한 가마터로서, 김해 대감리요지, 창원 두동 용천요지, 부산 남산동요지, 부산 상장안요지 등으로 추정되었다.

화원현의 왜물고 관련 가마터는 당시 화원현이 속해있던 성주목 소속 가마터 중 운영시기가 왜물고의 존속시기와 부합하는 고령 대평리 1호요지, 봉평리요지(구 신간동 사붓골요지), 팔산리요지 등으로 추정되었다.

왜사(倭使)의 상경로 관련 가마터는 1432년, 1554년의 왜인 상경로에 관한 연구성과와 행정구역 변천에 관한 조사, 일본 하카타[博多]유적 출토 ‘경주장흥고(慶州長興庫)’ 명접시 등을 근거로 하여 울산 천전리 고지평요지로 추정되었다.

아직까지 객관적 기초자료가 많이 부족하나 여러 가지 정황상 매우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으로, 향후 관련유적의 정밀조사가 이루어져 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일본 유적 출토품과 더불어 상호 비교분석한다면 좀 더 분명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주요 가마터의 운영시기 비교 결과 15세기를 중심으로 운영된 가마터가 가장 많았으며, 14세기 말부터 시작되거나 16세기까지 지속된 곳도 상당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도지역에서 최근 새롭게 확인 조사된 분청사기 가마터의 수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표조사의 경우 유물의 채집 없이 현장에서 확인된 유물에 대한 기술이나 사진만 보고서에 수록된 경우가 많고, 또 유물이 채집된 경우도 체계적인 유물의 보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물의 현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가마터의 성격규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기관을 지정한 다음 지표조사유물 중에도 기관에 의해 채집, 보고된 주요유물의 경우에는 발굴조사유물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보관관리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인한 유적의 파괴와 개인 차원의 조사로 인한 주요유물의 유실 등도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데, 문화유적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유적보존 방안 마련, 발견 ·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국민 계도활동 등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도지역의 분청사기는 음각, 박지, 철화, 덤벙 등 다양한 기법으로 변화하는 타 지역의 분청사기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문수법의 변화가 매우 적은 편이며, 광주 충효동요지와 같이 대규모 퇴적층 조사로 충위별 시기추정이 이루어진 가마터도 확인된 바 없어, 아직 유물의 세부편년에 있어서의 객관적 기준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주요 가마터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 및 편년자료 발굴로 보다 명확한 경상도지역 분청사기의 편년기준 정립을 위한 객관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 투고일 2018. 11. 12. | 심사개시일 2018. 11. 16. | 게재 확정일 2018. 11. 20 ■

## 참고문헌

### 단행본, 향토지지, 학술총서

- 강경숙, 「분청사기연구」, 일지사, 1986.
- \_\_\_\_\_. 「전통도자기의 생산과 수요」,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 권병탁, 「한국 산업사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 김세광, 「상주의 도자생산과 요지」, 1998.
- 茶道資料館, 「遺跡出土の朝鮮王朝陶磁－名碗と考古學」, 1990.
- 대가야박물관, 「고령의 토기·자기요지」, 2010.
- 밀양지편찬위원회, 「밀양지」, 밀양군·밀양문화원, 1987.
- 상주박물관, 「상주 백화산」, 2015.
- 의령문화원, 「의령의 역사·문화유적」, 1995.
- 창녕군지편찬위원회, 「창녕군지」, 창녕군, 2003.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3, 충북편, 1970.
- \_\_\_\_\_. 「한국지명총람」 5, 경북편 I, 1979.
- \_\_\_\_\_. 「한국지명총람」 5, 경북편 II, 1979.
- \_\_\_\_\_. 「한국지명총람」 6, 경북편 III, 1979.
- \_\_\_\_\_. 「한국지명총람」 7, 경북편 IV, 1979.
- \_\_\_\_\_. 「한국지명총람」 8, 경남편 I, 1979.
- \_\_\_\_\_. 「한국지명총람」 9, 경남편 II, 1980.
- \_\_\_\_\_. 「한국지명총람」 10, 경남편 · 부산편 III, 1992.
- 香本不苦治, 「朝鮮の磁器と古窯址」, 雄山閣, 1976.

### 논문, 발표문

- 고준휘, 「조선시대 경상도지역 자기가마 연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세광, 「상주 어산리 요지에 관한 일연구」, 「상주문화연구」 제4집, 상주문화연구소, 1994.
- 김종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중품자기소에 관한 연구 우하리요지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제58호, 한국디자인학회, 2004.
- 성현주,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포곡요지의 성격 검토」, 「박물관연구논집 9」, 부산박물관, 2002.
- \_\_\_\_\_. 「경상도지역 명문분청사기 연구」, 부산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_\_\_\_\_. 「기장지역 가마터 출토 자기의 현황과 특징」, 「기장도자기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2016.
- \_\_\_\_\_. 「상판리 가마 출토 명문자기와 15세기 상주목의 자기공납」, 「상주 상판리유적의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2017.

- 신순철, 「14~15세기 경상도지역 자기소 출토 분청사기 연구」,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심지연, 「경주 서부동 출토 관사명 분청사기 연구」,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이태훈, 「能川陶窯址와 水崎遺蹟에서 본 朝日交流」, 『한일관계사연구』 48, 2014.
- 장동철, 「상주 대표리요지 도자편 연구」, 『미술사학연구』 257호, 한국미술사학회 2008.
- \_\_\_\_\_, 「조선 15세기 동래현 분청사기 연구 남산동요지를 중심으로」, 『박물관연구논집』 14, 부산박물관, 2008.
- \_\_\_\_\_,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자기소 연구」,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장순순, 「朝鮮前期 倭館의 성립과 조·일 외교의 특질」, 『한일관계사연구』 15, 한일관계사학회, 2001.
- 鄭良謨·香本不苦治, 「李朝陶磁の窯跡と出土品」, 『世界陶磁全集』 19 –李朝-, 小學館, 1980.
- 정정원, 「경남지방 도자기의 연구 도요지 및 그 출토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8.
- 조영상, 「울주 하점리 소재 조선 초기 도요지에 대한 일고찰」,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조운주, 「慶尙南道彦陽地域の粉青沙器窯址の新例—台機里窯址と出土遺物」, 『デアルテ』 19号, 2003.
- 片山まび, 「高麗·朝鮮時代の白いやきもの」, 『出光美術館館報』 161, 出光美術館, 2012.
- \_\_\_\_\_, 「조선시대 김해 도자기로 본 한일관계」, 『한국예다학』 제6호, 한국예다학연구소, 2018.
- 한문종, 「조선전기 倭使의 宴享接待와 女樂」,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 \_\_\_\_\_, 「조선전기 대일외교정책 연구 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도록

- 국립진주박물관,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2004.
- 대가야박물관, 「고령토, 장인의 혼을 만나다—고령의 토기·자기가마—」, 2011.
- 부산박물관, 「부산도자기 천년의 지혜를 담다」, 2014.
- 양산시립박물관, 「양산 도자기의 규칙」, 2016.
- 울산대곡박물관, 「울산, 청자·분청사기 그리고 백자를 굽다」, 2014.
- 통도사성보박물관, 「양산의 역사와 문화」, 2002.

## 지표·발굴조사보고서 및 유적분포지도

- 경남문화재연구원, 「사천시 정동면 가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구간내 문화재지표조사」, 2001.
- \_\_\_\_\_, 「장안읍 일원 도요지 정밀지표조사」, 2007.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문화유적분포지도—남해군—」, 2004.
- \_\_\_\_\_, 「鎮海 熊川 磁器窯址 I—진해시 응동면 두동리 응천 자기 요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2001.
- \_\_\_\_\_, 「鎮海 熊川 陶窯址 II」, 2004.
- 경북대학교박물관, 「漆谷 多富洞 磁器 窯址」, 「대구~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역 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대구~군위간)」, 1991.
- 경상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산청군」, 2006.
- \_\_\_\_\_, 「문화유적분포지도 의령군」, 2007.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 –성주군–」, 2000.  
\_\_\_\_\_, 「문경지역 도요지 지표조사보고서」, 2002.  
\_\_\_\_\_, 「문화유적분포지도 상주시–」, 2002.  
\_\_\_\_\_, 「문화유적분포지도 –청도군–」, 2003.  
\_\_\_\_\_, 「문화유적분포지도 –칠곡군–」, 2005.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백화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8.  
\_\_\_\_\_, 「영천 용소리유적」, 2014.
- 계명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고령군–」, 1998.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북부지역지표조사보고서」, 1997.  
\_\_\_\_\_, 「포항문화유적분포지도」, 2002.
-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暗谷洞 분청사기요지 발굴조사보고」, 「年報 2001년도」, 2002.  
\_\_\_\_\_, 「문화유적분포지도 경주시–」, 2008.
- 국립경주박물관 · 경상남도 하동군, 「경남지역 도요지 조사보고 하동군을 중심으로–」, 1985.
-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남도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 I」, 2007.
-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군위군 –」, 2004.
- 대구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천군–」, 2005.
-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의성군–」, 2005.  
\_\_\_\_\_, 「문화유적분포지도 경산시–」, 2006.
- 대동문화재연구원, 「상주지역 자기요지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10.  
\_\_\_\_\_. 「高麗 星山 沙負洞 陶窯址 고령 '성산 사부동 도요지' 축대보수공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12.  
\_\_\_\_\_. 「고령 사부리요지–고령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구간(제14공구)내 유적 시 · 발굴조사보고서(제Ⅱ 구역)」, 2012.  
\_\_\_\_\_. 「고령 箕山里窯址 –고령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구간(제14공구)내 유적 시 · 발굴조사보고서(제Ⅲ 구역)」, 2012.  
\_\_\_\_\_. 「상주 성판리 자기요지VI 학술발굴조사 약보고서」, 2016.
-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 「경주 용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2002.
- 동서문물연구원, 2012, 「陝川 壯臺里陶窯址」, 2012.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2018.
- 부산대학교, 「문화유적분포지도–1 부산광역시」, 2006.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 합천군–」, 2005.
- 부산대학교박물관 · 대진고속도로유적합동발굴조사단, 「산청 방목리 백자요지」, 2000.
- 부산박물관, 「機張 上長安遺蹟」, 2011.  
\_\_\_\_\_. 「機張 下長安遺蹟」, 2013.

- 상주박물관,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 1 유적」, 2015.
- 세종문화재연구원, 「의성 사부리 680번지 유적」, 2016.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경주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건천읍 · 내남면 · 외동읍 지역)」, 1995.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 구미시」, 2002.
- 영남문화재연구원, 「漆谷 鶴下里 粉青沙器窯址 I · II · III」, 2009.
- 울산광역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울주군–」, 2003.
- \_\_\_\_\_ , 「문화유적분포지도 –중 · 남 · 동 · 북구–」, 2004.
-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자센터, 「蔚山 盤谷里 遺蹟 –경부고속철도 울산구간(제1차)내 유적」, 2006.
- 위덕대박물관 · 울산대박물관, 「울산 · 언양자기소 지표조사 보고 – 울주군 상동면 하점리 도요지 –」, 2000.
- 중앙문화재연구원, 「永同 沙夫里 · 老斤里 陶窯址」, 2003.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일원 생활체육시설 예정부지 문화유적 지표 조사보고서」, 2004.
- \_\_\_\_\_ , 「울산권 광역상수도(대곡댐)사업 편입부지 내 2차 발굴조사 蔚山 高旨坪遺蹟(III)」, 2004.

#### 기타자료

- 강경숙,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분청사기 가마터 현지조사 의견서」, 2003.
- 경북과학대학 향토문화재연구소, 「칠곡군의 문화유산조사 및 문화진흥계획」, 1999.
- 문화재청고시제2008-160호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제16895호 / 관보(그2) /  
발행일 2008.12.10.

##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성현주

경상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전국 139개의 자기소(磁器所) 가운데 단 4군데뿐인 상품 자기소(上品磁器所) 중 3개소가 있었고, 분청사기 표기지명 대부분이 경상지역의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청사기 연구에 있어 매우 높은 가치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 공납자기 생산 가마터 연구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세종실록지리지」(1454) 외에 「경상도지리지」(1425),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등 전후 시기의 지지자료가 남아있어 타 지역에 비해 15세기 자기공납의 흐름 파악이 용이한 곳이 바로 경상지역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 대일 개항장으로서의 삼포가 모두 경상도지역에 있었고, 삼포왜관과 서울 동평관을 오가던 倭使의 상경로도 경상도 전역에 걸쳐 있었으며, 일본 무역품 창고 및 중개무역 장소에 해당되는 왜물고도 경상도 화원현에 있는 등 다양한 루트로 왜인들과의 접촉이 매우 잦았던 곳이 바로 경상도지역이었으므로, 다완을 비롯한 물자교류 또한 매우 활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앞서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발굴조사는 물론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들도 모두 망라한 경상도지역 전체의 분청사기 가마터 목록을 작성하고, 지명고찰을 통해 각 가마터가 조선 전기 소속된 군현을 명확히 밝혀내었다.

발굴조사가 실시된 12개 지역 19개 가마터를 비롯한 지역별 주요 가마터에 대한 내용을 차례로 살펴본 다음, 조선 초기 각종 지지자료 및 채집품의 제작시기, 명문, 읍치를 중심으로 한 방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각 시기별 공납자기 생산지 추정을 시도해 보았다.

또 경상도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의 성격을 공납자기 생산 가마터, 대일교역자기 생산 가마터, 민수용자기 생산 가마터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고, 주요 가마터의 운영시기를 도표로 만들어 비교하였다.

주제어 : 경상도 분청사기, 가마터, 자기소, 공납자기, 명문분청사기, 연육수로, 대일교역자기, 다완, 왜물고, 삼포왜관, 왜사 상경로, 민수용자기

#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Gyeongsang-do Province

Seong Hyeonju

Gyeongsang-do Province was home to three of the four kilns producing the finest ceramics among the 139 kilns nationwide manufacturing porcelain and *buncheong* ware recorded in the *Sejong sillok jiriji* (世宗實錄地理志,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Moreover, most surviving *buncheong* ware bears an inscription indicating that it was created in the Gyeongsang-do region. Clearly, this area is a key location for studying such ware.

The fifteenth-century ceramics tribute system in Gyeongsang-do is more easily traceable compared to that in other provinces due to the multiple available sources, including *Sejong sillok jiriji*(1454), which is widely used to study kiln sites producing ceramics as tribute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Gyeongsang-do jiriji*(慶尙道地理志, *Geography of Gyeongsang-do Province*)(1425), and *Gyeongsang-do sokchan jiriji*(慶尙道續撰地理志, *Revised Geography of Gyeongsang-do Province*)(1469).

Furthermore, frequent contacts with Japanese people took place via various routes throughout Gyeongsang-do Province. All three ports open to Jap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were situated in the province. Japanese envoys used routes that passed through the entire length of the region when they traveled from the Japanese quarters at the three ports to Dongpyeonggwan (Hall of Eastern Peace), the accommodations for Japanese envoys, in Seoul. Furthermore, the warehouse where Japanese trade goods were stored and bartered was located in Hwawon-hyeon in Gyeongsang-do. Accordingly, products, including tea bowls, are presumed to have been actively exchanged.

This paper lists the kiln sites producing *buncheong* ware in Gyeongsang-do Province by examining relics identified through excavation surveys and ground surveys conducted since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county and prefecture in which each kiln was situated is identified by studying place names. By doing so, this paper attempts to characterize *buncheong* kiln sites in Gyeongsang-do.

In this paper, I speculate about the areas producing ceramics as tribute in respective periods by investigating major kiln sites, including nineteen sites in twelve regions where excavation surveys have been conducted. Diverse documentation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production dates and inscriptions of found relics, and the directions in which the kilns were located relative to the centers of counties are also examined for this purpose.

Moreover, this paper scrutinizes *buncheong* kilns in Gyeongsang-do Province by classifying them into those producing goods for tribute, those producing goods for trade with Japan, and those producing goods for private use, as well as by diagrammatizing and comparing the operating periods of major kilns.

Keywords : *Buncheong* Ware from Gyeongsang-do Province, Kiln Site, Kiln, Ceramics Produced as Tribute, *Buncheong* Ware with Inscription, Land and Sea Routes, Ceramics Produced for Trade with Japan, Tea Bowl, Warehouse for Japanese Products, Japanese Quarters at the Three Open Ports, Route to Seoul Used by Japanese Envoys, Porcelain Produced for Private Purposes



# 북한지역 분청자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박정민\*

I. 머리말

II. 북한지역 분청자 가마터 조사 현황

III. 맷음말

---

\*명지대학교

# 북한지역 분청자 가마터 조사 현황<sup>1</sup>

박정민  
명지대학교

## I. 머리말

분청자는 조선 15세기 전국에서 쓰인 자기(瓷器)였고 더불어 각지에서 만들어졌다. 분청자의 사용과 제작은 현재 북한에 해당하는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지역 역시 여러 곳에 분청자 가마터들이 자리하여 지역의 수요를 감당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에는 황해도(黃海道), 함길도(咸吉道), 평안도(平安道) 지역에 총 64곳의 자기소(磁器所)와 도기소(陶器所)가 등재되었다. 당시에 등재된 자기소와 도기소가 그 정도이니 실제로 운영된 가마의 수는 더욱 많았을 것이다.

물론 평안도와 함길도는 국토의 최북단으로 남쪽 삼남(三南) 지방에 비해서는 곡식 소출이 적고 그나마 다수가 군비(軍費)로 활용되었다. 양계(兩界)지역은 윤택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나름의 도자문화를 꽂피운 곳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더불어 현재까지 북한에서 발굴조사된 분청자 가마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도 대부분 황해도에 자리하여 평양직할시 북쪽에 해당하는 평안도, 함경도(咸鏡道), 양강도(兩江道)의 분청자 제작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또한 활용 가능한 북한의 분청자 가마터 관련 자료는 대부분 발굴조사의 약식보고이므로 개별 가마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 분청자 연구의 폭과 인식의 확대를 위해서 한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 분청자 가마터와 출토유물의 특징을 정리, 소개한다. 남북한의 도자사 연구는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음과 다름을 인식하고 공유할 것이다. 이번 발표는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자료취합과 현상파악을 위함이다.

1 이 글은 박정민, 「조선 15세기 황해도(黃海道) 자기소(磁器所)의 등재(登載) 기준과 특징」, 『강좌 미술사』 49(한국미술사연구소, 2017)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본문에 제시된 유적명은 북측자료에 수록된 명칭을 따르되 가마터와 가마터에 속한 가마 유구는 구분하였다.

## Ⅱ. 북한지역 분청자 가마터 조사 현황

### 1. 황해북도 평산군(平山郡) 봉천리(鳳川里) 가마터

봉천리 가마터는 평산군 봉천리 소재지에서 약 2km 떨어진 서봉저수지 기슭에 자리하며, 저수지가 생기면서 유적의 일부가 수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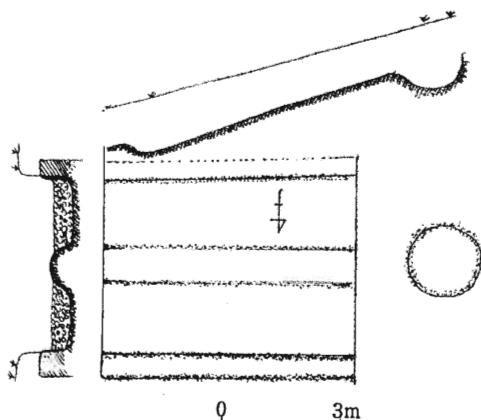
봉천리 가마터가 속한 평산군은 황해북도 중서부에 자리하며 북쪽으로 서흥군(瑞興郡)과 신계군(新溪郡), 동쪽으로 금천군(金川郡), 서쪽으로 린산군(麟山郡), 남쪽으로 황해남도 봉천군(鳳川郡)과 접한다. 평산군은 북서쪽에서 동남부까지 멸악산맥이 자리하고 군의 중앙으로 예성강의 지류인 남천(南川)이 가로지른다. 평산군은 평안도와 황해도를 연결하는 의주로(義州路)와 황해도 동부의 여러 거점도시로 연결되는 길들이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이다.

봉천리 가마터는 주로 분청자를 생산했으며 1984년 6월에 발굴했다.<sup>2</sup> 유적이 자리하는 서봉저수지에는 총 4기의 가마가 확인되었고 2기의 가마는 저수지 서쪽기슭에 위치하며 나머지 가마 2기는 저수지 북쪽기슭에 있다. 이 가마들은 모두 저수지로 연결되는 구릉의 사면에 만들어졌으므로 일부 가마는 수몰되어 저수지 물속에서도 자가편과 소토 등이 확인되었다. 저수지 서쪽에 있었던 가마 1기는 도로를 만들면서 파괴되어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발굴자는 봉천리 가마터에서 확인된 2기의 가마가 가운데 폭 0.8m 정도의 둑을 두고 동서방향으로 병렬된 쌍가마 형식이라고 보고하였다. 각 가마의 폭은 약 1.6m이고 잔존 길이는 6m 정도이다.(도1)

봉천리 가마터의 생산품은 대부분 회황색이나 회흑색, 청회색의 분청자이다. 함께 출토된 소량의 백자와 흑유자기는 가마터에서 제작되었는지가 불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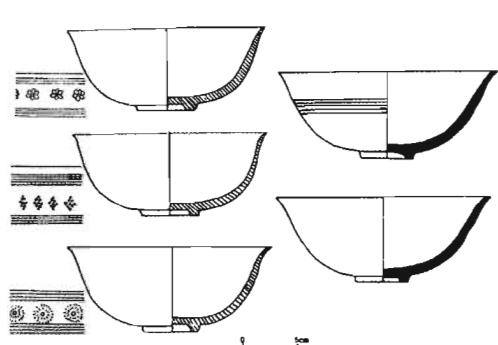
출토된 발(鉢)은 구연부가 외반되었으며 그 아래로 이어진 기측선은 완만한 곡선으로 좁아들어 굽으로 연결된다. 발은 구경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경이 큰 발은 구경 18~20cm, 높이 7.6~8cm 정도이며, 작은 구경의 발은 구경 16cm, 높이 7.2~8cm이다. 발은 내측면에 3~5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집선문(集線紋)을 아래위로 두고 그 사이에 화문(花紋)이나 집원문(集圓紋)을 인화기법으로 시문하였다. 외면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거나 한 단의 집선문이 자리한다.(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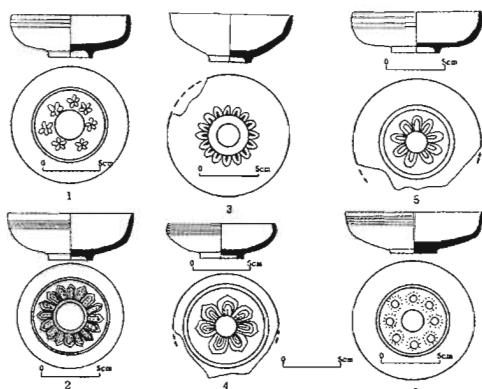
도 1.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가마터 평단면도

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조선고고학총서 : 고구려와 고려 및 리조 도자기 가마터와 유물』50(2009), pp. 132~138, 269~273.

접시(接匙)는 대부분 구연부가 직립하거나 약간 내만한다. 출토된 분청자의 내저면 중앙부 주변에는 국화문(菊花紋)이나 연판문(蓮瓣紋)이 시문되고 외면의 구연단에는 집선문이 배치되었다. 동체의 나머지 부분에는 별다른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다.(도3) 접시는 크기에 따라 구경 20cm, 높이 5cm 정도의 큰 접시와 구경 8.5~13cm, 높이 3~4.6cm 정도의 작은 접시로 구분된다. 일부 작은 접시에는 아무런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다.



도 2. 봉천리 가마터 출토 분청자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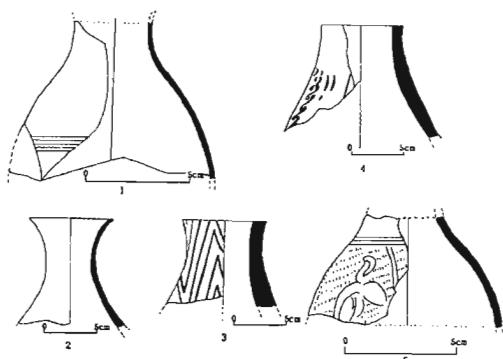


도 3. 봉천리 가마터 출토 분청자접시(1번 유물 : 높이 3.6cm)

출토된 유물 중에는 병(瓶)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외면에 집선문, 연판문 등이 백상감 기법으로 시문되었다.(도4) 출토된 병 가운데 한 점은 꽃문양을 백색으로 면상감하고 둘레의 윤곽선을 흑상감으로 강조했다. 문양대의 배경은 우점문(雨點紋)으로 채운 것이 특징이다. 발굴자는 (도4)의 3, 4번 유물을 구연부의 마무리가 독특한 병으로 인식했다. 해당유물은 장고(杖鼓)의 파편으로도 간주될 수 있으나 확보된 자료가 도면뿐이라 명확하지 않다. 물론 실제 유물을 확인하지 못한 선부른 추론이지만 보고서에 제시된 도면에 표현된 기벽의 두께, 동체가 모아진 종단부의 마무리 등을 고려할 때 병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기종이다.

출토된 분청자 중에는 초별편도 일부 확인된다. 분청자편과 함께 점토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도침들도 출토되었다. 도침은 높이 4~10cm, 지름 5.5~10cm의 원통형으로 허리부분이 다소 가늘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봉천리 가마터에서 제작된 분청자는 인화기법과 상감기법으로 시문되었다. 인화문으로 그릇 전체를 꽉 차게 시문한 그릇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봉천리 가마터의 중심 운영시기는 15세기 초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측은 봉천리 자기가마터를 고려시대에 운영된 유적으로 구분하였으나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도 4. 봉천리 가마터 출토 분청자병 등 기타 기종(3번 유물 : 입지를 7.6cm)

## 2. 황해북도 승호구역(勝湖區域) 화천동(貨泉洞) 송진자기기마터

화천동 송진자기기마터는 화천역(貨泉驛)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화천2동 송진마을 근처에 자리한다. 화천동 일대는 다수의 조선시대 가마터가 자리하며 그 중에 5개의 가마터가 발굴조사되었다.<sup>3</sup> 송진자기기마터는 분청자와 백자가 함께 출토되었으며 다른 가마터는 대부분 백자를 생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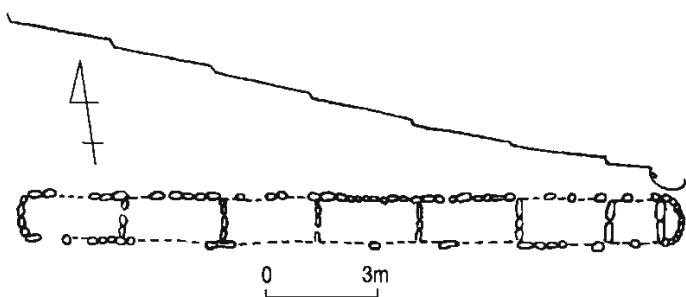
유적이 자리한 승호구역은 큰 강이 둘러진 평야지대이며 북쪽으로 완만한 구릉지대가 발달하여 일찍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다.<sup>4</sup> 송진자기기마터를 비롯한 화천동 일대의 여러 가마터에서 제작된 그릇은 인근의 평양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송진자기기마터에서 조사된 가마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놓였으며 천정과 벽체는 유실되고 바닥만 일부 남았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일부 파내고 좌우벽체를 쌓아 올린 오름가마이다. 가마는 잔존길이가 17m, 폭은 1.1~1.2m이며 경사도는 30°이다.<sup>5</sup> 가마 아궁이의 길이는 1.1m, 폭 0.8m 정도이며 깊이는 약 0.6m로 평면의 형태는 반원형이다. 가마의 벽체는 길이 40~50cm, 너비 20cm, 두께 15~20cm의 크기를 가진 돌을 편평한 면이 가마 안쪽으로 향하도록 쌓은 다음 그 위로 백토를 바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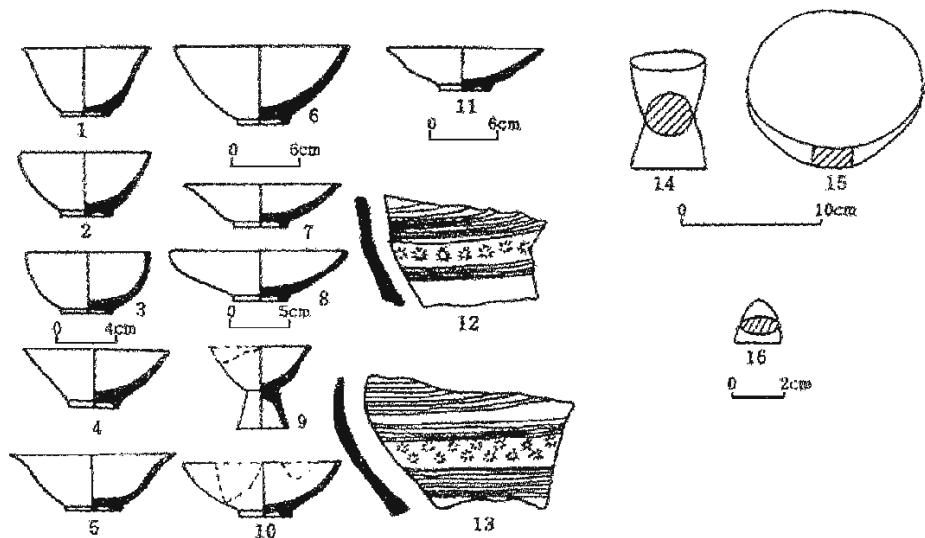
발굴자는 가마가 아궁이와 굴뚝부를 제외하고 총 7개의 칸으로 나뉜 것으로 인식했다. 각 칸은 가마 폭을 가로지르는 낮은 단으로 구분되며 1번째 구간만 길이가 1.3m이고 나머지 구간은 2.4~2.7m 정도로 보고되었다.(도5) 매 칸을 구분하는 단은 높이 약 15cm로 돌로 조성되었고, 그 위에 3~4개의 불구멍을 내고 다시 그 위로 사이벽을 쌓아올렸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송진자기기마터에서 출토된 유물은 백자와 분청자이다.(도6) 도침 등의 요도구도 함께 출토되었다. 출토된 백자는 발, 접시 등의 반상기가 주종을 이룬다. 발은 구경 10~18cm로 다양한 크기

- 
- 3 강승태, 「화천로동지구 화천 2동(송진동) 자기기마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115(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0) ; 강승태, 「화천2동(꾸박골) 리조자기기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21(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1) ; 강승태, 「화천2동 2호자기기마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132(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4) ; 강승태, 「화천 2동 1호자기기마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134(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5) ; 강승태, 「새로 발견된 화천2동 3호자기기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44(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7).
- 4 승호구역은 황해북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서쪽과 남쪽으로 남강을 사이에 두고 각각 평양직할시 사동구역(寺洞區域), 황해북도 상원군(祥原郡)과 접한다. 승호구역은 해방 전에는 평안남도 강동군(江東郡) 만달면(晚達面) 일대에 해당했으며, 1950년에 강동군 승호읍이 되었다. 1959년 9월에 승호군의 일부와 중화군의 일부가 합병되어 평양시 승호구역이 되었다. 승호구역은 2010년 하반기에 황해북도로 편입되었다. 그 때문에 현재 승호구역에 자리하는 구석기시대 만달리 동굴 유적도 우리에게는 ‘평양 만달리 유적’으로 알려졌다. 승호구역에는 고구려 후기의 고분군인 ‘만달산 고분군’도 자리한다.
- 5 송진자기기마터는 두 차례에 걸쳐 보고되었다. 발굴조사 이후 최초 보고에는 가마터를 ‘화천 2동(송진동) 자기기마터’로 지칭하고 확인된 가마의 잔존길이를 19m로 기록했다. 강승태, 「화천로동지구 화천 2동(송진동) 자기기마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115(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0), p. 36. 그러나 화천동에서 연이어 다수의 자기기마터가 발굴되자 최근 작성된 연구서에는 ‘송진자기기마터’로 유적의 이름을 바꾸었다. 또한 가마의 잔존길이도 17m로 다르게 제시되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앞의 책(2009), pp. 155~156. 이 글은 최근에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도 5. 송진자기마터 기마 평단면도



도 6. 송진자기마터 출토 자기와 요도구(1~6:백자 / 9~13:분청자)

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된 접시는 구경 13~16.4cm, 높이 3~4cm, 저경 4.5~5cm이다. 송진자기마터에서 제작된 백자들은 대부분 백회색의 태토에 회색이 감도는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일부 정선된 태토에 백색의 유약이 시유된 백자도 확인된다. 가마터에서 출토된 대부분 백자는 태토빛음이나 모래를 받쳐 포개어 번조되었다.

함께 출토된 분청자 역시 발, 잔, 잡시 등의 반상기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고족배도 함께 출토되었다. 분청자의 유색은 회청색이며 부분적으로 황갈색이 감돌기도 한다. 확인된 분청자는 대부분 아무런 문양이 없으나 일부 그릇에는 백상감기법으로 집선문대들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인화기법으로 국화문을 시문하였다. 함께 출토된 요도구는 도침이 대표적이며 원통형과 원반형으로 나뉜다. 높이 7~9cm 정도의 원통형 도침은 동체의 중간이 훌쭉하게 만들어진 소위 장고형 도침이며 원반형 도침은 직경 12~17cm, 높이 2.5~3cm 정도이다. 도침과 함께 사용하고 한쪽에 버려진 대량의 태토빛음이 확인되었다.

발굴자는 송진자기가마터가 15세기 초반에서부터 후반을 지나는 기간 동안 운영되었으며, 그 사이에 생산품을 분청자에서 백자로 바꾼 것으로 파악하였다. 송진자기가마터는 유물퇴적층에 대한 조사내용이나 분청자와 백자의 출토비율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운영시기를 한정하기 어렵다. 다만 가마의 기저부가 상당 부분 돌로 구축된 점은 주목된다.

### 3. 황해남도 과일군 사기리(沙器里) 가마터

사기리 가마터는 황해남도 과일군 소재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풍장산(楓長山, 329m)의 서남측 구릉에 자리한다.

과일군은 1413년(태종 13) 이후 풍천군(豊川郡)이었으나, 1895년(고종 32)에 해주부에 속했다가 1896년(고종 33)에 다시 풍천군이 되었다. 1909년 3월에 송화군(松禾郡)에 합병되었다가 1967년 10월에 다시 분리되었다. 과일군이 송화군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인 1963년 3월에 과일 생산에 적합한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송화과수농장지구'가 만들어졌고 1967년 10월에 지구 일대가 분리되면서 지역명칭을 아예 과일군으로 지정하였다. 현재도 과일군은 과수농장지구가 많이 운영된다.

사기리 가마터는 동쪽으로 높은 산들이 둘러쳐있고 나머지 삼면은 낮은 구릉과 넓은 충적지로 이루어진 곳에 자리한다. 유적의 서쪽으로는 황해(黃海)가 있다.

사기리 가마터는 1992년 6월과 7월 그리고 1993년 5월에 걸쳐서 발굴했다. 조사결과 총 6기의 가마가 약 6,000m<sup>2</sup>의 범위에 자리함을 확인하였으며, 대부분 가마는 바닥면과 측면의 벽체 일부만 남아있다. 가마들의 간격은 약 10~150m 정도이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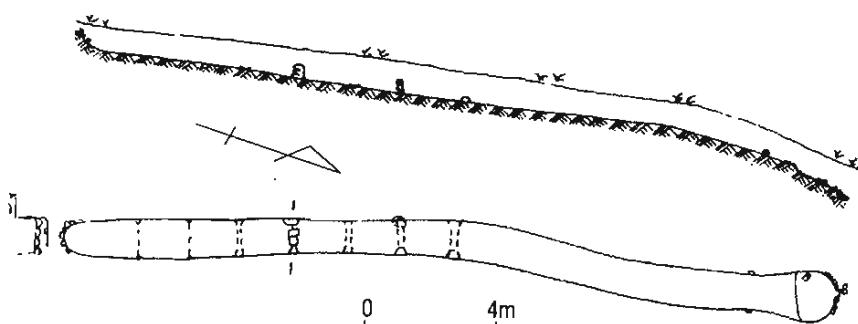
#### 1) 사기리 1호 가마

1호 가마는 풍장산 서남쪽 능선의 끝부분에 서북—동남 방향으로 자리한다. 1호 가마에서 동남 쪽으로 약 150m 떨어진 구릉의 동남쪽 사면에 2호, 3호, 4호 가마가 연이어 위치한다. 이 가마들은 동남—서북방향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가마 간의 간격이 일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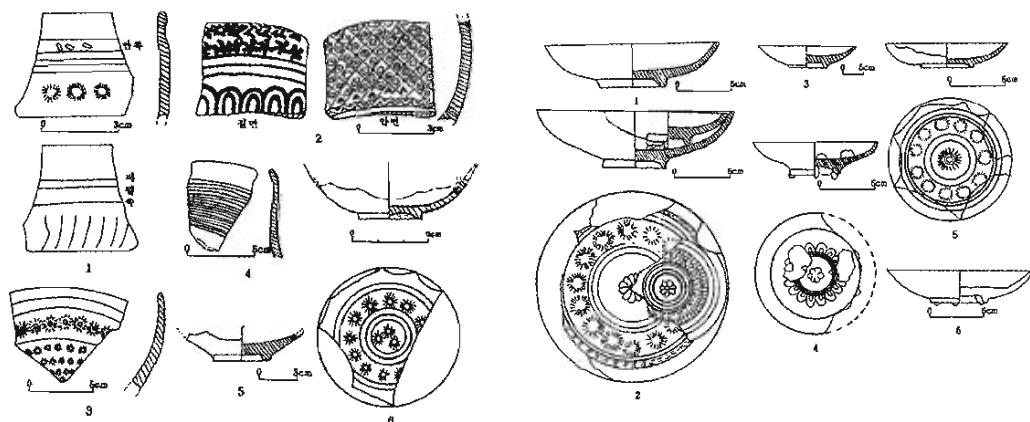
1호 가마는 길이 23m, 폭 1.2m로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1호 가마의 아궁이는 길이 1.2m 정도로 잔존하며 불턱을 지나 번조실로 이어진다. 아궁이쪽의 바닥경사는 25°이고 번조실 바닥의 경사는 10°이다.(도7)

1호 가마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분청자편으로 기종은 발, 접시, 잔 등의 반상기이며 이와 함께 병, 합의 뚜껑, 제기편 등도 출토되었다.(도8, 10) 접시는 구경 11.5~16cm, 높이 2~8cm 정도로 제작되었으며 몇 가지 기형이 확인된다.(도9)

6 리철영, 「과일군 사기리 청자기1호가마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119(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1)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앞의 책(2009), pp. 107~124, 262~267.



도 7. 사기리 1호 가마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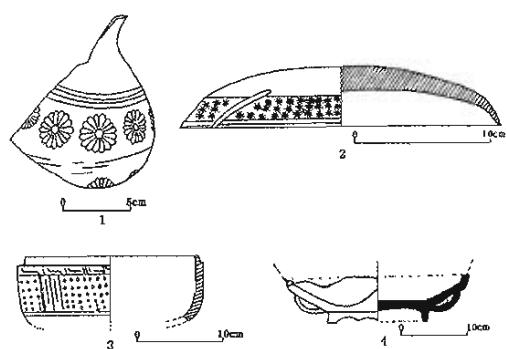


도 8. 사기리 1호 가마 출토 분청자발

도 9. 사기리 1호 가마 출토 분청자접시

문양은 그릇의 내면과 외면에 모두 시문되었다. 접시의 내저면 중앙에 국화문이 배치되고 그 둘레로 연판문, 집원문, 작은 국화문, 기하학문 등이 시문되었다.

출토된 유물의 문양은 주로 인화기법으로 시문되었으며 동체에 가득 차게 문양이 배치되거나 크고 작은 국화문과 파선문, 연판문 등이 문양대를 이루어 차례로 시문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출토유물 중에는 아무런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것도 있다. 포개구이된 그릇들은 대부분 태토빛음이 밭쳐져 변조되었다.



도 10. 사기리 1호 가마 출토 각종 분청자

## 2) 사기리 2호 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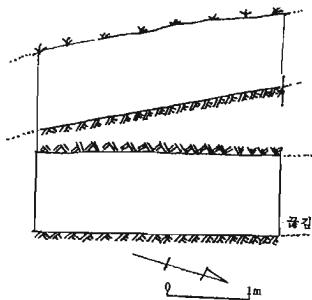
2호 가마는 1호 가마에서 동남쪽으로 약 150m 떨어진 구릉의 동남쪽 사면에 자리한다. 2호 가마의 잔존길이는 약 3m이며 폭은 약 1m로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도11)

2호 가마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분청자이며 발, 잔, 접시 등의 반상기이다. 2호 가마에서 출토된 유물의 문양과 조형 특징은 1호 가마와 유사하다고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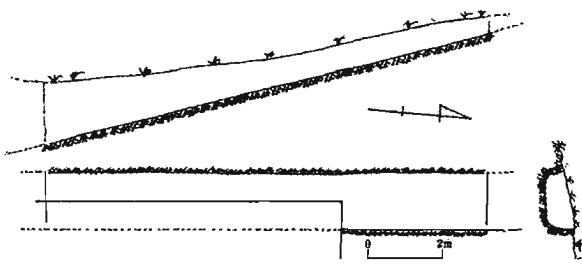
## 3) 사기리 3호 가마

3호 가마는 2호 가마에서 동북쪽으로 약 10m 떨어진 곳에 자리하며 잔존길이 12m, 폭 1.6m, 경사도  $15^{\circ}$ 이다. (도12)

3호 가마에서 출토된 유물 역시 대부분 분청자로 출토된 기종은 발, 잔, 접시 등의 반상기이다. 3호 가마 역시 출토된 유물의 수량이 적고 대부분 작은 파편만 남아있으므로 특별한 양상이 확인 되지는 않는다. 남아있는 유물의 특징을 고려할 때, 출토유물의 문양 및 조형 특징은 1호 가마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도 11. 사기리 2호 가마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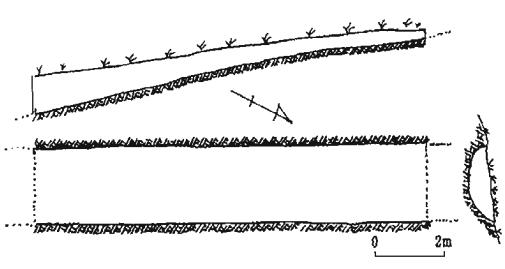


도 12. 사기리 3호 가마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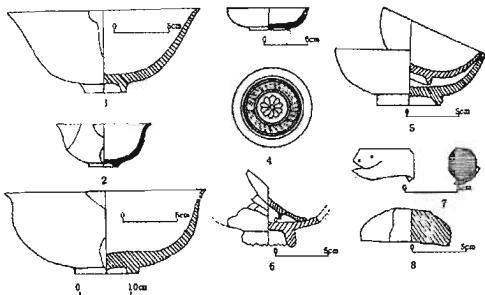
## 4) 사기리 4호 가마

4호 가마는 3호 가마에서 동쪽으로 약 4m 떨어진 곳에 자리하며 가마의 축은 동남-서북 방향이다. 가마의 아궁이와 굴뚝 부분이 유실되어 현재는 번조실이 약 12m 길이로 남아있다. 잔존하는 최대 가마폭은 1.9m이며 경사도는  $15^{\circ}$ 이다. (도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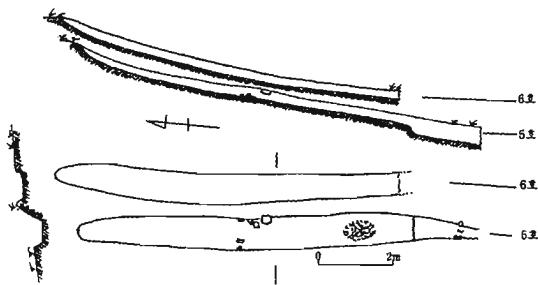
4호 가마에서 출토된 유물 역시 대부분 1호 가마와 유사한 분청자이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인화기법으로 문양이 시문되었다. 기종은 발, 잔, 접시 등의 반상기가 위주이며 향로, 굽이 높은 잔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출토된 발의 경우 구경이 17~19cm, 높이 7.3~8cm, 저경 4~5.5cm 정도이다. 함께 출토된 도침은 원반형이 대부분으로 직경 8.4cm, 두께 3cm 정도이다. 4호 가마에서는 현재길이 5.6cm의 뱀 머리 모양 토우편도 보고되었다. (도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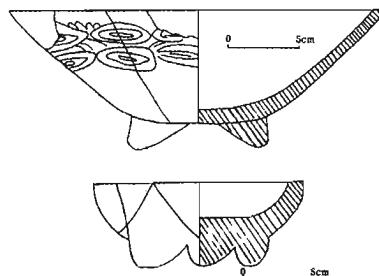
도 13. 사기리 4호 가마 평단면도



도 14. 사기리 4호 가마 출토 각종 분청자



도 15. 사기리 5, 6호 가마 평단면도



도 16. 사기리 5호 가마 출토 제기

### 5) 사기리 5호 가마

5호 가마는 1호 가마와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진 남북방향으로 자리한다. 전체 20.8m 정도가 남아있고 가마의 폭은 1.3~1.8m 정도이다. 가마의 아궁이는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남아있는 세 개의 돌을 통해 대강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번조실의 바닥은 비교적 남아있는 상태가 양호하며 잔존길이 13.8m이고 경사도 15°이다.(도15)

5호 가마의 출토품 역시 1호 가마의 양상과 유사하며, 백상감기법으로 문양이 시문된 제기편이 출토되었다.(도16)

### 6) 사기리 6호 가마

6호 가마는 5호 가마에서 동쪽으로 약 0.8m 정도 사이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바로 자리한다. 잔존길이 18.4m이며 폭이 1.2~1.6m이며 잔존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도 15).

6호 가마에서 출토된 분청자는 대부분 잔편이므로 별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없으나 5호 가마의 생상품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기리 가마터에 자리하는 6기의 가마는 모두 분청자를 제작했다. 확인된 문양은 연화문, 국화문, 집원문 등이며 기종은 대부분 발, 잔, 접시 등의 반상기이다. 발굴자는 사기리 가마터의 운영시기를 고려시대로 구분하였으나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주로 15세기 전반에 제작된 분청자이다.

출토유물 중에 주목되는 것은 제기(祭器)이다. 보고서에 함(盒) 혹은 향로(香爐)로 분류된 제기는 평면형태가 방형과 장타원형으로 각각 보(盞)와 궤(簋)에 해당한다. 5호 가마에서 확인된 제기에는 장타원형의 동심원문이 백상감기법으로 시문되었다. 또한 4호 가마에서는 굽이 높은 잔과 함께 뱀모양[蛇形]의 토우(土偶)가 보고되었다.

사기리 가마터에서 제작된 제기는 풍천군 앞바다의 초도(椒島)나 주을도(注乙島)에 있던 서해신(西海神)의 사당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7</sup> 풍천군이 담당했던 해신제(海神祭)는 중사(中祀)로서 나라에서 향축(香祝)을 내려 제사지냈다.<sup>8</sup> 보고서의 소략한 내용을 통해 사기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제기들의 제작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감기법 위주로 시문된 문양의 특징을 고려할 때 사기리 가마터에서 제작된 제기들은 주로 15세기 전반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료에 등장하는 해신제가 거행되었을 무렵 사기리 가마터의 제기도 만들어졌다. 이무기 형상을 한 뱀모양의 토우 역시 서해 용왕을 위로하는 제사에 신물(神物)로 쓰였을 수 있다.

#### 4. 황해남도 옹진군(甕津郡) 은동리(銀洞里) 가마터

은동리 가마터가 자리한 옹진군은 황해남도 남쪽에 자리하며 북쪽으로 태탄군(苔灘郡), 동쪽은 벽성군(碧城郡)과 강령군(康翎郡)에 접하고, 남쪽 및 서쪽은 황해이다. 옹진군의 대부분 지역은 38도선 이남에 위치한다. 옹진군은 반도지형이며 해안가는 리아스식으로 해안선이 복잡하다. 유적은 현재 해주시(海州市) 소재지로부터 서쪽으로 2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가마터는 수대산(秀垈山, 432m)에서 갈라져 나온 삿갓봉(혹은 사까지봉)의 북쪽에 마련되었다.

은동리 가마터는 1959년에 발굴되었다. 은동리 가마터는 발굴조사 당시 이미 은동저수지에 부분적으로 침수된 상태였다. 유적에는 최소 3기 이상의 가마가 존재했고 2기의 가마가 발굴되었다. 유적에서는 주로 분청자가 출토되었으며 극히 소량의 백자편도 함께 확인되었다.<sup>9</sup>

삿갓봉의 북쪽 능선은 약 70m 사이를 두고 2개의 경사면이 평행하게 연이어지는데 각 경사면에 가마가 한 기씩 자리한다. 이 중 남쪽 경사면에 자리한 가마를 1호, 북쪽 사면에 위치하는 가마를 2호로 명명하였다. 1호 가마는 잔존길이가 55m, 폭이 1.7~1.8m 정도이다. 아궁이는 유실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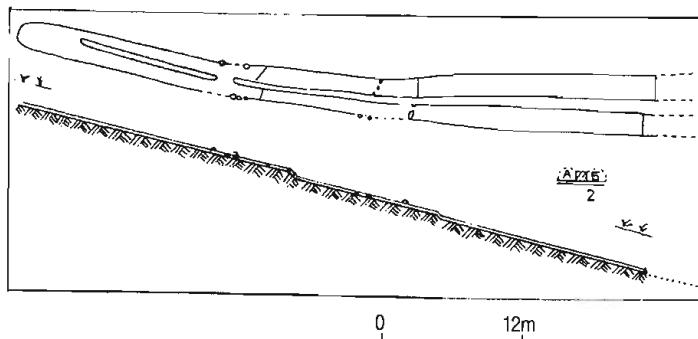
7 「世宗實錄」卷49, 世宗 12年 8月 6日 甲戌, “예조에서 각도산천단묘순심별감(各道山川壇廟巡審別監)이 보고한 조건에 의해서 마련하여 아뢰기를 …(중략)… 풍천군(豐川郡) 초도(椒島) · 주을도(注乙島) 등 여러 섬의 단(壇)은 서해신(西海神)의 사당 북쪽 1백 보(步) 가량 되는 봉우리 위에 단을 쌓고, 단 위에 또 두 개의 단을 쌓았으되 …(중략)… 각 고을에서 변(邊) · 두(豆) · 보(盞) · 궤(簋) · 등(鑑) · 형(鋗) · 준(尊) · 뇌(罍) · 조(俎) · 점(坫) · 작(爵) · 비(篚) 등 제기(祭器)의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봉상사(奉常寺)의 각색(各色) 제기를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이를 본떠 주조(鑄造)해 만들도록 하고, 또 제기를 간직해 두는 창고를 만들어 단지기[壇直]로 하여금 간수하게 하자는 위의 조항은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되, 제기(祭器)의 주조(鑄造)는 우선 자기(磁器)로 구워서 만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8 「世宗實錄」卷152, 地理志 黃海道 豊川郡, “서해신(西海神)은 단(壇)이 군의 서쪽 고립소(古立所) 임해봉(臨海峯) 머리에 있는데, 봄 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제사지낸다. 중사(中祀)이다.”

9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고고학연구실, 「고고학자료집 제3집 : 각지 유적 정리 보고」(1963), pp. 242~246.

었으나 돌로 만들어졌던 흔적만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가마의 양 측벽은 약 0.4~0.5m의 높이로 남아있으며 거의 직각을 이룬다고 보고되었다.

1호 가마는 ‘ㄱ’, ‘ㄴ’ 2기의 가마가 하나의 굴뚝을 공유하는 형태라고 보고되었다. 발굴자는 1호 가마의 평면이 ‘Y’자 형태인 것을 굴뚝부에 해당하는 종단부 약 2.7m 구간에서 ‘ㄱ’, ‘ㄴ’ 가마가 합쳐진 결과로 파악하였다.(도17)



도 17. 은동리 1호 가마 평단면도

이처럼 특이한 가마의 평면 구조는 서로 다른 2기의 가마가 중복된 것을 하나의 가마로 파악했기 때문은 아닐까 추론해 본다. 55m에 달한다고 보고된 1호 가마의 길이 또한 서로 다른 가마의 중복 때문에 빗어진 결과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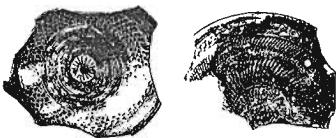
2호 가마의 하단부는 조사 당시 이미 저수지에 의해 침수되었고 상단부는 결실되었다고 한다. 유구의 잔존길이는 14.6m 정도이고 폭은 1.05m이다. 2호 가마는 바닥이 진흙으로 만들어져 소결되었던 정황만 확인되었다고 한다. 1호, 2호 가마 모두 단실요(單室窯)로 별다른 칸막이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은동리 가마터에서는 주로 분청자가 출토되었으며 소량의 백자들이 함께 확인되었다. 북측은 이를 근거로 해당 유적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운영된 것으로 인식했다.<sup>10</sup> 분청자들은 대부분 태토빛음을 받쳐 여러 점이 포개어 번조되었으며 높이 10~12cm, 지름 7~11cm의 원통형 도침이 사용되었다.

출토된 분청자는 주로 발, 접시 등의 반상기이며 소량의 호와 병도 함께 확인되었다. 대부분 인화기법으로 국화문, 승령문, 연판문 등의 문양이 시문되었다. 발과 접시의 내저면 중앙에는 주로 연판문이나 승령문으로 둘러쌓인 국화문이 배치되었다. 그 외곽에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거나 작은 국화문이나 승령문이 빼곡하게 자리한다.(도18) 보고서에는 이러한 문양을 밀화(密花), 밀점(密點) 무늬로 제시했다.<sup>11</sup>

10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고고학연구실, 「고고학자료집 제3집 : 각지 유적 정리 보고」(1963), p. 246.

11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고고학연구실, 위의 책(1963), p.246.



도 18. 은동리 자기가마터 출토 분청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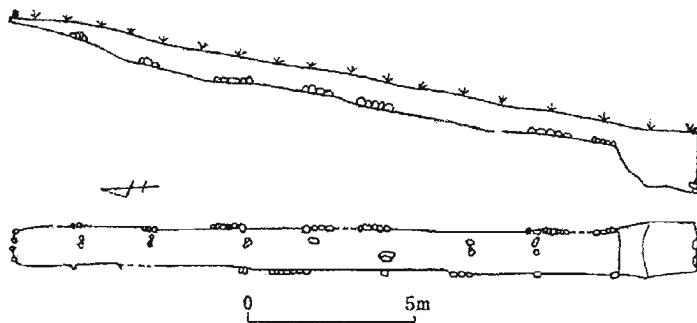
도 19. 은동리 자기가마터 출토 분청자편

그 외에도 내저면 중앙에 아무런 문양을 시문하지 않거나, 온녕군 이정(溫寧君 李稭, 1407~1453)의 묘에서 출토된 분청자접시처럼 내저면 중앙에 와선문(渦線紋)을 시문한 유물도 출토되었다.(도19)

### 5. 황해남도 장연군(長淵郡) 박산리(礴山里) 가마터

박산리 가마터는 황해남도 장연군 박산리에 자리한다. 유적이 속한 장연군은 황해남도 서쪽에 위치하며 북쪽은 과일군과 송화군(松禾郡), 동쪽은 삼천군(三泉郡), 동남쪽은 태탄군이며 남쪽은 룽연군(龍淵郡)과 맞닿아 있다. 장연군의 서쪽은 황해에 접하며 유명한 장산곶(長山串)이 있다. 장산곶은 서해 방향으로 돌출된 반도로 조선시대 이전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이용되던 곳이다. 장연군은 북쪽의 평안도에서 연안항로를 따라 남하한 배들이 한강변의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한다.

박산리 가마터는 1994년 6월 3일부터 15일까지 발굴조사되었다.<sup>12</sup> 가마는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반지하식 오름가마로 구릉의 경사면을 일부 굴착하고 점토와 돌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도 20. 박산리 자기가마터 가마 평단면도

1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앞의 책(2009), pp. 125~131, 268~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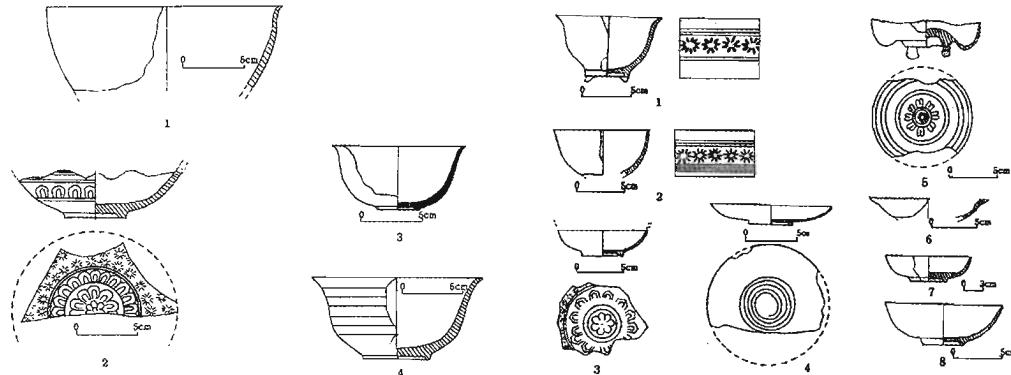
가마의 잔존길이는 20.4m, 폭은 1.12~1.6m이다. 남아있는 아궁이의 입구는 돌로 만들어졌으며 너비 약 25cm, 높이 40cm의 규모로 남아있다. 아궁이의 길이는 약 2.3m이고 최대폭은 1.6m이다. 아궁이의 바닥 경사도는 15° 정도를 이루다가 45°로 급해진 후 높이 0.9m의 불턱을 지나 번조실로 이어진다.(도20)

발굴자는 박산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가마가 칸막이벽(북측 보고서에는 ‘사이벽’으로도 지칭됨)으로 구분되어 총 8개의 실로 구성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돌과 흙으로 만들어졌던 칸막이벽은 대부분 사라지고 두께 12~15cm의 돌로 만들어진 벽의 바닥부분만 남아있다고 보고하였다. 발굴자가 주장하는 각 실은 길이 1.8~2.8m 정도이고 폭은 1.12m로 일정하다. 발굴자는 가마 바닥에 남아있는 몇 개의 돌을 칸막이벽을 쌓아올린 흔적으로 인식하고 해당 유구를 8칸의 가마로 보고한 곳으로 사료된다.

발굴된 가마의 굴뚝은 별도의 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고 번조실 맨 끝부분 벽 하단에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분청자이며 도침도 확인되었다. 분청자는 상감기법으로 문양이 시문된 것과 아무런 문양이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확인된 기종은 대부분 볶, 찬 접시 등의 반상기이다. 출토된 접시와 볶의 굽은 시유되지 않았으며 태토빛음을 반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출토된 분청자발은 구경 18~19cm 정도이며 구연부가 대부분 외반되었다.(도21)



도 21. 박산리 자기가마터 출토 분청자발

도 22. 박산리 자기가마터 출토 분청자잔과 접시

유물에 남아있는 문양은 국화문, 연판문, 여의두문 등이며 주로 인화기법으로 시문되었다. 그릇의 내저면 중앙에 소용돌이 형태의 와선문(渦線紋)이 자리하는 접시편도 출토되었다.(도22) 출토된 분청자의 유색은 대부분 회녹색, 흑회색 등이며 일부 흑갈색의 유약이 시유된 그릇도 함께 출토되었다.

북측은 박산리 가마터의 운영시기를 고려시대로 구분하였으나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주로 15세기에 제작된 분청자이다.

### III. 맷음말

현재 북한은 분청자를 ‘분장자기’라고 부른다. 비슷한 듯 다른 말이다. 20세기에는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으로 제작된 그릇까지 모두 분장자기로 통칭했지만<sup>13</sup> 2000년대에 들어서는 백토로 분장한 그릇만을 분장자기의 범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sup>14</sup>

또한 북한은 발굴조사된 분청자 가마터들 중에 송진자기가마터를 제외한 모든 유적이 고려시대에 운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년관의 차이를 넘어 고려후기 상감청자의 변화 방향과 시점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보고된 대부분의 분청자 가마터는 유물퇴적층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어떠한 시기적 특징이나 지역성을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보고서를 통해 파악한 일부 북한 분청자 가마들은 기초부를 상당부분 돌로 쌓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송진자기가마터와 박산리 자기가마터에서 조사된 가마는 아궁이는 물론 번조실의 측벽까지 큼지막한 돌로 구축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이 지역성인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의 확보를 통해 파악해 볼 부분이다.

남북한 도자사 연구는 인식범위와 방향은 물론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다. 다른 정도를 파악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도록 하려면 우선 서로 알아야 한다. 이번 발표는 북한 분청자 가마터의 존재와 내용을 알아가는 첫걸음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접근으로 한국도자사의 연구영역 확대는 물론 차후 남북 연구 교류를 위한 고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투고일 2018. 11. 12. | 심사개시일 2018. 11. 16. | 게재 확정일 2018. 11. 20 |

13 조대일, 「분장자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역사과학』1(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9).

14 강승태, 「고려자기와 리조자기와의 계승관계」, 『조선고고연구』150(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pp. 29~31.

## 참고문헌

- 강승태, 「화천로동지구 화천 2동(송진동) 자기가마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115,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0.
- \_\_\_\_\_. 「화천2동(꾸박골) 리조자기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2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1.
- \_\_\_\_\_. 「화천2동 2호자기마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13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4.
- \_\_\_\_\_. 「화천2동 1호자기마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13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5.
- \_\_\_\_\_. 「새로 발견된 화천2동 3호자기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4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7.
- \_\_\_\_\_. 「고려자기와 리조자기와의 계승관계」, 『조선고고연구』150,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고고학연구실, 『고고학자료집 제3집 : 각지 유적 정리 보고』, 1963.
- 리철영, 「과일군 사기리 청자기1호가마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119,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1.
- 박정민, 「북한의 磁器가마터 발굴과 연구사 검토」, 『북한의 문화유산 연구』, 양사재, 2013.
- \_\_\_\_\_. 「조선 15세기 황해도(黃海道) 자기소(磁器所)의 등재(登載) 기준과 특징」, 『강좌미술사』49, 2017.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총서 : 고구려와 고려 및 리조 도자기 가마터와 유물」50, 2009.
- 조대일, 「분장자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역사과학』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9.

## 북한지역 분청자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박정민

이 글은 북한지역 분청자 연구의 폭과 인식의 확대를 위해서 북한에서 발굴조사된 분청자 가마터와 출토유물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한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소략한 것이 이 글의 한계이지만 현재 남한에서는 관련 자료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므로 해당분야에 대한 차후 연구를 위해 북측상황을 소개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는 황해도(黃海道), 함길도(咸吉道), 평안도(平安道) 지역에 총 30곳의 자기소(磁器所)가 등재되었다. 당시에 등재된 자기소가 그 정도이니 실제로 운영된 가마의 수는 더욱 많았을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조사된 분청자 가마터는 모두 5개소로 대부분 황해도에 자리한다. 황해북도 평산군(平山郡) 봉천리(鳳川里) 가마터, 황해북도 승호구역(勝湖區域) 화천동(貨泉洞) 송진자기가마터, 황해남도 과일군 사기리(沙器里) 가마터, 황해남도 옹진군(甕津郡) 은동리(銀洞里) 가마터, 황해남도 장연군(長淵郡) 박산리(礮山里) 가마터 등 이상 5개 유적에서는 대부분 선상감기법과 인화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한 조선 15세기 분청자가 출토되었다. 북한은 발굴조사된 분청자 가마터들 중에 분청자와 백자가 함께 출토되는 송진자기가마터를 제외한 모든 유적이 고려시대 운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고된 대부분의 분청자 가마터는 유물퇴적층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어떠한 시기적 특징이나 지역성을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보고서에 제시된 송진자기가마터와 박산리 자기가마터의 가마는 아궁이는 물론 번조실의 측벽까지 큼지막한 돌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이 지역성인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의 확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북한, 분청자, 봉천리 가마터, 송진자기가마터, 사기리 가마터, 은동리 가마터, 박산리 가마터

#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North Korea

Park Jungmin

This writing is what arranged the Buncheong Porcelain(紛青瓷) kiln sites, which were excavated and investigated in North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cavated relics, in order to expand the research scope and the awareness of Buncheong Porcelain(紛青瓷) in North Korea. Because of having been prepared on the basis of the restricted data, the simplicity is the limitation of this writing. But it is not easy now to grasp relevant materials in South Korea, thereby introducing a situation in North Korea for a future research on the corresponding field.

『Sejongsilrok(世宗實錄)』, 「Jiriji(地理志)」 was registered totally 30 ceramic workshop(磁器所)s in Hwanghae-do(黃海道), Hamgil-do(咸吉道), and Pyeongan-do(平安道) areas. Ceramic workshops, which were registered in those days, are about that much. Thus, numbers of kilns, which were actually operated, would be much more.

Buncheong Porcelain(紛青瓷) kiln sites, which were now surveyed in North Korea, are totally 5 sites. Most of them are situated in Hwanghae Province. The kiln site in Bongcheon-ri(鳳川里), Pyeongsan-gun(平山郡) of Hwanghaebuk-do Province, the Songjin ceramic kiln site in Hwacheon-dong(貨泉洞) of Seungho district in Hwanghaebuk-do Province, the kiln site in Sagi-ri(沙器里), Gwail-gun of Hwanghaenam-do Province, the kiln site in Eundong-ri(銀洞里), Ongjin-gun(靈津郡) of Hwanghaenam-do Province, and the kiln site in Baksan-ri(礮山里), Jangyeon-gun(長淵郡) of Hwanghaenam-do Province were excavated the 15th century Buncheong Porcelain(紛青瓷)s in Joseon dynasty, which were engraved a pattern mostly with line base inlay technique(線象嵌技法) and stamp base inlay technique(印畫象嵌技法). North Korea is recognizing that all historic sites were operated in the Goryeo period excluding the Songjin ceramic kiln site, which is excavated the Buncheong Porcelain(紛青瓷) and the white porcelain together, among the Buncheong Porcelain(紛青瓷) kiln sites that were excavated and investigated.

The majority of the Buncheong Porcelain(紛青瓷) kiln sites, which were reported, are not suggested the contents on the relic sediments, thereby being difficult to propose any chronological feature or regionality. Still, the Songjin ceramic kiln site and the Baksan-ri ceramic kiln site, which were submitted to the report, are characterized by what not only furnace but also main body of kiln's side wall were made of a huge stone. There is a need to specifically understand about whether this characteristic is locality through obtaining much more materials down the road.

Keywords : North Korea, Buncheong Porcelain(紛青瓷), Kiln site in Bongcheon-ri(鳳川里), Songjin ceramic kiln site, Kiln site in Sagi-ri(沙器里), Kiln site in Eundong-ri(銀洞里), Kiln site in Baksan-ri(礮山里)

#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발간규정

2018. 1. 26. 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광주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분야)

학술지의 분야는 한국 및 아시아 도자 관련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 제5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 (발행일자 및 횟수)

매년 12월 6일 연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관장, 학예연구실장 및 3인 이상의 학예연구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맡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학술지 발간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사항
  3.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5조 (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 담당 학예연구관 이외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 연구실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외부 편집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부 편집위원은 한국 및 아시아 도자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에 관한 건
  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
  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 ④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⑤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 (심사)

- ① 모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정한다.
- ②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원고심사규정을 따른다.

#### 제7조 (연구윤리)

- ① 투고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성과에 한해 투고
  2. 다른 연구자의 연구 성과 및 아이디어에 대한 명확한 출처 표시
- ② 편집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 원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급
  2.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 준수
  3. 연구윤리상 문제 발생 시 편집위원회에 통보

### 제2장 원고 투고

#### 제8조 (작성 방식 및 투고 기한)

- ① 투고자는 제1호 서식의 '투고신청서' 및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제목, 필자, 본문, 각주,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영문초록은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투고자는 학술지 발행 최소 3개월 전에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게재내용)

- ① 원고는 기획논문, 일반논문 및 자료소개로 구분한다.
- ② 기획논문은 국립광주박물관의 도자 관련 전시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본 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으로 한다.
- ③ 일반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했던 원고 또는 중복되는 내용은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별도의 각주에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자료소개는 국내외에 소개되지 않은 신자료이거나 기존자료에 대한 새로운 조사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 (원고매수)

- ① 기획논문 및 일반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은 사진, 도면, 지도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00매로 한다.
- ② 자료소개는 사진, 도면, 지도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도판(도면, 지도 포함) 10매 내외

#### 제11조 (필자 표기 방법)

- ① 필자명에 현 소속기관 및 직위(급)을 병기한다.
- ② 공동 집필의 경우, 주저자(연구책임자)와 공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 공저자 순으로 표기한다.

#### 제12조 (본문 작성 방식)

- ① 본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외의 자세한 작성 지침은 별표 1의 '원고작성지침'에 따른다.

#### 제13조 (투고자의 권리와 제한)

- ① 투고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다만, 게재된 원고에 한해 정보 제공을 위한 저작물의 활용에 대해서는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② 투고자는 최소한 2회의 교정 기회를 갖는다.
- ③ 접수된 모든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장 원고 심사

#### 제14조 (심사원칙)

감일 이내 접수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친 후 개재 여부를 결정 한다.

#### 제15조 (심사절차)

접수된 논문과 자료소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1.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2. 심사 결과 취합
3. 수정 후 재심사 원고 재심사 의뢰
4. 재심사 판정
5. 개재 여부 결정

#### 제16조 (심사위원)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 당 3인으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 또는 관련 분야 전공 박물관 연구관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원고를 성실히 평가하고 15일 이내에 제2호 서식의 ‘평가결과서’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개재 가능’, ‘수정 후 개재’, ‘수정 후 재심사’, ‘개재 불가’로 판정 한다.

#### 제17조 (심사기준)

- ① 투고 원고의 심사는 연구 방법의 적합성, 자료 분석의 적절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연구 주제의 독창성, 학술적 가치 및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엄격히 심사한 후 다음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1. 개재 가능 : 원고의 수정 없이 그대로 개재할 수 있는 경우
  2. 수정 후 개재 : 수정 사항이 경미한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 중요한 내용 또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개재 불가 : 원고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재가 부적절한 경우
- ③ ‘수정 후 개재’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원고 필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 ④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동일한 심사위원이 수정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하여, ‘개재 가능’ 또는 ‘개재 불가’로 판정한다. 다만, 재심사 수락 여부를 원고 필자에게 확인하여 수락할 경우에만 재심사 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2의 ‘심사판정표’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한다.

#### 제18조 (이의 제기)

- ① 심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이의 내용을 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 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고작성지침(제12조 관련)

구분	작성 방식	
장절 표기	I → 1 → 1) → (1)	
본문 형식	휴면명조, 11pt, 160%	
각주 형식	휴면명조, 9.pt, 130%	
인용문	사료(자료)는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하며, 출전은 각주로 처리	
주석	저서	홍길동, 「아시아 도자」(광주: 국립광주박물관, 2018), pp. 1~3.
	논문	홍길동, 「한국 초기청자 연구」,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 1(국립광주박물관, 2018), pp. 22~25.
	재인용	홍길동, 앞의 논문(2018), p. 26.
	사서	『世宗實錄』卷9, 世宗 6年 5月 庚子, “원문”
도판	원칙	사진, 도면, 지도는 모두 ‘도’로 통일한다.
	형식	600dpi 크기의 JPEG 파일 형태
	설명	도의 번호, 제목, 작가, 연도, 재질, 크기, 소장처, 소장번호 순으로 기재 다만, ‘도’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세부 항목 생략 가능
	출처 표시	개인이 촬영하지 않은 사진의 경우, 필수적으로 출처 표기
초록		국문 및 영문초록은 A4용지 2매 이내로 제한하며, 각각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초록 말미에 기재하여야 함

[별표 2]

## 심사판정표(제16조 관련)

구분	최초 심사 판정	재심사 판정	최종 판정
논문	AAA		A
	AAB	A	A
		C	편집위원회 결정
	AAC	C	편집위원회 결정
	ABB	AA	A
		AC	편집위원회 결정
		CC	C
	ABC	A	편집위원회 결정
		C	C
	BBB	AAA	A
		AAC	편집위원회 결정
		ACC	C
		CCC	C
	BBC	AA	편집위원회 결정
		AC	C
		CC	C
	ACC		C
	BCC		C
	CCC		C
자료소개	AA		A
	AB	A	A
		C	편집위원회 결정
	BB	AA	A
		AC	편집위원회 결정
	BC		C
	CC		C
비고			
1. 위 표에서 'A'는 '제재 가능 또는 수정 후 제재'를, 'B'는 '수정 후 재심사를', 'C'는 '제재 불가'를 의미한다.			



편집위원

박경도 \_ 국립광주박물관/위원장

진정환 \_ 국립광주박물관

박경자 \_ 문화재청

이종민 \_ 충북대학교

이희관 \_ 전호림박물관

장기훈 \_ 경기도자박물관

한성숙 \_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편집실무

김영희 \_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JOURNAL OF ASIAN CERAMICS AND CULTURE

발행처 국립광주박물관

발행일 2018. 12. 06.

61066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Tel. 062-570-7034 Fax 062-570-7066

110 Haseo-ro, Buk-gu, Gwangju, 61066, Korea  
<http://gwangju.museum.go.kr>

창간호

2018

ISSN 2635-8891



# Journal of Asian Ceramics and Culture

---

VOL. 1  
2018

## Articles

Development of Buncheong Decoration Techniques and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Park Kyungja	007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the Central Region	Shim Jiyeon	025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Chungcheong-do Province	Park Hyeongsoon	063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Jeolla-do Province	Kwon Sohyun	091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Gyeongsang-do Province	Seong Hyeonju	125
Surve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Kiln Sites in North Korea	Park Jungmin	189
Publishing Regulations		207